

2007년 제2권 제4호

- I. 2008년 국내산업 전망 개관
- II. 전기·전자 산업군
- III. 기계 산업군
- IV. 소재 산업군
- V. 내수유통산업군
- VI. 통신·방송서비스산업군
- VII. 2008년 주요 산업 테마
- VIII. 2008년 산업별 주요 이슈

<산업총괄>

연구위원 강문성/도철환

<전자·전기산업군>

수석연구원 최승훈

연구원 윤일재

<기계산업군>

연구위원 정귀수

연구원 김현/김영삼

<소재산업군>

연구위원 정귀수

수석연구원 이인혁

연구원 안혜영

<내수·유통산업군>

연구위원 정귀수

연구원 김영삼/박선현/안혜영

노희순

<통신·방송서비스산업군>

수석연구원 김남훈

연구원 윤일재

<영문편집>

수석연구원 Warren Park

연구원 김보람

목 차

<요 약>

I. 2008년 국내산업 전망 개관

II. 전기·전자산업군

1. 반도체	27
2. 디스플레이	30
3. 전자부품·재료	33
4. 이동통신단말기	37
5. 전선	39

III. 기계산업군

1. 자동차	49
2. 자동차부품	53
3. 일반기계	56
4. 조선	60

IV. 소재산업군

1. 철강	72
2. 비철금속	77

3. 정유	81
4. 석유화학	85
5. 화학섬유	89

V. 내수·유통산업군

1. 해운	100
2. 항공	103
3. 소매유통	107
4. 의류	110
5. 제분·제당	113
6. 제약	117
7. 제지	121
8. 건설	125

VI. 통신·방송서비스산업군

1. 통신서비스	137
2. 케이블TV	140
3. 인터넷포털	144
4. SW 및 IT서비스	148

VII. 2008년 주요 산업 테마

1. 제조업 설비투자, 회복될 것인가	155
2. 남북 경험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내 산업의 영향	160
3. 2008년 국내 IT산업의 경기와 품목별 경쟁력 전망	167

4. 고유가시대의 뉴 비즈니스, 태양광에너지	172
5.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기업 경쟁 원천의 변화 전망	178
6. 국제유가, 고공행진의 종착점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183

VIII. 2008년 산업별 주요 이슈

1. 2008년 세계개편에 따른 제 3자 물류시장의 변화	193
2. 유통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차세대 기대주, 친환경전문점	197
3.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 철강시장	199
4. MVNO 제도 도입 및 요금인하에 따른 영향	202
5. 국내 조선산업의 투자 리스크 분석	205

< 표 목차 >

<표 1> 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 종합	5
<표 2> 환율변동과 국내 수출증감률, 이익률 추이 비교	6
<표 3> 2008년 주요 산업별 성장률 비교	9
<표 4> 2008 산업별 경기전망	10
<표 5> External and Internal Economic Conditions in 2008	14
<표 6> Changes in Won/Dollar Rate, Export Growth and Profit Margins	15
<표 7> Major Industry Growth Projections for 2008	17
<표 8> Industry Forecast 2008	18
<표 9> 반도체 수급 전망	27
<표 10> 디스플레이 수급 전망	30
<표 11> PCB 전망	33
<표 12> 이동통신단말기 수급전망	36
<표 13> 전선 수급 전망	39
<표 14> 2008년 산업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41
<표 15> 자동차 수급 전망	49
<표 16> 2007년 1~9월 국내 자동차업체별 생산 동향	50
<표 17> 자동차부품 매출 성장세 전망	53
<표 18> 일반기계 생산능력지수 성장세 전망	56
<표 19> 조선 수급 전망	60
<표 20> 2008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64
<표 21> 철강 수급 전망	72
<표 22> 비철금속 수급 전망	77
<표 23> 정유 수급 전망	81
<표 24> 석유화학 제품 수급 전망	85
<표 25> 주요 석유화학 업체의 2007년 추정 실적	87
<표 26> 화학섬유 수급 전망	89

<표 27>	2008년 산업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92
<표 28>	해운 매출 성장세 전망	100
<표 29>	항공 매출 성장세 전망	103
<표 30>	소매유통 판매액지수 성장세 전망	107
<표 31>	의류 생산/출하지수 증가세 전망	110
<표 32>	제분·제당 수급 전망	113
<표 33>	제약 매출 성장세 전망	117
<표 34>	제지 수급 전망	121
<표 35>	건설 수급 전망	125
<표 36>	2008년 산업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130
<표 37>	통신서비스 매출 성장세 전망	137
<표 38>	케이블TV 매출 성장세 전망	140
<표 39>	인터넷포털 매출 성장세 전망	144
<표 40>	IT서비스 매출 성장세 전망	148
<표 41>	2008년 산업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152
<표 42>	남북 경제협력 투자 비용 추계	162
<표 43>	남북한 교류 품목 및 경험 현황	165
<표 44>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패턴의 변화 전망	166
<표 45>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전망	173
<표 46>	국내 태양광 기술 발전 로드맵	175
<표 47>	가격과 품질보다는 제품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로 변화	178
<표 48>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기업 경쟁력의 원천도 변화	181
<표 49>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별 과급효과	190
<표 50>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93
<표 51>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	194
<표 52>	종합물류인증 기업	196
<표 53>	주요 친환경전문업체 현황	198
<표 54>	세계 시장 내 MVNO 진입 효과	202
<표 55>	SK텔레콤 요금 인하 내용	204

< 그림 목차 >

<그림 1> 국내 제조업 산업생산지수와 가동률지수 증감률 추이(YoY)	3
<그림 2> 국내 수출주력산업의 2007년 성장률 비교	4
<그림 3> 서브프라임 부실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흐름도	7
<그림 4> 국내 주요산업의 2008년 성장폭 비교	8
<그림 5> Export Growth in Korea's Major Export Industries in 2007	13
<그림 6> 반도체 재고순환	24
<그림 7> 이동통신단말기 재고순환	24
<그림 8> Semiconductor Inventory Cycle	26
<그림 9> Mobile Handset Inventory Cycle	26
<그림 10> 국내 반도체 출하 동향	28
<그림 11> DRAM, NAND Flash 수급 전망	29
<그림 12> 전세계 TFT-LCD 패널 출하량	31
<그림 13> LCD 패널 수급 전망	32
<그림 14> PCB 출하 동향	34
<그림 15> 주요 PCB 업체 합산 실적 동향	35
<그림 16> 이동통신단말기 생산량 추이	36
<그림 17> 내수량 및 증감률 추이	36
<그림 18> 이동통신단말기 수출비중 추이	37
<그림 19> 주요 수출국 및 수출 비중	37
<그림 20> 업체 별 이동통신 단말기 ASP	38
<그림 21> 각사의 휴대폰 부문 영업이익률	38
<그림 22> 전선 품목별 생산량 추이	40
<그림 23> 합산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40
<그림 24> BRICs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 추이	46
<그림 25> 일반기계 재고순환	46
<그림 26> Auto Sales Growth in BRICs	48

<그림 27>	Machinery Inventory Cycle	48
<그림 28>	완성차 2사(현대차, 기아차)의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51
<그림 29>	자동차부품업체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54
<그림 30>	기계 업종별 생산능력지수 추이	56
<그림 31>	일반기계 출하/재고 순환	56
<그림 32>	국내 가공공작기계업체 경영실적 추이	57
<그림 33>	세계 건설기계업체, 국내업체 매출추이	57
<그림 34>	설비투자, 기계생산지수 추이 및 전망	58
<그림 35>	실질설비투자액 증감 추이 및 전망	58
<그림 36>	세계 및 미국건설기계시장 성장률 추이	59
<그림 37>	국내업체 해외플랜트 수주량 추이 전망	59
<그림 38>	국내 조선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61
<그림 39>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추이 및 전망	62
<그림 40>	주요 선종별 신규계약량 추이 및 전망	62
<그림 41>	한국 조선산업 수주량, 건조량 및 수주잔량 추이 및 전망	63
<그림 42>	철강업종 재고조정압력	68
<그림 43>	석유화학업종 재고조정압력	68
<그림 44>	Steel Inventory Cycle	71
<그림 45>	Petrochemical Inventory Cycle	71
<그림 46>	철강업종 재고출하순환관계	73
<그림 47>	국제 열연강판가격 추이	74
<그림 48>	중국 철강유통가격 추이	74
<그림 49>	미국시장의 수급안정 전망	75
<그림 50>	주요 철강업종의 OP Margin 추이 및 전망	76
<그림 51>	비철금속가격 동향	78
<그림 52>	신동제품의 롤마진 추이	79
<그림 53>	니켈가격과 스테인리스제품가격 추이	79
<그림 54>	중국의 주요 비철금속 수입량 추이	80
<그림 55>	주요 비철금속 제련업체와 압연업체의 OP Margin 추이 및 전망	80

<그림 56>	국내 주요 석유제품별 소비 추이	82
<그림 57>	국내 석유제품의 단순 가격 스프레드 추이	83
<그림 58>	국내 석유제품의 내수 및 수출 동향과 가동률 추이	84
<그림 59>	기초유분의 수급 동향	86
<그림 60>	합성수지의 수급 동향	86
<그림 61>	에틸렌 가격 스프레드 추이	86
<그림 62>	합성수지의 가격 스프레드 추이	86
<그림 63>	중동지역 에틸렌 신증설 추이	88
<그림 64>	화학섬유 수급동향	90
<그림 65>	주요 화섬원료의 가격 동향	91
<그림 66>	주요 화섬제품의 가격 동향	91
<그림 67>	소비자 기대지수(소비지출) 및 종합소매업 활동지수 전망	96
<그림 68>	Consumer Expectation Index and Total Retail Activity Index	99
<그림 69>	해상 운임지수 변동추이	101
<그림 70>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101
<그림 71>	대미환율과 병커C유의 가격 추이	102
<그림 72>	주요 해운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102
<그림 73>	국제선 여객 및 화물수송 추이	103
<그림 74>	국내선 여객 및 화물수송 추이	103
<그림 75>	정기항공사 영업실적	104
<그림 76>	대미환율과 유가(두바이) 추이	104
<그림 77>	정기항공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전망	106
<그림 78>	주요 종합소매 업체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107
<그림 79>	주요 유통업체 영업실적 추이	108
<그림 80>	주요 무점포소매업 영업실적 추이	108
<그림 81>	소비지출 기대 지수 추세	109
<그림 82>	국내 의류 생산·출하·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110
<그림 83>	백화점 의류 매출액 증감률 추이	111
<그림 84>	할인점 의류 매출액 증감률 추이	111

<그림 85>	주요 의류 업체의 매출액 추이 및 전망	112
<그림 86>	밀가루 출하/재고량 증감 추이	113
<그림 87>	설탕 출하/재고량 증감 추이	113
<그림 88>	밀가루/설탕 생산자가격지수 변동추이	114
<그림 89>	대표업체의 영업이익률	114
<그림 90>	밀가루/설탕의 출하추이 전망	116
<그림 91>	원재료가격 추이	116
<그림 92>	원외처방의약품 매출액 및 증감률 전망	118
<그림 93>	국내 상장 34개사의 매출액 전망	119
<그림 9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 추이	120
<그림 95>	제지류 생산, 내수, 수출 추이	121
<그림 96>	제지별 내수 추이	122
<그림 97>	제지별 수출 추이	122
<그림 98>	국제펄프가격의 변동추이	123
<그림 99>	국제 펄프, 폐지 가격 추이	123
<그림 100>	2008년 국내 제지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전망	124
<그림 101>	건설기성 월별 추이	126
<그림 102>	미분양 추이	126
<그림 103>	건설수주 분기별 전망	128
<그림 104>	건설기성 분기별 전망	128
<그림 105>	주요업체의 영업이익률	129
<그림 106>	건설업의 채산성 추이	129
<그림 107>	CATV서비스(경상)지수 추이	134
<그림 108>	통신서비스 매출액 추이	134
<그림 109>	CATV Service Index	136
<그림 110>	Revenues of telco services	136
<그림 111>	유선 시장 규모 추이	138
<그림 112>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구도	138
<그림 113>	유선통신 각 사별 수익성 추이	138

<그림 114>	이동통신 각 사별 수익성 추이	138
<그림 115>	시청률 추이	140
<그림 116>	CATV 시청점유율 추이	140
<그림 117>	케이블 사업자 매출액 증감률 및 영업이익률 추이	141
<그림 118>	SO 및 PP 매출액 및 증감률 추이	143
<그림 119>	소비자 전망 및 사이버 거래액 추이	145
<그림 120>	주요 인터넷포털의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률 추이	146
<그림 121>	IT설비투자 및 SI업체 매출액 증감률	149
<그림 122>	IT서비스 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150
<그림 123>	SI(시스템통합)·SM(시스템 유지보수) 매출액 추이	151
<그림 124>	실질GDP와 설비투자 증감률	156
<그림 125>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 추이	156
<그림 126>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설비투자	157
<그림 127>	설비투자조정압력과 제조업기계수주 등 추이	157
<그림 128>	IT업종의 설비투자 및 비중 추이	158
<그림 129>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158
<그림 130>	산업별 설비투자조정압력 비교(2007년8월기준)	159
<그림 13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지수	167
<그림 1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생산지수와 OECD 경기선행지수	168
<그림 133>	DRAM 시장 점유율 전망	169
<그림 134>	NAND Flash 시장 점유율 전망	169
<그림 135>	2005년 LCD 패널 시장 점유율	170
<그림 136>	2008년 LCD 패널 시장 점유율 전망	170
<그림 137>	휴대폰 시장 점유율 동향	171
<그림 138>	신재생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비교	174
<그림 139>	태양전지 요소별 국내 기술 수준	175
<그림 140>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 전망	176
<그림 141>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계획	176
<그림 142>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 전망	176

<그림 143>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방향	182
<그림 144>	두바이유가와 세계경제 성장률 및 원유소비 증가율 추이	183
<그림 145>	두바이유가의 명목 및 실질 유가 추이	185
<그림 146>	주요 산업의 원유 의존도	187
<그림 147>	유가 평균 80달러, 100달러 시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율	188
<그림 148>	국내 업체들의 제3자물류 이용 비율	194
<그림 149>	기업들이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분야	194
<그림 150>	국가별 1인당 철강소비량 비교	199
<그림 151>	중동과 BRICs의 조강생산증감률 추이	200
<그림 152>	국내 철강업계의 형강수출량 및 수출단가 추이	201
<그림 153>	MVNO 서비스 개념도	203
<그림 154>	조선용 후판가격 추이	206
<그림 155>	조선용 후판 국내 수요, 공급 전망	206

요 약

I. 2008년 국내산업 전망 개관

- 2007년 국내 산업경기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선진국 경기의 불안 등 대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을 보였음. 특히 대외여건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수출이 여전히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기반해서 산업생산과 제조업 가동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와같은 안정성장의 배경에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개도국의 고성장과 오일머니로 인한 중동지역의 투자수요가 활발했기 때문임. 특히 이들 지역의 고성장은 국내산업의 주력을 기존의 IT부문에서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과거 전통산업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 2008년의 대내외여건을 평가하면, 민간소비의 회복을 바탕으로한 내수경기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계경기는 Euro지역의 성장둔화로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하락은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여전히 세계경제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 대미달러환율 변동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민감도는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에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수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이러한 대내외여건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은 2008년에도 대부분 양호한 성장을 예상. 수출이 환율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안정성장을 유지하고, 내수 기반산업도 소비심리 회복에 기인해 양호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2008년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IT산업이 과거의 고성장은 아니지만, 일단 부진 탈출의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 2007년에 성장을 주도했던 소재장치산업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성장 동력을 상실하지는 않을 전망

II. 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이통단말기)

- 중국과 인도 등 고성장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High-end 휴대폰, 평판 디스플레이 TV 등 고가 제품들의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국내 IT 산업의 외형 성장 추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환율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은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국내 IT 산업의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 또한 선발 업체들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이 지속될 전망. 결국 주요 전자부품의 가격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

■ **반도체** 2007년 외형 성장이 부진하였으며 원화 강세와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됨. 2008년 공급 과잉이 소폭 해소되나 제한적인 수익성 개선에 그칠 전망

- **2007년 동향** 국내 반도체 생산액은 원화 강세,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인해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 DRAM, NAND Flash 모두 과잉 설비 투자로 인해 공급 과잉이 심화되며 가격이 급락. 결국 국내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10%p 정도 하락한 15% 수준
- **2008년 전망** 중국, 인도 등의 IT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외형 성장이 가능할 전망. 설비 투자가 소폭 감소하며 DRAM, NAND Flash 공급초과율이 전년대비 각각 1%p 하락할 전망. 그러나 개선폭이 작고 원화 강세로 인해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

■ **디스플레이** 2007년 공급 과잉이 해소되며 TFT-LCD 패널의 수익성 개선. 2008년 견조한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가 재개되며 공급 과잉이 지속되어 수익성이 전년 수준에 머물 전망

- **2007년 동향**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이전이 지속되며 국내 FPD TV 생산 대수는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 LCD 패널은 설비 투자가 급감하며 공급 과잉이 해소되어 수익성 개선. 그러나 PDP 패널의 수익성 개선은 어려운 상황
- **2008년 전망** 북경 올림픽으로 인해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 그러나 지연되었던 설비 투자가 재개되며 전년 수준의 공급초과율이 유지되어 수익성 또한 전년 수준에 머물 전망

- **전자부품, 재료** 2007년 전방 산업의 성장세 둔화, 범용 제품의 해외 생산으로 PCB 산업의 외형 감소. 2008년 외형 성장 추세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R&D 능력에 따른 업체별 수익성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

 - **2007년 동향** 주요 전방 산업인 휴대폰의 성장이 정체되고, 범용 제품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으로 국내 PCB 생산, 출하액이 전년대비 4% 정도 감소. 단가 인하 압력 또한 높아지며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반면 300mm 웨이퍼 관련 실리콘 웨이퍼, 포토마스크, 퀴즈 업체들의 성장성, 수익성은 양호
 - **2008년 전망** 디지털 가전 등 전방 산업의 성장으로 PCB 외형 성장이 가능하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으로 성장률은 2% 수준에 그칠 전망. 공급 과잉인 휴대폰용 PCB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 반면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반도체용 PCB, 300mm 웨이퍼 관련 업체들의 고수익성이 유지될 전망

- **이동통신단말기**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량의 감소 지속. 업체별 차별화된 제품전략으로 인해 상이한 영업이익률을 기록. 2008년에는 고가폰 교체수요 증가로 인해 판매량은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수익성은 전년수준을 유지할 듯

 - **2007년 동향**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 및 출하량은 급감 추세. 삼성은 개도국 중심의 저가폰 위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LG는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폰 판매에 집중. 이로 인해 2006년 4분기 이후 LG의 ASP가 삼성 ASP를 지속적으로 상회 중
 - **2008년 전망** 개도국 신규 수요가 포화에 이르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고가폰 교체 수요가 본격화될 전망.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 역시 하반기 이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전선** 2007년 일반전선 생산량은 하락하였으나, 전력선 수요에 힘입어 견조한 수준 유지. 지속적인 전기동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은 악화. 2008년에는 수익성 높은 초고압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 증가에 힘입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전망

- **2007년 동향** 송배전망 투자 지출 및 FTTH 서비스에 힘입어 전력선 및 광케이블 수요 증가. 그러나 동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
- **2008년 전망** 수익성 높은 광케이블 및 전력선의 수요 강세가 이어질 듯. 이로 인해 하반기에는 4%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도 가능할 듯

III. 기계산업군(자동차/기계/조선)

- BRICs를 중심으로한 소형차 판매 증가로 세계 자동차 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국내 자동차업체는 해외 현지화모델 출시와 공장가동률 상승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주력할 전망
 - 내수의 점진적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대형차 중심의 판매전략으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며, 부품업체도 단가인하압력 완화로 수익성 소폭 개선 전망
 - 조선산업 호황에 따른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폭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설비투자 증가 및 수출증가에 따른 일반기계의 외형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자동차** 2007년 수출과 내수 모두 6% 이상의 안정 성장 유지. 특히 2/4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업황이 개선. 2008년 국내소비심리의 회복으로 국내 자동차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질평가 개선으로 해외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동향** 2/4분기부터 내수에서의 판촉강화와 내수경기의 회복으로 자동차 내수 판매 개선. 동유럽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수요 확대로 수출증가. 가동률 상승으로 수익성도 전년대비 1%p 이상 개선된 3.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 **2008년 전망** 차량의 교체주기가 6~7년인 것을 감안할 때 교체수요가 경기회복과 맞물려 2008년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지역에 현지화모델의 투입으로 해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내완성차 업체들이 마진율이 높은 대형차를 중심으로 판매를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확대될 전망
- **자동차부품** 신차 출시 효과 지속, 차량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완성차

출하 증가가 부품 업체의 외형 성장을 유도할 듯. 부품 직수출 확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단가 인하 압력의 완화로 수익성 개선도 기대

- **2007년 동향** 신차 출시에 따른 내수 판매 10% 이상 증가, 완성차 수출 9% 회복, OEM 매출 증가 및 부품 직수출 증가 등으로 부품 생산액이 전년대비 13.5% 증가. 그러나 원가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 부품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영업 이익률은 전년대비 1.6%p 하락한 5.0% 수준 기록
- **2008년 전망** 견조한 민간소비 증가로 신차 출시 효과 및 차량 교체 수요 증가가 지속되며, 해외 OEM 매출 증가, 직수출 등으로 외형 성장세가 더 높아질 듯. A/S용 부품 매출 증가, 단가 인하 압력 및 신규 투자 부담 완화, 생산성 향상 등으로 영업이익률 5.6% 기대

■ **일반기계** 중동의 플랜트 수요 급증과 중국의 SOC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 기계 시장의 호황으로 전년대비 21.7%의 수출 성장을 보임. 2008년은 플랜트, 건설기계 및 가공공작기계의 수출 확대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2007년 동향** 플랜트, 건설기계의 수출 호조로 공작기계 및 건설기계 업체들의 매출은 20% 증가하였으며, 업계 평균 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됨
- **2008년 전망** 기계류 설비투자의 증가세와 수출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전반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플랜트, 건설기계 및 가공공작기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업체들의 수익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나, 냉동공조 및 섬유기계업체의 경우 경쟁심화로 인해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전망

■ **조선** 2007년은 벌크선이 초호황세를 주도하며 컨테이너선 및 탱커의 회복세를 이끔. 2008년은 컨테이너선과 탱커가 신조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며 고부가 선종의 선별수주를 통한 주요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폭이 확대될 전망

- **2007년 동향** 벌크 화물운임이 연초대비 116.4% 급등하면서 신조시장 호황을 이끌며, 공급여유가 부족해진 컨테이너 및 탱커시장의 회복세를 가져옴. 2005년 이후의 고가수주분이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며 대형업체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됨

- **2008년 전망** 운임이 상승한 컨테이너선과 탱커 중심의 신규발주가 지속되어 신조 시장을 주도할 전망. 발주가 지연된 LNG선과 해양설비의 수주 확대로 대형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 조선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후판수요가 급증하여 구매력이 취약한 중소형 및 신생업체들의 후판조달이 수익 확보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IV. 소재산업군

- 중국의 부상과 함께 촉발된 석유, 철강 등 각종 원자재의 ‘글로벌 수급불균형’이 가격 급등과 수출 증가로 이어져 소재산업군의 호황을 이끌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은 2008년에도 계속될 전망. 화섬업이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로 수급이 악화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철강업종과 정유업종은 이머징마켓의 수요증가폭이 공급능력증가폭을 압도하며 수급불균형 지속으로 호경기가 지속. 석유화학산업도 중국의 수요호조로 5% 이상의 수출증가가 전망
 - 철강업종은 각국의 감산전략과 재고조정효과로 철강수급이 개선되면서 철강가격 상승으로 고수익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정유산업 역시 가동률 상승과 정제마진의 확대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반면, 석유화학과 비철금속 압연압출업은 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료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임. 화학섬유업은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별업체들이 사업다각화와 고부가품목 위주의 제품 믹스 구축으로 실적 개선을 도모할 듯
- **철강** 글로벌 수급불균형으로 철강가격이 약세를 보인 2007년과는 달리 2008년에는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감산과 재고조정으로 세계철강수급이 개선되면서 철강가격도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설 전망
- **2007년 동향** 출하와 재고가 모두 증가하면서 국내 철강경기는 확장국면을 지나고 있음. 국제철강가격은 중국산 잉여철강재의 수출량 증가가 수급불균형을 유발해 약세를 보였으나 4/4분기부터 반등할 전망. 국내철강업계는 대체로 경기호황국면을 향유하며 수익성이 개선됨
 - **2008년 전망** 중국의 수출억제책 및 각국 철강업계의 감산과 재고조정으로 세계철강

수급은 안정화될 전망이나 과잉공급의 불씨를 안고 있는 상황. 국내 철강경기는 경기 사이클상 상반기 중에 짧은 침체기를 지나 회복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철강 가격 상승으로 국내철강업체도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할 수 있을 전망

■ **비철금속** 달러약세와 원자재 공급부족을 반영하여 비철금속가격은 강세 기조 지속 전망. 제련업체가 고수익성을 향유하고 압연압출업체는 저수익 구조가 이어지는 수익성의 양극화 추세가 2008년에도 이어질 전망

- **2007년 동향** 비철금속가격은 니켈이 50% 폭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낮은 채고와 중국의 수입 수요 등 펀더멘털은 대체로 견고. 국내 비철금속업체는 제련업체가 고수익성을 누리고 압연압출업체는 마진스퀴즈에 시달리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음
- **2008년 전망** 중국과 중동, 러시아 등 이머징마켓의 강한 수요와 달러약세,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등을 바탕으로 비철금속가격의 강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 다만 경계심리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 비철금속업체의 수익성은 전년도의 추세가 지속될 듯

■ **정유** 내수 회복 추세가 2008년에도 이어지고, 수출도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됨. 가동률 상승과 정제마진 확대로 수익성 향상이 지속될 듯

- **2007년 동향** 수요 산업의 경기 호조로 내수가 전년대비 4.3% 증가하여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 수출량은 9.0% 증가에 그쳤으나 타이트한 수급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님. 가동률 상승과 정제마진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1.7~1.8%p 상승
- **2008년 전망** 견조한 경제 성장으로 내수가 4.2%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수출은 중국의 수입 수요 둔화, 내수 판매 집중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할 것으로 기대. 고도화 비율 상승, 타이트한 수급에 따른 정제마진 확대, 높은 가동률 수준 유지 등으로 수익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 2007년은 내수, 수출 모두 전년대비 회복세를 나타냄. 2008년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 수요는 정체되나, 중국의 수요 호조로 5%이상의

수출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생산은 3% 증가할 전망

- **2007년 동향**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량은 국내 수요 포화로 저성장에 그쳤으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주요 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수출은 부진했던 중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9.6%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08년 전망**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량 증가 폭은 미미할 전망이다, 제품가격인상에 따른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 반면 수출은 중국의 수요 호조는 지속되나, 자급률 상승으로 인한 수출 둔화로 전년대비 5% 성장에 그칠 전망
- **화학섬유** 2007년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에 따라 수급 악화가 지속됨. 2008년에도 수급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업체들의 고수익 제품 판매비중의 확대가 예상되어, 주요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됨
- **2007년 동향** 원료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화섬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가격 스프레드는 확대됨. 그러나 수요산업인 의류산업의 저성장에 따른 내수 정체와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로 수익성 개선 폭은 크지 않음
 - **2008년 전망** 내수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며, 수출비중이 큰 중국의 공급능력은 더욱 증가하여 수급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 다만 업체들의 산업용 섬유 및 고수익 제품의 판매비중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됨

V. 내수 유통산업군

-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증가가 2008년 내수·유통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민간소비는 2007년초부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소비심리의 개선은 소매유통, 의류, 제약, 제지, 제분·제당 등 최종 소비재 산업의 실적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임. 해운·항운 등 운송산업의 경우도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관광 증대 및 수출입 화물의 증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국내건설업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지연으로 시장의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한 중동, 신흥시장 등 해외건설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2008년 하반기 이후 대형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건설업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해운** 2007년 건화물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상승되어 1/4분기를 저점으로 국내 해운선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회복추세로 반전. 2008년에는 그동안 회복세가 낮았던 컨테이너 및 유조선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국내 해운선사들의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폭은 확대될 전망
 - **2007년 동향** 건화물 운임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컨테이너 운임 또한 소폭 상승. 환율의 하락 및 유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해운선사들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2007년 전반에 걸쳐 회복
 - **2008년 전망** 중국을 기중점으로 한 물동량의 증가로 해상운임의 상승세는 2008년에도 지속되며, 특히 컨테이너 및 유조선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됨. 국제 유가의 강세에 따른 원가부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국내 해운선사들의 매출액은 1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7%에 달할 전망

- **항운** 2007년 원화강세의 지속,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제여행객이 전년 대비 15% 증가. 수출입 화물의 고급화 및 경량화에 따른 국제화물 수송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항공업계 매출액이 8% 이상 증가. 항공수요의 증가세는 2008년에도 이어져 항공운송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2007년 동향**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수요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KTX 개통 이후 감소하였던 국내 여객도 관광수요의 증가로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항공운송수요의 증가세 지속으로 항공요금이 상승하여 항공사들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
 - **2008년 전망** 2008년에도 국제여객 및 화물운송 수요의 호조로 항공업계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다만, 고유가지속 및 항공사간 경쟁심화로 수익성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소매유통** 소비여건과 관련된 각종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성장세 유지. 2008년에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업체별로 매출액 성장 및 수익성은 차별화

- **2007년 동향** 종합소매업을 중심으로 2007년 국내 유통산업은 점진적인 성장세를 나타내었음. 롯데, 신세계, 현대의 상위 3사는 2005년 이후 연평균 7.5%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였으며, 주요 인터넷쇼핑몰 및 TV 홈쇼핑사도 2007년 약 8%의 매출액 성장세 기록
- **2008년 전망** 2007년 말 대선과 주식시장의 활황이 2008년의 소비 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심리 개선을 바탕으로 한 소매유통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그러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져 업체간 수익성 차별화가 심화될 듯

■ **의류** 생산 및 출하지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7년에는 7% 대의 성장을 기록할 듯. 2008년에는 상위업체가 매출액 성장세를 이끌면서 전년대비 생산지수 6.9%, 출하지수 8.6%, 판매액지수 3.7%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 **2007년 동향** 이상기온에 따른 가죽·모피 등 고가의류제품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가의류시장 확대에 따라 생산 및 출하지수가 . 주요 상위업체들은 수익성도 소폭 개선되어 2007년 평균 12%의 영업이익률이 기대됨
- **2008년 전망** 재고를 감소와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한 단가 상승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은 양호할 전망. 다만, 저가의류시장 성장으로 판매액 증가율이 물량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할 듯

■ **제분·제당** 2007~8년은 소비회복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의 정체가 나타났으나 가격인상에 따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임. 2007년은 담합과징금과 마진폭 개선 미비로 수익성이 제한되었으나 2008년에는 제품 가격 인상 지속, 제조원가 효율화, 마케팅 비용 감소로 수익성은 소폭 개선

- **2007년 동향** 제분·제당 모두 출하량의 정체가 나타남에 따라 소비회복세에도 밀가루 출하량은 2.3% 감소, 설탕출하량은 1.9% 증가에 그침. 밀가루의 경우는 제품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됐으나

설탕은 원당가격의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

- **2008년 전망** 밀가루 및 설탕 출하량은 각각 0.2%, 0.8%로 소폭 증가하는 등 출하량의 정체되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매출 성장은 지속.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도 제품가격 인상을 통한 원가부담 상쇄, 생산시설 교체를 통한 제조원가 효율화,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마케팅 비용 감소 등에 따라 수익성 소폭 개선

■ **제약**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만성 성인질환 및 Quality of Life 의약품 수요의 증가, 전문의약품 시장 성장, 블록버스터 품목의 집중 마케팅 등으로 정책적 악재가 극복되고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

- **2007년 동향**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시장의 동반 성장, 신규 제네릭의약품 시장 확대, QoL 의약품 수요 증가 등으로 제약시장은 전년대비 8.4% 증가. 출하 증가에 따른 고정비부담 완화 및 원가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은 평균 12.0% 기록
- **2008년 전망** 정부의 약가 인하 압력이 지속되나 특히 만료 의약품의 확대로 제네릭의약품 시장이 다시 확대되며, 일반의약품 시장의 회복세,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의료비 절대 규모의 증가 등으로 전년 수준의 성장성과 수익성 유지 기대

■ **제지** 2007년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회복으로 전체 출하가 증가했으나,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제지업체들의 수익성은 하락. 2008년 내수경기의 회복세 지속으로 제지 수요의 안정적인 증가, 국제펄프의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제지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 **2007년 동향** 국내 소비심리의 회복으로 하반기부터 국내 제지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섬. 다만,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제지수출은 정체. 펄프 및 폐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의 심화로 주요 제지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0.2%p 하락한 3.5% 수준 기록
- **2008년 전망** 국내경기의 회복세 지속으로 제지수요의 안정적인 증가. 특히, 인쇄 용지의 수요가 살아나고, 골판지 등 포장용지의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국제 펄프공급량의 확대로 펄프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최근 구조

조정으로 공급과잉이 완화되고 있는 제지시장의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 **건설** 2007년 상반기의 회복세는 미분양 증가 등 수요기반의 약화로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둔화양상을 보임. 2008년은 상반기 민간건축 위축, 하반기 대형개발 기성 등에 따라 상저하고의 양상이 전망됨
 - **2007년 동향** 주택부문의 기성둔화와 토목부문의 성장세 제한으로 상반기 건설 기성이 5.5% 증가한데 반해 하반기는 4.0% 증가에 그침. 주택부문의 미분양/분양가격하락 압력, 토목부문의 낙찰가율 하락 등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 **2008년 전망** 분양가 상한제 지연, 부동산시장 위축 등에 따라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상반기에는 정체가 지속되며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사업, 대형개발 사업의 본격화로 회복 양상을 보일 전망.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기성이 2.5%, 하반기에는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영업이익률은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토목이 7%대, 건축이 6%대를 전망

VI. 통신·방송서비스산업군(통신서비스/케이블TV)

- 통신·방송 등 전통적으로 구분되었던 미디어 시장이 디지털화 및 규제완화로 융합하는 추세.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적 소비트렌드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차별화를 위한 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IPTV 및 3G서비스 런칭으로 다소 부진했던 통신분야는 2008년 IPTV의 상용화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듯. 다만 케이블TV는 IPTV 확산에 따른 부분적인 시장잠식이 예상되나, 매체의 경쟁력 우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통신서비스** 유무선 모두 전년대비 5~6%의 성장세에 머무름. 신규 서비스 확산을 위한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로 인해 수익성 악화 추세. 2008년에는 IPTV 서비스 본격화로 인해 유선 시장의 전망은 밝은 편. 이동통신의 경우 새로운 제도 도입은 현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듯, 3G 마케팅 비용 증대로 인해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전망
 - **2007년 동향** 유선의 경우 IPTV, 이동통신의 경우 3G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 본격화. 가입자들의 ARPU 증대 및 가입자 유치 경쟁 격화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수익성 하락 초래

- **2008년 전망** 유선통신의 경우 IPTV 서비스 본격화로 인해 통방 융합 서비스가 가속화되어 전년대비 10%의 성장도 기록할 수 있을 듯. 반면, 이동통신은 망교체 및 마케팅 비용 발생에 따라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전망. MVNO 및 망내할인은 기존 이동통신 시장구도 및 업체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

■ **유선방송** 2007년 수신료 상승에 따른 가입자당 매출액 증가로 규모 성장 및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 2008년 대체재들과의 경쟁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번들 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성장세는 지속될 듯

- **2007년 동향** 유선방송의 광고 수요 증가 및 디지털 가입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가입자당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매출액 증가 및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
- **2008년 전망** 광고시장의 호조세 전환 및 번들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IPTV, 위성방송 등 대체재와의 경쟁강도가 상승하나, 유선방송 매출액은 전년대비 8.2% 증가할 전망

■ **인터넷포털** 2007년 광고주들의 선호도 증가 및 인터넷광고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광고위주의 성장세가 지속. 2008년에도 광고시장 호조로 전자상거래 및 게임분야의 상대적인 시장 위축을 감쇄시킬 것으로 예상

- **2007년 동향** 인터넷광고의 수요 증가로 매출액 성장률은 약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률도 30%를 상회하나 선두업체에 치중된 시장 구조가 지속됨
- **2008년 전망** 광고시장 호조, 경기회복에 따른 사이버쇼핑액의 증가세 등으로 높은 매출액 성장세 지속. 포털 규제 강화 및 게임분야의 흥행리스크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이 존재하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영업이익률 유지할 듯

■ **SW 및 IT서비스** 2007년 기저효과 및 기업들의 IT투자 증가세 둔화로 매출액 성장세 하락 및 수익성 저하. 2008년 제조 및 공공부문의 수요

회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성장은 소폭에 그칠 듯

- **2007년 동향** S/W노임단가 증가율 및 IT무형자산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주요 업체들의 경우 매출액 성장세는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인건비 상승과 공격적인 수주 경쟁으로 수익성도 하락
- **2008년 전망** 금융 분야 외에는 정보화 투자규모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IT서비스 매출액은 3.7% 증가할 전망이며, 수익성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

Summary

■ Overview of Korean Industry Outlook for 2008

- Korean industry in 2007 reported healthy growth despite the presence of various external risk factors such as appreciation of the won, surging oil prices and economic uncertainties created by the subprime-related credit crisis in advanced economies. In particular, the export sector, which is largely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maintained steady growth, there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relatively high levels of total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 The stable growth of Korean industry was made possible by the high-octane growth of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and strong investment demand from Middle Eastern countries fueled by massive amounts of oil money. High growth in these regions appears to have been a main factor in Korea's shifting its focus from the IT industry toward traditional industries such as steel, shipbuilding, petrochemicals and automobiles.
- Our projections of external/internal factors for 2008 are as follows: Global economic growth will slow slightl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due to a slowdown in the Eurozone, whereas the domestic economy will make slight improvements supported by a recovery in private consumption.
- Appreciation of the won is a main factor that could in theory redu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major export industries. Its effect on export growth should not be significant, however, since the global economy is expected to maintain its high pace of growth, and the influence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on Korea's exports appears to have abated significantly since 2000.

- Based on these external/internal factors, we expect healthy growth in Korea's industries in 2008. Stable growth should be sustained, provided the export sector can minimize any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the exchange rate. Industries dependent on domestic demand will achieve favorable growth buttressed by a recovery in consumer confidence.
- In 2008, the IT industry, which has been sluggish, is particularly expected to show signs of recovery, although growth will not be as high as in past years. The materials industry, which has driven growth in 2007, will report relatively slower growth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but should maintain its growth drivers.

I . Electronics (Semiconductors/Displays/Mobile Handsets)

- As income levels in countries with rapid economic growth such as China and India increase, the replacement demand for high-end products such as high-end mobile phones and flat display TVs is expected to grow, which should fuel a slight recovery in Korea's IT industry.
- Concerns over won appreciation will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profitability improvements in Korea's IT industry, where exports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rofit structure. Moreover, supply excesses will continue despite increased demand, mainly because of continued capital investments by leading companies. Thus, the probability of steady declines in the prices of major electronic parts has increased, thereby lowering the chances of improved industry profitability.

■ **Semiconductors** In 2007, the industry reported poor growth and profitability declined as a result of won appreciation and excess supply. Although the excess supply problem should improve slightly, potential profitability improvements will be limited in 2008.

- **2007 Overview** Semiconductor production decreased slightly compared to last year as a

result of won appreciation and increased overseas production. Prices of DRAM and NAND Flash plunged because of over-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which created excess supply. It is estimated that operating profit margins of domestic semiconductor makers were around 15%, down 10%p from last year.

- **2008 Outlook** The industry growth pace will recover owing to strong IT product demand in China and India. Each of the excess supply ratios of DRAM and NAND Flash will decline 1%p YoY as facilities investment decreases slightly.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will be limited by a slight decline of the excess supply ratio as well as the ongoing trend of won appreciation.

■ **Displays** The TFT-LCD panel industry made gradual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in 2007 with a reduction in excess supply. In 2008, despite steady industry growth, profitability will stay at the same level as last year due to a rebound in equipment investment along with continued excess supply.

- **2007 Overview** In spite of market growth, domestic FPD TV production decreased more than 10% YoY as production facilities were moved overseas. Profitability of LCD panels has improved as investment fell sharply and excess supply was reduced, but there are limits to profitability improvement in the PDP panel sector.
- **2008 Outlook** The 2008 Beijing Olympics should boost growth in the display industry, particularly the digital TV industry. Equipment investment, which has been postponed thus far, will be made in 2008, bringing the excess supply ratio to levels of the previous year. Hence, profitability will likely also stay at the same level as last year.

■ **Electronic parts** In 2007, PCB production fell because of a downturn in its upstream IT industry and an increase in overseas production. In 2008, the growth pace is expected to pick up slightly, and profitability will continue to vary based on the R&D capacity of each manufacturer.

- **2007 Overview** PCB production and shipments fell by about 4% YoY due to a decline in handset production and the transfer of production bases overseas. Overall

profitability worsened because of mounting pressure to lower prices. Conversely, the companies who manufacture 300mm wafer-related products such as silicon wafers, photomasks and quartz reported relatively strong performance.

- **2008 Outlook** PCB production will recover with growth in upstream industries such as the digital appliance industry, but the YoY growth rate will be only 2% due to the transfer of production bases overseas. Profitability of the handset PCB industry will remain low because of excess supply. In contrast, the profitability of semiconductor PCB makers and companies that produce 300mm wafer-related products, which have high technical entry barriers, will remain robust.

■ **Mobile Handsets** Domestic production has continued to fall as production facilities have been transferred overseas. Meanwhile,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have resulted in significantly different operating margins for each company. In 2008, increased demand for high-end mobile phones will stimulate a recovery in sales volume, but profitability will remain the same as the previous year.

- **2007 Overview** Domestic production and shipments have plunged mainly because of the transfer of production facilities overseas. Samsung focused on lower-priced mobile phones,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In contrast, LG strengthened its high-end mobile phone strategy toward Europe and America. As a consequence, LG's ASP started to exceed Samsung's ASP beginning in 4Q 2006.
- **2008 Outlook** Domestic demand is expected to keep rising in 2H, and companies will continue their cost-cutting efforts through offshore outsourcing and restructuring. After 2H, when newly created demand in developing countries is expected to reach saturation, people will begin to switch their mobile phones to high-end ones in increasing numbers. Thus, the industry should start to see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in 2H.

- **Electronic Wire** In 2007, production fell but remained at favorable levels, helped by the strong demand for electronic wire. Profitability worsened because of a continuous rise in copper prices. In 2008, we can expect slight improvements in industry profitability as sales of profitable products such as super-high-voltage current cables and optical fiber cables are increasing.
- **2007 Overview** Increased investment in electric transmission and FTTH services has resulted in greater demand for electronic wire and optical fiber cables, but profitability has been declining steadily because of surging copper prices.
- **2008 Outlook** As strong demand for profitable optical fiber cables and electronic wire is expected to persist, operating margins will likely rise as high as 4% in 2H.

II. Machinery (Automobiles/Machinery/Shipbuilding)

- Growth in the global automobile industry will continue with the growth of small car sales in the BRICs. Based on expected growth in plant capacity utilization, we forecast that the domestic automobile industry will focus on overseas markets through the launching of localized auto models.
- As a gradual recovery in the domestic economy is expected, the automobile industry will likely implement a large-sedan marketing strategy in an effort to improve profitability. Profitability of auto part makers will improve only slightly because of cost-cutting pressures.
- The booming shipbuilding industry will lead to even larger profitability improvements in large companies. Revenue growth in the machinery industry, a result of increased facilities investment and exports, is expected to continue.

- **Automobiles** Growth in exports and domestic sales remained

relatively stable, at around 6%, in 2007. In particular, exports experienced a fast recovery beginning in 2Q. In 2008, a recovery in domestic consumer confidence will lead to growth in the domestic automobile market, and overseas demand will also rise as Korean automobiles gain higher quality ratings.

- **2007 Overview** Beginning in 2Q, domestic and overseas sales expanded owing to strengthened marketing activities, improvements in domestic demand and increased demand in emerging markets such as Eastern Europe and South and Central America. Industry operating profit margins have been estimated at around 3.5%, up 1%p from 2006, owing to increased operating capacity.
 - **2008 Outlook** With the automobile replacement cycle around 6-7 years, it is most likely that replacement demand will be concentrated in 2008, supported by an economic recovery. Overseas demand is expected to grow after the launching of new localized auto models in foreign markets. Domestic auto makers will make improvements in growth and profitability through a new focus on sales of large, high-margin automobiles.
- **Auto Parts** The launching of new auto models and increased auto replacement demand will result in higher shipments of finished automobiles, which will drive sales growth for auto parts makers. Increased volumes of direct exports and high-value-added product sales, and reduced pressure to cut prices, will lay the groundwork for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 **2007 Overview** Due to increased OEM sales and direct exports, coupled with growth in domestic sales and exports of finished auto exports, which reached more than 10% and 9%, respectively, auto parts production rose by 13.5% YoY. Operating profit margins, however, stood at 5.0%, down 1.6%p from last year, since there were price-cutting pressures on auto parts makers and the won

gained against the dollar.

- **2008 Outlook** An increase in OEM sales and direct exports, along with steady growth in domestic consumption continuing to drive replacement demand and the introduction of new car models, should fuel growth in sales volumes. With an increase in A/S sales, improved productivity, reduced price-cutting pressures and decreased burden for new investment, operating margins for 2008 are expected to be around 5.6%.

■ **General Machinery** Exports have grown 21.7% YoY, mainly because of the surge in production facility demand in the Middle East and thriving conditions in the construction machinery industry, supported by increased SOC investment in China. In 2008, the industry as a whole should maintain its growth trajectory, thanks to strong exports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construction and processing machinery.

- **2007 Overview** With strong exports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construction machinery, the sales revenue of process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companies increased 20% YoY. Overall, industry participants made a relatively fast recovery in profitability, recording average operating profit margins of 8%.
- **2008 Outlook** Growth in facilities investment and exports might slow slightly, but the industry as a whole will maintain its robust growth pace. Profitability of companies in the plant, construction machinery and processing machinery industries will keep rising because of their growing exports. In contrast, fierce competition will prevent profitability improvements in the freezing machine and textile machinery industries.

■ **Shipbuilding** In 2007, the bulk carrier sector led considerably prosperous condition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drove a recovery in the containership and tanker sectors. In 2008,

containerships and tankers will lead the shipbuilding market for new ships, and increased orders for high-value-added ship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profitability of major shipbuilders.

- **2007 Overview** Bulk freight rates rose significantly, up 116.4%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leading robust growth in the new-shipbuilding market as well as a recovery in the container and tanker markets where supply shortages occurred. Furthermore, large companies' profits escalated as high-priced orders after 2005 began to be reflected in their revenue figures.
- **2008 Outlook** Continuing new shipbuilding orders for containerships and tankers, whose freight rates rose, will lead the new-shipbuilding market. Increased orders for LNG carriers, which were previously delayed, and marine facilities will be major contributors to ongoing profitability growth in large companies. Securing supplies of thick steel plates will remain a major variable in the profitability level of SMEs and newcomers, as increased facilities investment by shipbuilders is stimulating the demand for thick steel plates.

III. Materials (Steel/Oil Refining/Oil Refining)

- Strong economic growth in China triggered global imbalances in the demand-supply conditions of various raw materials such as oil and steel. This was followed by a surge in raw materials prices and export growth, driving prosperity in the materials industry, and this trend will likely continue in 2008. While the chemical fiber industry suffers from worsened demand-supply conditions because of expansion of China's supply capacity, steel and oil refining industries benefit from the sustained demand-supply imbalances as demand growth surpasses supply capacity growth in emerging markets. Aided by strong demand in China, petrochemicals exports are expected to grow beyond a rate of 5%.
- Supply-demand conditions for steel improved because of various countries' efforts to reduce production and the effect of inventory adjustments, resulting in higher steel

prices. This will support a continuing trend of high earnings in the steel industry. It is also expected that profitability of the oil refining industry will improve as operating capacity rises and oil refinery margins expand. Conversely, in spite of strong demand, petrochemical and non-ferrous metal industries are facing serious cost burdens arising from surging raw material prices. The chemical fiber industry is still experiencing hard times, but each company will likely struggle to improve performance by implementing product-mixing strategies that focus on high-value-added products.

- **Steel** Global demand–supply imbalances resulted in weak steel prices in 2007, but steel prices are expected to rebound in 2008 as Chinese exports fall and demand–supply conditions improve following reductions in production and adjustments to inventories.
 - **2007 Overview** The domestic steel market is passing through an expansion cycle as shipments and inventory levels are both on the rise. Although larger export volumes from China caused a demand-supply imbalance, pushing down steel prices, they are expected to rebound starting in 4Q. Domestic steel firms showed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in the favorable business cycle.
 - **2008 Outlook** Global steel demand-supply conditions will stabilize with the support of the Chinese export control policies, coupled with production reductions and inventory adjustments in the steel industries of different countries, but there remains the risk of excess supply. Based on the business cycle, the domestic steel industry will enter a recovery phase after a short-term recession in 1H, and improve profitability as the international price of steel increases.

- **Non-Ferrous Metals** Non-ferrous metal prices will continue to surge as the dollar weakens and raw materials remain in relatively short supply. The polarization of profitability, where the refining industry enjoys high profits while the rolling & extrusion industry operates in a low-profit structure,

will continue in 2008.

- **2007 Overview** Prices of non-ferrous metals, such as nickel, whose price plunged 50%, have been highly volatile. Fundamentals such as low inventory levels and strong import demand in China, have been generally solid. The polarization is deepening in the domestic market, with the refining industry enjoying high profits while the rolling & extrusion industry is suffering from a margin squeeze.
- **2008 Outlook** Based on strong demand in emerging markets such as China, the Middle East and Russia, as well as a weaker dollar and the demand for inflation-hedging, non-ferrous steel prices will continue their upward trend, although price volatility will also likely increase, reflecting mounting concerns. Profitability will remain relatively stabl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 **Oil Refining** The ongoing recovery in domestic demand will continue, and exports will also register solid growth in 2008. We forecast that the capacity utilization of oil refineries and oil refinery margins will keep expanding, thereby contributing to sustained profitability improvements.

- **2007 Overview** Domestic sales made a significant recovery, up 4.3% YoY, on the back of prosperous conditions in an upstream industry. Exports increased by only 9%, but considering the tight supply-demand conditions, such a number should not pose a serious concern. Operating profit margins grew 1.7-1.8%p faster than the previous year as capacity utilization and oil refinery margins expanded.
- **2008 Outlook** With steady improvements in the domestic economy, growth in domestic oil demand is expected to remain at around 4.2%. Export growth is forecast to slow slightly to 8.7% YoY, largely because of lower import demand in China and increased domestic sales. Increasing capacity utilization, expanding refinery margins and rising catalytic reforming equipment ratios will help to

achieve improved profitability.

- **Petrochemical** In 2007, the petrochemical industry achieved YoY growth in both domestic demand and exports. Our projection for 2008 is that domestic demand for petrochemical products will remain stagnant while strong demand in China will boost exports and hence production by more than 5% and 3%, respectively.
 - **2007 Overview** Although excess supply hindered growth in the domestic sales of petrochemical products, sales revenue of major companies rose 10% YoY on the back of higher product prices. As demand in China grew relatively stronger compared with a sluggish previous year, exports registered significant YoY growth of 9.6%.
 - **2008 Outlook** Petrochemical companies will likely continue on an upward trend in sales revenue through the support of increased prices, even though growth in domestic demand will not be considerable. On the other hand, growth in exports is expected to be only 5%, since the petrochemical product self-sufficiency rate in China will improve.

- **Chemical Fibers** In 2007, China's growing supply capacity has been a main factor that has caused an ongoing deterioration of domestic supply conditions. While the recovery of supply conditions will be difficult, strong sales of high margin products will contribute to improvements in industry profitability in 2008.
 - **2007 Overview** The spread between rising chemical fiber product prices and rising raw material prices has grown. Profitability improved only slightly, however, because low growth in the apparel industry resulted in lower domestic demand, and growth in China's supply capacity led to a decrease in exports to China.
 - **2008 Outlook** Domestic demand will continue to slow, and China's supply capacity will grow even faster, lowering the likelihood of a recovery in domestic

supply conditions. Meanwhile, we expect that some companies will achieve better performance on the back of strong sales of high-margin products and industrial fibers.

VI. Domestic consumption goods, distribution and transport

- Overall demand growth that stems from improved consumer confidence should drive growth in the domestic consumption goods and distribution industry in 2008. Private consumption has been on a steady rise since the beginning of 2007, and this trend will likely be sustained throughout 2008 as well.
- Improvements in consumer confidence will stimulate better performance of the retail, apparel, pharmaceutical, paper and milling and sugar processing industries, all of which produce and sell final consumer goods. In the transport industry, including shipping and aviation, major industry growth drivers may include growing demand for overseas travel, a result of a stronger won, and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export/import cargos.
- The sluggish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 be sustained by a delay of the recovery in the real estate market. Yet, construction demand will arise from overseas, particularly from emerging markets and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that possess oil money. Also, as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will begin in 2H,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expected to rebound somewhat.

■ **Shipping** In 2007, industry growth and profitability rebounded, after hitting a low in 1Q, the result of rising dry cargo charges. In 2008, containership and oil carrier shipping charges will likely rise, and the resulting growth pace and profitability should improve.

- **2007 Overview** Despite increased shipping charges, the operating profit margins of major shipping companies has been relatively low at 3.6%, mainly the result of a rise in Bunker C oil prices. While dry cargo charges surged to an

all-time high, container cargo charges also rose slightly. Despite the won appreciation and higher oil prices, shipping companies' growth pace and profitability recovered throughout 2007 with increased shipping charges.

- **2008 Outlook** Shipping charges are expected to decline steadily after hitting a high in 2Q, dampening prospects for enhanced profitability. The trend of rising shipping charges will be sustained in 2008 by increased cargo volumes to China, and container and oil carrier shipping charges will grow most notably. Cost burdens will deepen due to surging oil prices. Nevertheless, shipping charges will help domestic shipping firms achieve more than 10% growth in revenue and 7% operating profit margins.

■ **Aviation** Airline profitability improved in 1H, with increasing passenger numbers and demand for freight on international routes. The number of overseas travellers in 2007 is estimated to have reached 37.8 million, up 15% from last year,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won. Airline revenue grew more than 8%, since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freight has increased as traded cargo has become lighter and quality has improved. The growth trend will continue in 2008, leading to further growth in the air cargo market.

- **2007 Overview** The demand for overseas travel and freight transport rose, and the pace of decline in domestic airline passengers, which fell after the KTX began operations, significantly slowed. The growth trend in air cargo demand continued, thereby pushing up airfares, and the resulting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improved.
- **2008 Outlook** Industry growth will be sustained by strong demand for overseas travel and freight transport, but there will be no further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owing to rising oil prices and fierce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 **Retail** The overall industry maintained revenue growth as shown by improvements in various indices related to consumption conditions. In 2008, the growth trend will continue, but profitability and revenue growth will significantly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industry.
 - **2007 Overview** The domestic retail industry in 2007 showed gradual growth, most notably in the total retail sector. Revenues of the top 3 companies, namely Lotte, Shinsegae and Hyundai, have grown at an annual average rate of 7.5% since 2005. Major internet shopping and TV home shopping markets achieved revenue growth of approximately 8%.
 - **2008 Outlook** As the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end of 2007 and the stock market rally should bring about positive effects on consumer confidence, we expect this will result in retail industry growth. Meanwhile, profitability among companies will become even more polarized.

- **Apparel** In 2007, production and shipments indices grew, and we estimate annual growth at 7%. In 2008, top companies will lead revenue growth, and overall production, shipments and sales indices will increase by 6.9%, 8.6% and 3.7%, respectively.
 - **2007 Overview** Although sales of high-priced products such as leather and fur clothes slowed because of climate change, production and shipments indices have grown as the low-priced apparel market expanded. Major companies made slight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and annual operating margins were at around 12%.
 - **2008 Outlook** A drop in inventory ratios and price increases, particularly by major companies, will contribute to favorable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Growth in sales revenue, however, will not exceed growth in the volume of clothing sold, due to expected increasing in sales of low-priced items.

- **Flour milling and sugar processing** In spite of the recovery in domestic

consumption, sales growth was stagnant in 2007, but revenue will likely rise on price increases in 2008. In 2007, profitability was limited by fines on cartel activity and insufficient improvements in margins. A continuous rise in product prices, improved production cost efficiency and reductions in marketing expenses will be contributors to a slight increase in profitability in 2008.

- **2007 Overview** Growth in shipments stagnated in both the milling and sugar processing sectors, up only 2.3% and 1.9% YoY, respectively, even though domestic consumption has recovered. Although milling companies raised their prices on flour, a surge in raw material prices was a factor that hindered profitability growth. A fall in the price of imported raw sugar helped profits improve for sugar processors.
- **2008 Outlook** Growth in shipments will still be stagnant, and shipments of flour and sugar are expected to increase slightly by 0.2% and 0.8%, respectively. Revenue, however, should continue its growth pace based on expected price increases. Cost burdens arising from surging raw material prices will be offset by higher prices. At the same time, companies will enhance their production cost efficiency through replacement of production equipment, and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will lower marketing expenses. All of these factors will bring about slight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 **Pharmaceuticals** Demand for pharmaceutical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2008, with greater incidence of chronic adult disease and demand for better quality of life. Along with increasing demand and growth in the prescription medicine market, profitability should improve as the industry overcomes political risk factors through marketing strategies that focus on blockbuster products.

- **2007 Overview** The pharmaceutical market achieved 8.4% YoY growth, owing

to growth in the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 markets, the new and expanding generic medicine market, and higher demand for QoL medicines. Average operating profit margins were at 12%, aided by sales growth that reduced fixed-cost burdens and enhanced cost efficiency.

- **2008 Outlook** The pharmaceutical market will likely to continue its upward trend with YoY growth in total pharmaceutical sales estimated at 13.3% for 2H. As consumer confidence in the Korean economy improves, the over-the-counter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contributing to sales growth and high industry profits. Despite the government's pressure on drug makers to lower their prices, the generic medicine market will expand again as the number of patents scheduled for expi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Market growth and profitability will remain at a level similar to 2007, with signs of recovery in the non-prescription medicine market and increased household medical spending, a result of higher income levels.

■ **Paper** In 2007, total shipments increased on the recovery of domestic economy although the strong won dampened exports. The industry profitability deteriorated, however, as prices of raw materials such as pulp continued to rise. In 2008, a sustained recovery in domestic economy will contribute to stable growth in paper demand. International pulp supply will likely increase, which will consequently lead to a fall in prices, resulting in improved profitability.

- **2007 Overview** Beginning in 2H, domestic paper demand returned to a recovery cycle as domestic consumers gained more confidence. The industry lost price competitiveness because of a stronger won, resulting in sluggish exports. Rising prices of pulp and wastepaper added greater cost burden to companies. Thus, the operating profit margins of major companies stood at 3.5%, down 0.2%p from last year.

- **2008 Outlook** It is expected that industry profitability will improve as international pulp prices decline. Demand for paper, especially printing paper and wrapping paper such as corrugated cardboard, will achieve steady growth with signs of a sustained domestic economic recovery.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pulp prices decline, as a result of an increase in supply. Profitability of the paper market, where excess supply has been reduced following recent restructuring, should improve.

- **Construction** The growth pac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slowed, most notably in the residential housing sector, on a weaker supply base as evidenced by the growing number of unsold new apartments. The industry is forecast to hit a low in 1H 2008 and rebound in 2H due to a contraction in private construction in 1H and the completion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2H.
- **2007 Overview** Completed construction in 2H 2007 grew by only 4%, after recording 5.5% growth in 1H. A downturn in the number of completed residential housing units and a drop in contract prices on public civil engineering projects were key contributors to the slowdown. Overall operating profit margins declined as a result of the increased number of unsold new apartments and increased pressure to lower the prices of residential properties, coupled with a decline in the contract price ratio (contract price/expected price×100) in the public civil engineering sector.
- **2008 Outlook** In 1H, the industry will remain stagnant owing to a delay of the introduction of the upper-limit system on lot prices and a contrac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especially in the private construction sector. It will start to enter recovery phase in 2H, as construction work for city renewal and other large-scale projects will begin then. Completed construction work, therefore, is expected to rise 2.5% and 6.5% in 1H and 2H, respectively. Operating profit margins will

continue to trend downward, with 7% for the civil engineering sector and 6% for building construction expected.

V.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The convergence of the media market, which had been traditionally separated into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s, is becoming clearer with digitalization and deregulation. This had led to an expansion of consumer choices, thereby intensifying price and service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who want to offer differentiated services.
- In 2008,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which has stagnated since the launch of IPTV and 3G services, should gain growth momentum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IPTV. Nevertheless, we expect that CATV will maintain its dominant position, even though it may lose some of its market share to the IPTV sector.

■ **Telecommunication Services** Growth in both the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s sectors has stayed at around 5–6% YoY. Massive spending on marketing to expand new services has caused a worsening of profitability. As IPTV services will begin to operate in 2008, prospects for the wired communications sector are good. In th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is not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urrent market structure, and increased 3G marketing expenses will bring about a slight drop in profitability.

- **2007 Overview** The competition for IPTV and 3G between service providers intensified in both the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s sectors. Marketing expenses rose 30% YoY, owing to the increased APRU of service users and fierce competition for customers, resulting in decreased profitability.

- **2008 Outlook** In the wired communications market, the introduction of IPTV service will accelerate converged service with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s, and the market will likely achieve 10% YoY growth as a result. The profitability in th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however, will slightly worsen due to network facilities replacement and marketing expenses. The effects of MVNO and discounts on call rates within the same network on the current market structure and revenue will not be as large as expected.

- **CATV Broadcasting** In 2007, revenue per subscriber increased with a rise in service fees, resulting in sustained revenue growth and stable profitability. Competition with substitutes is expected to intensify in 2008, but the growth pace will continue as the demand for bundled services increases.
- **2007 Overview** A high level of advertising demand and a growing number of digital subscribers were major growth drivers of revenue per subscriber, and the resulting revenue and operating profit margin remained relatively high.
- **2008 Outlook** The advertising market will enter a boom phase, and demand for bundle products will grow. This will be followed by fierce competition with substitutes such as IPTV and satellite broadcasting. Nonetheless, overall CATV revenues are expected to grow 8.2%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 **Internet Portal** The growing preference for the internet on the part of advertisers and the increasing efficiency of internet advertising has driven sustained revenue growth in the internet advertising sector. The buoyant internet advertising market will offset negative effects of the relatively weakened electronic commerce and game markets.
- **2007 Overview** With growing internet advertising demand, YoY revenue growth for 2007 was at 40%, and operating profit margins remained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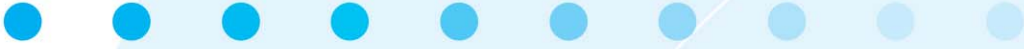
30%, while the current market structure, which is dominated by few leading companies, was maintained.

- **2008 Outlook** Internet portal industry revenues should keep growing at a fast pace, based on the strong advertisement market and the increased spending on cyber shopping, a result of the economic recovery. Strengthened restrictions on internet portals and increased risks of failure in the game industry remain cost burdens, but these factors shoul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fitability. Hence, the industry will continue to show stable operating profit margins.

■ **SW and IT Services** During 2007, growth in revenues slowed and profitability fell because of the "base effect," as well as sluggish corporate investment in the IT sector. In 2008, revenue growth should be only small since demand recovery in the manufacturing and public sectors will be not be as considerable as expected.

- **2007 Overview** Growth in wage rates in the S/W industry and intangible asset investment in the IT industry both fell, resulting in a YoY decrease in revenue growth of major companies. Profitability also declined because of increased wages and aggressive competition for orders.
- **2008 Outlook** Apart from the financial sector, informatization investment volumes can hardly improve, so the resulting IT service revenues are expected to grow 3.7% YoY, and profitability will remain at a similar level as 2007.

I. 2008년 국내산업 전망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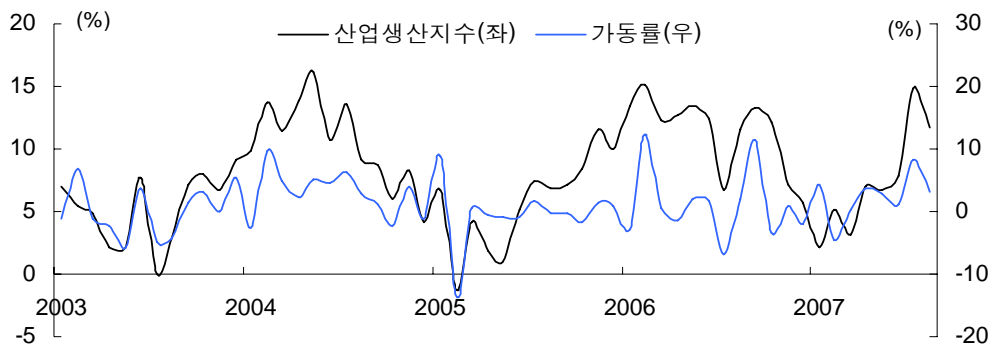


I. 2008년 국내산업 전망 개관

1. 2007년 산업경기 동향

- 2007년 국내 산업경기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선진국경기의 불안 등 대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을 보였음. 특히 대외여건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수출이 여전히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기반해서 산업생산과 제조업 가동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8월까지의 국내 수출은 전년동기비 14.7%의 증가를 기록해 전년증가율인 14.4%를 상회
 - 산업생산활동과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최근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제조업 산업생산지수와 평균 가동률은 2007년 8월 각각 164.6(계절조정, 2000년=100)과 83.7%를 기록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1 국내 제조업 산업생산지수와 가동률지수 증감률 추이(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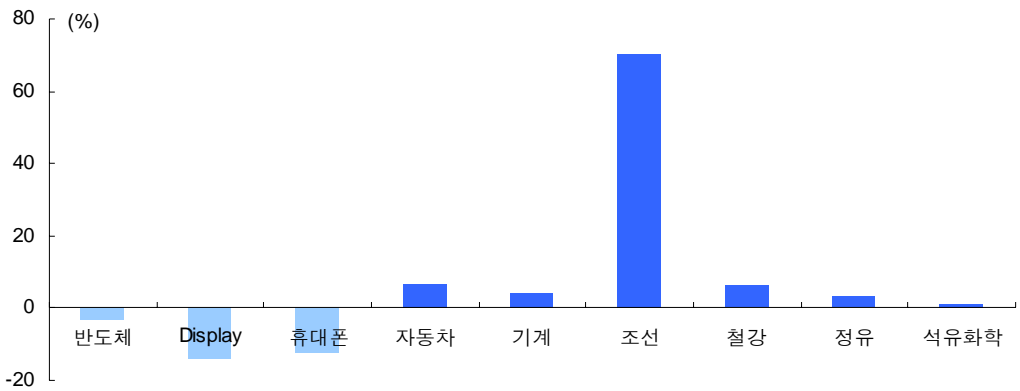


자료 : KOSIS

- 이와같은 안정성장의 배경에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개도국의 고성장과 오일머니로 인한 중동지역의 투자수요가 활발했기 때문임. 특히 이들 지역의 고성장은 국내 산업의 주력을 기존의 IT부문에서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과거 전통산업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에 의한 설비투자의 확대는 철강과 화학, 기계부문의 수요를 유발하고,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과거부터 이들 장치산업부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던 국내업체의 생산 증가로 이어졌음
- 그러나 IT산업의 경우에는 가격하락과 해외 생산 이전 등으로 전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기록
- Hana Forecasting Model에 의한 국내 주력산업의 2007년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국내 IT 3대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성장률은 -3~-14%의 극심한 부진을 보인 반면, 기계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소재장치산업의 경우에는 1~7%의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조선은 운임상승에 따른 벌크선 수주 증가로 수주량이 전년비 70.4% 증가하는 고성장을 지속
- 내수산업군에서는 인터넷포털과 이동통신서비스 등이 높은 성장을 기록한 반면, 정부규제하에 있는 건설경기가 부진했으며, 원재료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았던 제분제당도 (-)의 성장을 기록

그림 2 국내 수출주력산업의 2007년 성장률 비교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2. 2008년 대내외경기 평가

- 2008년의 대내외여건을 평가하면, 민간소비의 회복을 바탕으로한 내수경기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계경기는 Euro지역의 성장둔화로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국내산업의 주시장인 미국은 주택경기 불안과 서브프라임 부실문제가 잠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년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고, 중국도 11%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2008년 국내산업의 대내외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 종합

(단위 : %)

구분	2007					2008					산업경기에 대한 영향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대외 여건	전세계 성장률	-	-	-	-	4.8	-	-	-	-	4.6	중립
	미국	0.6	3.8	2.4	0.8	1.9	1.5	1.7	2.0	2.8	2.0	중립
	Euro	3.2	2.5	2.4	2.1	2.6	2.0	2.3	2.2	2.5	2.3	부정적
	일본	2.8	-1.2	2.0	1.2	1.7	2.8	2.4	1.2	1.6	2.0	긍정적
	중국	11.1	11.9	11.4	11.1	11.4	11.0	11.2	11.3	10.5	11.0	긍정적
	원/달러(원)	938.9	929.3	928.2	920.0	925.0	915.0	910.0	905.0	900.0	908.0	부정적
대내 여건	국내총생산	4.0	5.0	5.1	4.9	4.8	5.6	5.4	5.0	4.6	5.2	긍정적
	민간소비	4.1	4.2	4.4	4.6	4.3	5.0	4.9	4.5	4.1	4.7	긍정적
	설비투자	10.8	11.9	3.0	7.0	8.2	8.0	6.0	9.0	8.0	7.7	중립
	실업률	3.6	3.3	3.1	3.1	3.3	3.3	3.1	3.0	3.1	3.1	중립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 2008년의 대외여건중에서 가장 우려될만한 요인은 환율하락의 지속과 잠재되어 있는 서브프라임 부실의 확산 여부임

- 특히 2008년의 대미달러환율(연평균환율)은 전년에 비해 1.8% 하락한 달러당 908원으로 예상되어 수출을 성장동력으로하고 있는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도 현재는 미국과 Euro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진정되고 있으나, 잠재적인 불안은 가시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부실로 확산될 경우 미국과 유럽지역의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임

■ 환율하락은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여전히 세계경제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 대미달러환율 변동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민감도는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에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수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2002년부터 대미달러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

내 수출은 5년 연속으로 두자리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수익성도 7~8%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 환율민감도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했다고 할 수 있음

- 이같은 현상은 엔달러환율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해진 요인도 있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원화절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요인을 수출가격에 전가시키지 않고, 기업 내부적으로 소화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특히 환율 하락에도 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

표 2 환율변동과 국내 수출증감률, 이익률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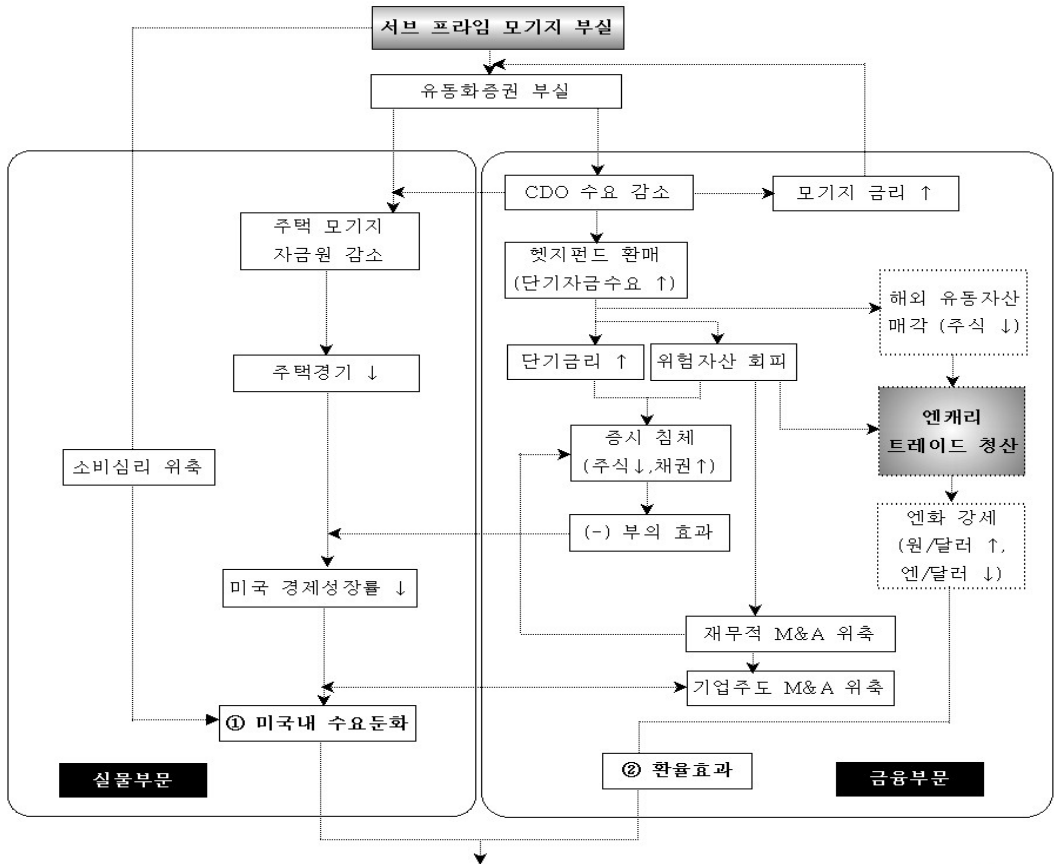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대미달러 환율변동률 (연말기준, %)	10.0	5.3	-9.5	-0.2	-12.9	-3.0	-8.2	-0.3
국내 수출증감률(%)	19.9	-12.7	8.0	19.3	31.0	12.0	14.4	14.4
상장업체 영업이익률(%)	7.4	6.1	7.5	7.7	9.5	8.3	7.7	8.5
상장업체 경상이익률(%)	3.4	2.2	6.4	6.0	10.0	9.2	8.7	9.9

자료 : 한국은행, 관세청, Kis-Value

■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도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산업별로 차별화 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임

-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등 해외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수출감소효과가 있는 반면,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과 맞물려 엔화강세가 두드러질 경우,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
- 서브프라임 부실이 지속될 경우에도 수출증가가 가능한 업종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도체(플래시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중소형 조선 및 기자재 등임
-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소비위축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자동차와 섬유기계, 철강, 정유 등은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DRAM)와 휴대폰, 전선 등은 미국 소비위축과 환율상승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

그림 3 서브프라임 부실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흐름도



구 분		국내 주요 산업군
수출증가 영향	① < ②	- 미국시장 의존도가 낮고, 일본과의 경합도가 큰 산업 (I)
별 영향없음	① ≒ ②	- 미국시장 의존도는 높지만, 환율효과가 큰 산업 (II) - 미국시장 의존도가 낮지만, 환율효과가 적은 산업 (III)
수출감소 영향	① > ②	-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고, 일본과의 경합도가 작은 산업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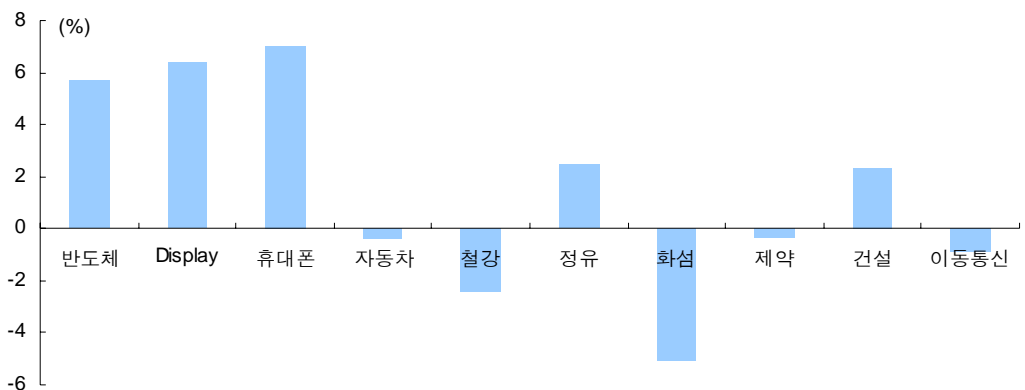
반도체(Flash) 디스플레이(패널) 조선(중소, 기자재) 기계(내연 및 플랜트 등) 석유화학, 해운·항공	반도체(DRAM) 휴대폰
디스플레이(TV set) 조선 조선(대형) 제분제당	자동차 기계(섬유 기계) 정유 철강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2008년 국내 산업경기 전망

- 이러한 대내외여건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은 2008년에도 대부분 양호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수출이 환율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안정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수기반산업도 소비심리 회복에 기인해 양호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2008년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IT산업이 과거의 고성장은 아니지만, 일단 부진 탈출의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 2007년에 성장을 주도했던 소재장치산업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성장 동력을 상실하지는 않을 전망
 - IT산업의 경우 디스플레이와 휴대폰이 여전히 (-) 성장이 예상되고, 반도체도 2% 내외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기사이클상 본격적인 회복국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각품목의 수급조정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철강의 경우 전년의 6.1% 성장에서 2008년에는 3.7%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요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이지 수요 자체가 둔화되는 것은 아님. 조선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수주량 증가가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24% 이상의 고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요부진과 해외이전 등의 요인이 겹치고 있는 화학섬유는 2008년에도 구조적인 부진에서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그림 4 국내 주요산업의 2008년 성장폭 비교 (2008년 성장률 - 2007년 성장률)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표 3 2008년 주요 산업별 성장률 비교

(단위 : %)

업종	기준	2007	2008	업종	기준	2007	2008
반도체	생산액	-3.4	2.3	화학섬유	생산량	-1.9	-7.0
디스플레이	생산액	-13.9	-7.5	해운	매출액	14.3	11.2
PCB	생산량	-3.7	1.4	항운	매출액	8.9	9.3
휴대폰	생산량	-12.2	-5.2	소매유통 (백화점)	판매액지수	3.2	4.2
전선	생산량	0.3	0.2	의류	생산지수	7.0	6.9
자동차	생산대수	6.9	6.5	제분제당	생산량	-1.4	0.5
자동차부품	매출액	9.3	11.0	계약	매출액	6.7	6.4
일반기계	생산능력지수	4.3	2.0	제지	생산량	1.6	0.6
조선	수주량	70.4	24.3	건설	수주액	-2.2	0.1
철강	생산량	6.1	3.7	통신서비스 (이동통신)	매출액	6.4	5.5
비철금속	생산량	4.6	3.7	케이블TV (SO)	매출액	2.4	3.8
정유	생산량	3.4	5.9	인터넷포털	매출액	46.2	29.4
석유화학 (합성수지)	생산량	1.2	0.3	SW/IT서비스 (SI)	매출액	-5.3	3.5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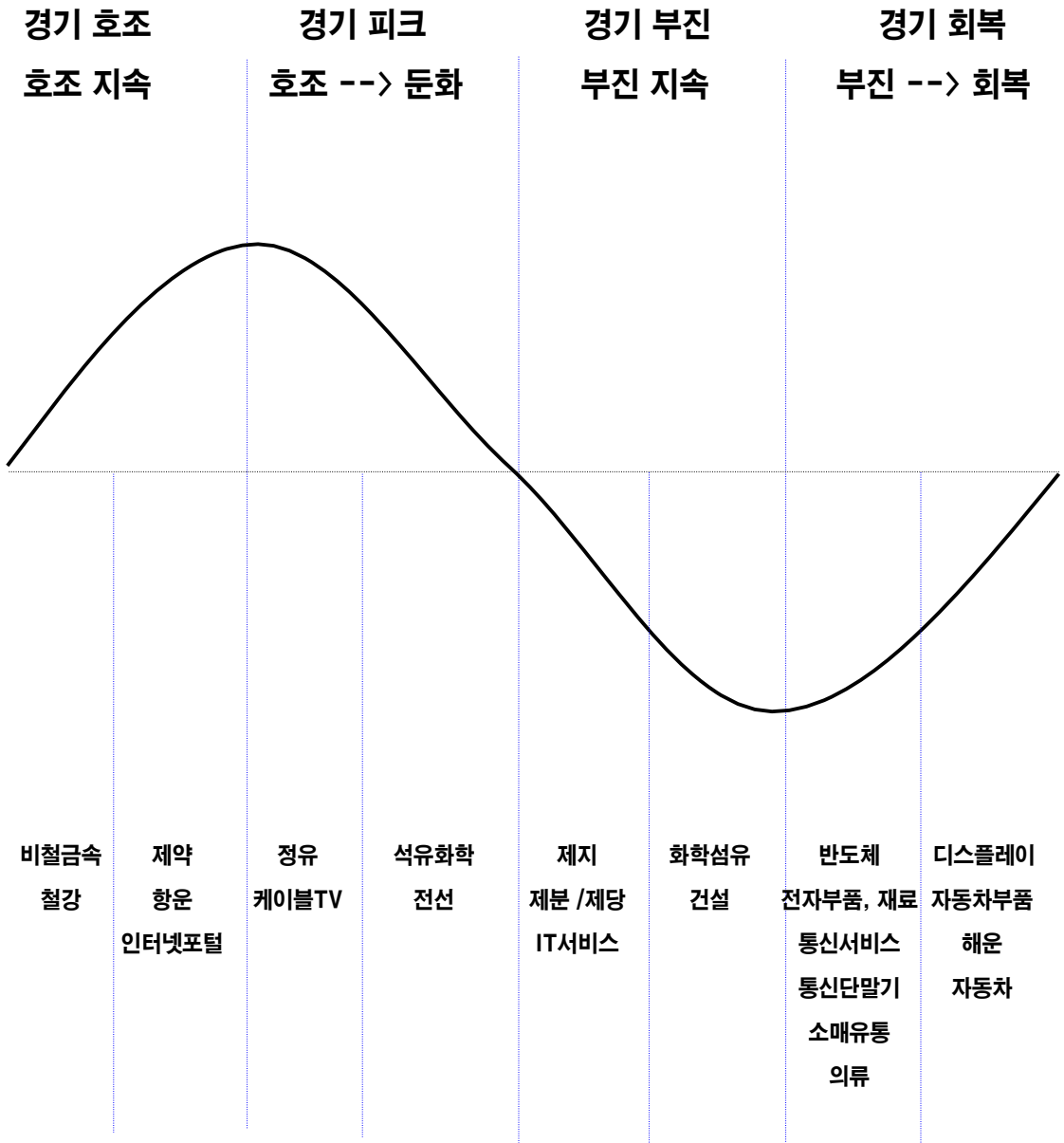
표 4 2008 산업별 경기

산업	생산		내수		수출		수익성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단말기								
자동차								
기계								
조선			-	-				
철강								
정유								
석유화학								
화학섬유								
해운	-	-	-	-	-	-		
항공	-	-	-	-	-	-		
소매유통	-	-			-	-		
제분·제당								
제약								
제지								
건설			-	-	-	-		
통신서비스	-	-			-	-		
유선방송	-	-			-	-		
인터넷 포털	-	-			-	-		
SW 및 IT서비스	-	-			-	-		

주 : : 호황, : 안정 성장, : 다소회복, : 정체상태, : 다소부진, : 불황
 기상도는 전년동기비 증가율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요 업종의 2008년 경기 포지션



I. Overview of Korean Industry Outlook for 2008

1. 2007 Industry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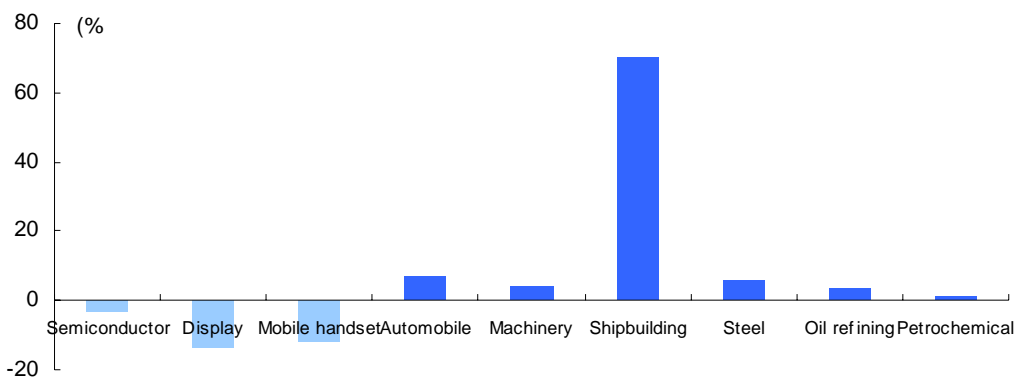
- Overall, Korean industry registered robust growth despite the presence of external risk factors such as appreciation of the won, surging oil prices and economic uncertainties created by the subprime-related credit crisis in advanced economies. Notably, the export sector, which is largely effected by external factors, maintained steady growth. Total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tayed relatively high based on steady export growth.
 - In the first 8 months of 2007, accumulated exports achieved 14.7% YoY growth, which is higher than the 14.4% growth achieved last year.
 - Growth in industrial production and average manufacturing capacity utilization remain relatively high, although both have been slowing recently. The manufacturing industry production index and average capacity utilization hit all-time highs in August, reaching 164.6 and 83.7%, respectively.

- The stable growth of Korean industry was made possible by the high-octane growth of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and strong investment demand from Middle Eastern countries fueled by massive amounts of oil money. High growth in these regions appears to have been a main factor in Korea's shifting its focus from the IT industry toward more traditional industries such as steel, shipbuilding, petrochemicals and automobiles.
 - Increased facilities investment, fueled by buoyant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India, created demand for steel, chemicals and machinery in those countries. This led to an increase in production by Korean companies, which are geographically close to these countries and which are competitive in machinery-related industries.
 - In contrast, performance of the IT sector was unsatisfactory, failing to reach levels of the

previous year, the result of lower prices and the transfer of production bases abroad.

- When we compare growth in major industries in 2007, as estimated by our Hana Forecasting Model, it is clear that three major IT industries, namely, the semiconductor, display and mobile handset industries, experienced a drastic decline of -3% to -14%. On the other hand, raw material or machinery-related industries such as machinery, steel, petrochemicals or automobiles achieved growth of 1% to 7%.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particular, maintained significant growth levels. Shipbuilding orders rose 70.4% YoY as rising shipping charges boosted orders for bulk carriers.
- In the domestic consumption industries, the internet portal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ies achieved robust growth, whereas the construction industry stagnated under government regulations. The flour milling and sugar processing industries reported negative growth as a result of the rising cost of raw materials.

그림 5 Export Growth in Korea's Major Export Industries in 2007



Source: Hana Forecasting Model

2. 2008 Analysis of internal/external

- According to our projections of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Korea's economy is forecast to improve slightly in 2008 based on increased private consumption,

whereas an economic slowdown in Japan or the Eurozone will cause relatively slower global economic growth compared to last year. Nevertheless, the US, our major export market, will maintain an annual level of growth similar to 2007, amid uncertainties stemming from the housing recession and the subprime-related credit market squeeze. Coupled with sustained high growth in China, which is expected to reach 11%, demand in Korea and from overseas are expected to be strong.

표 5 External and Internal Economic Conditions in 2008 (%)

Categories		2007					2008					Impact on Industry
		1Q	2Q	3Q	4Q	Annual	1Q	2Q	3Q	4Q	Annual	
External conditions	Global GDP growth	-	-	-	-	4.8	-	-	-	-	4.6	Neutral
	US	0.6	3.8	2.4	0.8	1.9	1.5	1.7	2.0	2.8	2.0	Neutral
	Euro	3.2	2.5	2.4	2.1	2.6	2.0	2.3	2.2	2.5	2.3	Negative
	Japan	2.8	-1.2	2.0	1.2	1.7	2.8	2.4	1.2	1.6	2.0	Positive
	China	11.1	11.9	11.4	11.1	11.4	11.0	11.2	11.3	10.5	11.0	Positive
	Won/Dollar	938.9	929.3	928.2	920.0	925.0	915.0	910.0	905.0	900.0	908.0	Negative
Internal conditions	GDP growth	4.0	5.0	5.1	4.9	4.8	5.4	5.1	4.8	4.5	5.0	Positive
	Private consumption	4.1	4.2	4.4	4.6	4.3	4.8	4.6	4.5	4.1	4.5	Positive
	Facilities investment	10.8	11.9	3.0	7.0	8.2	8.0	6.0	9.0	8.0	7.7	Neutral
	Unemployment	3.6	3.3	3.1	3.1	3.3	3.3	3.1	3.0	3.1	3.1	Neutral

Source: Hana Forecasting Model

■ In 2008, among all external factors, the most serious risks will be the continual appreciation of the won and the potential for further spreading of subprime-related credit problems.

- The average won/dollar rate in 2008 is expected to stay at 908, down 1.8% over the previous year. Such appreciation of the won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industry, which is heavily reliant on exports.
- The subprime-related credit problems have settled down somewhat since central banks in the US and Eurozone took actions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markets. Market anxieties remain, however, and a drop in consumer confidence in the US

and Eurozone will be inevitable as additional subprime-related losses emerge.

- Although appreciation of the won could in theory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major export industries, we do not expect that i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export growth, since the global economy is growing at a robust pace and the influence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change on Korean exports has diminished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 Beginning in 2002, despite continuing appreciation of the won against the US dollar, export volumes have shown double-digit growth over five consecutive years, while operating profit margins have remained at the 7-8% level. From this, we can conclude that Korean industry's sensitivity to the exchange rate has fallen dramatically compared with the period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표 6 Changes in Won/Dollar Rate, Export Growth and Profit Margins

Categories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Changes in won/dollar (end of year, %)	10.0	5.3	-9.5	-0.2	-12.9	-3.0	-8.2	-0.3
Export growth (%)	19.9	-12.7	8.0	19.3	31.0	12.0	14.4	14.4
Operating profit margin of listed companies (%)	7.4	6.1	7.5	7.7	9.5	8.3	7.7	8.5
Ordinary profit margin of listed companies (%)	3.4	2.2	6.4	6.0	10.0	9.2	8.7	9.9

Source: BOK, Korea Customs Service, Kis-Value

- The US subprime mortgage problems may have an impact on Korean industry, but the impact will vary among different industries.
 - The potential impact of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on Korean industry is difficult to predict. Korea's exports may decline because of an economic slowdown overseas, i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is impact could potentially be compounded by the appreciation of the won.
 - In particular, if the yen gains against other currencies, along with an unwinding of the yen-carry trade, exports of Korean products that compete with Japan could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3. 2008 Korean Industry Outlook

- Based on the above-mentioned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we forecast that Korean industry overall will maintain reasonably healthy growth in 2008. Stable growth should be able to be sustained, provided the impact of won appreciation can be minimized. Industries that rely on the domestic market will achieve healthy growth as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 The sluggish IT industry will likely rebound in 2008, although growth will not be as buoyant as in past years. Growth in the materials and heavy industries, major drivers of growth in 2007, will slow from last year, but the drivers of growth will remain.
 - In the IT industry, the display and mobile handset sectors are expected to maintain negative growth, and growth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also be in the relatively low 2% range. This implies that the IT industry has not yet entered a recovery phase, and that supply-demand adjustments for each product are taking place.
 - Steel industry growth will drop to 3.7% in 2008 from 6.1% in 2007 as capacity utilization reaches near-saturation levels, and not because of a fall in demand.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growth in orders will only be around one-third of last year's growth, but relatively high growth of more than 24% is likely to be sustainable.
 - The chemical fiber industry is unlikely to escape from its current structural slump in 2008, with the simultaneous forces of sluggish demand and the transfer of production facilities overseas acting as drags on the industry.

표 7 Major Industry Growth Projections for 2008

(%)

Industry	기준	2007	2008	Industry	기준	2007	2008
Semiconductor	Production	-3.4	2.3	Chemical fiber	Production	-1.9	-7.0
Display	Production	-13.9	-7.5	Shipping	Revenue	14.3	11.2
PCB	Production	-3.7	1.4	Aviation	Revenue	8.9	9.3
Mobile handset	Production	-12.2	-5.2	Retail (Department store)	Sales revenue index	3.2	4.2
Electronic wire	Production	0.3	0.2	Clothing	Production index	7.0	6.9
Automobile	Production	6.9	6.5	Milling and sugar manufacturing	Production	-1.4	0.5
Auto part	Revenue	9.3	11.0	Pharmaceutical	Revenue	6.7	6.4
General machinery	Production capacity index	4.3	2.0	Paper	Production	1.6	0.6
Shipbuilding	Orders	70.4	24.3	Construction	Orders	-2.2	0.1
Steel	Production	6.1	3.7	Telecommunication (Mobile telecom)	Revenue	6.4	5.5
Non-ferrous metal	Production	4.6	3.7	CATV (SO)	Revenue	2.4	3.8
Oil refining	Production	3.4	5.9	Internet portal	Revenue	46.2	29.4
Petrochemical (Plastic)	Production	1.2	0.3	SW/IT service (SI)	Revenue	-5.3	3.5

Source: Hana Forecasting Model

표 8 Industry Forecast 2008

Industry Categories	Production		Domestic Sales		Exports		Profitability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Semiconductors								
Displays								
Mobile Handsets								
Automobiles								
Machineries								
Shipbuilding			-	-				
Steel								
Oil Refining								
Petrochemical								
Chemical Fiber								
Shipping	-	-	-	-	-	-		
Aviation	-	-	-	-	-	-		
Retails	-	-			-	-		
Milling · Sugar Manufacturing								
Pharmaceuticals								
Paper								
Construction			-	-	-	-		
Telecommunication Services	-	-			-	-		
CATV Broadcasting	-	-			-	-		
Internet Portal	-	-			-	-		
SW and IT Services	-	-			-	-		

Note: : Very good, : Good, : Fairly good, : Stagnant, : POOR, : Recession

The forecast chart was prepared based on each industry's YoY growth and past performance

Source : Hana Institute of Finance

II. 전기·전자산업군

1. 반도체
2. 디스플레이
3. 전자부품재료
4. 이동통신단말기
5. 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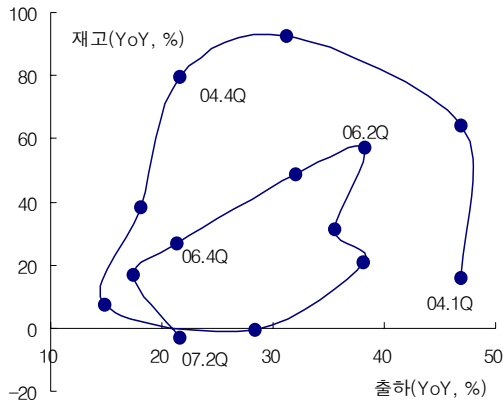
II. 전기·전자산업군

-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IT 제품 수요가 확대되며 외형 성장 추세가 다소 회복될 전망
 - 국내 IT 산업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 일본, 유럽 등 OECD 국가의 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음. 다만 후발 개도국의 경제 성장,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이와 같은 연관성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문제에 따른 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2008년 OECD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고가인 3G 휴대폰, 스마트폰, PMP 등 모바일 IT 기기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선진국 경기가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
 - 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 후발국의 고성장이 지속되며 고가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중국 등 고성장 국가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High-end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TV 등 고가 제품들의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국내 IT 산업의 외형 성장 추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8년 북경 올림픽이 개최되고, 디지털 방송의 대중화가 가속되고 있어 TV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환율하락이 우려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국내 IT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
 - 수익성 측면에서는 환율하락이 우려되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국내 IT 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 환율하락으로 인한 전방 대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후방 부품 기업들의 단가 인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낮은 중소기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선발 업체들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이 지속될 전망. 결국 TFT-LCD 패널 등 주요 전자부품의 가격 하락이 지속되며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
 - 전반적으로 IT 산업의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소폭의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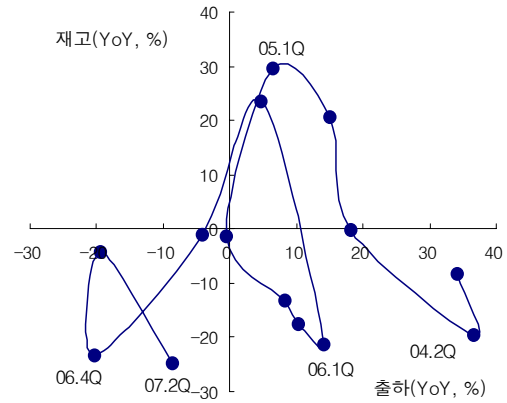
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 DRAM, NAND Flash 등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초과율이 1%p 정도 하락하며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전망. 휴대폰은 2008년 하반기 들어 고가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

그림 6 반도체 재고순환



자료 : 통계청

그림 7 이동통신단말기 재고순환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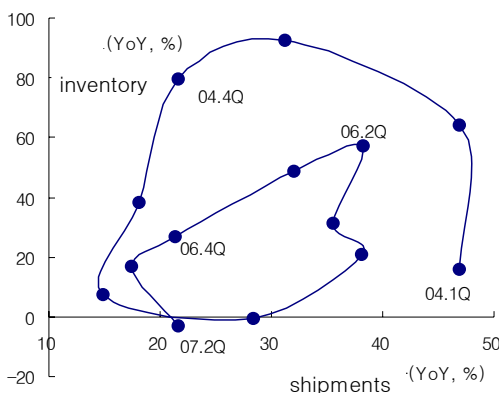
II. Electronics Industry Group (Semiconductors/Displays/Mobile Handsets)

- The industry's revenue growth will recovery slightly as the demand for IT products increases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 The domestic IT industry is largely influenced by economic conditions in OECD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Europe because of high levels of economic dependency on these countries. This relationship is weakening, however, owing to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transfer of production facilities abroad.
 - In spite of aggressive intervention by the central bank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will remain at a level similar to the previous year due to the potential threat of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which could weaken consumption of high-end mobile IT products, such as 3G mobile phones, smart phones and PMP. Overall, we conclude that economic conditions in advanced economies will have a neutral impact on Korea's IT industry.
 - Nevertheless, as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and India maintain their rapid pace of growth, the demand for high-end IT products is expected to rise. In high-growth countries, such as China, replacement demand for high-end products including mobile phones and flat display TVs will grow as income levels rise. Thus, we expect revenue growth in Korea's IT industry to recovery slightly.
 - Steady market growth in the display industry is expected, especially in the TV market, largely due to the impact of the 2008 Beijing Olympics and the fast-growing popularity of digital broadcasting.

- Concerns of won appreciation, combined with price declines stemming from excess supply, will hamper improvements in the profitability of the IT industry over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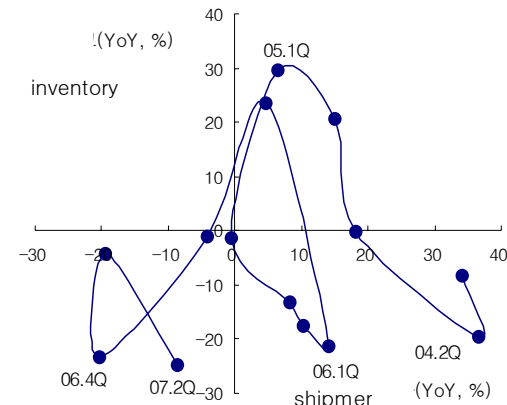
- In terms of profitability, a stronger won would not be a positive, as it would create problems in Korea's IT industry, where earnings are heavily reliant on exports, in terms of operating profit margins. Poor performance of large upstream companies due to a stronger won would be followed cost-cutting by parts makers, thereby hindering a profitability recovery in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ere exports account for a relatively small portion in the profit structure.
- Continuing facilities investment of leading companies will cause a sustained oversupply despite increased demand. Eventually, with falling prices on electronic parts such as TFT-LCD panels, the industry will not make profitability improvements.
-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will not easily be achieved overall in the IT industry, but some products will improve slightly in terms of profitability. The excess supply ratio of memory chips including DRAM and NAND Flash will decrease 1%p, leading to a small increase in profitability. The mobile handset industry should make a progress in profitability improvement as replacement demand for high-end products increases beginning in 2H 2008.

그림 8 Semiconductor Inventory Cycle



Source: KOSIS

그림 9 Mobile Handset Inventory Cycle



Source: KOSIS

1. 반도체

표 9 반도체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2.2	11.4	-8.7	-12.6	1.6	4.1	-3.4	1.4	-1.4	4.7	3.6	2.3
내수	2.7	4.3	-13.7	-4.7	3.0	2.1	-3.5	1.1	-1.7	2.6	2.8	1.3
수출	-0.8	9.5	6.0	-6.9	3.1	4.5	1.8	1.8	0.3	6.4	5.3	3.7

주 : 금액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2004년 이후 수익성이 가장 하락하며 업황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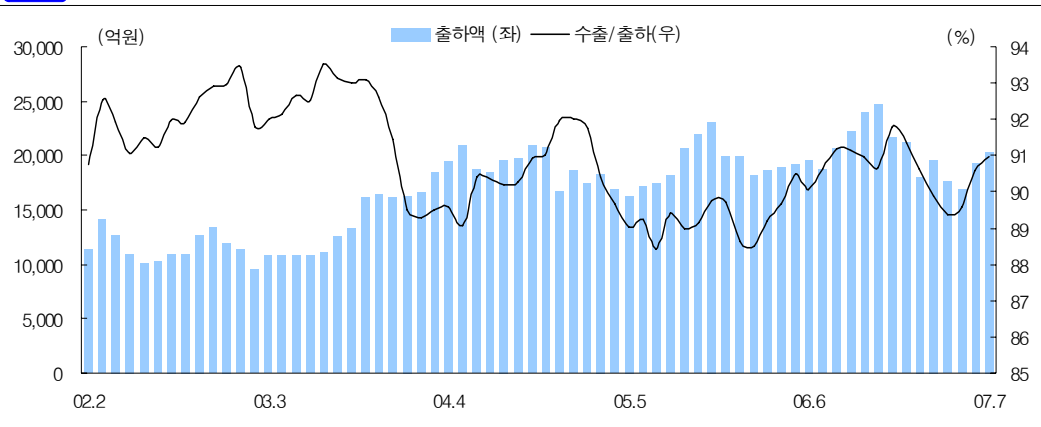
■ 전세계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감소

- 1~7월 전세계 반도체 출하액이 전년동기비 3.3% 증가한 1,41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월 국내 생산액은 전년동기비 9.0% 감소한 13조 3,676억 원을 기록. 출하액 또한 0.1% 감소
- 상반기 DRAM 가격이 급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며 국내 출하액이 감소.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등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도 한 원인

■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의 악화

- 메모리 반도체 Pure Player인 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9.8%를 기록. 하반기 들어 수익성이 다소 회복되더라도 15% 이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2004~06년 각각 31.4%, 24.8%, 24.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또한 비슷한 수익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익성 악화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과 원화 강세에 기인

그림 10 국내 반도체 출하 동향



자료 :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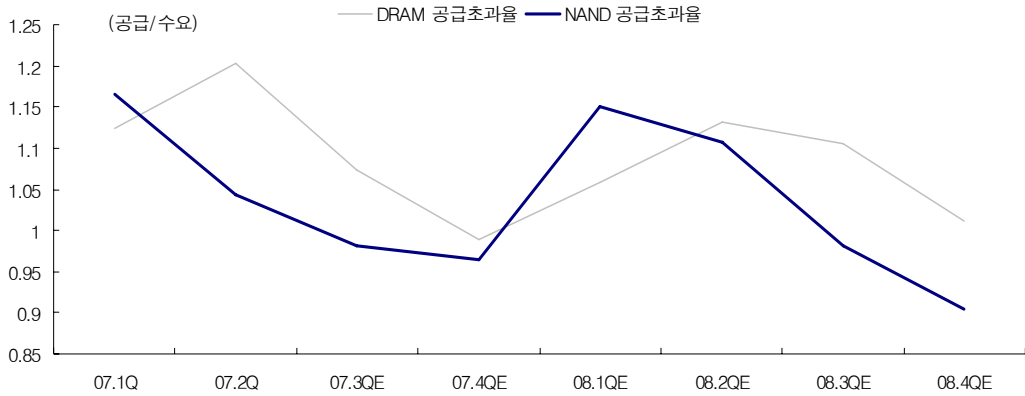
2) 2008년 전망 : 제한적인 수익성 개선은 가능하나 큰 기대는 어려울 전망

■ 외형 성장 추세의 둔화가 지속될 전망

- 2008년 국내 반도체 출하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5% 이하로 외형 성장 추세가 소폭 회복될 전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IT 제품의 주요 수요처인 구미 선진국의 소비 심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제한적
- 그리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 다만, 예년과 같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외형 성장 추세가 다소 회복될 전망

■ 제한적인 공급 과잉 해소에 머물러 전년과 같은 가격 하락이 되풀이될 전망

- 2007년 후발 메모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다소 감소하며 2008년 DRAM과 NAND Flash 모두 공급 과잉이 다소 해소될 전망
- 2008년 DRAM의 공급초과율은 전년대비 1%p 하락한 7% 수준, NAND Flash 역시 전년대비 1%p 하락한 0% 수준으로 예상. 공급 과잉이 소폭 해소되지만 개선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 하락이 되풀이될 전망

그림 11 DRAM, NAND Flash 수급 전망

자료 : Dataquest, IDC

■ 결국 수익성 개선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전망

- 2008년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의 가격 하락이 지속되며 주요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폭이 크지 않을 전망. 즉, 2004~06년 동안 지속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고수익성이 회복되는 시점은 후발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09년 이후로 예상
- 2008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2%p 정도 개선된 18% 수준, 하이닉스 역시 2%p 정도 개선된 16% 수준으로 각각 예상

2. 디스플레이

표 10 디스플레이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80.9	18.3	-10.8	-26.0	-8.4	-7.4	-13.9	-7.7	-5.8	-6.8	-9.9	-7.5
내수	244.8	148.8	73.5	26.9	32.1	32.0	38.4	21.2	38.6	31.2	27.4	29.8
수출	63.6	-13.8	-53.6	-56.3	-53.8	-39.4	-51.8	-11.1	-12.7	-14.2	-14.8	-13.2

주 : 물량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TFT-LCD 패널 업계의 수익성 회복

- TV용 LCD 패널 비중이 확대되며 LCD 시장의 성장 지속

 - 2007년 1~6월 전세계 TFT-LCD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비 50.0% 증가한 1억 7,513만대에 달함. 특히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월 17.9%를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TFT-LCD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TV용 TFT-LCD 패널 시장을 살펴보면, 32인치 패널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06년 12월 전체 TV용 TFT-LCD 패널 중 32인치 패널의 비중은 36.5%에서 2007년 6월 38.1%로 증가
 - TFT-LCD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7년 1~7월 국내 FPD TV 출하량은 전년동기비 15.6% 감소. TV Set 제품은 질적인 차별화가 어려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이며 인건비 절감, 관세 장벽 회피, 시장의 근접성 등을 이유로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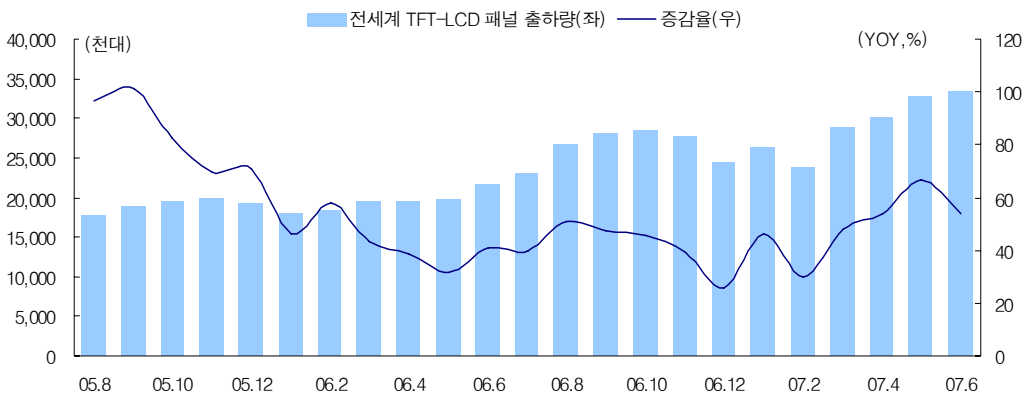
- 2분기를 기점으로 TFT-LCD 패널 업계의 수익성 개선

 - 2007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는 TFT-LCD 패널 업계의 수익성 회복을 들 수 있음. TFT-LCD 패널 Pure Player 업체인 LG필립스LCD는 2006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2007년 2분기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
 - 삼성전자 LCD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 1분기 2.5%에서 2분기 8.7%로 개선

되었으며, LG필립스LCD 역시 1분기 -7.6%에서 2분기 4.5%로 개선

- 이와 같은 수익성 개선은 LCD 패널 상위 4개 업체인 삼성전자, LG필립스LCD, AUO, CMO의 설비투자 금액이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공급 과잉이 다소 해소되었기 때문
- 그러나 PDP 패널은 40인치 시장에서 LCD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 지속. 국내 대표적인 PDP 패널 업체인 삼성SDI PDP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 1분기 -30.9, 2분기 -31.2%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매우 저조

그림 12 전세계 TFT-LCD 패널 출하량



자료 : DisplaySearch

2) 2008년 전망 : TFT-LCD 패널 업계의 수익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

■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FPD TV의 국내 생산, 출하량은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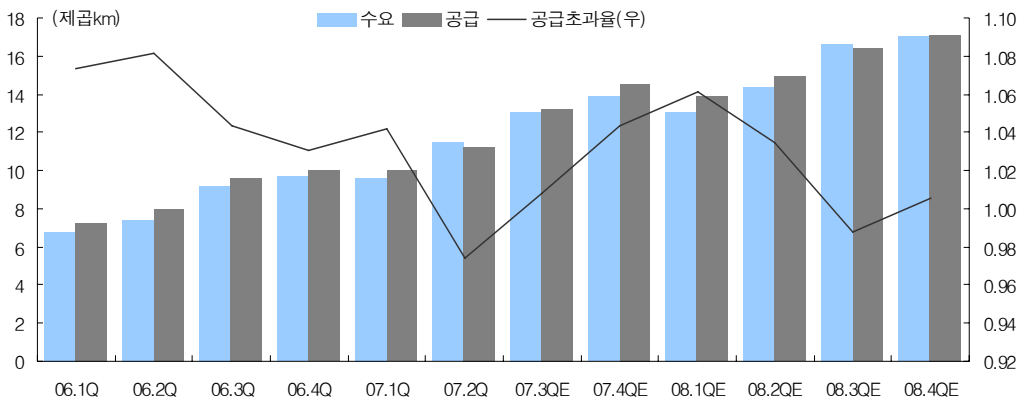
- 2008년 북경 올림픽, 디지털 방송의 대중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 그러나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확대되며 2008년 국내 FPD TV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8% 감소할 전망
- 국내 생산 물량은 65% 정도가 국내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생산량 중 내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 즉 국내 FPD TV Set 업체들의 수출은

각 지역에 인접한 해외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전망

■ LCD, PDP 모두 전년 수준의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전망

- TFT-LCD 패널은 건조한 수요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가 재개되며 전년과 비슷한 2% 정도의 공급초과율을 기록할 전망. 2007년에는 업계의 자율적인 감산으로 인해 공급초과율이 가장 낮은 시점이 2분기였지만, 2008년에는 다시 예년과 같이 계절적인 성수기인 3분기에 공급초과율이 가장 낮게 기록될 전망
- PDP 패널은 2005년 이후 공급 과잉이 심화되어 주요 업체들의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황. 이에 따라 선발 업체인 국내의 삼성SDI, LG전자 등이 설비 투자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공급 증가율이 감소할 전망. 그러나 LCD 패널에 시장을 잠식당하며 수요 증가율 역시 감소할 전망. 결국 전년과 비슷한 5% 수준의 공급초과율 예상

그림 13 LCD 패널 수급 전망



자료 : Displaybank

■ 전년과 유사한 수급 상황으로 인해 전년 수준의 수익성에 머물 전망

-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업계의 공급초과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며 수익성 또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 이에 따라 2008년 삼성전자 LCD의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비슷한 9% 수준, LG필립스LCD의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과 비슷한 8% 수준으로 예상
- PDP 패널 업계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2008년에도 대부분의 PDP 패널 제품 가격이 전년대비 30% 정도 하락할 전망. 이에 따라 PDP 패널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전망

3. 전자부품, 재료

표 11 PCB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0.0	4.3	-5.7	-8.0	0.4	-1.6	-3.7	1.1	2.9	0.8	0.7	1.4
내수	3.9	-2.6	-6.5	-8.8	-1.3	-2.9	-4.9	-2.6	1.3	0.9	0.9	0.2
수출	-6.1	22.3	-11.7	-7.9	2.9	-2.4	-4.7	2.8	7.6	1.2	1.2	3.1

주 : 금액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PCB 업황 악화, 반도체 재료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 범용 제품의 해외 기지 이전으로 국내 PCB 생산, 출하액 감소

 - 2007년 1~7월 국내 PCB 생산액은 전년동기비 5.8% 감소한 2조1,79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출하액 역시 전년동기비 7.1% 감소. 전방 Set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단가 인하 압력이 높아졌으며, 주요 전방 산업인 휴대폰 시장의 외형 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 범용 제품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국내 생산, 출하액 감소에 영향을 미침
 - 이에 반해 반도체 산업을 전방 산업으로 하는 재료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2007년 1~7월 국내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동기비 10.5% 증가하여 안정적인 외형 성장 지속. 그리고 포토마스크 출하량은 전년동기비 2.0% 증가한 26,081개를 기록
 - 이와 같은 반도체 재료 산업의 외형 성장은 300mm 웨이퍼용 재료 시장의 성장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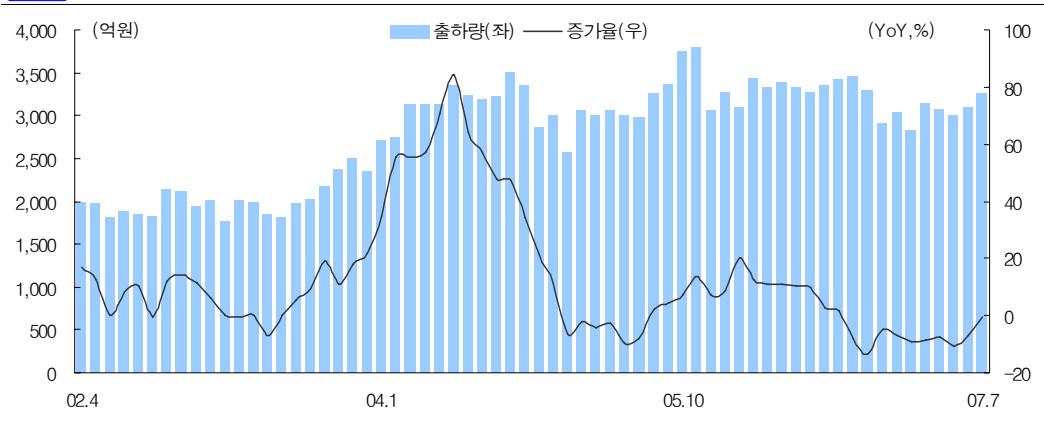
- PCB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되며 업체간 차별화 심화

 - 대덕전자, 대덕GDS, 코리아씨키트, 이수페타시스, 인터플레스, 심텍 등 주요 업체들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07년 1분기 1.0%, 2분기 0.7%에 불과. 2006년 상반기 3%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이 악화됨
 - 연성 PCB 시장으로 후발국 업체들이 진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

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의 대표적인 연성 PCB 업체인 인터플렉스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 1분기 -10.6%, 2분기 -13.0%로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DDR2 관련 메모리 모듈과 BOC 등의 분야에서는 고수익성이 유지되고 있음. 심텍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 1분기 11.4%, 2분기 12.2%를 기록
- 즉 주요 전방 산업과 기술적인 진입 장벽에 따라 PCB 업체 간 수익성이 차별화되고 있음
- 이에 반해 반도체 재료 업체들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특히 300mm 웨이퍼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는 LG실트론과 원익퀵츠는 2007년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각각 20.5%, 25.0%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음

그림 14 PCB 출하 동향



자료 : KOSIS

2) 2008년 전망 : R&D 능력에 따라 업체별 수익성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

■ PCB의 성장성 소폭 회복, 반도체 재료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전망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외형 성장이 지속되며 국내 PCB 생산액과 출하액은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률은 전년대비 2% 수준으로 미미할 전망. 이는 주 수요 산업인 휴대폰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범용 제품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지속되기 때문
- 과거 성장의 중심축인 휴대폰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며 휴대폰용 PCB 산업의 외형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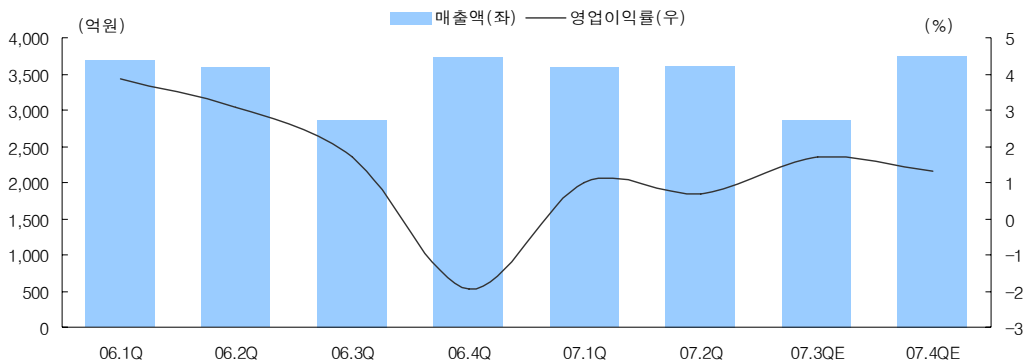
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용 연성PCB는 경쟁이 심화되어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 신규 거래선 확보가 외형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실리콘 웨이퍼 등 주요 재료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LG실트론의 300mm 웨이퍼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진행되며 2008년 국내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이외에도 포토마스크, 포토레지스트, EMC, CMP 슬러리 등 기타 반도체 재료들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PCB, 반도체 재료 업계의 수익성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 BOC, BGA 등 새로운 실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높을 전망이다. 결국 R&D 능력에 따라 업체별 실적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용 PCB 업체인 심텍의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그러나 휴대폰용 PCB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휴대폰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디지털 가전 등 신규 Application의 발굴이 절실
- 반도체 재료 업계에서는 네패스의 수익성이 200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300mm 웨이퍼 관련 업체들의 고수익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딩와이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PCB 산업에서와 같이 업체별 수익성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그림 15 주요 PCB 업체 합산 실적 동향



주 : 대덕전자, 대덕GDS, 코리아씨키트, 이수페타시스, 인터플렉스, 심텍 합산
 자료 : 각사 자료, fnguide

4. 이동통신단말기

표 12 이동통신단말기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7P	2008				2008E
			1/4	2/4	3/4P	4/4P		1/4E	2/4E	3/4E	4/4E	
생산	9.6	-3.5	-29.2	-14.3	1.9	-4.5	-12.2	-8.0	-2.2	-3.1	-8.1	-5.2
내수	-15.8	5.7	22.0	47.5	3.0	3.2	17.3	3.0	5.0	4.9	5.1	4.2
수출	12.8	-3.9	-27.0	-16.7	0.0	-2.0	-12.9	-5.0	-1.0	-5.2	-6.1	-6.7

주 : 물량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국내 생산량의 감소세. 차별화된 전략으로 업체별 수익성은 상이

■ 생산 기지 해외 이전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 2007년 전체 생산량은 1억 7,100만대로 전년대비 12.2%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인해 2005년 이후 국내 생산량은 연평균 3~4% 이상 감소하였음
- 내수 시장은 HSDPA 교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내수량은 전년대비 17.3% 이상 증가한 1,922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그림 16 이동통신단말기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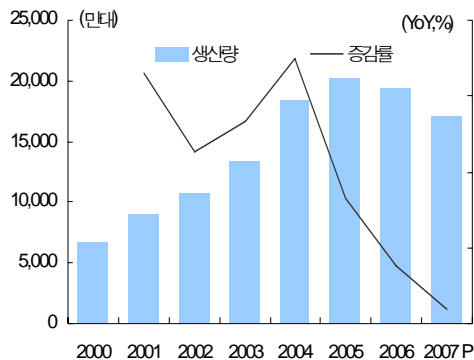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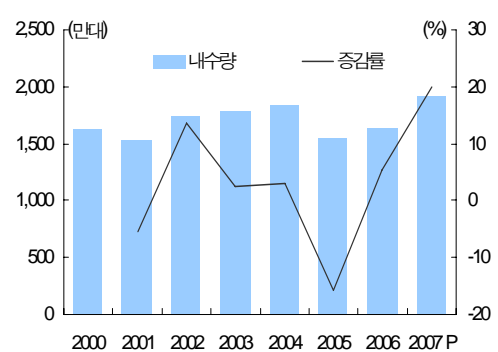


그림 17 내수량 및 증감률 추이



자료: KOSIS,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KOSIS,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07년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91.6%로 추정되며, 이러한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수출 국가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일본 및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낮아지고 유럽 및 신흥 개도국 등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이 특징적임

그림 18 이동통신단말기 수출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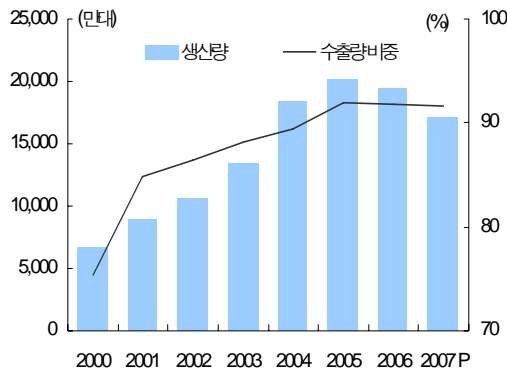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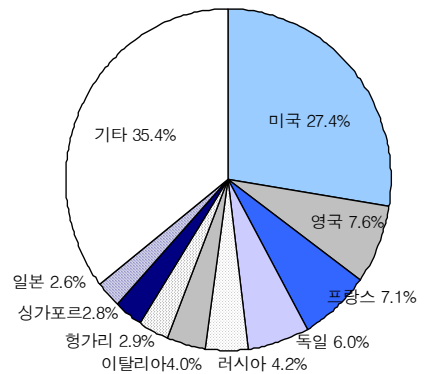


그림 19 주요 수출국 및 수출 비중



자료 : KOSIS,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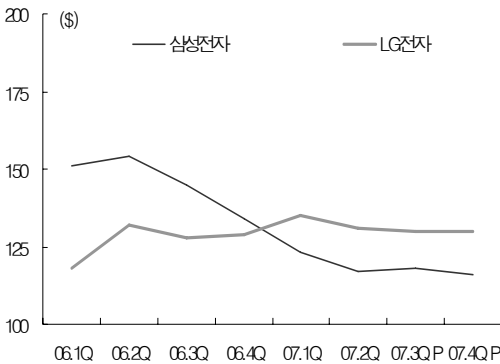
주 : 2007년 7월 누적 기준

자료 : KOSIS

■ 차별화된 제품 전략 채택에 따라 각사별 상이한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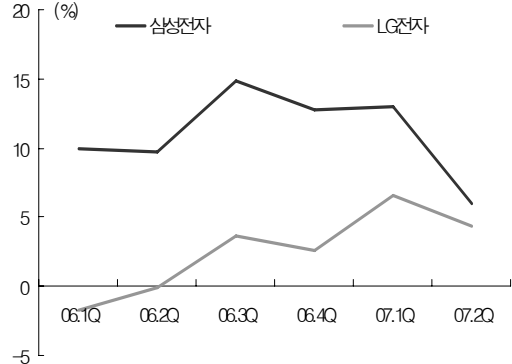
- 삼성전자는 중저가폰 라인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LG전자는 Premium 시장 집중 공략 전략을 채택. 삼성전자는 2007년 1분기 13%, 2007년 2분기에는 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LG전자는 2006년 상반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부터는 반등하여 2007년 1분기 6.6%, 2분기 4.4% 수준의 영업이익률 기록
- 주요 판매 시장 역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Emerging Market을 중심으로 중저가폰 판매에 집중하는 반면, LG전자는 교체수요를 타겟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
- 2006년 4분기 처음으로 LG전자의 이동통신단말기 ASP가 삼성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삼성의 경우 2007년 1분기 \$135, 2분기 \$129를 기록한 반면, LG는 1분기 \$135, 2분기 \$131을 보이고 있음

그림 20 업체 별 이동통신 단말기 ASP 추이



자료 : 각사 자료

그림 21 각사의 휴대폰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각사 자료

2) 2008년 전망 : 판매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수익성 개선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듯

- 유럽 3G 서비스 확산 및 신흥개도국 고가폰 교체 수요에 따른 판매 호조 전망

 - 2008년 상반기 3G 서비스가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Converged Service Device 및 합리적인 가격이 유럽 수요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였으나 향후에는 3G 서비스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최근 신흥 개도국의 경제성장, 고객 의식 변화 등을 이유로 교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 중. 젊은 층 및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객들의 휴대폰 교체 사이클이 8~12개월로 짧아지고 있으며, 휴대폰이 새로운 부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

- 고가폰 판매 호조로 인한 수익성 개선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듯

 - 유럽 3G 서비스 시장에서 단말 제조사들은 마케팅 비용 급증과 프로모션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조절해나가는가가 유럽 시장 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러한 고가폰 수요의 확장에 따라 단말 제조업체들의 ASP는 다시금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신흥 시장 내 신규수요가 포화수준에 이르는 2008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8년 전체적인 수익성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5. 전선

표 13 전선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5.0	-2.4	-5.0	1.3	2.4	2.5	0.3	2.5	2.5	2.5	-5.9	0.2
내수	4.8	-2.9	-8.2	-3.1	2.5	12.8	1.1	4.4	2.3	2.4	0.0	1.8
수출	-6.5	-0.4	0.5	8.6	2.5	-10.1	-0.2	4.4	2.1	2.8	2.5	3.0

주 : 물량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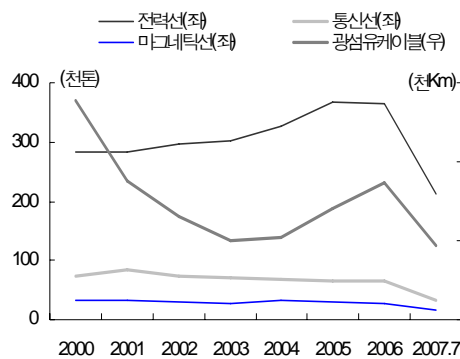
1) 2007년 동향 : 전력선 등이 정체 시장 내 주요 수익원으로 등극

- 송배전망 투자지출 및 FTTH 확대에 따라 전력선과 광섬유케이블 생산량 증가
 - 2007년 7월 누적 생산량 기준 전력선은 36만 7,635톤, 광섬유케이블은 56만 Km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평균 7.3%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반면 마그네틱선과 통신선 생산량은 2000년 이후 -3.0%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 2007년 전선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전선산업은 내수량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 그러나 국내 전선관련 투자 속도 둔화로 인해, 각 사들은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따라서 2007년 7월 기준 생산량 대비 내수량 비중은 전력선 86.4%, 통신선 74.3%, 마그네틱선 69.7%, 광섬유케이블 86.5%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2007년 수출은 전년대비 -0.2%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6년 전선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에 비해 그 속도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중국 등 같은 경제 구역 내 있는 개도국들의 송전망 설비 확대 등에 힘입어 당분간 수출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전기동 가격 상승으로 전선업계 수익성 악화는 지속
 - 2005년부터 상승세가 시작된 전기동가격은 2006~7년 들어 급등과 급락을 반복 중. 이는 중국 및 중동 지역의 전력망/통신망 등 기간산업 확충으로 인해 동 수요가

대폭 증가한 반면, 동 제조 관련 공장에서의 파업, 화재 등으로 인해 공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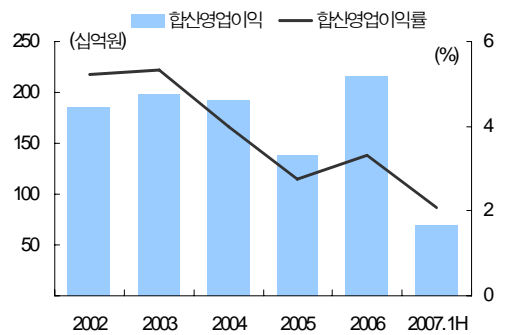
- 이로 인해 국내 주요 4개 전선업체 합산 영업이익률은 2007년 상반기 2.07%로 전년동기비 0.7%p 이상 감소하였음. 2002년 5.22% 수준이었던 국내 전선업체 수익성은 2004년 3.9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

그림 22 전선 품목별 생산량 추이



자료 : KOSIS

그림 23 합산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각사 자료

2) 2008년 전망 : 수익성 높은 초고압 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의 수요 증가 전망

■ 광케이블 및 전력선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

- 2008년 국내 일반 전선 생산량은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광케이블 및 전력선의 생산량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08년 전체적인 전선 생산량 역시 전년대비 0.2%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광통신망 분야에서는 인터넷 통신속도 1~2Mbps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VDSL 및 광랜 등 인터넷 망 고도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 또한 2008년 IPTV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향후 초고속 인터넷의 통신 속도를 100Mbps까지 상향하는 망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듯
- 나아가 전화, 인터넷망이 점차 FTTH로 진화하고 광대역혼합망, VoIP, 홈네트워킹

등 신규 유선통신 서비스와 WiBro, HSDPA 등 무선 서비스를 결합시키는 투자가 본격화될 듯. 또한 위성 및 지상파 DMB를 통해 통방 융합이 2008년 시작될 것으로 보여 케이블 선의 수요 역시 늘어날 전망

- 수익성 높은 제품 위주의 매출로 인해 4%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할 듯
 - 수익성이 좋은 초고압 케이블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전선업체들의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듯
 - 따라서 2007년 현재 2% 수준인 영업이익률은 2008년 상반기에는 3% 후반,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4%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14 2008년 산업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업 종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반도체	- 중국, 인도 등의 IT 제품 수요 확대 - 모바일 IT 기기의 메모리 요구 사항 증가	-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 - 설비 투자가 지속되며 경쟁 심화
디스플레이	- 북경 올림픽으로 디지털 TV 수요 확대 - 디지털 방송 대중화 - LCD 패널 업계의 구조조정으로 경쟁 완화	-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 - 일본 PDP 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접근 - 선발 업체들의 설비 투자 재개로 공급 확대
전자부품, 재료	-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 TV를 중심으로 디지털 가전 수요 확대 - DMB, Wibro 등의 대중화	- 대만, 중국 업체들의 범용 제품 시장 진입 - Package Substrate 시장의 진입 장벽 약화 - 전방 휴대폰 산업의 성장 둔화 - 단가 인하 압력 증가
이동통신 단말기	- 유럽 및 신흥개도국의 고가폰 교체 수요 증대 - 국내 3G 시장 개막으로 인한 내수 시장 확대	- 개도국 신규수요가 포화되는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 전망 - 유럽 시장 내 3G 마케팅 비용 증대 전망
전선	- FTTH, IPTV 등으로 인해 고수익성의 전력선 및 광케이블 수요 증가 전망	- 일반전선의 수요 정체

Ⅲ. 기계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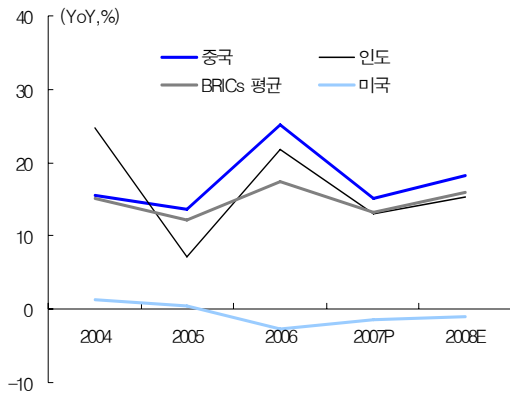
1. 자동차
2. 자동차부품
3. 일반기계
4. 조선

III. 기계산업군 (자동차/기계/조선)

- 대형차 중심의 내수시장 공략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해외시장에서 현지화 모델 출시와 현지공장의 생산 본격화로 해외시장 공략이 확대될 전망
 - 중국·인도 등 BRICs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2008년 자동차 산업을 이끌 동력으로 작용하여 도요타, 혼다, GM 등 주요 업체들은 현지 설비 투자를 통해 소형차 중심의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
 - 차량1대당 인구비율이 61.7과 144.2로 구매잠재력이 매우 큰 중국과 인도의 소형차 중심의 판매 증가로 전세계 소형차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1,480만대가 판매될 전망
 - 현대차 그룹은 부품 산업 수직 계열화와 Buy-Back 형식의 Global Sourcing 확대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및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전망
 - 그러나 부품업체의 내부화, 하도급 거래 관행의 고착 및 완성차 업체의 공급 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인해 중소 규모의 부품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전망
 - 환율이 자동차업체의 수익구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에 따른 재고부담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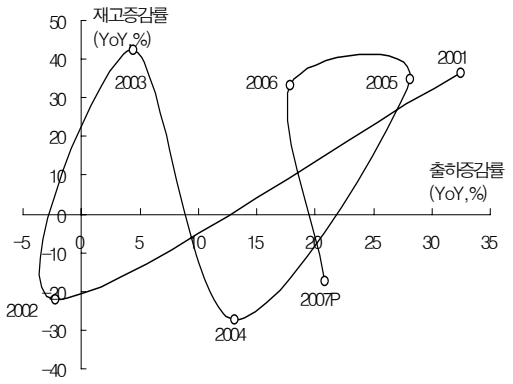
- 중국 및 인도의 SOC 투자 확대와 오일머니를 통한 중동지역의 플랜트 수요 급증으로 건설·공작 및 플랜트 기계류와 조선산업의 호황은 지속
 - 2008년 중국GDP 성장률이 전년 수준인 11.0%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SOC투자 확대는 지속되어 국내 건설기계업체의 수출도 지속 증가할 전망
 - 고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지역의 발전, 담수 및 석유화학 부문 플랜트 투자확대로 국내 가공공작기계 및 플랜트 기계류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어 업체들의 수익 개선이 더욱 확대될 전망
 - 4년의 수주물량을 확보한 조선업은 높은 선가를 바탕으로 수익성 증대를 위한 선별 수주전략을 통해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건조량 증가는 엔진과 후판공급물량의 부족을 초래, 선박의 성공적 건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24 BRICs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 추이



Source : Fourin, Global Insight, JD.Power

그림 25 일반기계 재고순환



Source : KOSI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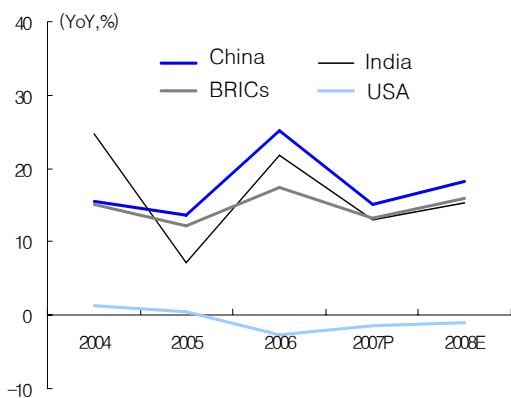
III. Machinery Industry Group (Automobiles/Machineries/Shipbuilding)

- Automobile industry profitability will improve as auto manufacturers carry out large-car marketing strategies focusing on the domestic market, and put greater efforts into selling in overseas markets by introducing new, localized models are introduced and overseas production is increased.
 - Based on growth in the automobile industry stemming from economic growth in the BRICs, major companies including Toyota, Honda and GM will actively engage in small-car production through investment in local facilities.
 - The total number of small-car sales worldwide will amount to 14.8 million, up 3.7% from last year due to strong sales in China and India, which have relatively high per-capita car ownership ratios, at 61.7 and 144.2, respectively.
 - Hyundai Motor Group will concentrate its efforts to improve manufacturing efficiency and capture cost competitiveness through vertical integration of the auto parts industry and buy-back global outsourcing.
 - Nevertheless, subcontracting and cost-cutting pressures from finished auto manufacturers will hinder profitability improvem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auto part manufacturers.
 - Exchange rates will remain a key factor in the profit structure of the automobile industry, but their impact will be decidedly weaker than in past years. Inventory burdens that stem from sales performance in overseas markets will become a more important variable.
- Increased SOC investment in China and India and a sharp rise in production facility demand in the Middle East will stimulate robust growth in construction, processing and plant machinery and shipbuilding industries.
 - In 2008, GDP growth in China will remain high at 11%, a level similar to 2007,

resulting in sustained strong SOC investment and hence strong export opportunities for Korea's construction machinery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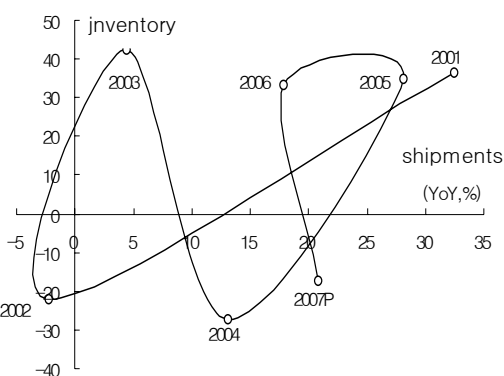
- With growth in the Middle East on the back of surging oil prices and increased plant investment in desalination and petrochemical plants, Korea's processing machinery and production facility exports will continue to grow, resulting in increased profitability.
-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secured four year's worth of orders, will continue to enjoy impressive growth by implementing a strategy of selecting orders based on high shipping charges. An increase in shipbuilding construction, a result of growth in facilities investment, has caused a shortage of engines and thick steel plates, and will become the most crucial factor of successful completion of shipbuilding.

그림 26 Auto Sales Growth in BRICs



Source: Fourin, Global Insight, JD.Power

그림 27 Machinery Inventory Cycle



Source: KOSIS, Hana Institute of Finance

1. 자동차

표 15 자동차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14.7	10.2	4.3	9.6	6.5	6.9	6.9	7.9	4.5	12.1	2.6	6.5
내수	4.2	1.9	6.0	10.3	4.7	5.0	6.5	8.5	11.5	5.9	7.8	8.5
수출	19.0	12.2	5.6	7.4	10.3	5.0	6.9	7.5	4.5	7.6	1.4	5.1

주 : 물량기준(KD포함)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수출과 내수 모두 안정 성장, 2/4분기부터 빠른 회복세

■ 2007년 국내 자동차산업(완성차 기준)은 수출과 내수 모두 전년대비 6%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1/4분기중 생산이 4.3%의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2/4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7년 국내 완성차 생산은 586만대로 전년대비 6.9%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국내시장에서는 상반기에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고유가 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판촉활동 강화와 소비심리회복에 따른 내구소비재 구매의 증가로 자동차 내수시장이 회복되고 있음. 하반기에는 추석연휴로 인한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성장세는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2007년 국내 자동차 내수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124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463만대가 예상됨. 수출은 2/4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며, 3/4분기에는 회복세가 더욱 확대되었음. 미국과 유럽 등 주력시장의 수출 개선이 더딘 가운데, 동유럽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여건속에서 GM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GM대우의 수출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9월까지의 업체별 생산동향을 보면, 현대차의 생산은 전년동기비 4.0% 증가하고 기아차의 생산은 오히려 3.4% 감소에 그친 반면, GM대우는 21.4%, 르

노삼성은 7.4%의 높은 생산 증가를 보였음. 동기간중 국내 완성차 생산이 전년동기비 16.4만대 증가했는데 이중 GM대우의 생산증가분이 12.1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2007년 국내 완성차업체의 실적 호조는 GM대우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음

- 현대차는 1/4분기중 노조파업에 따른 조업차질 영향에도 불구하고 1~9월 생산증감률은 전년동기비 4.0% 증가하였음. 수출시장에서의 고전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에서 신차 수요는 회복되고 있음. 또한 2/4분기부터 수출도 개선되어 3/4분기에는 개선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반면, 기아차는 유동성위기 우려감속에 여전히 실적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표 16 2007년 1~9월 국내 자동차업체별 생산 동향 (단위 : 만대)

구 분	2006		2007		증감률(YoY, %)	
	9월	1~9월 누계	9월	1~9월 누계	9월	1~9월 누계
현 대	16.4	117.9	10.9	122.7	-33.4	4.0
기 아	10.8	81.5	8.9	78.8	-17.4	-3.4
GM대우	7.9	56.6	6.8	68.7	-13.1	21.4
르노삼성	1.5	11.9	1.2	12.8	-17.8	7.4
쌍 용	1.4	8.3	0.9	9.4	-34.8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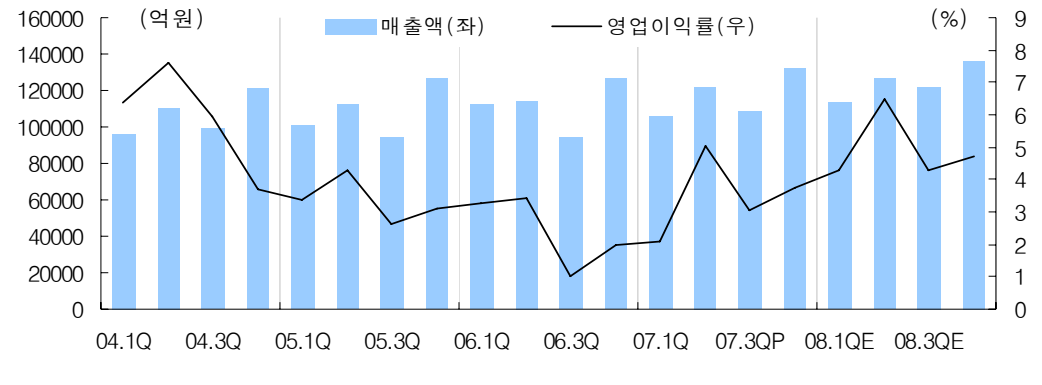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익성은 매출과 마찬가지로 2/4분기부터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원화강세 지속과 생산차질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국내 완성차 2사(현대차, 기아차)의 1/4분기 영업이익률은 2.1%에 그쳤지만, 2/4분기에는 매출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완화로 상반기중 영업이익률은 3.6%로 전년동기의 3.3%보다는 0.3%p 개선됨.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은 지속되어 2007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3.5%로 전년에 비해 1%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2/4분기부터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으며, 특히 기아차의 경우는 1/4분기의 -1.9%에서 2/4분기에는 0.9%로 흑자 전환되었음
- 고정비 부담이 큰 자동차산업의 경우 가동률이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됨. 현대차는 1/4분기의 조업차질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와 미국내 판매부진 여파로

1/4분기 영업이익률은 4.4%에 그쳤지만, 2/4분기에는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7.1%로 크게 개선되었음

그림 28 완성차 2사(현대차, 기아차)의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 Fnguide consensus, Hana Forecasting Model

2) 2008년 전망 : 내수와 수출의 안정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폭도 확대될 전망

■ 2008년 국내 자동차경기는 내수와 수출 모두 양호한 성장이 예상됨. 국내 소비심리의 회복에 따라 소비자들이 내구소비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국내 자동차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해외수요는 미국시장에서의 국내자동차에 대한 품질평가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이와 같은 품질평가가 중고차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수요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차량의 교체주기가 6~7년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140만대 이상 판매하였던 2000~2002년의 교체수요가 2007년부터 발생하여 2008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한미FTA로 인한 특소세 인하효과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해외시장에서의 높아진 평가와 더불어 현지화모델의 투입은 해외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업계에 의하면 2010년까지 10여개의 현지화모델이 투입될 예정에 있으며 이와 같은 신차출시효과는 해외수요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내수시장에서 소비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형차중심의 수요가 지속되고, 국내완성차 업체들이 마진율이 높은 내수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업체들의 수익성도 2007년에 이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국내 자동차업체의 노사관계가 그 동안의 강경투쟁에서 온건노선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고, 해외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약화되어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대형 신차의 신규 런칭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 환율 변동이 국내 자동차업계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그동안 국산차의 품질 개선, 브랜드 가치의 상승, 평균판매단가의 상승 등이 환율 하락분을 상쇄했기 때문임

2. 자동차부품

표 17 자동차부품 매출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매출액	14.9	6.7	10.3	7.4	8.7	10.5	9.3	11.3	16.0	10.7	16.9	11.0

주 : 매출액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완성차의 내수 및 수출 회복은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을 유도

■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9.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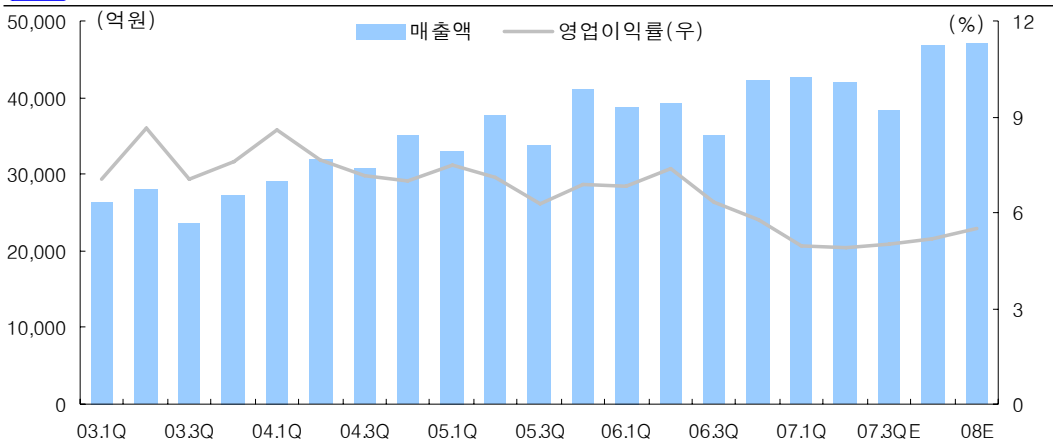
- 2007년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출시로 인해 완성차의 내수 판매가 하락세에서 6% 이상 증가하여 부품업체의 외형도 동반 성장
- 특히,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 신차출시 효과 등으로 인해 수출량이 전년대비 6% 이상 증가하는 등 양호한 수출 실적은 부품업체의 매출 성장에 기여
- GM대우의 경우 수출 호조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30% 가까이 증가하고, 현대차 역시 신차출시 효과에 힘입어 10% 이상의 생산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해외 현지의 재고부담이 완화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9% 이상 증가한 것이 자동차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을 유도
-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내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체적인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직수출 확대, 민간소비 개선 및 자동차 운행대수 증가에 따른 A/S 부품 시장 확대, OEM용 부품의 단가 인상 등도 외형 성장에 기여
-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18% 이상 증가하고, 비중이 큰 OEM은 8% 이상 증가하여 전체 부품 생산액은 전년대비 1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완성차 업체의 부품 단가 인하 압력의 지속으로 인해 2007년 35개 부품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9.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자동차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5% 수준으로 하락

- 완성차업체의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업체의 원가 부담이 여전히 높

- 은 상황이며, 직수출 비중 증가로 이익기여도가 낮아진 점은 수익성 개선의 제한요소
- 특히, 완성차업체의 원가 압력이 지속되어 원가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화강세도 수출채산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임
- 자동차부품업체의 원가 절감 노력, 직수출 확대 등 영업 확대를 통한 가동률 상승 및 외형 성장과 이를 통한 고정비 부담 완화 노력으로 영업이익률이 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전년에 비해 1.6%p 정도 하락한 수준
- 그러나 직수출 증가 및 납품선 다변화, A/S용 부품 비중 확대, 해외 주요 메이저와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완성차업체로부터의 종속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일정 부분 보완하여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
- 특히, 신차를 중심으로 부품의 모듈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모듈사업 영위가 가능한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형 모듈업체은 신규 차종에 대한 설비투자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어 수익성 악화 부담이 낮은 상황임

그림 29 자동차부품업체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주 : 총 35개 부품업체 합산

자료 : Kis-Value,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2008년 전망 : 내수 및 수출 모두 양호한 성장 기대

-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 증가로 부품 생산액은 전년대비 15% 정도 증가할 듯
 - 대형차를 중심으로 꾸준한 내수 수요 증가 지속, 차량 교체 수요가 2007년부터 분

격화되고 신차 출시가 지속되는 점, 민간소비 및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자동차 부품의 내수 판매 증가에 일조할 전망이다

- 완성차의 수출부문 역시 품질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해외 인지도가 상승하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완성차의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어 부품업체로서는 수출 호조가 예상된다
- 특히, 세계 경제의 건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GM의 해외 라인 가동의 본격화 등 해외 생산라인업 구축 완료로 신차 출시 효과도 기대되며,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완성차의 생산량 증가 및 해외현지의 재고 감소도 부품 수출 증가에 긍정적임
-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내수 및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9%, 20% 수준을 기록하여 전체 생산액이 전년대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완성차 업체의 실적 호조로 부품 판매 단가 인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부품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7년을 바닥으로 부품업체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평균 영업이익률은 5.6% 수준으로 전년대비 0.6%p 상승할 전망이다

- 2008년 주요 원재료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고 환율하락도 지속되어 원가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품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 특히, 완성차 및 부품의 글로벌 경쟁으로 인한 관관비 부담,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채산성 개선 지연 등은 부품업체의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A/S부품 등 고부가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 이익 기여도가 높은 내수용 부품 매출의 증가, 완성차 업체의 생산 증가에 따른 부품업체의 가동률 상승 및 판매액 증가는 고정비 부담의 완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 또한, 완성차 업체의 실적 호조로 단가 인하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여 부품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특히, 완성차의 국내외 신규 투자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이에 동참하였던 부품업체들 역시 투자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지속된 부품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은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듯
- 이에 따라 2008년 부품업체 35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5.6%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3. 일반기계

표 18 일반기계 생산능력지수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능력지수	3.8	-0.9	-0.3	6.8	8.4	2.1	4.3	5.5	1.0	0.8	0.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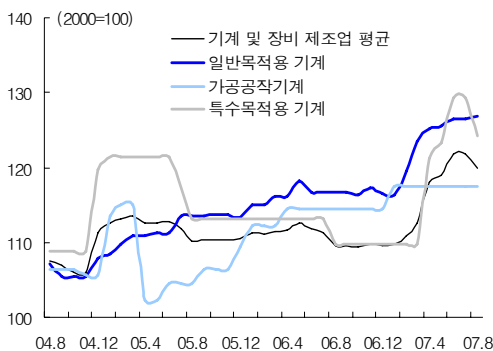
주 : 생산능력지수 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조선·건설·공작기계 및 플랜트 기계의 수출호조로 성장세 지속

■ 건설기계와 플랜트, 조선부문의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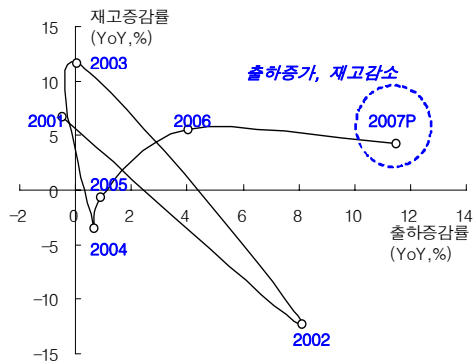
- 2007년 7월까지 건설, 가공공작, 냉동공조, 섬유, 내연기관 및 플랜트 기계류의 호조로 수출은 전년동기비 21.7% 증가한 177.5억달러, 수입은 16.2% 증가한 165.8억달러를 기록
-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굴삭기 부문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1.7% 증가하는 호조를 기록하여 전체 기계류 수출의 15.5%를 건설기계가 차지함
- 건설기계의 수출 급증과 함께 조선 및 플랜트 산업의 호황에 힘입은 내연기관, 플랜트 기계부품류의 수출도 급증하여 2007년 8월말 기준 기계생산능력지수는 119.9p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9.4% 상승하는 호황세가 지속

그림 30 기계 업종별 생산능력지수 추이



자료 :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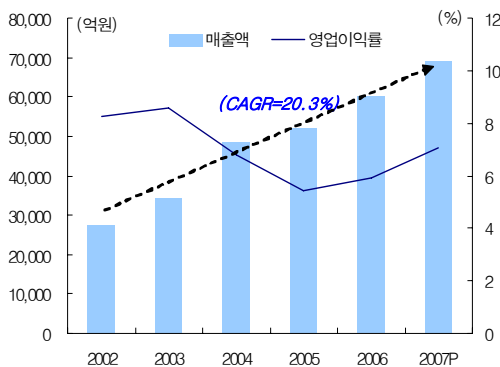
그림 31 일반기계 출하/재고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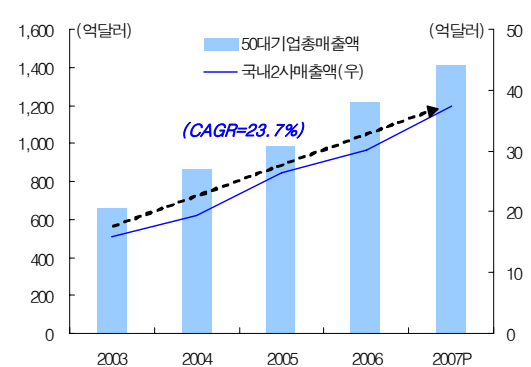
자료 : KOSI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건설 및 가공공작기계업체의 수익성 개선, 섬유기계업체는 수익성 악화
 - 세계 건설기계 시장의 호황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가들과 EU의 경기 호황과 함께,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막대한 오일머니를 확보한 중동국가들의 대대적인 SOC 건설 투자 확대에 기인
 - 2007년 상반기 기준으로 건설기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전세계 건설기계업체의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모두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
 - 2007년 7월말 기준 국내 가공공작기계 수주규모는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1조4,028억원을 기록하였고 이중 수출이 23.7% 증가한 6,593억원을 기록하여 전체의 47%를 차지
 - 가공공작기계 업체의 경우 조선 및 플랜트산업의 성장세 지속 및 인도, 중국 및 EU 로의 수출 호조세 등으로 수주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2007년은 전년대비 0.9%p 상승한 6.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 섬유기계의 경우 2007년 상반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이 전체 수출의 40.2%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전년동기대비 57.2% 증가한 4억3천만달러를 기록, 중국이 13.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섬유기계산업은 국내 섬유산업의 성장률 둔화 및 생산거점의 해외 이동, 섬유기계 업체간 경쟁 심화로 내수시장의 성장률 및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그림 32 국내 가공공작기계업체 경영실적 추이 **그림 33** 세계 건설기계업체, 국내업체 매출추이



주 : 두산인프라코어, 화천기계, 위아 합산 실적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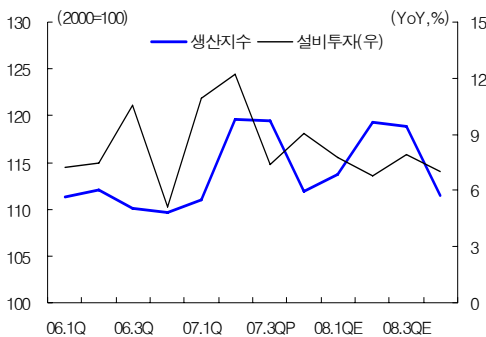


주 : 국내 2사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자료 : International Constructi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2008년 전망 : 수출 호조세 지속에 따른 매출성장과 수익 개선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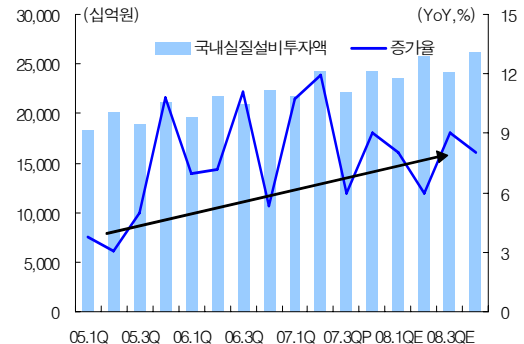
- 기계류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 수출증가는 지속될 전망
 - 2008년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7년의 8.9%에서 소폭 하락한 7.1%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생산능력지수는 전년대비 2.0% 상승한 117.8p를 기록할 전망
 - 글로벌 달러약세 지속으로 환율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내수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시장의 회복세와 수출의 지속적 증가 및 신흥시장을 포함한 시장 다변화로 전반적인 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 내수용 자본재수입액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LCD 및 조선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여 내수 성장을 견인할 듯
 - 일본의 2007년 상반기 기계수주실적이 전년대비 5% 증가하는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8년 설비투자가 확대될 전망으로 가공공작기계의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중국 등 신흥개발국가들의 경제개발 추진에 따른 신규수요 발생과 발전설비 투자 확대, 중동지역의 유가상승에 따른 사회간접 설비확충은 2008년에도 수출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34 설비투자, 기계생산지수 추이 및 전망



자료 : KOSI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 35 실질설비투자액 증감 추이 및 전망



자료: KOSI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건설기계, 가공공작기계, 플랜트 부문의 수출 증가가 호황국면을 주도할 전망
 - 세계 건설기계 시장규모가 2008년에는 8.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호황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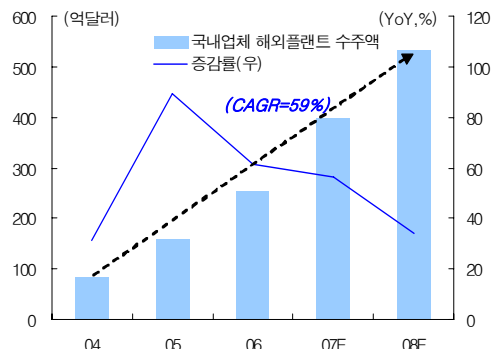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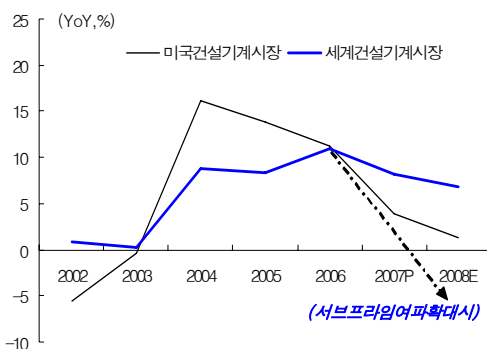
지속할 전망으로, 이는 건설기계의 판매단가인상으로 이어져 2008년에는 건설기계 업체의 수익성 개선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

- 고유가 및 에너지 수요 증가세 지속에 따른 플랜트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어 2008년 국내업체의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33.9% 급증한 534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제조업 시황의 선행지표인 국내실질설비투자액이 2008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08년은 수출과 내수 모두 매출이 증가하여 가공공작기계 업체들의 외형 및 수익개선이 시현될 전망

■ 냉동공조기계, 섬유기계 업체의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전망

-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섬유시장 축소로 이어져, 미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섬유기계업체의 2008년 수출 증가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08년 섬유기계 수출량은 2007년 대비 7.7% 증가한 18억9천만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환율하락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으로 섬유기계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5%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냉동공조기계의 경우 지속적인 해외수요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2008년에도 수출 증가세는 지속할 전망이나,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산업용 냉동기 및 공조기의 수주가 저조할 전망으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은 감소할 전망

그림 36 세계 및 미국건설기계시장 성장률 추이 그림 37 국내업체 해외플랜트 수주량 추이 전망



자료 : AEM,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한국플랜트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 조선

표 19 조선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수주량	-21.5	65.5	17.6	102.3	69.2	125.0	70.4	2.0	-13.1	1.4	16.0	24.3
건조량	15.5	16.7	-7.7	8.7	22.8	39.6	15.1	14.0	13.0	13.0	15.0	13.8
수주잔량	15.0	24.8	35.9	42.9	35.2	35.2	35.2	30.6	14.5	9.0	8.3	8.3

주 : CGT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벌크선 초강세가 컨테이너선 수주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

■ 벌크운임 폭등에 따른 벌크선 시장의 초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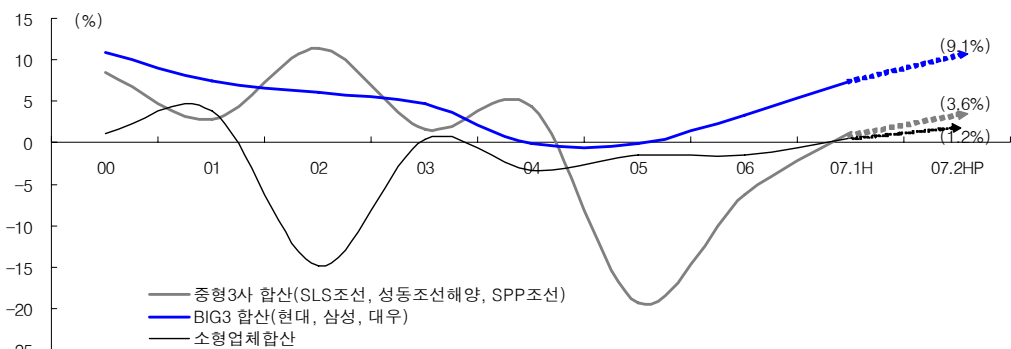
- 2007년 4,421p에서 출발한 벌크운임지수(BDI)는 10월 중 9,566p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신조선가 지수를 177p에서 221p까지 24.9% 상승시키는 초강세를 유지
- 벌크선 신규발주는 Capesize급 대형선박에 집중되어 발주되어 전년동기대비 224.7% 급증한 2,328만CGT를 기록
- 벌크운임지수의 강세국면은 중국발 철광석 수입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및 한국 등의 석탄 수요 증가도 일조하고 있음
- 벌크선 대량발주에 따른 조선업체의 Dock Slot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타선종의 신조여력이 축소되고, 이는 타선종의 경쟁발주에 따른 신조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공급자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

■ 컨테이너선 및 탱커 시장의 빠른 회복세, 가스선 시장은 위축상태 지속

- 벌크시장에 후행하는 컨테이너 운임의 회복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의 회복세를 유발, 10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42.3% 증가한 1,390만 CGT의 발주량을 기록
- 2006년 단일선체 교체수요에 따른 대규모 발주로 상반기 크게 위축되었던 탱커의 경우, 10월 신조선가 지수가 220p로 연초대비 8.9% 상승하는 빠른 회복 국면 진입
- 세계 천연가스 개발관련 대형 프로젝트들의 잇따른 지연으로 LNG선의 신조선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수주잔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폭 확대
 - 2007년 10월 기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48.5% 증가한 2,486만CGT를 기록
 - 2007년 건조량은 설비투자에 힘입어 1,249만CGT로 전년대비 15.1% 증가할 전망이며 수주잔량은 전년대비 35.2% 증가한 5,992만CGT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 전세계 수주잔량의 36.2%를 차지할 전망
 - 국내 조선업체는 4년분의 물량을 기수주 하였으며,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현대중공업의 경우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9.8%, 영업이익은 137.7%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으며, 삼성중공업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7.4%, 영업이익은 306.4% 급증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은 30.7%의 매출성장과 1,25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흑자로 전환함
 - 2007년 대형3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9.1%를 기록할 전망이며, SLS조선, SPP조선 및 성동조선해양의 중형 3사는 3.6%, 소형업체는 1.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그림 38 국내 조선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주 : 소형업체는 외감이상 업체 합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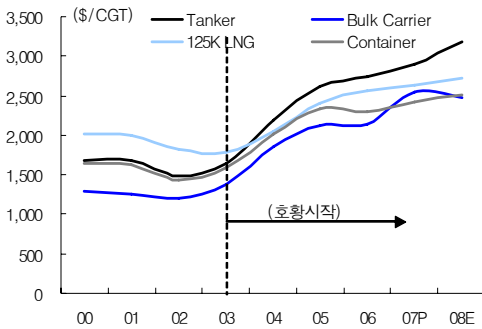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2008년 전망 : 컨테이너선 및 탱커가 시장을 주도, LNG선, 해양설비의 수주 기대

- 벌크시황의 강세 지속, 컨테이너선 및 탱커가 신조시장을 이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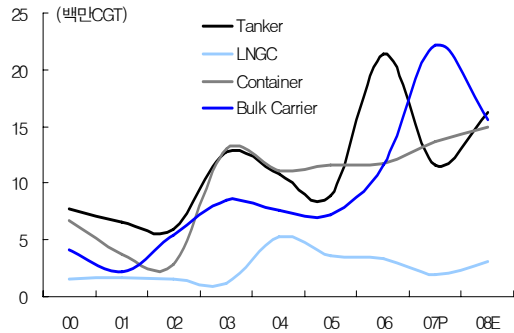
- 벌크운임은 조정국면을 거치겠으나 중국의 주도로 강세를 유지하여 BDI지수는 8,150p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컨테이너 HR지수는 2007년 대비 16.5% 상승한 1,480p 수준의 호황세를 지속하여 신조시장을 이끌 전망
- 탱커의 경우 고유가 지속과 탱커운임회복에 따른 기대발주 증가로 2007년 저점 대비 43% 증가한 발주 회복세를 기록할 전망
- 2007년에 지연된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고유가 지속에 따른 대체 에너지로 천연가스가 부각될 전망이며, 이에 LNG선의 신조시장도 회복될 전망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확보된 해양유전의 개발도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Drillship, Semi-Submersible Rigs 및 FPSO 등의 신규발주로 이어질 전망

그림 39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추이 및 전망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 40 주요 선종별 신규계약량 추이 및 전망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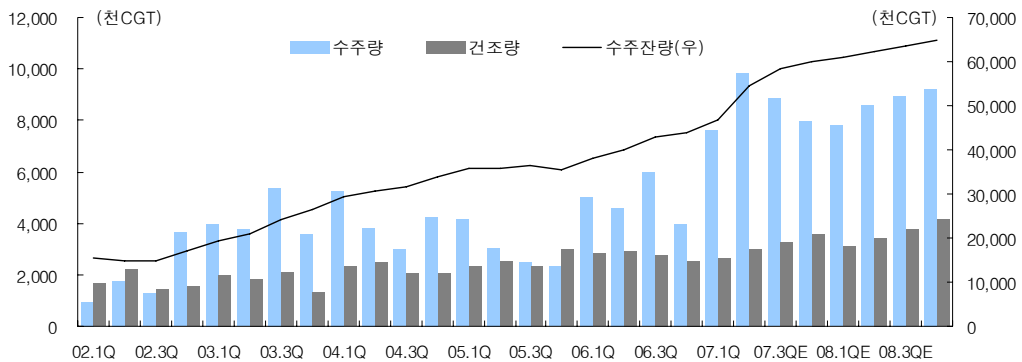
■ 대형업체 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질 듯

- 2007년 조선업호황을 주도한 현대중공업에 비해 수익 개선속도가 느렸던 양사는 2005년 이후 대량 수주한 LNG선과 Drillship 등 해양설비의 매출인식 본격화로 2008년 평균 9%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 현대중공업의 경우 13%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성동조선해양, SLS조선, SPP조선의 경우는 5%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나 대형선박의 성공적 건조 여부에 따라 수익성은 차별화될 전망
- 소형업체의 경우 주력선종인 PC 및 소형탱커 시장이 타선종에 비해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수익성 개선은 소폭에 그칠 전망

■ 신생업체 및 중소형 조선업체의 중대형 선박의 적기인도 여부가 관건

- 컨테이너선과 탱커의 시황회복에 따른 발주 증가와 LNG선 시장회복에 힘입어 2008년 국내 조선업체는 3,455만CGT 규모의 신규 수주량을 기록할 전망
-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량 급증과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건조능력 증가로 2008년 건조량은 1,428만CGT를 기록하여 후판수요는 전년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후판의 적기조달이 선박의 성공적 건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형 7사에 비해 후판구매력이 약한 중소조선업체 및 신생업체의 경우 적정가격의 후판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006년 이후 신설된 대한조선, C&중공업 등의 경우 초기 인도선박의 성공적 건조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그림 41 한국 조선산업 수주량, 건조량 및 수주잔량 추이 및 전망추이 및 전망



자료 : Clarkson, 한국조선협회, Hana Forecasting Model

표 20 2008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업 종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따른 가동률 향상 - 글로벌 생산전략의 확대 - 해외지역에서의 품질평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변동폭 확대에 인한 수익성 위험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세계 자동차 수요 둔화
자동차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차 출시 효과, 수익성이 높은 A/S부문과 OEM 부문의 매출 비중 증가 - 해외 직수출 증가에 따른 매출처 다변화 - 완성차 업체의 납품단가인하압력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비중이 증가하여 환율 하락은 부정적 - 글로벌 경쟁에 따른 관관비 부담 증가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에 따른 중동 플랜트 산업의 호황 - 설비투자 회복세 지속으로 내수회복 가능성 - 수출지역 다원화에 의한 안정적 수요처 확보 - 세계건설기계 시장의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섬유기계수요 감소 -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상존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선종의 신조선가 상승에 따른 수익 확보 - 고유가에 따른 LNG선, 해양설비 발주 확대 - 해운시장의 호황에 따른 선박수요량 증가 - 저가수주물량 소진에 따른 수익개선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용 후판의 가격인상 가능성 - 탱커시장 회복지연에 따른 중소형업체의 수익개선 둔화 가능성 - 건조량 증가에 따른 후판 공급 부족 가능성

IV. 소재산업군

1. 철강
2. 비철금속
3. 정유
4. 석유화학
5. 화학섬유

IV. 소재산업군(정유/화학/철강/비철금속)

- 수요증가속도가 공급능력증가속도를 압도하며 초래된 글로벌 수급불균형이 2008년에도 계속되어 수출 증가에 기반한 소재산업군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중국의 부상과 함께 촉발된 석유, 철강 등 각종 원자재의 ‘글로벌 수급불균형’이 가격 급등과 수출 증가로 이어져 소재산업군의 호황을 이끌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은 2008년에도 계속될 전망
 - 철강산업은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 증설과 수출 증가로 세계철강업계의 수급 밸런스가 악화되며 철강가격이 약세를 보인 2007년과는 달리 2008년에는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세계 철강업계의 감산과 재고조정으로 철강수급이 개선될 듯
 - 비철금속도 수출증치세 환급률 축소에 따른 중국의 수출량 감소와 빈번한 파업 발생에 따른 공급의 불안정성이 LME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도할 전망이다
 - 정유산업 역시 BRICs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가 계속되는 반면 신규 정유설비에 대한 투자지연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져 수출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회복세도 이어질 전망
 - 석유화학산업은 내수는 정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수요 호조로 5% 이상의 수출증가가 기대. 다만 중동의 증설 물량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
 - 화학섬유산업은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에 따라 수급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수급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

- 중국의 수출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화학섬유업을 제외하면 BRICs의 수요 급증에 힘입어 고성장을 지속하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추세가 지속될 듯
 - 철강업종은 국제철강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고수익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관제철업종의 수익창출력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될 전망
 - 비철금속업종은 제련업계는 고수익성을 향유하는 반면 압연압출업계는 저수익구조에 놓인 양극화 추세가 전년에 이어 2008년에도 이어질 전망
 - 정유산업은 가동률 상승과 정제마진 확대로 수익성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화학산업은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수익성 개선을 제약할 전망
 - 화학섬유산업은 원료가격 상승으로 원가상승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요 부진으

로 제품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이에 대응해 주요 화섬업체들은 사업다각화 및 고부가품목을 중심으로 제품믹스를 개편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듯

그림 42 철강업종 재고조정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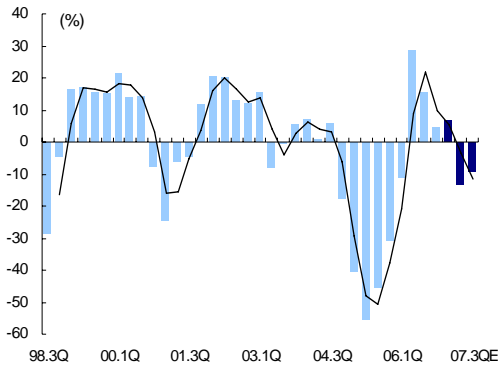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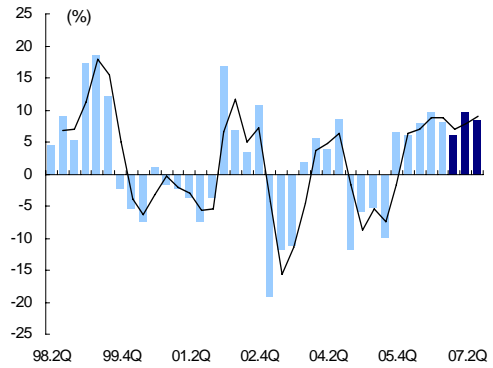


그림 43 석유화학업종 재고조정압력



자료 : 통계청

VI. Materials (Steel/Non-ferrous metal/Oil refining/Petrochemical/Chemical Fiber)

- The global demand-supply imbalance caused by fast growth in demand that outpaced supply capacity growth will continue in 2008, driving export growth and hence growth in the materials industry.
 - Economic growth in China triggered the global demand-supply imbalance of various raw materials such as oil and steel, leading to soaring prices and export growth, and hence favorable conditions in the materials industry. We expect this trend to continue in 2008.
 - In 2007, growth in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in China and growth in Chinese exports caused a worsening of global steel demand-supply conditions, thereby causing steel prices to fall. The demand-supply conditions should improve in 2008, however, as Chinese exports fall and steel companies around the world lower their production volumes and adjust their inventory levels.
 - In the non-ferrous industry, unstable supply conditions stemming from the decline in Chinese exports and frequent labor strikes will lead to lower LME inventory levels and higher prices.
 - In the oil refining industry, demand will grow steadily in the BRICs, whereas delayed investment in new oil refining facilities may result in tighter demand-supply conditions. Thus, we expect healthy export growth and a sustained recovery in domestic sales.
 -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likely to have sluggish domestic sales, but exports are expected to grow by more than 5%, based on strong demand in China. Expanded production facilities in the Middle East, however, will remain a risk variable.
 - The chemical fiber industry is suffering from an ongoing demand-supply imbalance as China's production capacity rises, and this is expected to continue throughout 2008 as well.

- With the exception of the chemical fibers industry, which is suffering from Chinese export growth, the materials industry will continue at a fast pace of growth, supported by strong demand in the BRICs, as well as an upturn in profitability.
 - The high earnings trend in the steel industry will be sustained by rising global steel prices. Integrated steel mill operators, in particular, will generate impressive earnings.
 - In the non-ferrous metal industry, the polarization between refiners and the rolling and pressing sector, where refiners enjoy sustained high profitability while the rolling and pressing sector operates under a poor profit structure, will persist in 2008.
 - The oil refining industry will continuously make improvements in their profitability with rising operating capacity and expanding refinery margins. The high price of oil will hinder profitability growth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 Coupled with rising cost-cutting pressures, a result of surging raw material prices, the chemical fibers industry should perform poorly since sluggish demand makes it difficult to raise prices. To prevent this, major companies will actively shift their focus toward high-value-added products in their production portfolio.

그림 44 Steel Inventory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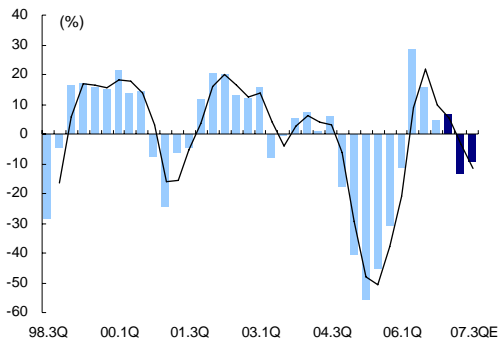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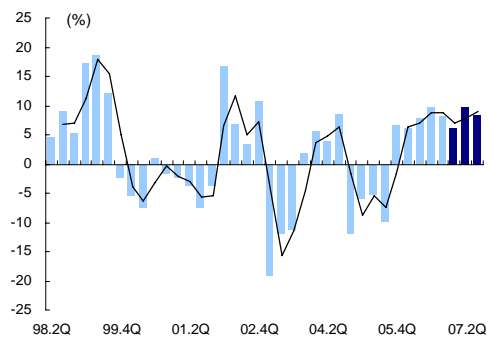


그림 45 Petrochemical Inventory Cycle



Source: KOSIS

1. 철강

표 21 철강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관재류	생산	1.8	-1.0	7.0	8.8	5.7	6.6	7.0	3.7	3.9	4.1	4.4	4.0
	내수	-0.6	-3.1	11.7	13.1	8.0	6.2	9.7	4.8	5.3	3.9	5.3	4.8
	수출	3.9	9.2	-13.1	1.4	-17.2	-13.0	-10.6	1.2	0.5	5.0	2.2	2.1
봉형강류	생산	-8.0	5.4	8.8	-0.9	5.8	7.2	5.0	3.5	3.1	2.8	3.5	3.2
	내수	-10.3	7.3	8.5	-0.2	10.1	10.8	7.1	5.1	4.8	5.3	6.2	5.4
	수출	37.3	-11.8	13.0	-0.9	5.5	4.7	5.3	-1.1	0.1	-9.0	-9.5	-4.8

주 : 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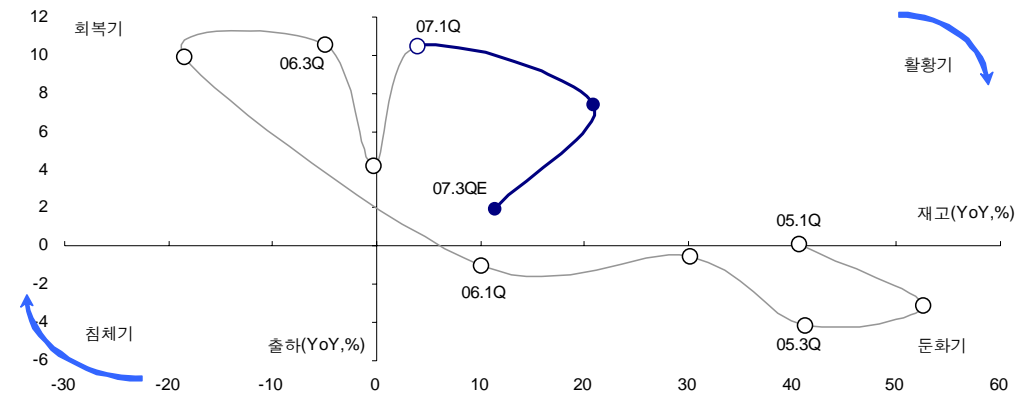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출하와 재고가 모두 증가하면서 호황국면을 지나고 있는 철강경기

■ 전기로강의 생산 증가로 상반기 조강생산 큰 폭 증가

- 2007년 상반기 조강생산은 2,565만톤으로 전년동기비 7.2% 증가함. 전로강은 4.4% 증가한 1,348만톤을 기록했으며 전기로강은 10.3% 증가한 1,216만톤을 기록
- 전로강은 전년도에 포스코의 포항 3고로 합리화로 인한 생산 감소의 영향이 컸으며 전기로강은 현대제철 A열연 B전기로의 재가동과 특수강 및 단조강의 생산 증가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품목별로는 봉·형강류(+6%)에 비해 관재류(+15%)의 증가율이 컸는데 이는 냉연 강판과 석도강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No.6 CGL과 현대하이스코 당진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아연도강판 생산량이 전년동기비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임
- 하반기에는 포스코의 파이넥스 가동에도 불구하고 광양 3고로 보수 영향으로 상반기 대비 조강생산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46 철강업종 재고출하순환관계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중국산 수입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봉·형강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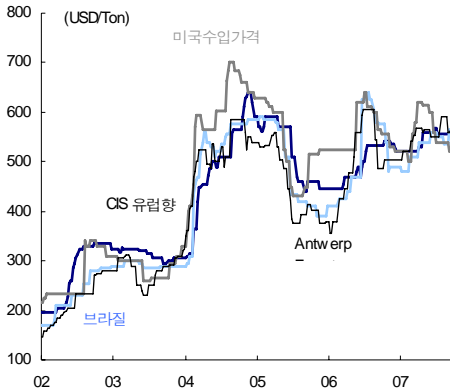
- 2007년 상반기 수출은 7.0% 증가했으나 수입은 28.7% 증가. 특히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량은 734만톤으로 비중이 총수입량의 53.7%로 확대됨. 그러나 하반기에는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축소 조치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 품목별로는 판재류가 3.9% 증가한 반면 봉·형강류는 15.7% 증가. 봉·형강류의 수출 호조는 형강(+16.3%) 및 H-Beam(+22.7%)이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생산능력이 확장된 봉강과 선재의 수출이 각각 25.1%, 28.1% 증가했기 때문임
- 판재류는 아연도강판(+33.0%)과 STS강판(+22.6%)이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핫코일(-4.6%)과 후판(-6.4%)이 국내공급부족으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낮은 증가세에 그침

■ 약세국면의 세계철강가격은 4분기부터 반등을 시도할 전망

- 연초 회복세를 보였던 국제철강가격은 2분기 이후에 약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 증가로 현지 수급밸런스가 악화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정책 시행과 북미·유럽지역 철강가격의 하락으로 중국산 철강재의 유입량이 감소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철강가격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양상
- 중국 철강유통가격 역시 2분기 이후로 약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는 강세로 반전했다가 최근 소폭 하락. 이는 내수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례적으로 내수유통가격이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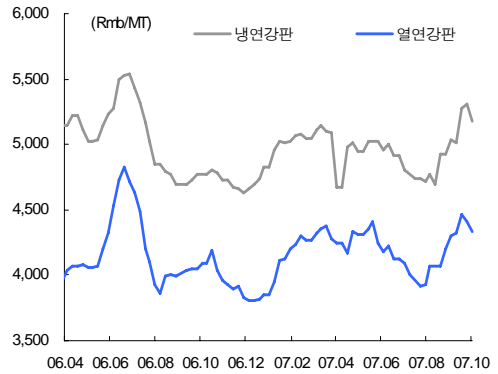
제가격을 추월했기 때문임

그림 47 국제 열연강판가격 추이



자료 : Datastream, MetalBulletin

그림 48 중국 철강유통가격 추이



자료 : Datastream, Mysteel

■ 하반기 이익모멘텀은 소폭 둔화될 우려있으나 대체로 고수익성 유지 중

- 일관제철업종(포스코)은 파이넥스 가동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스테인리스를 제외한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상승으로 하반기에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 시현이 예상됨
- 전기로제강업은 주요 원료인 철스크랩가격의 급등으로 제강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하반기 영업이익률은 8~9%로 10% 내외를 유지하던 상반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보임
- 표면처리강관업종은 수출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재가격의 급등으로 롤마진(Roll-margin)이 악화되며 2007년에도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듯

2) 2008년 전망 : 세계철강수급 안정화 기대되나 중국은 과잉공급의 불씨를 안고 있어

■ 국내 철강경기는 경기사이클상 짧은 침체국면을 지나 회복기로 진입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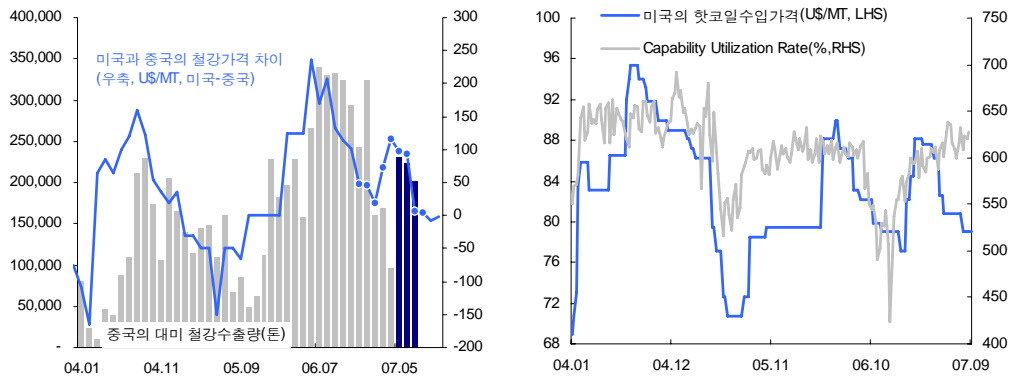
- 2008년에도 전기로강의 생산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연산 150만톤의 파이넥스 가동 효과로 조강생산량 5천만톤 시대가 2년 연속 이어질 전망
- 재고순환지표상 국내 철강경기는 재고는 증가하고 출하는 감소하는 둔화기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산 철강재의 유입량이 감소하고 세계 철강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짧은 침체국면을 거쳐 연내 회복기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국내 생산능력이 대폭 증가한 아연도강판과 중동 특수를 맞고 있는 형강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산 철강재 수출 감소와 재고조정으로 세계철강수급 안정화 기대

- 중국과 미국 철강가격 사이의 괴리도가 해소되고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책이 점차 효력을 발휘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수출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여기에 북미·유럽 철강업체의 감산을 통한 재고조정 노력으로 세계 철강수급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의 과도한 생산능력 확장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때 수급과 가격 등에서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언제든 중국산 잉여철강재가 세계철강수급을 교란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세계 철강 Cycle은 단기적이고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그림 49 '미-중' 철강가격간 괴리를 해소로 중국산 철강수입량 감소하여 미국시장의 수급안정 전망



자료 : Datastream

■ 국제철강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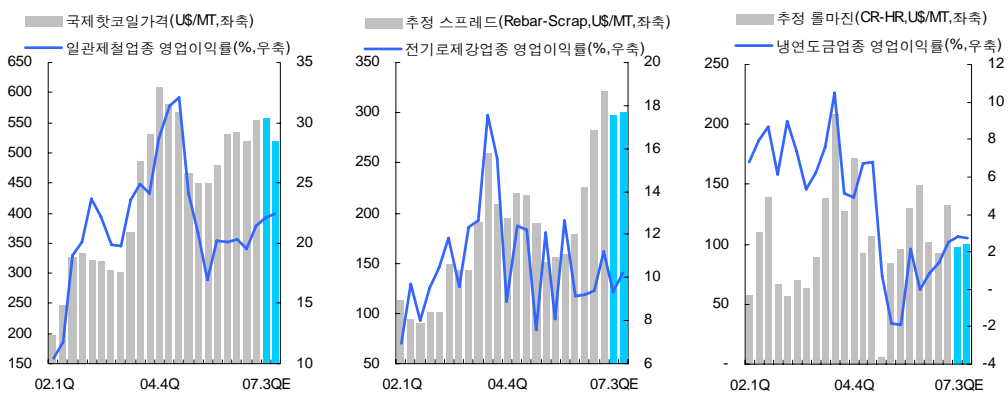
- 국제철강가격은 2007년 4분기부터 반등해 2008년에는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중국산 잉여철강재의 유입량이 감소하고 있고 북미·유럽 철강업체의 탄력적인 감산전략 구사로 현지 재고가 많지 않으며 철광석 및 유연탄, 철스크랩 등 연·원료가격의 강세가 지속되어 'Cost Push'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니켈가격의 하락으로 급락했던 스테인리스가격도 2008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제품인 슬래브가 전세계적인 공급부족양상을 보이면서 후판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

■ 업스트림업체의 수익창출력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될 전망

- 일관제철업종(포스코)은 철광석 등 원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철강가격의 상승으로 원료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24% 내외의 영업이익이익률이 예상됨
- 전기로제강업종은 철스크랩가격의 상승이 제강스프레드의 축소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비 수익성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동특수에 따른 형강류 수출단가 상승과 탄력적인 내수가격 조정으로 수익성을 방어, 9%대의 영업이익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전망
- 표면처리강판업종은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나 2008년에도 소재인 핫코일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 개선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5% 이내의 영업이익이익률이 예상됨

그림 50 주요 철강업종의 OP Margin 추이 및 전망



자료 : Kis-Value, Market Consensus

2. 비철금속

표 22 비철금속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15.5	-4.4	1.5	4.8	7.0	5.2	4.6	2.8	3.2	4.0	4.7	3.7
내수	11.8	-4.1	7.4	8.7	8.0	5.1	7.3	2.5	3.2	2.8	3.7	3.0
수출	10.1	1.0	-20.7	-7.0	4.1	4.0	-5.4	5.7	5.9	5.4	7.0	6.0

주 : 물량 및 신동압연제품 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가격의 불안정성은 커졌으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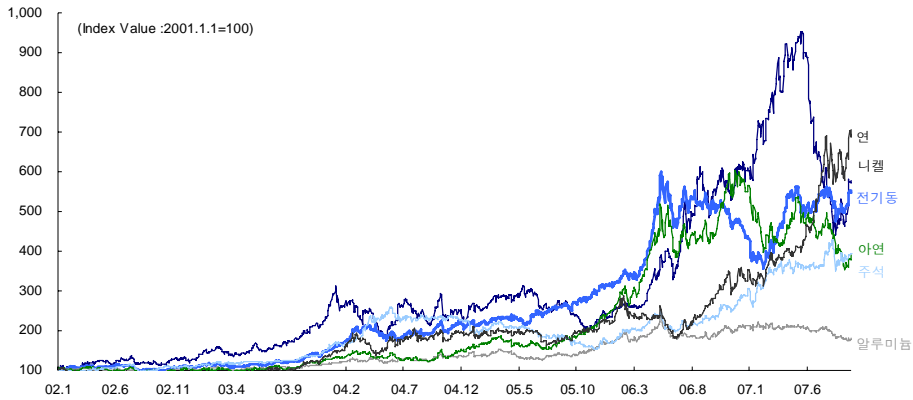
■ 수급 붕괴 우려로 구리와 아연가격은 높은 변동성을 경험

- 전년도에 강세를 보였던 구리가격은 최대 수요국인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재고 증가 및 투기자본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향으로 가파른 하락을 경험. 그러나 2007년에는 재고 감소와 중국의 견조한 수요, 페루 등 주요 공급국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로 톤당 8천달러대를 이미 회복했으며, 1~3분기 평균가격 기준으로 전년동기비 7.3% 상승
- 아연도 중국의 수출량 급증에 따른 재고 증가 우려로 가격이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세계철강업계의 아연 수요 증가로 톤당 3천달러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1~3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동기비 16.5% 상승

■ 고공행진 중이던 니켈가격은 폭락 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 니켈은 3분기 중에 최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하기는 했지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87%의 상승률을 기록. 니켈은 LME 특별위원회가 시장에 개입한 이후로 투기 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LME 재고량이 점차 증가해 세계 소비량의 하루치에서 일주일분까지 확대됨
- 전년도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승률을 보였던 연과 주석가격은 각각 102%, 69% 오르는 강세를 보임

그림 51 비철금속가격 동향



자료 : LME, Datastream,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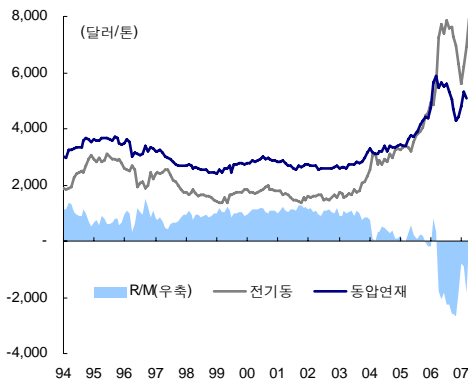
■ 제련업체와 압연·압출업체의 수익구조 차이의 이해

- 제련업체의 경우, 제품판매단가가 LME가격에 연동되는 특성상 비철금속가격의 상승을 향유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 반면, 압연·압출업체는 원료가격 상승이 원가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 이는 내수경기 침체와 판매경쟁 심화, 대체재로의 수요 이동으로 제품가격 인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임
- 비철금속가격의 하락은 압연·압출업체에는 롤마진 개선 요소이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는 ‘Metal Loss(재고평가성손실)’가 발생하므로 오히려 부정적임

■ 제련업은 호황, 압연·압출업은 불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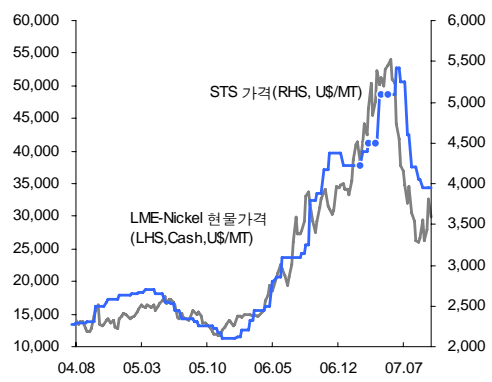
- 국내의 대표적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의 2007년 실적은 아연가격의 상승으로 실질 T/C(Actual Treatment Charge)가 개선되고 이익기여도가 높은 유가금속 회수량의 증가로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 반면, 국내 최대의 신동업체(동압연)인 풍산은 원료인 전기동가격의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완전히 전가하지 못하고 스테인리스부문마저 침체됨에 따라 롤마진이 악화되어 저조한 수익성을 보임

그림 52 신동제품의 롤마진 추이



자료 : Datastream

그림 53 니켈가격과 스테인리스제품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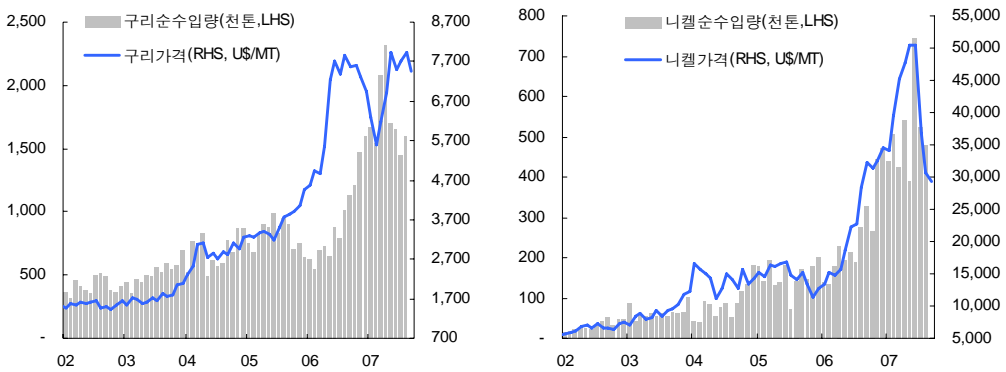
자료 : Datastream

2) 2008년 전망 : 경계심리를 반영하여 변동성 커지는 가운데 안정화될 전망

■ 수요 증가와 달러약세로 비철금속가격의 강세국면 지속될 전망

- 2008년 비철금속가격은 중국과 중동, 러시아 등 이머징마켓의 강한 수요와 달러약세,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등을 바탕으로 강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
- 2007년에 급락했던 니켈가격은 LME가 Lending Guidance를 완화키로함에 따라 헤지펀드가 재차 가세하고 스테인리스 수요가 회복되면서 2008년에는 톤당 3~4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LME 니켈 재고가 추가 상승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알루미늄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불법광산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알루미늄 공급부족으로 알루미늄 생산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구리는 2008년에 초과공급규모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를 상쇄하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의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상됨
- 주석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수출쿼터제를 시행하면서 공급부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가격이 강세를 보일 전망

그림 54 중국의 주요 비철금속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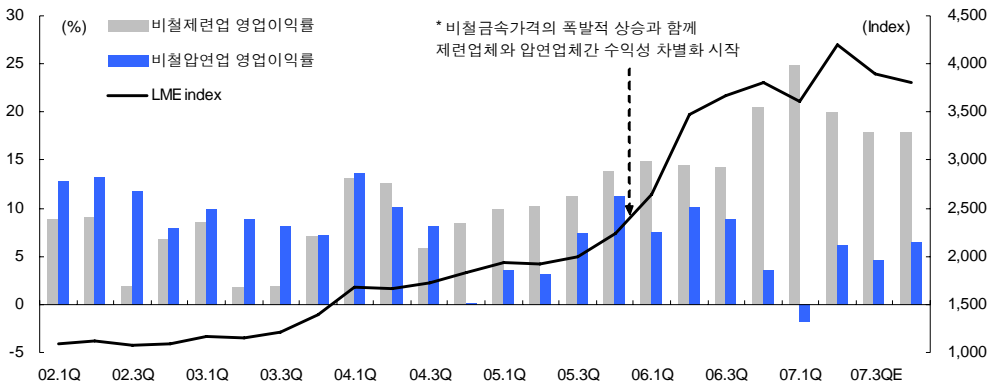


자료 : 중국세관, Datastream

■ 제련업종의 수익성은 둔화되더라도 제한적 하락에 그칠 듯

- 아연제련업체(고려아연)는 타이트한 아연 수급을 반영하여 아연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폭 조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성의 둔화 폭은 크지 않을 전망. 2008년에도 18% 내외의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동업종은 구리가격이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Metal Gain(재고평가성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면 롤마진이 악화되므로 수익성 개선 폭은 미미할 전망이다

그림 55 주요 비철금속 제련업체와 압연업체의 OP Margin 추이 및 전망



자료 : Kis-Value, 전망은 Market Consensus

3. 정유

표 23 정유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5.1	0.1	1.8	0.6	4.2	6.8	3.4	5.3	5.8	6.6	5.7	5.9
내수	-2.0	0.2	3.4	4.7	4.7	4.4	4.3	4.4	3.8	4.4	4.0	4.2
수출	14.3	6.8	15.8	8.5	7.6	5.7	9.0	9.2	8.4	9.3	7.7	8.7

주 : 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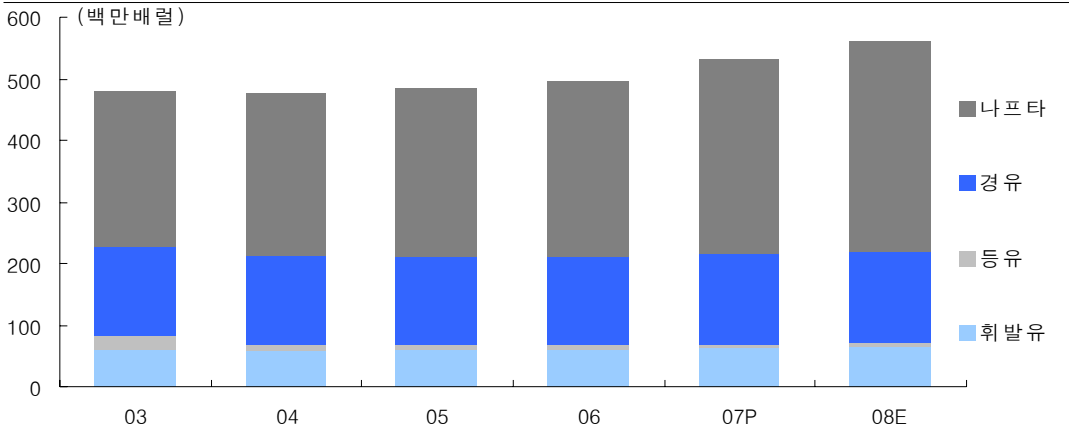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정유설비의 부족 영향이 지속된 한 해

■ 두드러진 내수 성장세와 양호한 수출 성장세 지속

-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 주요 수요 산업의 경기 호조, 정유사의 경쟁적인 주유소 확대 등으로 전체 석유제품 내수가 전년대비 4.3% 증가. 이는 최근 수년간 1~2%의 성장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특히, 석유화학 경기의 반등으로 나프타 수요가 10% 이상 증가하였고, 항공, 도로 등 운송산업의 경기 호조로 항공유, 휘발유 등도 4~5% 이상 증가하면서 내수 성장을 주도
- 수출 역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경기 호조로 석유 제품 수출량이 전년대비 9.0% 증가함. 비록 두 자리 수의 수출 증가세가 종료되었으나 이는 국내 수요의 큰 폭 증가로 수출 여력이 감소한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수출 둔화를 우려할 수준을 아님
- 특히, 중동의 증설 물량이 석유제품 재고가 낮고 노후 설비의 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있는 북미 지역에 우선 공급되고 있어 역외 물량 유입이 크지 않으며, 아시아 지역의 생산능력 증가분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설 물량 소화가 무난한 상황
- 중국의 설비 증설도 자국의 수요 충족에도 부족한 상황이며, 아시아 지역의 주요 정유업체의 정기보수가 집중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져 국내 업체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
- 이러한 내수 회복과 수출 증가 지속으로 인해 2007년 정유사의 평균 가동률은 약 88%에 달해 전년대비 1%p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수익성 개선에도 일조

그림 56 국내 주요 석유제품별 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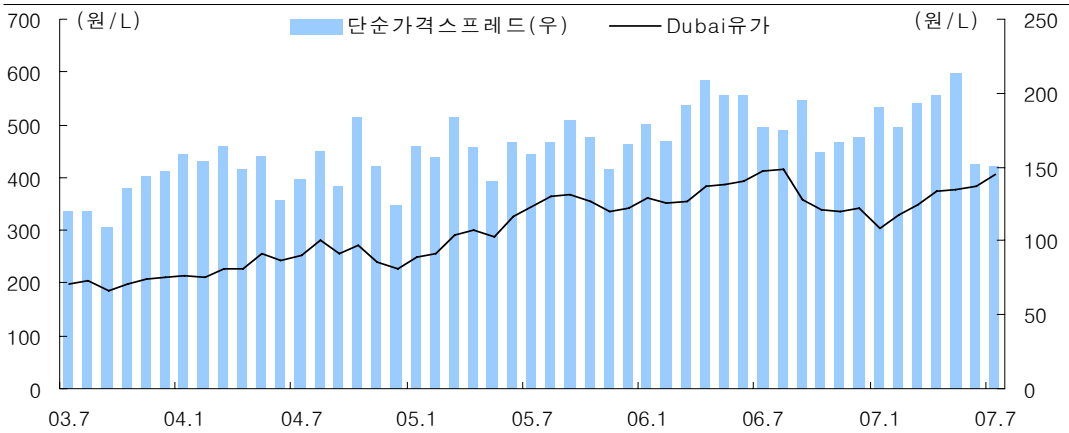


자료 : Petronet,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가동률 상승, 정제마진 확대로 큰 폭의 수익성 향상 기대

-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큰 내수 부문 출하의 큰 폭 증가, 국제 정제마진의 전년대비 20~30% 증가,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됨
- 특히, 국제 유가가 하반기부터 다시 강세로 전환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Crack margin 호조세가 지속되는 점도 영업이익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
- 이에 따라 2007년 SK와 S-Oil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6.6%, 8.2%로 전년(4.9%, 6.4%)에 비해 각각 1.7%p, 1.8%p 상승할 것으로 추정. SK인천정유도 가동률이 전년 평균 51%에서 70%대를 유지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듯
- 현대오일뱅크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기보수로 가동률이 하락한 GS칼텍스만이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정유업체의 수익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그림 57 국내 석유제품의 단순 가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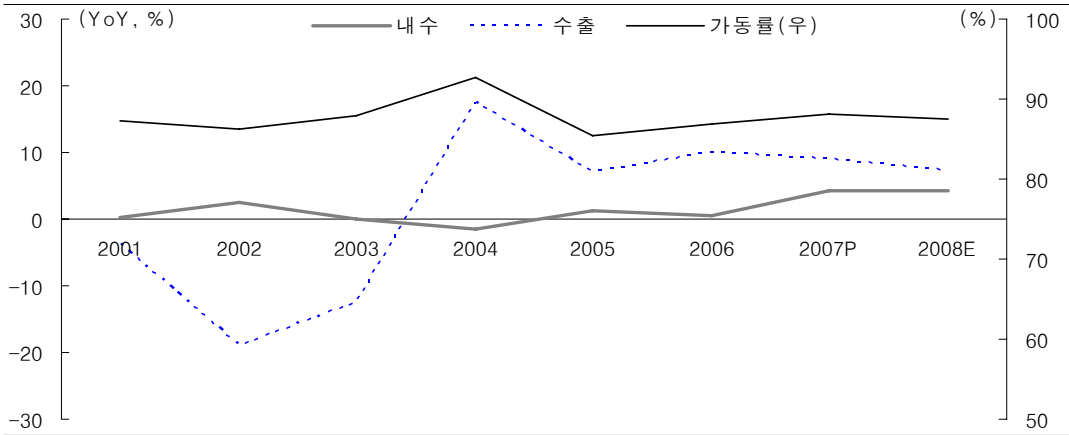
자료 : Petronet

2) 2008년 전망 : 견조한 수요 증가세 유지되어 실적 호조가 지속될 전망

■ 내수 및 수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4.2%,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안정적 민간소비 증가세 및 견조한 경제 성장으로 내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수요 산업 호조 및 가동률 상승으로 산업용, 수송용 등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 내수량이 전년대비 4.2% 증가할 전망
- 11%에 이르는 중국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BRICs 등 신흥국들의 고성장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수출 시장 여건도 양호할 듯
- 또한, 투자비 폭등에 따른 신규 정유설비에 대한 투자 지연과 미국의 낮은 설비가동률과 재고 수준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질 전망. 이에 따라 2008년 수출량은 전년대비 8.7%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 수출량 예상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물 경제에 대한 악영향, 초고유가에 따른 세계 경기의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석유제품의 수요에 대한 가격 및 경기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실적 악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

그림 58 국내 석유제품의 내수 및 수출 동향과 가동률 추이



자료 : Petronet,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제마진 확대, 재고부담 완화 등으로 6% 이상의 영업이익률 기대

- 고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 및 출하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재고 부담이 크지 않아 높은 수준의 가동률 유지가 가능한 점은 고정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
- 아시아지역의 정제능력이 2007년 2.8%, 2008년 4.5% 증가하는 등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연평균 3.3%씩 늘어나는 등 증설 물량 소화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며,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되어 원가 부담 전가가 가능할 전망
- 또한, 석유사업부문의 정제마진 확대, 석유화학 부문의 경기 호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 GS칼텍스, SK에너지 및 SK인천정유의 증설 및 고도화비율 증가, 정기보수 완료 등에 따른 가동률 상승도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듯
- 이에 따라 2008년 국내 정유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7%대를 유지하여 2007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 특히 SK에너지 및 S-Oil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6.5%, 7.9%에 달할 전망
- GS칼텍스 역시 정기보수 완료에 따른 가동률 상승 및 증설 효과로 이익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SK인천정유 역시 가동률의 지속적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전망

4. 석유화학

표 24 석유화학 제품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합성수지	생산	-1.4	0.3	-0.2	0.2	1.5	3.3	1.2	-0.2	1.4	0.1	0.1	0.3
	내수	-0.2	1.2	0.9	0.5	10.3	2.9	3.6	-0.9	2.0	1.3	0.1	0.6
	수출	0.7	0.1	-3.5	1.4	6.3	6.8	2.7	0.2	5.0	3.0	4.0	3.1
기초유분	생산	-0.1	6.4	7.7	9.4	0.6	3.0	5.1	4.0	5.0	3.0	4.0	2.9
	내수	0.1	-0.5	4.9	6.4	1.0	4.0	5.1	2.3	3.5	3.0	4.2	3.2
	수출	-0.6	20.0	18.4	26.6	10.0	9.0	15.6	6.5	8.0	9.1	7.9	7.9

주 : 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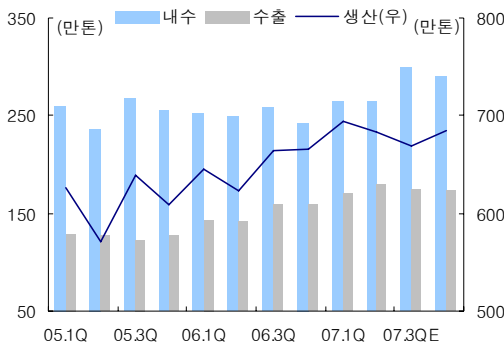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기초유분 제품의 호조로 전년대비 회복세를 나타냄

■ 내수, 수출 모두 증가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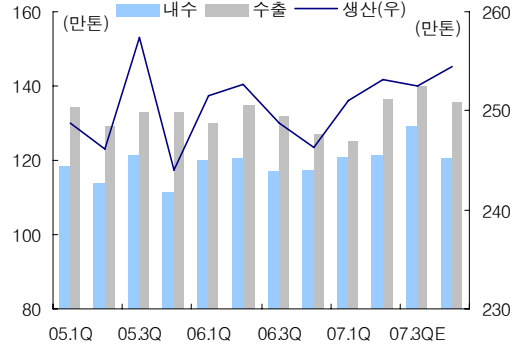
- 합성수지 제품의 내수 및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기초유분 제품의 내수 및 수출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5.6%,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2007년 상반기 석유화학제품의 내수 및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4.0%, 11.2% 증가였으며, 생산량도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년대비 6% 증가함
- 석유화학제품의 내수의 경우 국내 수요 산업의 성숙으로 큰 폭의 수요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반면 수출의 경우, 2006년 중국의 자급률 상승에 의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수요증가가 공급증가를 넘어서면서 다시 대중국 수출량이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또한 합성수지 부문에서는 중동, 중남미, 인도 등 역외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07년 하반기 예정되었던 이란 등 중동국가의 신증설 완공이 2008년 하반기로 또다시 지연될 전망
- 이에 따라 2007년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 및 수출은 상반기의 추세를 지속하여 각각 전년대비 4%, 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9 기초유분의 수급 동향



자료 : KOSIS, Hana Forecasting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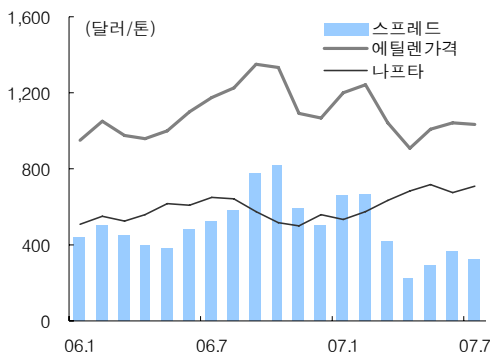
그림 60 합성수지의 수급 동향



자료 : KOSIS, Hana Forecasting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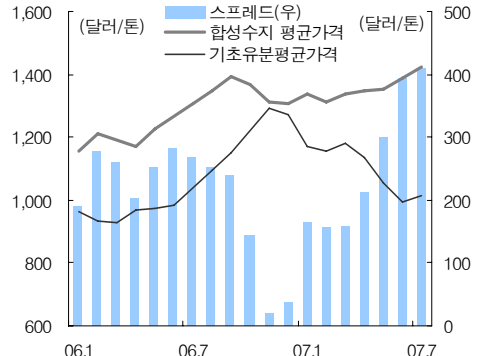
- 기초유분 가격 스프레드 소폭 축소, 합성수지 가격 강세로 스프레드 확대
 -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은 유가 강세 지속의 영향으로 2007년 9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초유분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2007년 상반기 기준 기초유분-나프타 가격 스프레드는 전년동기대비 약 10.1% 축소됨
 - 합성수지 가격은 세계적인 공급부족 및 플랜트의 트러블로 인해 2007년 상반기 기준 평균가격이 전년동기간대비 약 12.2% 상승함. 그러나 원재료인 기초유분 가격의 전반적인 약세로 동기간 합성수지-기초유분 가격 스프레드는 약 4% 확대됨

그림 61 에틸렌 가격 스프레드 추이



자료 : KOTIS

그림 62 합성수지의 가격 스프레드 추이



자료 : KOTIS

- 기초유분제품은 가격 스프레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및 정비보수에 따른 타이트한 수급을 보여 양호한 수익성을 보였으며, 하반기 이후 다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어 2007년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됨
- 반면 합성수지 부문의 내수 및 수출 성장세가 미진함에 따라 가동률도 개선되지 못하여 업체들의 고정비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여 2007년 업체들의 실적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표 25 주요 석유화학 업체의 2007년 추정 실적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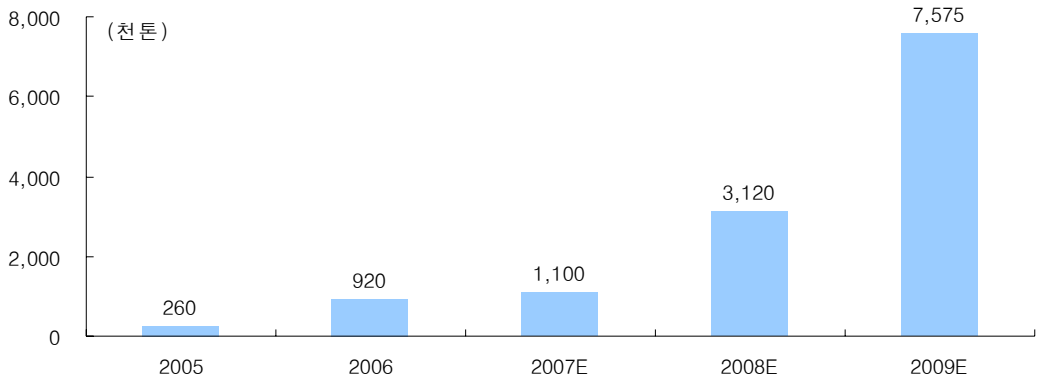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LG화학	106,384	(14.4)	7,472	(123.7)	8,225	(108.1)	1,985	(62.6)
호남석유화학	23,673	(8.4)	3,220	(26.1)	6,469	(21.6)	4,787	(25.4)
한화석유화학	23,977	(8.1)	1,787	(56.4)	3,263	(15.9)	2,450	(19.6)
LG석유화학	24,879	(13.4)	3,775	(46.0)	3,847	(50.7)	2,847	(49.1)
합계	178,913	(12.5)	16,254	(69.0)	21,804	(48.9)	12,069	(10.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자료 : 각사 자료, Fnguide 컨센서스 추정치

2) 2008년 전망 : 중국 수출 호조로 소폭의 개선세 보일 듯

- 내수 수요는 정체되나, 중국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3%대의 생산 증가 기대
 - 2008년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는 수요산업의 정체로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기초유분 및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 및 출하는 전년대비 2%증가에 그칠 전망
 - 수출의 경우, 중국 경기의 고성장세로 인해 수입 의존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인도 등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또한 호조를 보이고 있어, 2008년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5%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향후 석유화학 경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이란 등 중동지역의 증설 물량임. 현재 예정되어 있는 증설 물량은 2007년 약110만톤, 2008년 312만톤 증가에 그칠 전망이나 2009년 이후에는 750만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석유화학 경기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동 증설 지연 때문이나, 더 이상의 중동증설의 지연이 없을 경우, 중동지역의 공급 과잉에 의한 리스크는 2009년부터 현실화될 전망

그림 63 중동지역 에틸렌 신증설 추이



자료 : 대신증권

■ 2008년 석유화학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

- 한편, 고유가 기조의 지속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 각국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국가별, 업체 간 경쟁심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적일 전망
- 이러한 구조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5. 화학섬유

표 26 화학섬유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4.4	-18.9	-8.7	-1.1	-0.1	3.1	-1.9	-6.0	-8.0	-6.1	-7.9	-7.0
내수	-7.6	-28.9	-15.3	-2.5	-11.5	-5.4	-9.1	-15.0	-13.8	-15.0	-13.0	-14.2
수출	-3.9	-12.7	-2.0	8.0	3.0	5.0	3.2	0.4	1.0	6.2	3.2	2.4

주 : 물량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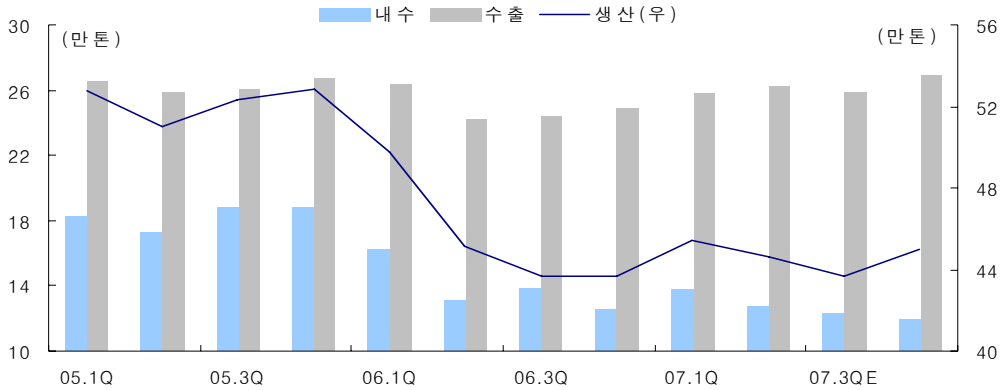
1) 2007년 동향 : 수요 부진 및 원재료가격 강세로 어려움 지속

■ 화학섬유 수급 악화 지속

- 국내 화섬업계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저수익성 사업 부문의 철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나 수급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7년 7월까지의 화학섬유(5대 범용 화학섬유 기준)의 총생산량과 출하량은 전년동기비 각각 6.2%, 3.9% 감소함
- 이는 화학섬유 생산 비중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폴리에스터섬유의 경우 내수가 전년동기기간대비 10%이상 감소한 것에 기인함. 수출 또한 중국의 생산능력 증대로 같은 기간동안 1%대 성장에 그침
- 나일론 또한 지난해 하반기 카프로의 장기 파업으로 생산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가 2007년 7월까지의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5%나 감소
- 지난해 생산량이 40% 이상 감축되었던 스판덱스 섬유는 2007년 내수 및 수출에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함
- 2007년 화학섬유는 내수량은 수요산업인 의류산업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9%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전체 생산량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 및 경쟁심화 등으로 전년대비 3%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유럽 및 미주 지역 국가들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 수출 시장 확대는 다소 제한적인 상황

그림 64 화학섬유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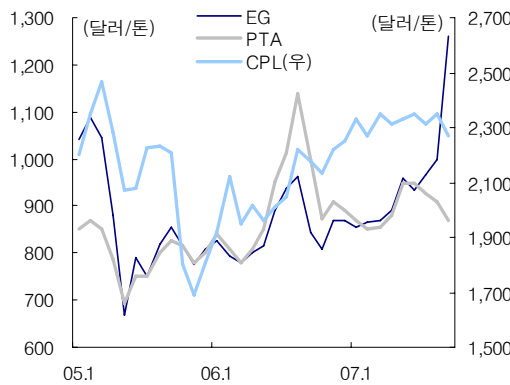


주 : 5대 범용화학섬유 기준
자료 : KOSIS

■ 화섬원료 가격 강세 지속으로 원재료 가격 부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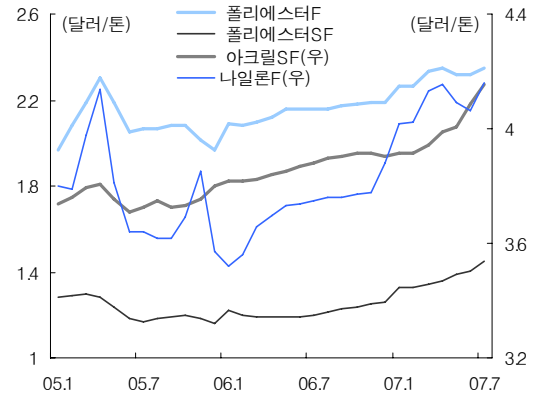
- 원재료인 화섬원료의 가격 또한 가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제 유가의 강세로 원재료 가격은 강세를 보여 원가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폴리에스터 섬유의 원재료인 PTA만이 최근 중국 생산량의 급증으로 오히려 가격 하락추세를 보여 폴리에스터 섬유 업체들의 원재료 가격 부담이 감소함
- 2007년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 섬유 가격(수출가격 기준)이 강세를 보이면서, 7월까지의 평균가격은 전년동기비 각각 14.6%, 11.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폴리에스터 섬유는 단섬유 업계의 구조조정 완결로 공급과잉이 해소되었으며 신규수요 확대로 안정된 수요를 확보하게 됨. 이에 따라 원료가 인상분을 제품가에 전가하기 용이한 수익구조를 지니게 됨
- 반면 폴리에스터 장섬유는 수요증가율을 상회하는 생산능력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야기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악화가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
- 국내 화학섬유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를 타파를 위해 기존의 고기능성 화섬의 개발 또는 신규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등의 사업다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65 주요 화섬원료의 가격 동향



자료 : KOTIS

그림 66 주요 화섬제품의 가격 동향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

2) 2008년 전망 :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듯

■ 국내 화섬 시장의 수급 상황은 2008년에도 개선이 어려울 전망

- 화학섬유 제품의 국내 수요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섬유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08년 화학섬유 내수는 전년대비 약 14%의 감소가 예상됨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내수 감소분을 그동안 수출로 만회해왔으나 중국 및 동남아 경쟁국들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2007년의 수출 둔화세는 2008년까지 이어질 전망
-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섬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꾸준히 설비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폴리에스터 섬유를 중심으로 전체 화섬 생산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의 섬유 생산 물량은 전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2008년에도 국내 화학 섬유 수출시장의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

■ 원재료 가격 인상 및 수요 부진

- 2008년 유가는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이므로 화섬원료 가격 역시 강세가 예상됨
- 이에 따라, 화섬 업체들의 원재료 원가 상승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화학섬유의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체들이 제품가격에 원재료 인상분을 전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화학업체들의 사업 다각화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태광은 주력이던 섬유 산업을 대신해 금융 및 방송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했음. 또한 코오롱, 제일모직 등은 화학, 전자재료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27 2008년 산업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업종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제 폐지 등 강력한 수출억제정책 시행 - 세계철강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철강경기 변동에 대한 내성 강화 - 중동과 러시아 등 신시장의 부각 - 조선 등 수요산업의 경기호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과도한 생산능력 등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 -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
비철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 - 중국 등 이머징마켓의 견조한 수요 - 광산의 파업 등에 따라 불안정한 공급 상황 - 달러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철금속가격의 변동성 확대 - 금리인상으로 투자대상으로서 비철금속이 가진 메리트가 감소함에 따라 투기자본의 이탈 우려 - 미국 경기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 회복 등 내수 회복세 - 주요국의 재고 소진과 수입 증가세 지속 - 고유가에 따른 원유개발사업의 수익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 부담 -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 - 고유가로 인한 정부의 소비 억제 유도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회복 추세 -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합성수지 수요 증가 - 중동 증설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강세 지속 - 원재료 상승분 반영 어려워 마진 축소
화학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수출 긍정적 분위기 조성 - 산업용 섬유 및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산업의 성장 둔화 - 중국의 섬유자급률 상승 - 주요 원재료 가격 급등

V. 내수·유통산업군

1. 해운
2. 항공
3. 소매유통
4. 의류
5. 제분제당
6. 제약
7. 제지
8.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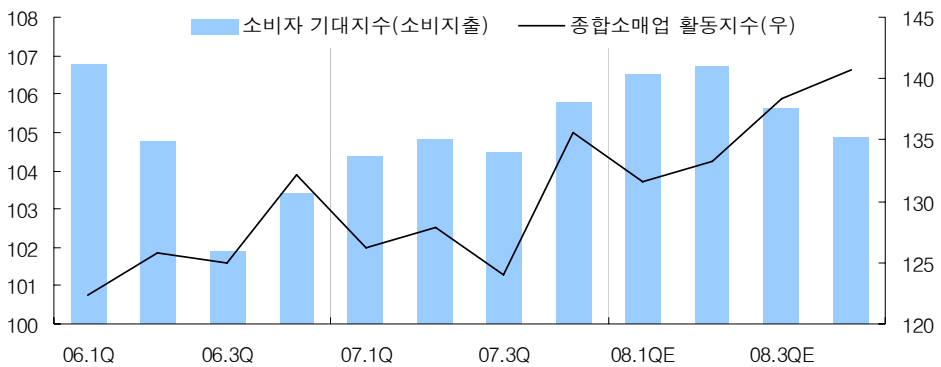
IV. 내수·유통산업군

-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른 수요 증가가 내수유통산업 성장을 견인할 전망
 - 민간소비는 2007년초부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재판매액도 주가 상승 및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2007년 전체적으로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증가세는 2008년에도 이어져 전년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들의 구매력 개선은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켜 내수·유통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됨. 내수·유통산업의 성장성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보이는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기대지수(실질)는 2006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2007년 3/4분기 현재 104.6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의 확대는 소매유통, 의류, 제약, 제지, 제분·제당 등 최종 소비재를 생산·유통하는 산업의 실적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카드사태 이후 내수·유통산업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를 보였으나 2007년부터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2008년 최종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더욱 확대되어 내수·유통산업군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내수·유통산업과 마찬가지로 해운, 항공 등 운송산업의 경우도 세계 물동량 증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됨. 원화의 강세로 인한 해외관광 수요의 증가 및 IT 수출입 화물의 증가로 2008년 항공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9%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은 대중국 물동량의 꾸준한 증가세가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국내건설시장은 정체되나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한 중동, 신흥시장, 동남아시아의 해외건설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들어 건설경기에서 민간비중이 차지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민간소비 등의 영향이 크게 확대되었음. 하지만 민간소비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민간부문, 특히 주택부문의 위축에 따라 건설경기가 정체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시장의 정책/규제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재급등 위험과 적용-효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책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이후 대형개발사업 및 기존 수주의 기성화로 인해 토목은 토지조성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회복 가능
- 해외건설에 있어 고유가와 맞물린 산유국들의 대규모 플랜트 수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대형 개발 사업 등의 사업다각화, 동남아/러시아 등 개발국가의 다양화로 건설업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다만 저개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지연, 수익금 회수 지연 등의 리스크가 상존
-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제약 조건들은 중견이하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할 것으로 보임. 해외 건설의 수주 경쟁, 리스크 관리/ 국내 건축사업에서 공공택지 확보 및 대형 사업권 확보 / 토목사업에서 기술/가격 경쟁력 등에서 대형업체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규모별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

그림 67 소비자 기대지수(소비지출) 및 종합소매업 활동지수 전망



자료 : 통계청,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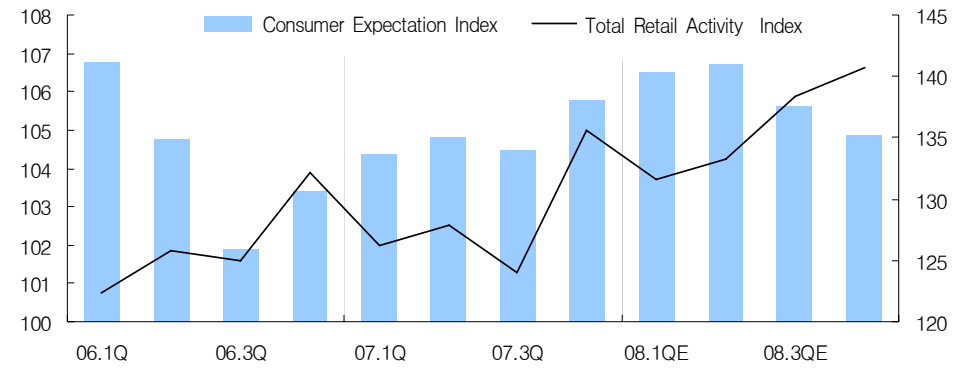
V. Domestic Consumption Goods, Distribution and Transport Industry

- A recovery in consumer confidence will create higher demand, which will lead growth in the domestic consumption goods and distribution industry.
- Private consumption has shown a gradual increase since the beginning of 2007, and sales revenues of consumer goods have shown a steady recovery, with rising stock prices and improved purchasing power. Private consumption in 2007 is expected to grow 4.3% YoY, and the upward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resulting in 4.8% YoY growth in 2008.
- Improvement in purchasing power is expected to raise expectations on consumer spending, and cause increased demand in the domestic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industry. The index of consumer expectations on consumption (in real terms), which shows a direct relationship with industry growth, has rebounded since 2H 2006, reaching 104.6 in 3Q 2007. This growth trend in the index is expected to continue through 2008.
- Increased private consumption, supported by improvements in consumer confidence, brought a direc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industries that produce and distribute final consumption goods such as retail, apparel, pharmaceuticals, paper, flour and sugar. Industry growth rates, which had fallen drastically after the credit card crisis, have been improving since 2007. Demand for final consumption goods is expected to rise further in 2008, driving growth in the domestic consumption goods and distribution industry.
- Similarly, strong demand will drive growth in the transport industry such as shipping and aviation. Increased demand for overseas travel triggered by appreciation of the won and a rise in IT imports and export cargos will help the aviation industry achieve 9% annual revenue growth. A steady increase in freight to China will become a key factor in shipping industry growth.

- Korea's construction market will be stagnant due to the slump in the real estate market while construction demand in overseas including the Middle East, emerging markets and Southeast Asia will grow.
- Since the beginning of 2000, the portion of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expanding, and therefore the influence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private consumption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lso grew significantly. Despite the private consumption recovery, a contraction of the private construction sector, in the residential housing sector in particular, followed by a slowdown in the real estate market, caused a slowdow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is trend will continue until 1H 2008.
-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current regulations on the real estate market will ease, but regulatory changes will not have a remarkable impact, owing to the risks of another surge in real estate prices and the time difference between regulatory changes and the time it takes for them to actually take effect.
- Nevertheless, beginning in 2H 2008, with the beginning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completion of existing construction work, the civil engineering and residential housing sectors should recover.
-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sector, high oil prices will likely create more large-scale plant orders from the Middle East. In addition, the diversification of both project types, including residential housing o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nd development markets, such as Southeast Asia and Russia, will all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struction industry revenues. Nonetheless, there also remain some risks such as project delays and delayed earnings collection, since most projects are operated in less-developed areas.
- Certain constraints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construction markets will add additional burdens on small-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rms. Companies will show vastly different earnings depending on their size, since large firms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competing for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risk

management, or securing public building sites or large-scale contracts in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as well as their technology or pricing competitiveness in the civil engineering sector.

그림 68 Consumer Expectation Index and Total Retail Activity Index



Source: KOSIS, Hana Institute of Finance

1. 해운

표 28 해운 매출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매출액	-3.8	-0.8	3.4	15.2	16.3	22.0	14.3	26.9	16.9	4.3	0.0	11.2

주 :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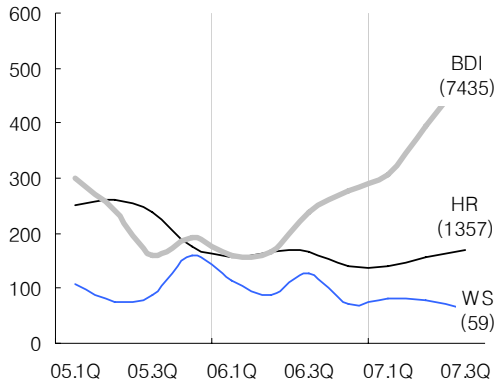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해상 운임지수의 상승세, 그러나 선종별 상승형태는 차별적

- 건화물선운임의 급등세, 컨테이너운임은 소폭 상승, 유조선운임은 소폭 하락
 - 컨테이너선 HR 종합운임지수는 10월 3일 현재 1398.7포인트로 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2007년 세계 경기의 둔화가 전망되었으나 중국항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되어 HR 종합운임지수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 건화물선 BDI 운임지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 2007년 3/4분기 건화물선 BDI 종합운임지수는 전년동기비 107.0% 상승한 7,435포인트를 기록. 건화물선 시황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철광석 및 석탄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호주 등 수출항만의 극심한 정체에 따른 선박량 감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
 - 유조선 WS운임(중동-울산)지수는 2/4분기 80포인트를 전후를 기록하여 2005년 말 이후의 하락세에서는 벗어나 소폭 반등하였으나, 3/4분기 원유수송 수요의 감소로 WS운임지수는 59포인트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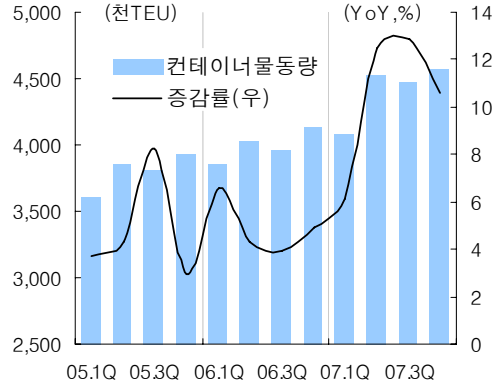
- 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가세 지속
 - 상반기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687만TEU로 전년동기비 9.2% 증가하여 2005~6년의 증가율(4.4%)을 크게 능가함. 이는 환적 물동량의 회복세와 더불어 대중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임. 특히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인천항과 평택항의 물동량은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69 해상 운임지수 변동추이



주 : 1. 2001년 1분기를 100으로 하여 조정한 그래프임
 2. ()안의 값은 2007년 3/4분기 평균 운임지수임
 자료 : Clarkson,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림 70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주 : 4/4분기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 해양수산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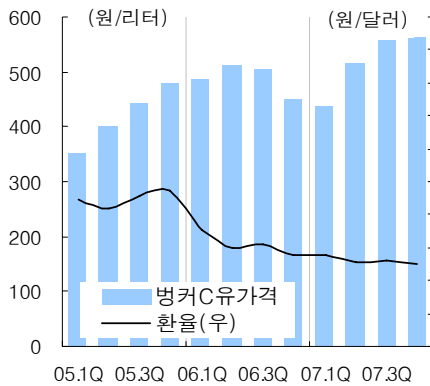
■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2007년 벙커C유 가격의 급등세

- 해운업의 수익성은 해상운임, 용선료, 유가, 국제금리, 환율 등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해상운임, 유가, 환율이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3/4분기 평균 벙커C유의 국내가격은 리터당 558원으로 1/4분기에 비해 27.3% 상승하여 국내 해운선사들의 운송원가에 부담으로 작용
- 3/4분기 환율(종가 평균)은 930원으로 1/4분기에 비해 달러당 9원가량 하락하여 대부분의 매출을 달러로 결제하는 국내해운선사들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해운운임의 상승으로 해운선사들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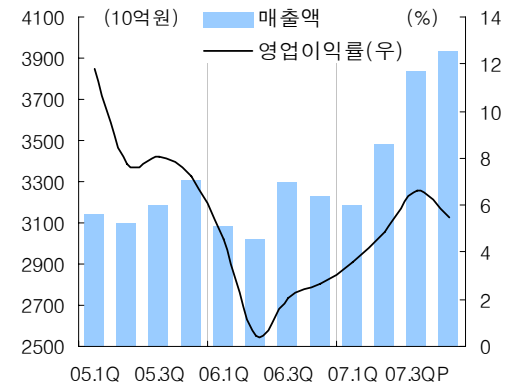
- 유가상승 및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국내 해운선사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07년도 국내 주요 해운선사들의 매출액은 14조 4,497억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5.2%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8%p 상승한 것으로 추정
- 건화물선 운임의 급상승에 따라 대한해운의 수익성 개선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테이너 중심인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의 수익성도 2006년 4/4분기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음

그림 71 대미환율과 벙커C유의 가격 추이



주 : 4/4분기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 72 주요 해운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주 :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 흥아해운, 씨앤상선의 합계. 4/4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2) 2008년 전망 :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 지속으로 선사들의 영업실적은 개선

- 2008년 해상 물동량의 증가세 지속으로 운임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2007년 예상을 넘어서는 물동량 증가로 해상운임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함. 이와 같은 해상운임의 상승세는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
 - 컨테이너선 HR 종합용선지수는 2008년 전반에 걸쳐 155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하반기에 선복량의 증가로 상승세는 누그러질 전망
 - 건화물선 BDI 종합운임지수는 2007년의 기록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물동량 증가세의 지속으로 2008년 전반에 걸쳐 8000포인트 전후의 강세를 지속할 전망. WS(사우디-울산)운임지수는 원유운송 수요의 증가에 따라 2008년 평균 100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주요 해운선사의 영업이익률은 7.1%에 달할 전망
 - 2008년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국내 주요 해운선사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전망
 - 주요 해운선사들의 2008년 합산 매출액은 올해대비 11.2% 증가한 16조 642억 원 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률 또한 올해대비 1.9%p 상승한 7.1%에 달할 전망

2. 항공

표 29 항공 매출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7P	2008				2008E
			1/4	2/4	3/4P	4/4P		1/4E	2/4E	3/4E	4/4E	
매출액	4.3	8.2	13.1	6.8	5.5	10.6	8.9	9.5	11.0	8.4	8.4	9.3

주 :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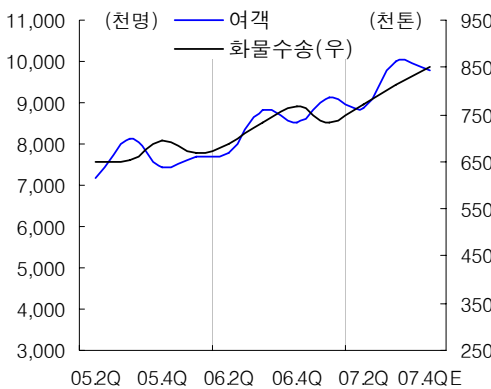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국제선 여객 및 화물 수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세

■ 원화 강세 지속으로 국제여객 수송량의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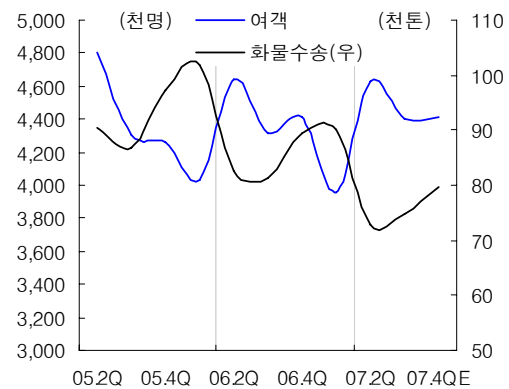
- 2007년 국제선 여객수송은 전년대비 15.0% 증가한 3,778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이는 원화 강세 지속에 따른 해외 관광수요의 증가로 국제 여행객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반면, 2007년 국내선 여객수송은 전년수준과 비슷한 1,74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국내선 항공수송은 KTX 개통 및 고속도로 확충으로 수요분산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다만, 2007년 들어 국내 여행수요의 증가로 국내선 항공여객의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음

그림 73 국제선 여객 및 화물수송 추이



주 : 4/4분기 자료는 추정치
자료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 74 국내선 여객 및 화물수송 추이



주 : 4/4분기 자료는 추정치
자료 : 한국공항공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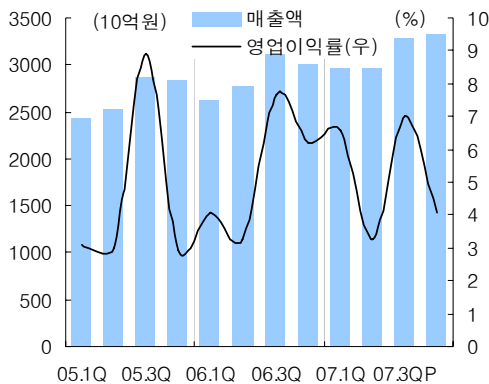
■ 국제선 화물수송도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 국제선 여객수송과 더불어 화물수송 또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2007년 국제선 화물수송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317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이는 수출입 화물의 고급화 및 경량화에 따라 항공을 이용하는 화물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임
- 국내선 화물수송은 전년대비 10.6% 감소한 32만톤을 기록하여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국제선 여객 및 화물수송의 증가로 매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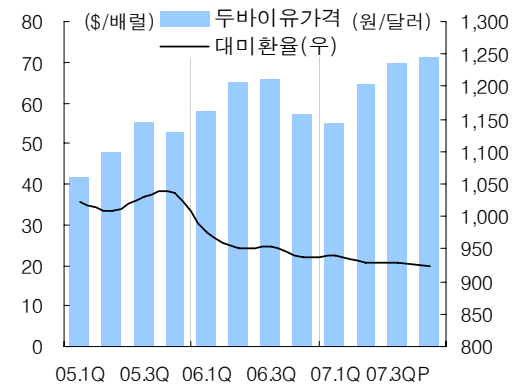
- 국제선 여객 및 화물수송의 증가로 2007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매출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12조 5,547억원으로 추정
-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항공사 등과의 경쟁심화로 3월 국제항공 여객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28.6포인트(2005년=100)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국제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여 2007년 8월 기준으로 145.6포인트 기록

그림 75 정기항공사 영업실적



주 : 4/4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은 추정치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 76 대미환율과 유가(두바이) 추이



주 : 환율은 증가 분기평균, 4/4분기 자료는 추정치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매출확대에 따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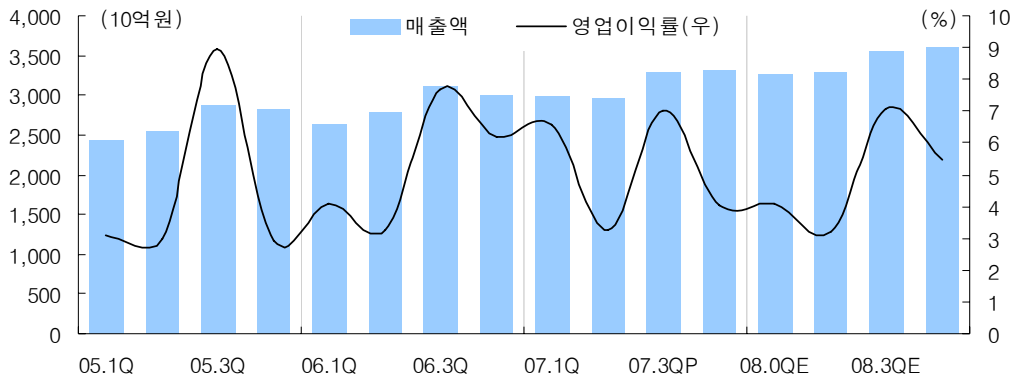
- 항공업계의 수익성은 항공수요, 유가, 환율, 국제금리 등에 크게 좌우되는데 그 중에서 항공수요와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

- 항공수요의 증가로 2007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영업이익은 6,554 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전년 수준인 5.2%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3) 2008년 전망 : 국제선 수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성장성 확대

- 하반기 원화강세에 따라 국제여객수요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2008년 국제여객수송은 원화강세 등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로 전년에 비해 10.0% 가량 증가한 4,156만명에 이를 전망
 - 중국 경제 호황 지속과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2008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국내 여객수송은 정체되어 전년대비 0.1% 감소한 1,739만명에 그칠 전망
- 반도체 등 IT경기의 회복에 따라 국제항공화물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2008년 국제화물 수송은 IT화물의 증가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344만톤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최근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 항공수요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반면에, 국내 화물수송은 국내 여객수송과 마찬가지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비 2.0% 감소한 31만톤에 그칠 전망
- 항공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로 수익성은 전년수준을 유지
 -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매출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13조 7,176억원에 달할 전망.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출은 확대될 전망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산영업이익률은 5.0%로 전년 수준과 비슷할 전망. 이는 고정비 비중이 높은 항공산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나, 항공사간의 경쟁심화에 따른 항공요금의 인하에 따라 항공사들의 수익성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

그림 77 정기항공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전망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소매유통

표 30 소매유통 판매액지수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7P	2008				2008E
			1/4	2/4	3/4P	4/4P		1/4E	2/4E	3/4E	4/4E	
백화점	3.8	5.7	0.8	1.2	3.5	6.7	3.2	3.0	3.4	3.5	6.7	4.2
대형마트	9.5	8.3	11.2	10.0	6.6	12.1	10.0	9.0	9.3	6.6	12.1	9.3
무점포	13.0	13.5	8.9	7.3	14.6	11.8	10.7	12.0	11.2	14.6	11.8	12.4

주 : 판매액지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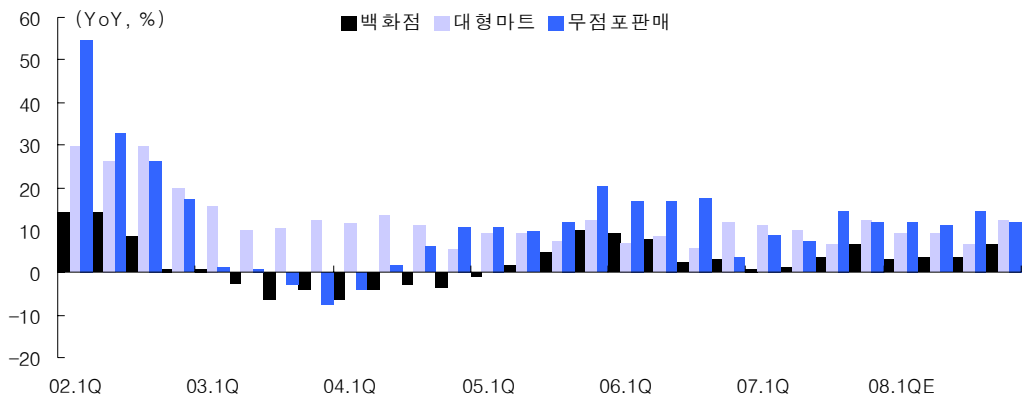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백화점을 포함한 주요 유통업체의 점진적인 성장세 지속

■ 경쟁심화 속에서도 업체별 차별화 전략으로 전반적인 성장세 유지

- 백화점은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며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연간 3.2%의 판매액지수 증가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
- 대형마트와 무점포판매는 최근 성장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특히, 대형마트는 신규출점이 부진한 대신, M&A 및 기존점 리뉴얼을 통한 내실강화로 매출성장 유지

그림 78 주요 종합소매 업체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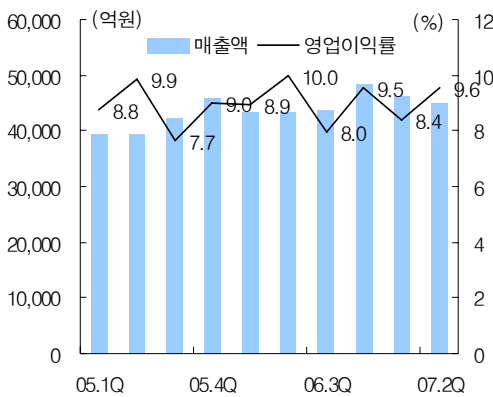


주 : 대형마트(할인점), 무점포판매(인터넷홈쇼핑, TV홈쇼핑 등)

자료 : KOSIS,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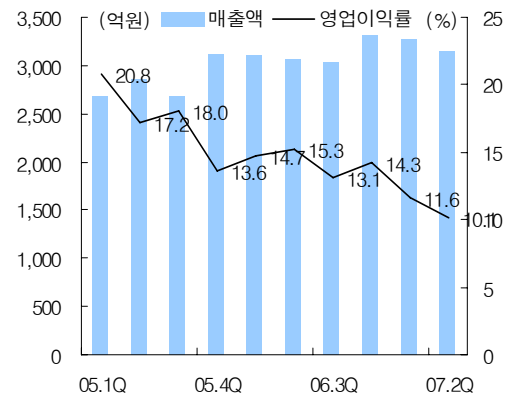
- 상위 업체들의 수익성은 정체되는 한편 무점포소매업의 수익성은 하락 추세
 - 2007년 주요 유통업체들의 수익성은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경쟁심화로 수익성은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냄
 - 주요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매출액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무점포소매업은 업체 특성상 가격경쟁력과 신속한 배송이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79 주요 유통업체 영업실적 추이



주 : 대상은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3개사임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그림 80 주요 무점포소매업 영업실적 추이



주 : 무점포소매업 대상은 GS홈쇼핑, CJ홈쇼핑, 옥션의 3개사임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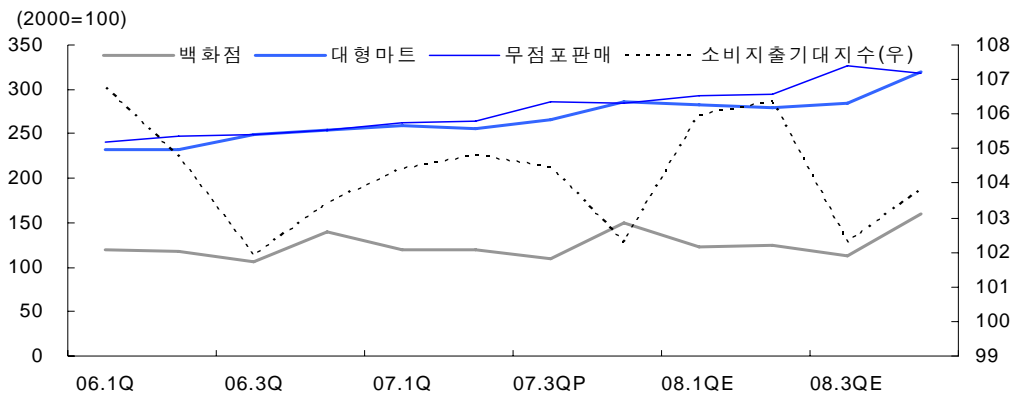
2) 2008년 전망 : 소비여건 향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기대

- 2007년 대선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는 개선될 듯
 -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내 경제는 대통령 선거와 주식시장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 6개월 후의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자기대지수가 2007년 1분기 및 2분기에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04 포인트까지 상승하여 올해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에도 소비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업태별 판매액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08년 소비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판매액지수도 상승하여 업태별로 백화점 4.2%, 대형마트 9.3%, 무점포판매업 12.4%의 성장이 예상됨
- 신규 출점이 제한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지방 중소기업의 M&A 및 업체별 특성 강화,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매출성장을 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백화점은 대형마트의 공세에 맞서 고급화와 문화센터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
- 한편, 무점포소매업은 대기업의 인터넷쇼핑몰 사업부문 강화에 힘입어 평균 15% 이상의 매출액 성장이 기대되나 시장 초기의 급격한 성장세를 지나 완만한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그림 81 소비지출 기대 지수 추세



자료: KOSIS, Hana Forecasting Model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수익성은 고마진 상품 강화로 소폭 개선될 듯

- 백화점은 수입 브랜드와 명품 비중 확대, 매장의 고급화 등 타 업태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꾀할 전망
-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할인점도 기존의 가격 출혈경쟁에서 탈피, 당일상품 당일판매제, 진열기한 표시제, 과일당도 표시제, PB상품 개발 등으로 내실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 다만, 해외시장 진출로 인한 초기비용 증가는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4. 의류

표 31 의류 생산/출하지수 증가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지수	4.8	9.2	6.1	10.7	4.7	6.4	7.0	6.5	7.6	3.3	10.1	6.9
출하지수	5.8	12.3	9.1	9.0	5.5	6.5	7.5	9.0	8.5	5.6	11.2	8.6
판매액지수	0.3	8.1	-1.3	-2.3	-1.2	2.1	-0.7	0.2	3.4	5.7	5.5	3.7

주 : 지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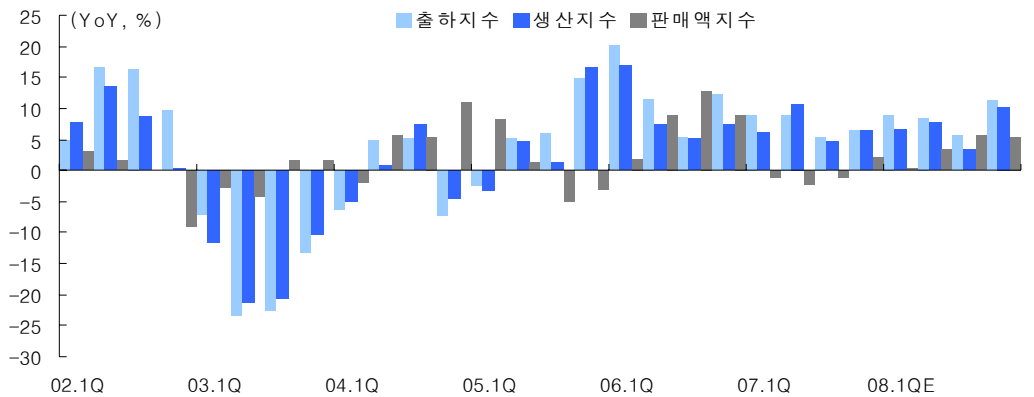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소폭 성장과 함께 상위업체들의 수익성도 양호

■ 물량 기준으로 2007년 평균 7% 수준의 성장이 기대됨

- 생산·출하지수는 소폭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7월 이후 주요 유통채널에서의 의류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추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연간의 의류 산업은 약 7%의 성장이 전망됨
-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아동의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복과 남성복은 증감 기복이 심한 편이었음. 또한 프리미엄 의류판매액은 증가추세를 보임

그림 82 국내 의류 생산·출하·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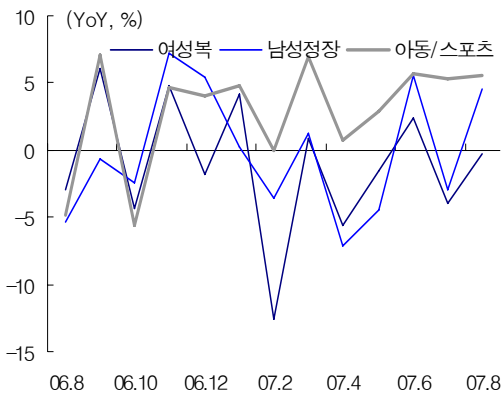


자료 : KOSIS,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상위업체들은 단가상승에 따라 10% 이상의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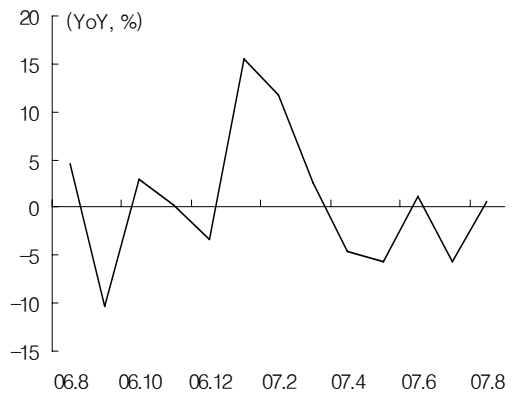
- 2007년 상반기 백화점에서 판매된 의류의 매출액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0.02% 증가에 그쳤음. 그러나 휴가철 7~8월 실적을 포함하면 0.36%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2007년 연간 매출액 성장은 전년대비 약 0.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상위 업체들의 수익성은 평균 12% 이상의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인 타임, 마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섬은 2007년 매출액 정체에도 불구하고 17%대의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었음

그림 83 백화점 의류 매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 산업자원부

그림 84 할인점 의류 매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 산업자원부

2) 2008년 전망 :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물량과 금액 모두 성장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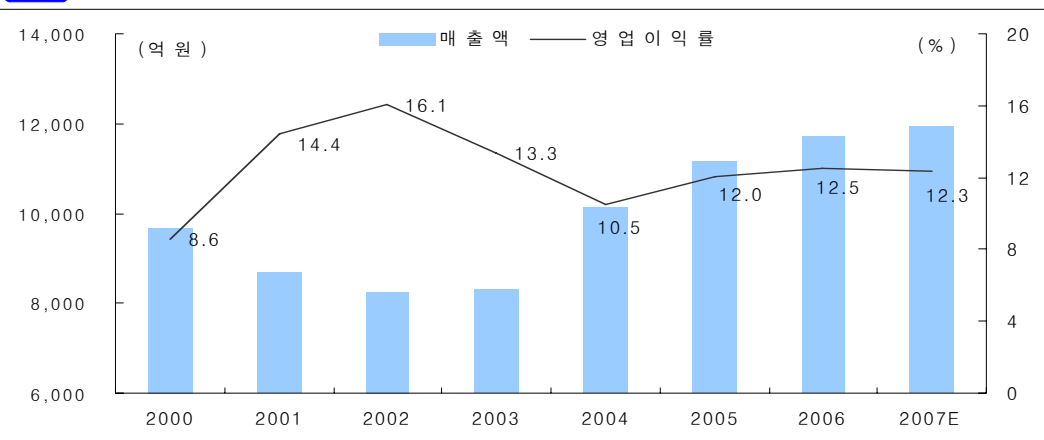
■ 저가제품의 출하량 증가와 고가제품의 꾸준한 성장세로 물량과 금액 모두 소폭 성장 가능할 듯

- 의류 판매도 저가제품과 고가제품간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2008년에도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저가제품과 백화점 고가 브랜드의 판매량 증가가 기대되어 산업 전반적으로는 물량과 금액 모두 소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의류생산 및 출하지수는 2007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2008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판매액지수도 완만한 성장이 전망

■ 주요 업체들은 프리미엄라인 강화로 수익성은 소폭 개선될 전망

- 시장 양극화에 따라 업체간 수익성도 차별화되는 가운데 주요 의류업체들은 프리미엄라인을 강화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
- 또한 2007년 상반기 재고지수가 전년동기대비 50%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월상품 규모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고 있음
- 중저가 브랜드의 경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국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이 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타임, 마인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한섬은 고가 브랜드의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하반기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1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의류업체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비 2%p 상승한 1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85 주요 의류 업체의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주 : 대상업체는 한섬, 베이직하우스, Fnc 코오롱, F&F, 지엔코의 5개사 기준
 자료 : 각사 자료, FnGuide

5. 제분 · 제당

표 32 제분 · 제당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1.2	0.2	-2.1	-6.5	0.3	1.7	-1.4	-0.1	0.1	0.5	1.2	0.5
내수	-2.5	1.3	-4.4	-3.6	0.8	2.4	0.1	0.5	-0.4	0.8	1.7	0.7
수출	4.0	-6.2	11.7	13.2	-5.5	-2.4	-2.5	-1.8	1.3	-3.4	-1.2	-1.2

주 : 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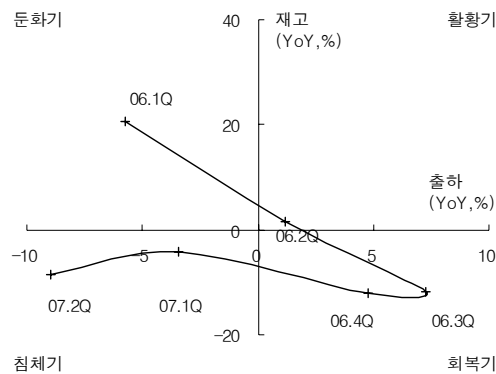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출하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에 따른 매출 성장

■ 밀가루 출하량은 2.3% 감소, 설탕 출하량은 1.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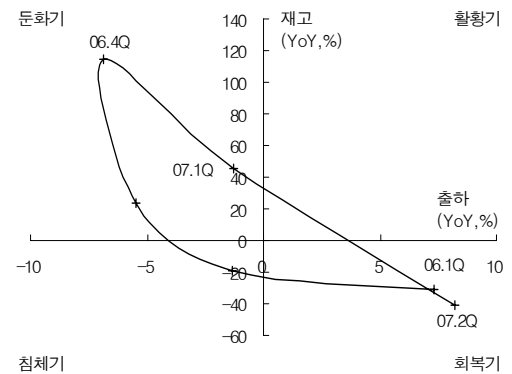
- 2007년 상반기 밀가루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요 정체와 원재료가격상승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임. 상반기에는 6.3%가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는 소비회복세와 가수요 해소, 가격인상 등에 따라 1.4% 증가하여 2007년 전반으로 2.3% 감소함
- 2007년 상반기 설탕 출하량은 생산마진 증가에 따라 3.7%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수입관세의 인하, 대체감미료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0.1% 증가로 연간으로는 1.9% 증가

그림 86 밀가루 출하/재고량 증감 추이



주 : 물량 기준
자료 : KOSIS

그림 87 설탕 출하/재고량 증감 추이



■ 출하량 정체를 상회하는 가격인상 효과로 매출 증가

- 2006년 말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의 소폭 증가세에도 양적 지표인 출하지수 증가율은 정체되어 소비심리 회복과의 괴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료의 고가화, 웰빙제품 선호에 따라 소비/출하는 정체
-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가격 인상이 출하량 정체를 상쇄시키며 2007년 상반기 가격 인상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매출 증가 예상

■ 원재료의 수급불균형과 달러약세로 원재료 가격 급등

- 세계적으로 식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동유럽 및 구소련의 폭염, EU의 수확기 폭우, 호주의 가뭄, 미국 중부지역의 서리와 홍수 등으로 곡물 수급 여건이 악화되어 원맥 선물가격이 폭등
- 달러 약세의 지속에 따라 환차손에 보상심리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서브프라임 사태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금융자산보다 현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여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화
- 국제 유가의 상승 및 중국 물동량 증가, 호주/인도 등 세계 주요항구의 체선현상 장기화 등에 따라 국제 해상운임도 급등하면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 가속

그림 88 밀가루/설탕 생산자가격지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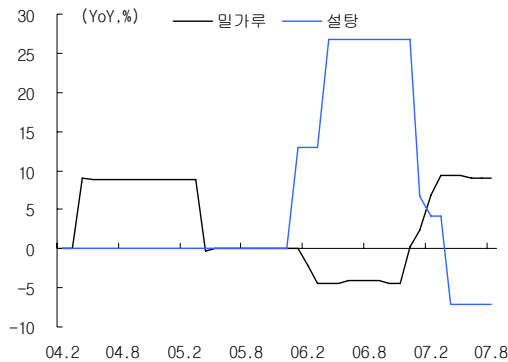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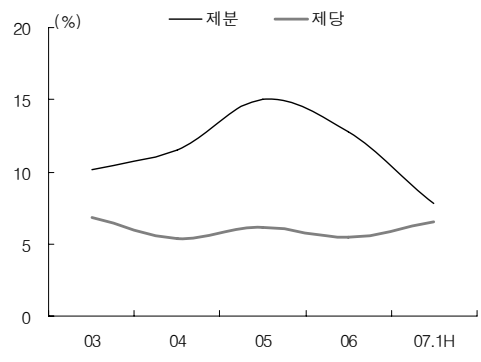


그림 89 대표업체의 영업이익률



자료: KOSIS

주: 대한제분(주), 한국제분(주), 동아제분(주), (주)삼양밀맥스, 대선제분(주), 삼화제분(주)/대한제당(주), CJ(주), (주)삼양사 합산
자료: KISVALUE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제분업 수익성은 하락, 제당업은 상승함
 - 2007년 8월 국제소맥가격은 전년말대비 26.7% 상승하였으며 이에 국내수입오피가격도 36.0%로 크게 상승하였음. 밀가루 출하량이 감소하고 제품가격 상승에도 마진율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 영업이익은 하락함
 - 2007년 8월 국제 원당가격과 국내수입오피가격이 각각 5.4%, 7.2% 하락함. 원당가격의 약세 전망과 제품가격 유지로 수익성 회복

2) 2008년 전망 : 판가 인상에 따른 매출 성장 지속

- 양적인 성장 정체는 지속
 - 노령인구 증가 및 인구 증가율 감소 등으로 향후에도 출하량 증가는 어려우나 가격 인상 등에 인한 매출액 증가는 지속될 듯
 - 밀가루 출하량은 상반기 1.3% 감소, 하반기 1.4% 증가를 보여 전반적으로 0.2%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설탕 출하량도 상반기 1.6% 증가, 하반기 0.1% 감소, 전반적으로 0.8% 증가하면서 정체 양상 지속
- 국제 곡물가격의 강보합세 유지로 원맥가격 상승되나 원당가격은 약세
 - 국제곡물의 작황 개선 및 수급불균형 해소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원맥가격의 상승세는 2008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원당가격은 인도/동남아시아의 수요증가 추세 지속,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이상적인 수확조건 유지, 인도의 수출 증대 노력 등으로 공급 잉여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약세 기조 유지
- 제분/제당업의 수익성은 소폭의 개선 예상
 - 국제 소맥가격 상승세는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품가격의 상승압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곡물가격인상은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원가 부담이 상쇄되고 생산시설 교체를 통해 제조원가 효율화가 추진되어 소폭 개선
 - 브랜드 파워가 있는 업체들로 시장구조가 조정되면서 대형할인마트로의 구매력 확보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이 2/4분기 이후 지속되어 수

6. 제약

표 33 제약 매출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매출액	14.4	8.8	11.5	6.6	4.6	4.1	6.7	4.9	6.3	7.4	7.0	6.4

주 :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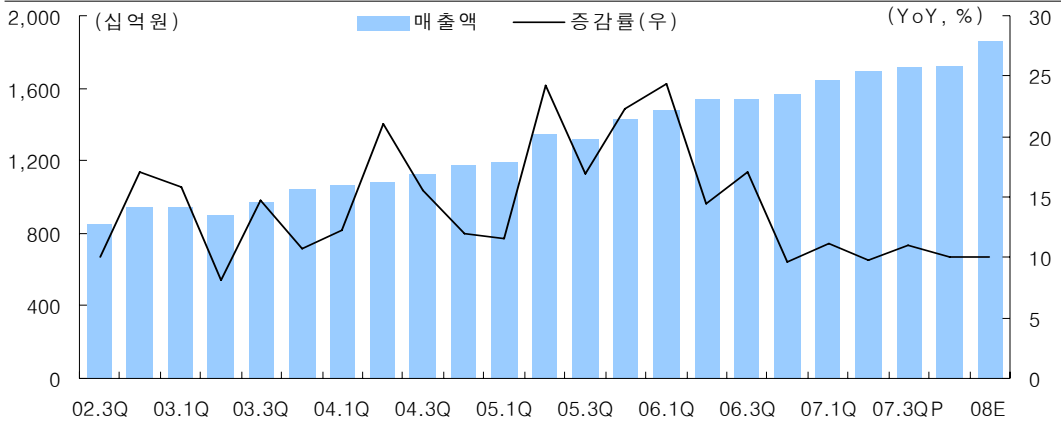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각종 약재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와 수익성 유지

■ 각종 약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시장은 8.4%의 성장세 시현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본격 가동,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 생동품목데이터 조작 파문, 약가 재평가, 신규 제네릭의약품의 출시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2007년 원외처방의약품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11% 이상의 높은 성장세 유지
- 이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 성인질환 관련한 의약품 수요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QOL(Quality of Life) 관련한 비급여 의약품 수요의 증가에 기인함
- 연초 신규 제네릭의약품 출시가 지연되었으나 제약사의 블록버스터 제네릭 품목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 빠른 시장 진입 등도 제약시장의 성장세를 견인
- 2007년 전문의약품 시장은 전년대비 10.7% 증가하고, 점진적인 민간소비의 회복으로 일반의약품도 1.5% 증가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이 전년대비 8.4% 증가할 듯
- 실제 1~8월 의약품 출하지수 및 도매판매액지수가 전년대비 6.7%, 7.6% 상승하여 호조세가 지속됨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국내 상장 34개사의 2007년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6.7%로 최근 5년 평균 11.4%를 크게 하회하나 전년 6.0%에 비해서는 양호
-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대웅제약 등 상위 제약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5~21%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
- 반면, 중소형 제약사는 주력 제품인 일반의약품의 판매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고, 신규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및 생동품목데이터 조작 파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등 외부 변화에 민감하여 성장성이 제한받고 있음

그림 92 원외처방의약품 매출액 및 증감률 전망



주 : 주력 약효군(9 종류) 기준

자료 : 이수유비케어 자료 재인용,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상장 34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2%에 달할 듯**

- 매출액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가 개선 효과, 전문의약품 비중 증가, 대형 제네릭 제품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집중과 이에 따른 판매비 부담 완화 및 이익 기여도 증가 등으로 제약사의 영업이익률 개선
- 실제 34개 상장사의 2007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2.0%로 최근 5년 평균치인 11.8%를 소폭 상회하고 있어 제약산업의 호황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녹십자, 종근당 등 상위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4~17%로 높은 편. 비록 중소형 제약사들은 10% 안팎에 불과하나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이익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2008년 전망 : 제약시장은 8.0% 증가, 영업이익률은 12.2%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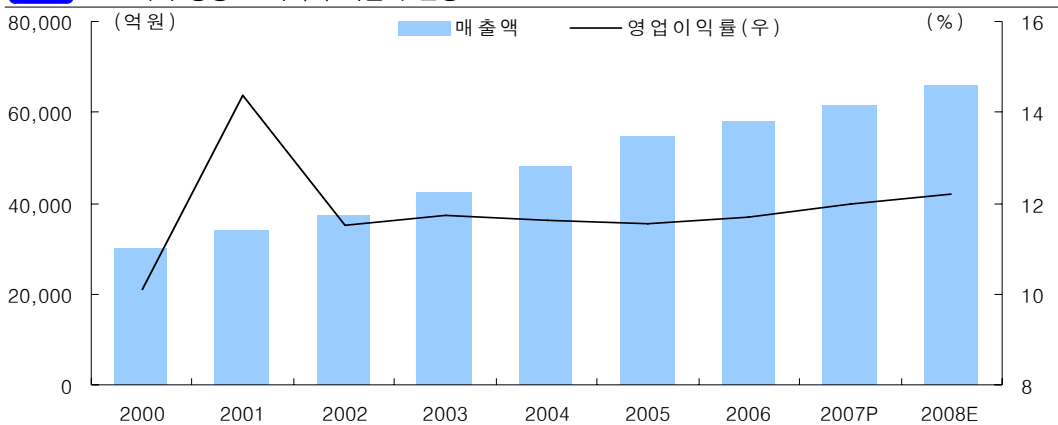
■ **제약시장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나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

-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중증질환 지원 및 급여율 상승과 이로 인한 재정부담과 약가 인하 압력 강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리베이트 관련한 과징금과 비정상적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시장은 전년 대비 8.0% 성장하고 주요 업체 매출액도 6.4% 정도 증가할 전망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의약품의 수요 증가와 특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의

약품 시장 성장, 정부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으로 전문의약품 시장이 전년대비 10% 정도 증가할 전망

- 특히, 특허 만료 예정인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이 2006년 600~800억원을 저점으로 다시 급증하여 2007~8년 동안 연간 1,500~2,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
- 또한, 민간소비가 안정화되면서 일반의약품 시장 역시 경제 성장과 함께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제약시장의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고성장에 따른 base effect, 신약 파이프라인의 실적 가시화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 성장세 유지할 듯
-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GDP 대비 의약품 시장 비중이 낮고,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9.2%에서 2011년 24%까지 줄여도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제약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

그림 93 국내 상장 34개사의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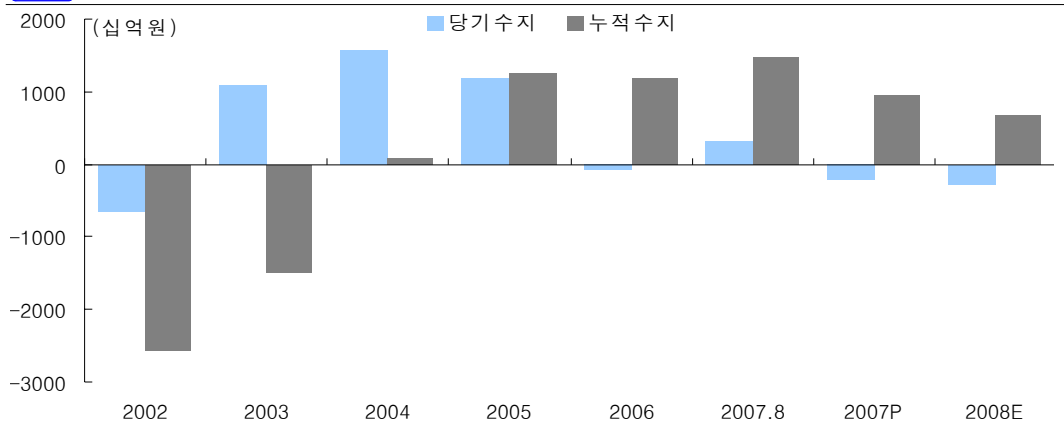
자료 : Kis-Value,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전문의약품 비중 증가, 원가 개선 등으로 평균 12% 이상의 영업이익률 전망

- 정부의 약가 재평가로 의약품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나 실제 약가 재평가에 의한 제약업체의 실적 감소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부분은 미미할 전망
- 반면, 2007년 하반기부터 신규 제네릭 의약품의 이익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전문의약품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익성 향상이 지속될 전망

- 게다가 제약사마다 경쟁 속에서도 비용 효율화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원가 구조 개선도 이어질 전망. 여기에 2008년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감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늘어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
- 이에 따라 상장 34개사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12.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사의 영업이익률은 0.5~1.0%p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중소형 제약사는 대형사, 수입사와의 경쟁 속에서도 주력 제품군인 일반의약품 시장의 회복 등 전체 의약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안정적 수익성 유지가 가능할 듯
- 다만, 약가 인하 압력에 따른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전환, 약가재평가 방안에 따른 퇴출 의약품 처리 부담, 신규 의약품의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중소형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0% 내외를 유지할 전망

그림 9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 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7. 제지

표 34 제지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생산	0.4	1.5	-0.2	0.2	3.7	3.0	1.6	1.3	2.4	-1.9	0.7	0.6
내수	1.7	3.4	-1.1	0.9	7.0	7.8	3.7	3.1	7.3	-1.8	3.3	2.9
수출	-1.6	-0.4	-1.5	6.8	-9.7	6.9	0.4	0.0	-4.3	7.7	-1.3	0.3

주 : 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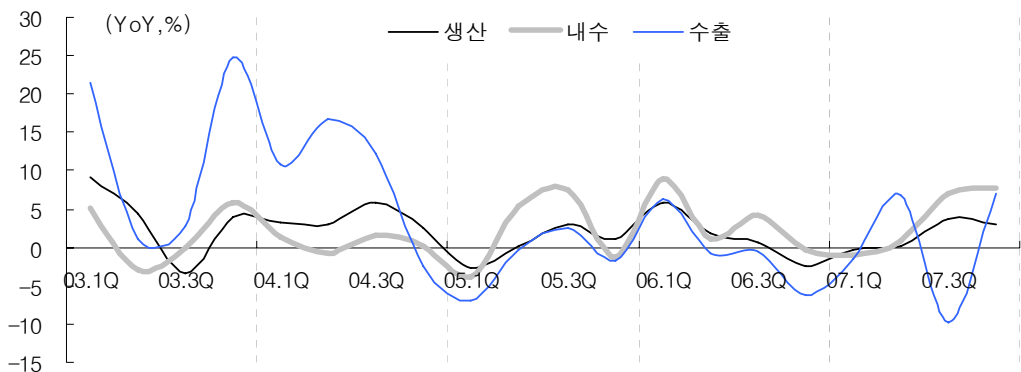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내수 경기의 회복으로 인한 전반적인 제지수요의 증가

■ 환율 강세로 인한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회복으로 출하 증가

- 2007년 제지 내수는 국내 소비 심리의 회복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2007년 하반기로 갈수록 제지 내수의 회복세는 더욱 확대되어 2008년 제지 내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함. 다만, 원화의 강세 지속으로 제지 수출은 2007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는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추정됨

그림 95 제지류 생산, 내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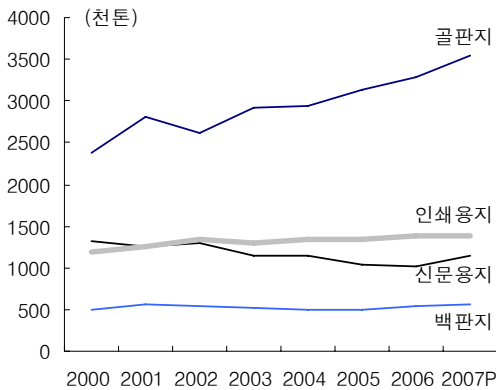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Hana Forecasting Model

-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회복으로 전체 출하는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보임. 최근 제지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업체간 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제지 생산은 출하 증가율을 하회하는 수준인 1.6%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제지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수급상황은 제지별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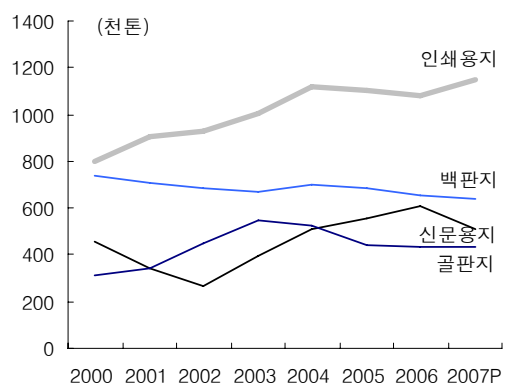
- 국내 소비심리의 회복으로 제지 내수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의 성장에 따른 포장용지 수요의 증가로 골판지 및 백판지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짐. 그에 반해 인쇄용지 등은 전년에 비해 1% 이내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원화강세에 따라 신문용지, 골판지, 백판지 등 대부분의 제지 수출이 정체 또는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들어 시장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인쇄용지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96 제지별 내수 추이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 97 제지별 수출 추이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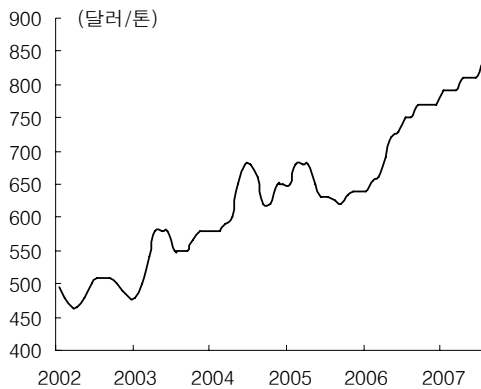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제지업체의 수익성은 소폭 하락

- 국제펄프가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증가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북미산 표백펄프(NBSK) 가격은 2007년 초 톤당 790달러에 거래되었으나 8월에는 85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국제펄프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폐지가격은 국내 수집량의 증가로 2005년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7년 들어서면서 골판지 등 포장용지 수요의 증가 및 중국의 폐지 수입 증가로 국내폐지가격 및 수입폐지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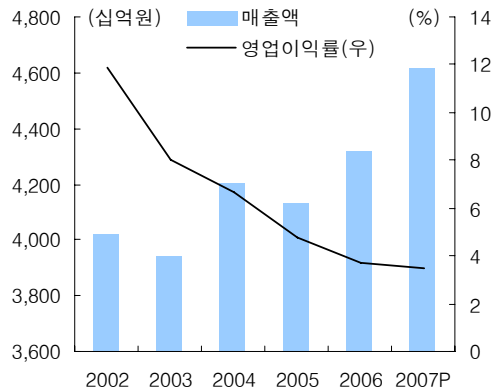
- 국내 제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아세아제지 등 주요 기업들의 200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 가량 증가한 4조 6,1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그러나 국제펄프 및 폐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의 심화로 주요 제지업체들의 2007년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3.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그림 98 국제펄프가격의 변동추이



주 : 북미산표백펄프(NBSK) 톤당 가격임
자료 : 무림페이퍼

그림 99 국제 펄프, 폐지 가격 추이



주 : 주요 제지 22개사 합계
자료 : 각사 사업계획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2008년 전망 : 제지 수요의 안정 속 펄프가격의 하락으로 제지업체 수익성 개선

■ 내수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제지 수요의 안정적인 증가

- 2008년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쇄용지를 중심으로 제지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시장의 성장으로 골판지의 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 그러나 원화강세의 지속으로 제지의 수출 개선은 어려워 2007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제지 수출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지 수요의 회복으로 전체 제지 출하는 연간 2~3%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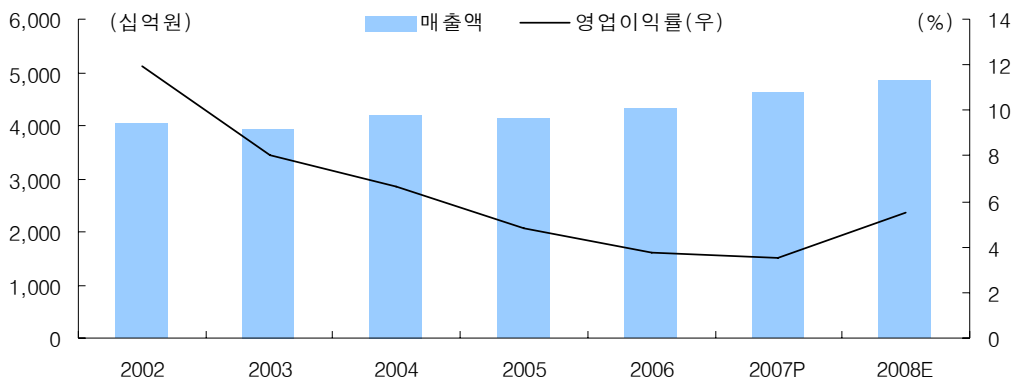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지속적인 M&A로 제지업체의 구조조정은 완료 단계

- 2006년 이후 M&A가 활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제지업계의 구조조정은 완료 단계. 최근 들어 골판지지원 업계를 중심으로 제지업체 간 M&A가 활발하게 진행
-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지업계의 공급과잉이 완화되고, 제지업체들의 공급량 조절에 따라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또한 향후 제지업계의 M&A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외 폐지가격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펄프가격의 하락으로 수익성 회복

- 최근 국제 펄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펄프공장의 정상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펄프가격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적어도 2007년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008년에는 남미지역 펄프제조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어서 국제 펄프가격의 안정화가 예상됨
- 국내 내수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2008년 제지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아세아제지 등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4조 8,464억원에 달할 전망
- 2008년 국제펄프가격의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주요 제지 업체들의 수익성 또한 개선되어 영업이익률도 5.5%에 달할 전망

그림 100 2008년 국내 제지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전망



주 : 주요 제지 22개사 합계
 자료 : 각사 사업계획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8. 건설

표 35 건설 수급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수주액	7.3	9.0	26.3	26.3	-29.4	-16.9	-2.2	-0.2	-6.4	6.0	3.3	0.1
기성액	4.1	3.7	6.5	4.8	4.4	3.7	4.7	1.8	3.0	6.9	5.7	4.5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지표상 기성성장세의 둔화로 제한적 회복양상

- 기성 성장세의 둔화 및 토목부문의 한정된 예산으로 건설업황 회복은 제한적
 - 상반기 건설기성은 5.5% 증가하나 하반기에는 3/4분기에 4.4% 증가, 4/4분기에 3.7%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4.0% 증가
 - 2005~06년의 건설수주 증가에 재건축/재개발이 많았고 주택분양이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2007년 건축기성의 회복이 제한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조기분양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성 둔화가 나타나는 것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 따른 수요 감소, 지방미분양 증가, 건설업 유동성 악화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
 - 토목기성의 경우 상반기에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재정조기 집행의 효과가 크며 토목부문 자체가 예산에 따라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5~7% 정도로 성장세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건설 기성의 둔화가 나타남
- 수주/허가물량 감소로 향후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 존재
 - 재개발사업은 정부의 도심지 주거정비촉진 및 뉴타운 건설로 향후 주택사업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나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07년 수주물량은 2006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7년 상반기 주택건설호수는 전년 상반기대비 28.1% 감소한 130,436호이며 향후 미분양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저항으로 민간 주택건설호수가 더욱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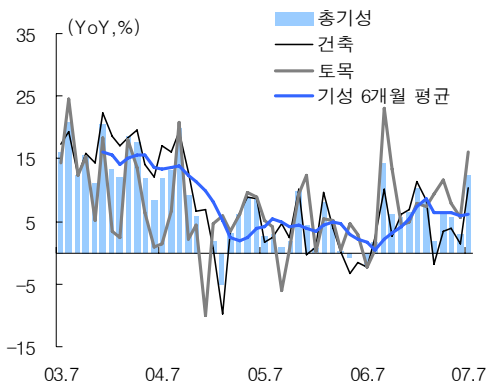
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상반기 건축허가면적은 2006년 상반기 59,540천㎡에서 0.7% 감소 59,148천㎡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건축물 착공면적실적은 2006년 상반기 41,367 천㎡에서 18.1% 증가하여 48,872천㎡로 나타남
- 공공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은 민간의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주택공급은 위축될 것이며 최근의 수주 감소는 향후 2~3년후 공급위축을 가져올 것임

■ 미분양 증가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수익성/안정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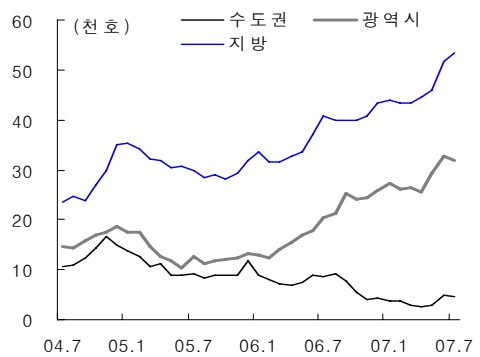
- 미분양주택은 2006년말 73,772호에서 크게 증가하여 2007년 7월 현재 22.9% 증가한 90,658호로 나타났으며 실제 미분양주택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체의 현금흐름은 악화 중
- 지방/주택/중소 업체중심으로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매출원가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음. 향후 원자재의 상승이 원가에 반영되고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하락 예상
- 2007년 토목 공공시장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격공사 축소 등으로 경쟁 심화가 예상되어 수익성 하락이 전망됨

그림 101 건설기성 월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02 미분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주택/토목 부문 모두에서 양극화 심화

- 향후 정책 하에서는 수주능력이나 원가절감 능력에 있어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 공사에서 경쟁률의 심화로 낙찰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7년 들어 대부분 60%대로 나타나고 있음. 고가 낙찰시장의 낙찰률이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저가낙찰 시장은 경쟁심화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건설업체의 규모별 수주 점유율을 보면 상위 100위까지의 업체가 58.5%의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2) 2008년 전망 : 하반기 이후부터 회복 가시화

■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 지속

-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이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건설경기의 부진에 따라 2007년 하반기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시작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선거와 정권 교체에 따른 부동산정책 변화도 예상되고 있으나 미분양 누적 물량, 단기간 기조변화의 어려움 등에 따라 2008년에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신규 사업보다 기존 기성/기존 수주 기성확대 위주 진행

- 주택부문은 미분양의 증가에 따라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수주잔고의 사업화가 예상되며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단기착공이 가능한 시행사 도급공사 위축
- 안정성/수익성이 확보되는 공공택지 사업/제안형 개발 사업 공사의 선호 및 확대가 예상되며 공영개발 방식에 따라 뉴타운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토목부문은 토지조성, 상하수도, 도로 등에서 완공위주의 공사가 예상되면서 기성은 유지되는데 반해 수주는 감소할 전망

■ 대형업체 위주의 건설산업구조 변화는 가속화

- 최근 수주물량 부족,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대형업체의 최저가 공사 시장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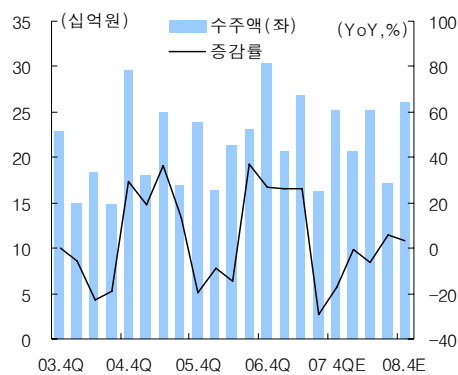
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수주감소 및 가격경쟁으로 대형업체보다 더 큰 수익성 하락이 예상됨

- 중동 지역의 화공 플랜트 대규모 수주는 향후 3~5년간 관련 건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주요지역이 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지연, 수익금 회수 지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해 장기투자가 요구되어 해외시장은 여전히 규모가 큰 업체에 유리한 시장임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겸업체 한/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8년 건설생산체계가 대형업체 위주의 구도로 개편 예상

■ 재건축/재개발 및 대형 사업의 기성화로 하반기 회복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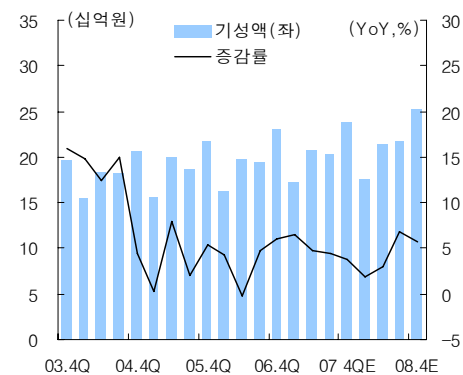
- 하반기 도시재생사업(뉴타운 시범지구, 뉴타운 2차지구, 뉴타운 3차지구 등 10개, 청량리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 8개), 대형개발사업(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2기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PF사업 등 50개 이상), 해외사업(중동, 동남아시아 등) 등의 본격화가 예상되면서 회복세가 시현될 것으로 보임
- 2008년 상반기의 건설기성은 2007년 하반기부터의 둔화양상에 따라 2.5% 증가에 그쳤으나 하반기의 재건축/재개발 수주의 기성화, 대형사업의 착공 등에 따라 6.3% 증가하며 회복세 시현 전망

그림 103 건설수주 분기별 전망



자료 : 한국은행,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 104 건설기성 분기별 전망



자료 : 한국은행,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건설수주는 민간수주의 위축과 공공 부문의 완공위주 공사로 수주의 정체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에는 건설수주가 3.7% 감소하면서 2007년 말의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다만 하반기에는 전년 하반기의 기저효과와 대형개발 수주로 인해 4.4%의 증가를 보일 전망

■ 금융비용/원가 절감 압력 증가, 낙찰가율 하락 등에 의해 수익성은 소폭 하락

- 주요 주택부문 기성인 개발/재건축 사업은 2006년 하반기 시행된 시공사 선정 시점 제한 및 각종 부담 가중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소형의무비율, 후분양,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은 여전히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
- 토목부문은 최저가 비중은 40% 이상이 예상되며 낙찰률 수준은 전년과 유사한 60%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격공사 축소 등으로 수주액감소/경쟁 심화가 예상됨. 이에 건설업의 채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채산성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즉 주택부문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및 미분양 증가, 유동성 악화, 금융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한 원가부담 확대, 토목부문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SOC 부문 정체, 수익성이 낮은 민자 부문 확대, 수주실패비 부담 등의 지속으로 2008년의 수익성 악화로 건축부문은 5%대, 토목부문은 7%대의 영업이익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그림 105 주요업체의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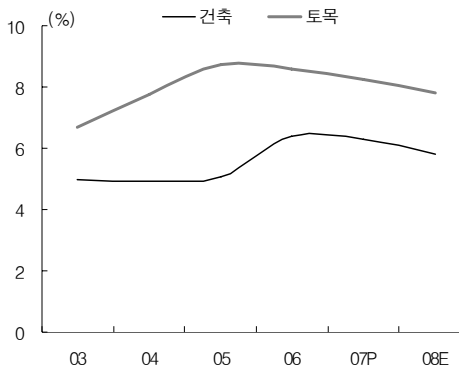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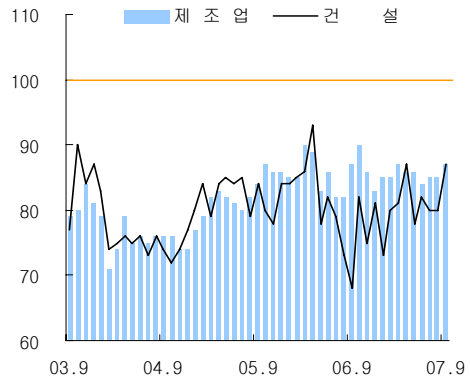


그림 106 건설업의 채산성 추이



자료 : Kisvalue,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한국은행

표 36 2008년 산업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업종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Cs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량 증가 - HR 등 해상운임지수의 상승 - 선박대형화에 따른 운항효율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소비둔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가능성 - 고유가에 따른 원가 부담의 증가 - 환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선박금융비용 증가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 수요의 지속적 증가세 - 국내 IT산업 발전에 따른 항공화물 증가 - 항공자유화로 인한 취항지역 확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에 따른 원가 부담의 증가 - 항공사 간 경쟁심화로 인한 요금 하락 - 금리 상승에 따른 항공기금융비용 증가
소매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와 관련한 각종 지수의 긍정적 추세 - 2007년 말 대선과 주식시장 활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소비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주요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성장성에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차별 경쟁 격화로 인한 제살 깎기식 판매 급증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들의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 민간소비 회복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양극화 심화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감소
제분·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강세로 수입원가절감 효과 - 수입원당가격 하락세 - 밀가루의 제품가격 인상, 설탕의 마진율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상승으로 운임 및 생산비 부담 가중 - 수입소맥 수급불균형/가격 급등 - 전방산업 정체로 수요감소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수 확대 지속 - 전문의약품의 매출 비중 증가 및 제네릭의약품 시장 성장 - 경기 회복에 따른 일반의약품 시장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가 인하 압력 등 정부의 각종 제약 정책 강화 가능성 -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경쟁 심화
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펄프 생산량 확대에 따른 가격의 하락 가능성 - 경기 회복으로 인한 국내 제지수요의 확대 - 농산물 포장 및 택배수요 확대에 따른 포장지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 국내외 폐지 가격의 상승 - 중국산 저가 인쇄용지 수입의 증가 - 인터넷 매체의 발달에 따른 제지 수요 감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재개발 수주의 기성화 -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대, 규제완화 가능성 - 대규모개발 수주 및 착공예정 - 해외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 증가/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 - 건축/토목 수주 감소 예상 - 사업의 수익성 하락 요인 심화

VI. 통신·방송서비스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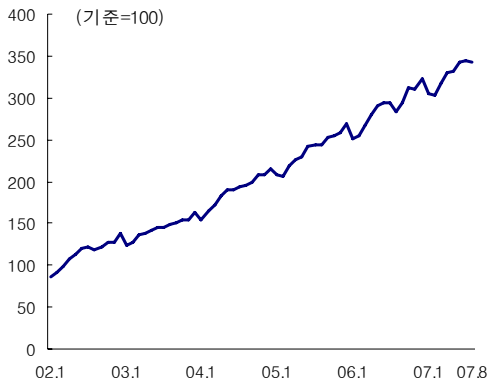
1. 통신서비스
2. 케이블TV
3. 인터넷포털
4. SW 및 IT서비스

VI. 통신·방송서비스산업군

- 공급자 중심의 미디어 시장이 컨버전스되면서, 2008년 소비자들의 선택적 소비트렌드는 더욱 증가하며 가격 및 서비스경쟁으로의 변화가 심화
 - 영상 콘텐츠 전송이 가능한 3.5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 기반의 방송기술 보편화 등 기술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간 규제의 완화가 통신, 지상파·케이블 방송,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공급 영역의 컨버전스를 야기
 -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이었던 시장 구조는 미디어 시장 컨버전스로 다양한 콘텐츠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될 전망.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최소 비용-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선택적인 소비 트렌드는 더욱 뚜렷해질 듯. 따라서 2008년에도 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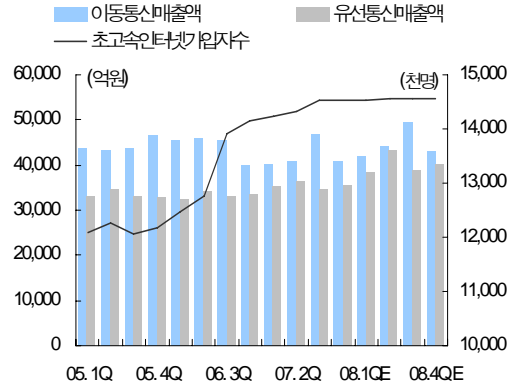
- 통신·방송시장의 IPTV서비스 상용화로 통신사업자는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나, 케이블TV는 부분적인 시장잠식이 예상되나 경쟁력 우위는 유지할 듯
 - 통신·방송산업의 융합서비스로 침예한 화두인 IPTV서비스에 대한 방송위와 정통부의 규제 갈등이 2007년 마무리되지 못하였으나, 2008년에는 서비스 관할 기구 및 규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면서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
 - 통신분야는 가입자 시장 또한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연평균 5~6%대의 낮은 매출액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Wibro서비스의 활성화도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IPTV를 포함한 결합서비스(통신+방송+인터넷)를 통하여 성장 모멘텀 확보에 더욱 주력할 듯
 - IPTV를 포함한 결합서비스는 케이블사업자의 상품에 강력한 대체재로, 광고 매력도 상승, 낮은 수신료 체계 개선으로 매출액 성장세를 지속했던 케이블TV의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 다만 서비스 안정성 및 방송 편성 역량, 킬러콘텐츠의 확보 측면에서 케이블TV의 경쟁력은 2008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그림 107 CATV서비스(경상)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 108 통신서비스 매출액 추이



자료 : 정보통신부, 전망은 하나산업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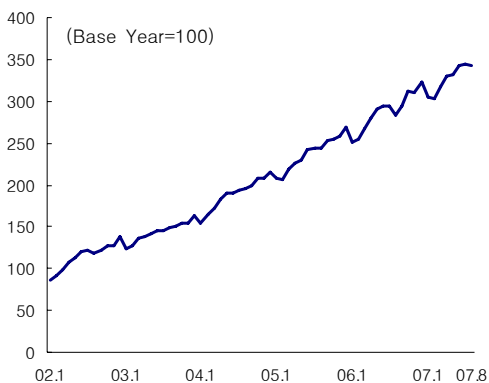
VI.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s Industry

- As the supplier-oriented media market converges, selective consumption behavior will further grow while competition will intensify around price and services.
 - The digitalization of technology, e.g. 3.5-gener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here image contents transmission is possible, and internet-based broadcasting technology, combined with deregulation betwee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 sectors, is stimulating a convergence of various supply parts including telecommunications, CATV, the internet and video games.
 - The supplier-dominated market structure will change since various types of content will be able to be offered competitively due to media market convergence. Thus, consumer will have more control over their choices as they seek lowest cost/highest satisfaction solutions to their consumption needs. This will lead to more intense competition in pricing and service offerings.

-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may gain growth momentum from the commercialization of IPTV services, and the CATV industry will maintain its dominant position, although it might give up some market share.
 - The dispute between the Broadcasting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garding IPTV services has not yet been resolved, but IPTV services will be commercialized as soon as the relevant decisions by relevant authorities and accompanying regulations are completed.
 -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continues to show relatively low annual average revenue growth of 5-6%, as the number of subscribers reaches near-saturation, and WiBro services are not actively operated. The industry, therefore, will concentrate its efforts to obtain growth momentum by providing integrated services (telecommunication + broadcasting + internet) that include IP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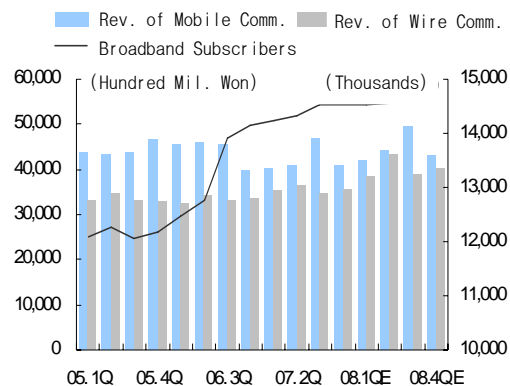
- The combined services will become a strong substitute for CATV, so the CATV industry, which has maintained revenue growth with the support of increased advertising demand and reforms to its fee system, might lose some of its market share. Nonetheless, CATV is expected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terms of service stability, programming capability and ability to secure popular content.
- CATV SO is expected to grow 7.7%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on the back of increasing advertising revenue, brought on by a domestic economic recovery, new VoIP services, and rising commission fees. CATV Companies will likely increase promotion expenses in order to cope with rising competition. Nonetheless, MPP profitability should be stable with improved ARPU.
- Revenue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providers are expected to rise, with YoY growth being estimated at 8.4%, and profitability should improve too. Profitability in the wired telecommunications sector, on the other hand, might worsen, as sales of bundling services are unlikely to alleviate cost burdens.

그림 109 CATV Service Index



Source : KOSIS

그림 110 Revenues of telco services



Source : Company report

1. 통신서비스

표 37 통신서비스 매출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유선통신	-0.8	-0.1	5.5	5.8	4.3	6.5	5.5	8.6	9.2	12.0	12.5	13.2
이동통신	6.7	-0.2	6.8	12.5	3.5	2.2	6.4	3.5	7.6	5.4	5.6	5.5

주 : 매출액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시장 정체는 지속, 신규 서비스 마케팅 활동 강화로 수익성 악화

■ 유무선 통신 시장 모두 포화 단계 진입으로 인해 성장성 정체

- 대표적인 유선 통신 부문인 초고속인터넷은 2006년 전년대비 5% 성장세에 이어, 2007년 5월에는 누적기준 전년동월비 2% 증가한 1조 7,879억원 시장 규모를 형성. 2007년 전체 유선통신시장 규모는 15조 2,44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성장한 것으로 추정
- 이는 유선 시장이 시장 포화로 인해 가입자 수가 정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증대가 없는 것에 기인. 초고속 인터넷 외 전용회선, 부가통신 및 유선 전화 부문 모두 기업들의 IT 투자 둔화, 유무선 대체 현상 심화 등에 기인하여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

■ KTF의 3G 확산 전략에도 불구하고,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은 비슷한 구도 유지

- 2007년 상반기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11조 3,759억원 규모 형성. 이는 전년동기비 6% 성장한 수치. 2002~6년 기간 동안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5.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저조한 성장세를 보임. 따라서 2007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6.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KTF의 3G All-in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기준 SKT의 시장점유율은 50.5%로 견조한 가운데, 7월 SKT 가입자는 KTF 대비 두배 이상 높은 수치인 29,694명을 기록하여 SKT의 시장 지배자적 입지는 견고하게 유지 중

그림 111 유선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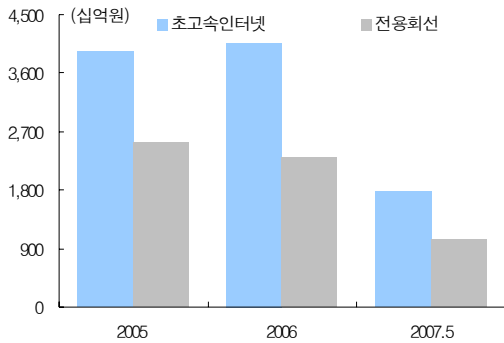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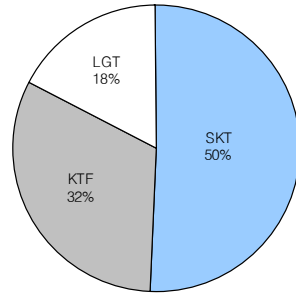


그림 112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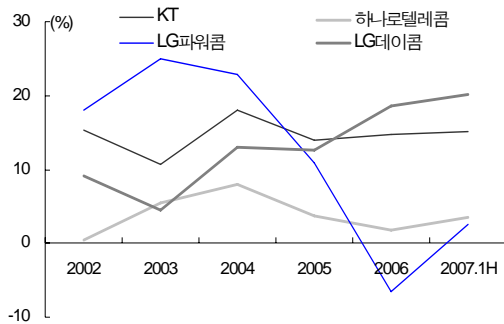
자료 : 정보통신부

주 : 2007년 7월 기준
자료 : 정보통신부

■ 신규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 과다로 수익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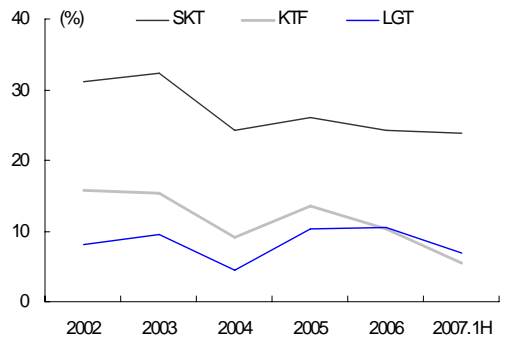
- IPTV 서비스인 하나로 TV를 런칭한 하나로텔레콤과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를 런칭한 LG과워콤의 수익성은 큰 폭의 하락세 기록
- 이동통신의 경우 3G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과다 지출로 인해 수익성 악화. 특히 KTF의 경우 3G 서비스인 'Show' 확산을 위해 2007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비 30.5% 이상 증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였고, LGT 역시 가입자 수성을 위해 전년동기비 33.8% 이상 증가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였음

그림 113 유선통신 각 사별 수익성 추이



자료: 각사 자료

그림 114 이동통신 각 사별 수익성 추이



자료: 각사 자료

2) 2008년 전망 : 신규 서비스 시장 경쟁 격화로 수익성 하락 지속 예상

■ IPTV 서비스 본격화로 인해 통신, 방송 융합 가속화 전망

-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 등이 2008년 IPTV 서비스를 본격화할 전망. 이에 따라 통신/방송 시장 융합 및 유무선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8년 이후 각종 결합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로 인해 유선통신 시장은 전년대비 10% 이상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IPTV를 통해 방송, 정보, 영상 콘텐츠 등을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TV로 제공하는 양방향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TV기반의 디지털 영상은 물론 각종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이로 인해 기존 디지털 케이블 사업자와의 가입자 유치 전쟁이 가속화될 전망
- 유선통신 역시 IPTV 런칭 및 인터넷 전화 등에 따라 수익성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KT의 수익성은 2008년 13% 수준으로 2007년 기준 4%p 이상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 이동통신의 경우 망교체 및 마케팅 비용 발생에 따라 수익성은 악화될 듯

- 2008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KTF의 3G 올인전략과 SKT의 듀얼망 전략이 팽팽히 맞설 듯. 따라서 이동통신시장 매출 규모는 전년대비 3~5% 상승한 수준에 머물 듯. 그러나 수익성은 휴대폰 리베이트 증가와 광고, 판촉비 증대로 인해 전년대비 2%p 가량 하락하여 16% 수준을 보일 전망
- 게다가 MVNO 및 망내 할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통신 시장 구도 변화는 적을 듯. SKT와 KTF는 MVNO가 향후 당사들의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MVNO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듯
- 망내 할인으로 인해 후발업체들은 SKT로의 고객 쏠림 현상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우려 중. 망내 할인 역시 각 업체들의 매출 하락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듯. 각 사들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될 전망

2. 케이블TV

표 38 케이블TV 매출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SO	13.0	1.6	-1.6	8.9	7.0	8.2	5.7	9.0	10.0	3.0	4.0	6.3
PP	23.1	20.2	0.6	8.0	6.4	4.1	4.9	20.0	10.5	7.0	6.0	10.2

주 : 매출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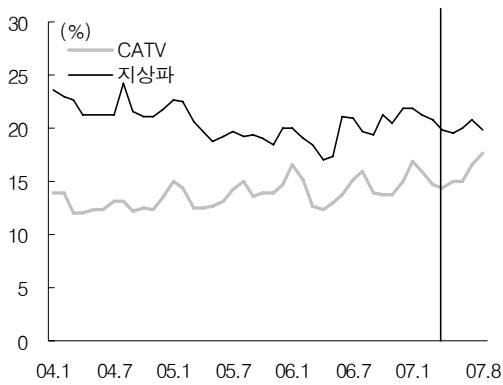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시청률 회복 및 광고 수요 증가로 매출 지속되며 안정적 수익성 유지

■ 주춤하던 시청률의 회복과 광고 매출의 증가 추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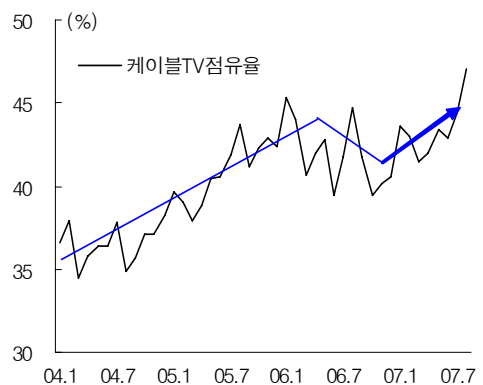
- 주춤하던 케이블TV의 시청률이 2007년 2/4분기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케이블TV의 시청점유율도 2006년 이전의 상승 추세를 회복
- 이는 인기 드라마 및 스포츠 이벤트 효과가 2007년 상반기에 감소하면서 지상파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이 하락하였기 때문
- 또한 최근 미국드라마 수요 저변이 확대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케이블 콘텐츠의 양적 팽창과 질적 성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그림 115 시청률 추이



자료 : AC닐슨

그림 116 CATV 시청점유율 추이



자료 : AC닐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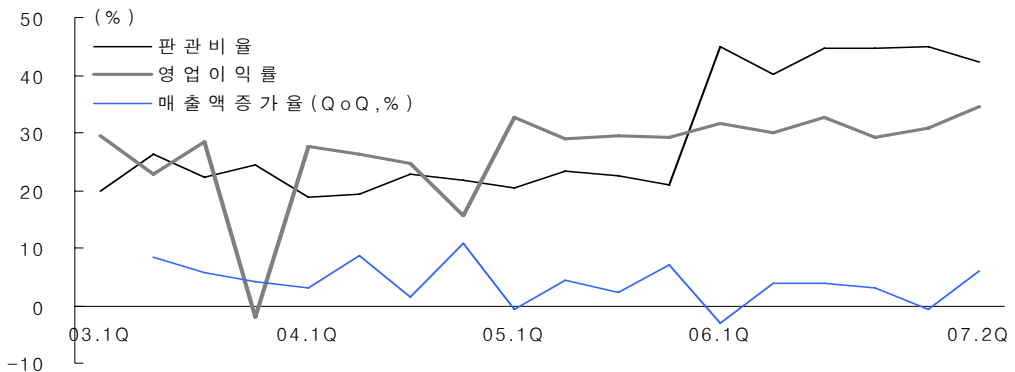
■ 2006년의 성장세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업황

- 2007년 상반기 주요 SO(큐릭스, 티브로드한빛, 디씨씨, 씨씨에스)들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11.7% 성장을 보였으며, 이는 2006년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
- TV 및 지면 광고시장의 부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증가세 정체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광고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SO업체들의 업황은 매우 양호한 편
- 디지털 케이블TV 가입가구는 2007년 상반기 약 55만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2007년 약 8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이 될 전망

■ 수신료 상향 조정과 광고액 증가로 인한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가입자 ARPU의 상승, 송출 수수료의 인상, 지역 및 일반 광고 수요의 증가로 수익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상반기 SO 4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32.8%로 매우 높은 편
- 그러나, 총 SO의 약 40%인 42개 SO는 비용 부담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 특히 MSO보다는 지방의 개별 SO들의 디지털 전환 투자가 대부분 지연되고 있음

그림 117 케이블 사업자 매출액 증감률 및 영업이익률 추이



주 : 디씨씨, 씨씨에스, 큐릭스, 티브로드한빛 등 SO 4개사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2) 2008년 전망 : 경쟁강도 상승하나, 매출액 성장세는 지속될 듯

- 디지털 가입가구 및 번들 상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케이블TV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07년 약 82만 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입가구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약 200만 가구가 디지털 케이블TV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
 - KT, 데이콤, 하나로 등 통신사업자가 VOD 및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번들상품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시장 규모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 인터넷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 방송을 포함하는 SO들의 번들 상품의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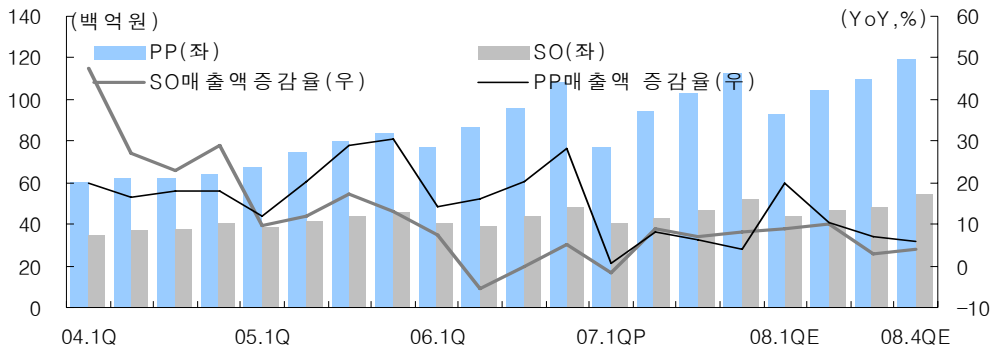
- 광고시장의 호조세 전환이 기대되나 IPTV, SMATV 허용 등 경쟁강도 증가
 - 2008년에는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로 인한 광고시장의 회복이 예상되 SO들의 수신료 인상 효과와 더불어 시장 규모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하여 SO들의 매출액 성장세는 6~7% 수준을 유지할 듯
 - 다만 2008년부터 위성방송의 공시청 설비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어 케이블TV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IPTV서비스를 위한 부처간 갈등 구조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8년에는 서비스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아직 디지털 가입자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시점에 통신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경쟁구도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권역 규제 완화를 통한 상위 MSO로의 시장 집중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

- 대체서비스의 확산으로 비용부담 증가하나, 수익성은 다소 안정적인 듯
 - 디지털 전환이 미비하더라도 독점적인 권역을 확보하고 있는 SO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 개별 SO들의 디지털 전환 지연은 아직까지 IPTV의 시장 잠식이 크지 않고, 위성방송도 점유율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
 - 다만 전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설비 교체 및 셋탑박스 비용 부담 등의 문제

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 그러나 수신료 인상 및 고가상품으로의 전환에 따른 가구당 ARPU 상승으로 인하여 SO들의 수익성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

- 콘텐츠의 확보역량 및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도 케이블TV의 경쟁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2008년 IPTV가 도입되더라도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그림 118 SO 및 PP 매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KAIT, 추정 및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인터넷포털

표 39 인터넷포털 매출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매출액	28.2	34.2	39.3	43.7	51.7	49.5	46.2	30.8	30.9	29.3	27.2	29.4

자료 : 각 사 매출액 예상 컨센서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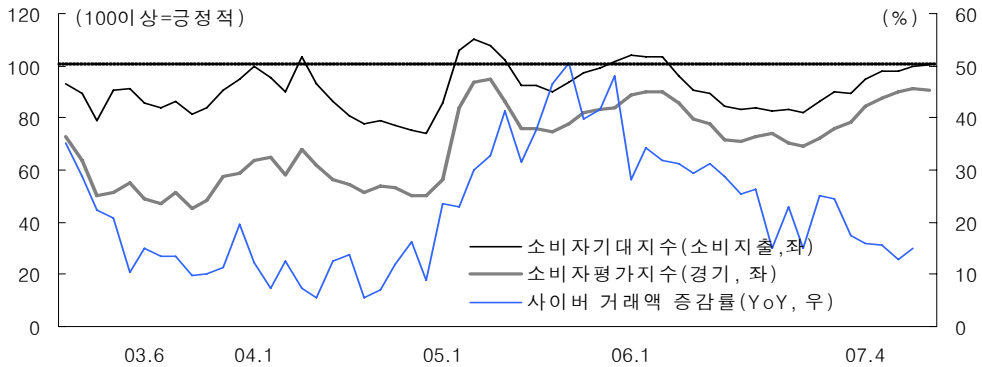
1) 2007년 동향 : 인터넷 광고의 거침없는 성장이 지속

- 인터넷포털은 온라인 광고가 견인하는 가운데 성장국면 지속 중

 - 2007년 인터넷포털 4개사(NHN, 다음, CJ인터넷, KTH)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인터넷광고의 성장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 검색광고는 CPM(Cost Per Impression: 정액제)방식에 비하여 CPC(Cost Per Click: 종량제)방식의 금액 산정 방식이 광고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 이로 인한 단가 인상효과가 발생하면서 거침없는 성장세가 지속
 - 한편 UCC 붐이 일면서 배너 및 동영상 광고 또한 검색광고보다는 낮지만 대기업 광고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성장세 지속

-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성장세는 과거 대비 하락

 - 2007년 상반기 국내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7.5조원으로 전년동기비 18.5%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기대지수가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임
 -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은 B2C중심에서 C2C로 이동하면서 ‘Winner takes it all’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옥션, G마켓 등 상위 2개사의 C2C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타 B2C위주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실적 부진의 상황이 지속. 이는 B2C와 C2C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면서 사용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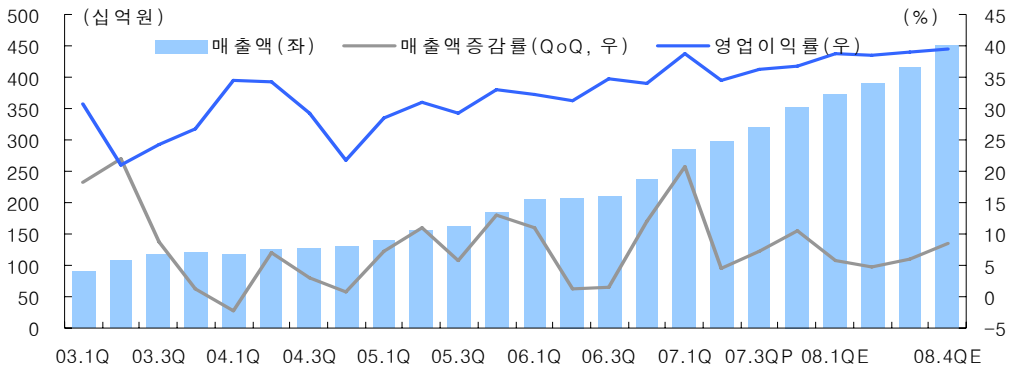
그림 119 소비자 전망 및 사이버 거래액 추이


주 : 소비자기대지수 및 평가지수가 100 이상일 경우 긍정적 가구의 비중이 부정적 가구의 비중보다 높음을 의미
 자료 : 통계청

■ 과점화된 포털업체들의 높은 매출성장으로 양호한 수익성 유지

- 2007년 상반기 주요 인터넷 포털 5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32.3%로 전년동기비 2~3%p 상승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 이는 검색광고 단가 인상효과와 비용부담효과가 크게 감소한 웹게임 및 캐주얼 게임 분야의 안정적인 매출 유지에 기인
- 그러나, 온라인광고는 선두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게임포털 또한 사용자 기반이 확고한 포털과 퍼블리싱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한 상위 몇몇 업체에 집중. 이로 인하여 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른 수혜는 선두업체들에게만 해당되는 수익성 양극화가 심한 편
- 더구나 온라인게임분야는 MMORPG류 게임의 흥행 부진속에 FPS류의 캐주얼 게임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장르의 쏠림현상이 심해져 흥행리스크가 더욱 커짐. 더하여 정부의 게임머니 규제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또한 CJ인터넷, 네오위즈 등 퍼블리싱에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편

그림 120 주요 인터넷포털의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률 추이



주 : NHN, 다음, CJ인터넷 등 3개사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2) 2008년 전망 : 광고 시장 회복에 따른 25~30%의 매출액 성장세 시현할 듯

- 검색 및 동영상 광고 등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광고가 높은 성장세를 견인
 - 2007년 하반기부터 경기호전 및 대선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 심리 호전이 예상. 특히 중소 검색광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소비심리의 회복으로 광고비 집행도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약 40% 이상 증가할 듯
 - 북경 올림픽 이벤트 등으로 대형 광고주의 동영상 광고도 더욱 증가할 전망. 이로 인하여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높은 성장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대비 25~30%의 매출액 성장을 예상

- 고착화된 인터넷포털시장을 변화시킬 M&A 가능성이 증대
 - 인터넷가입자수는 76%에 이를 정도로 포화되었으나, 글로벌 포털 '구글'의 다음과의 제휴를 통한 국내 시장 진출,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로서의 역할 및 책임 요구, 대기업 중심 중견 이하 포털들의 합종 연횡, 포털들의 IPTV서비스 영역 진출 등으로 잠재된 경쟁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
 - TV를 중심으로 한 홈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의 경쟁은 하드웨어 및 통신서비스 기

업뿐만 아니라 인터넷포털들에게도 주요한 성장 화두. KT그룹은 셋톱박스과 IPTV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드림위즈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NHN, 다음 등도 현재 수준을 넘어 KT 및 하나로 등 통신사업자와의 서비스 제휴를 강화

- 대기업 계열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의 엠파스 인수, KTH와 드림위즈와의 결합 가능성 등 자금력은 존재하나 고착화된 인터넷포털 시장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전문화된 영역을 확보한 인터넷기업에 대한 M&A가 늘어날 듯

■ 주요 포털들의 영업이익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듯

- 2008년 인터넷광고 시장의 확대와 요금정산방식의 변화로 인한 광고단가인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듯
- NHN을 포함한 검색위주의 종합포털 4개사(NHN, 다음, 엠파스, KTH)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 약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은 2008년에도 지속될 듯
- 3G통신서비스의 확산과 풀브라우징 환경의 도입으로 이동간 무선인터넷을 통한 검색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UCC동영상에 대한 필터링 검색 조건의 강화 및 인력의 충원으로 포털의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게임분야는 신작게임의 대거 출시에 따른 흥행리스크 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부담이 증가. 따라서 급증하는 해외 온라인게임시장에서의 성패에 따라 수익성도 차별화가 심화될 듯

4. SW 및 IT서비스

표 40 IT서비스 매출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P	4/4P	2007P	1/4E	2/4E	3/4E	4/4E	2008E
SI	20.6	18.8	5.0	-2.5	-10.0	-10.0	-5.3	-0.1	10.0	6.0	0.1	3.5
SM	11.1	14.5	31.8	12.6	26.6	6.6	17.9	2.0	3.0	4.0	7.0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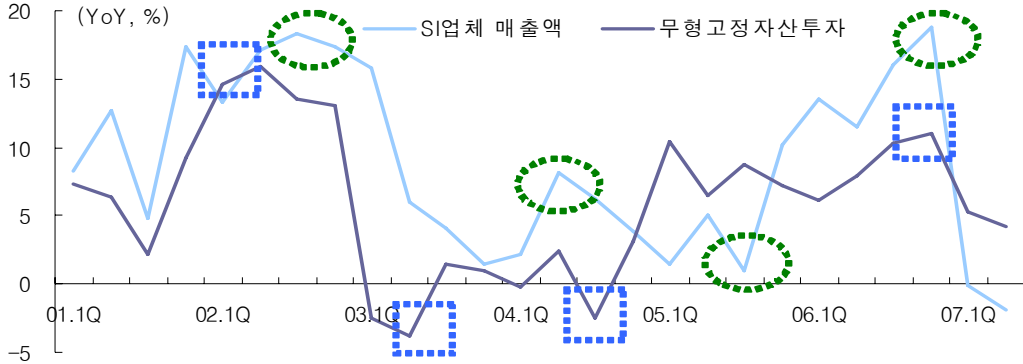
주 : 매출액기준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1) 2007년 동향 : 전년도 기저효과 및 대외 수주 물량 감소로 회복세 크게 둔화

- 대기수요의 감소 및 회복세 둔화로 성장률은 전년대비 크게 하락
 - 기업들의 무형고정자산투자 증가세가 2007년 들어 하락기조로 전환. 2006년 10%를 넘었던 주요 IT서비스 5개 업체들의 매출액 성장세는 2007년 상반기 전년 대비 1.1% 감소. 하반기에도 대선 및 전자정부 사업 완료에 따른 수주 물량 감소로 IT서비스업체들은 2006년 매출액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듯
 -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제조 분야의 IT투자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공공분야의 대외 사업 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2007년에는 다소 감소하였고, 전년도의 높은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
 - 공공분야는 하반기 대선으로 인하여 대부분 조기발주를 예상. 그러나 예상보다 발주량이 적었으며 상위업체들의 수요 쏠림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외 사업 비중이 큰 IT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성장세가 더 많이 둔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 중견 IT서비스 업체들은 계열사 수요 및 전문화에 따라 차이 존재
 - 신세계I&C, 아시아나IDT 등 그룹기반 RFID물류정보화 수요가 발생하는 중견업체들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쌍용정보통신-스포츠 분야, 동양정보통신-금융 분야)은 나름대로 틈새시장에서 매출액 상승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
 -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형 SI업체들과의 시장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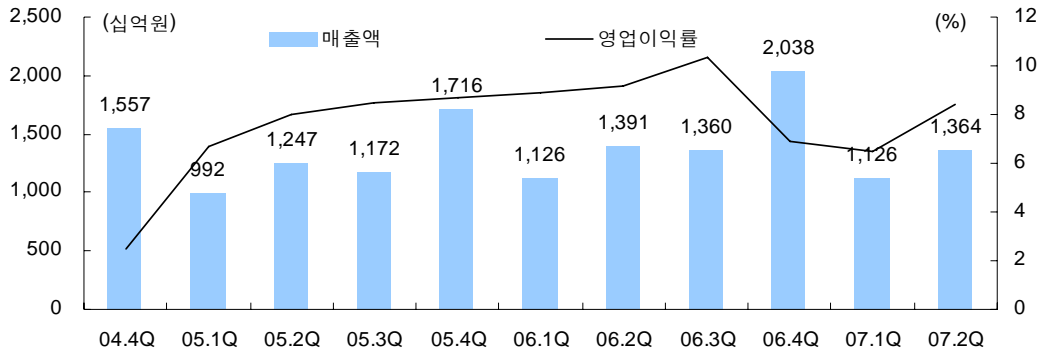
그림 121 IT설비투자 및 SI업체 매출액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IT서비스 5개 업체 각사 사업보고서(삼성SDS, LG-CNS, SK C&C, 포스데이터, 현대정보기술)

■ 꾸준히 나아지던 수익성도 더 이상 회복세를 지속하지 못함

- 주요 5개사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 상반기 7.6%로 전년의 8.6%에 비하여 소폭 하락한 수준이나 삼성SDS를 제할 경우, 4.3%로 크게 낮아짐. 이는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보수(SM)에 비하여 공공사업의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대외사업(SI) 부문의 수요 증가가 매우 적었기 때문
- 이로 인한 공격적인 영업 확대로 그간 지속되던 IT서비스업체들의 저가 수주 경쟁 지양 추세는 다소 희석되었으며 시장 회복에 따른 인력 증가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업체들의 수익성은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 또한 2004년부터 지속되었던 S/W노임단가의 상승추세가 2007년에는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함. S/W노임단가는 2005년 전년대비 19%까지 증가하였으나, 2006년 10.6%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4.7% 수준으로 낮아짐

그림 122 IT서비스 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주 : 삼성SDS, LG-CNS, SK C&C, 포스데이터, 현대정보기술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2) 2008년 전망 : 업황 부진속에서도 U-City등 신규 사업분야의 성장을 기대

- 신사업분야를 중심으로 2007년도의 침체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듯

 - 공공분야는 참여정부의 2단계 전자정부 사업 마무리와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 위주로 진행될 듯.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금융분야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하여 증권, 보험 등 제2 금융권의 정보 시스템 구축 수요가 2008년에도 이어지면서 IT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 금융권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듯. 또한 U-City 및 DMB, IPTV 등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및 업그레이드 등 신규 사업분야의 성장이 기대
 - 따라서 2007년도의 정체를 상회하는 소폭의 성장세가 2008년도에는 기대되나, 여전히 IT제조부문의 경기회복 지연과 이에 따른 시스템 투자 의지 약화로 매출 성장세는 전방 산업의 개선 여하에 따라 실적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지속될 듯

- 신사업 진출을 위한 IT서비스 업체들의 중소 S/W업체 인수가 활발해질 듯

 - 대외 IT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룹 의존도가 낮은 LG-CNS, KCC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등 IT서비스 업체들은 사업 다각화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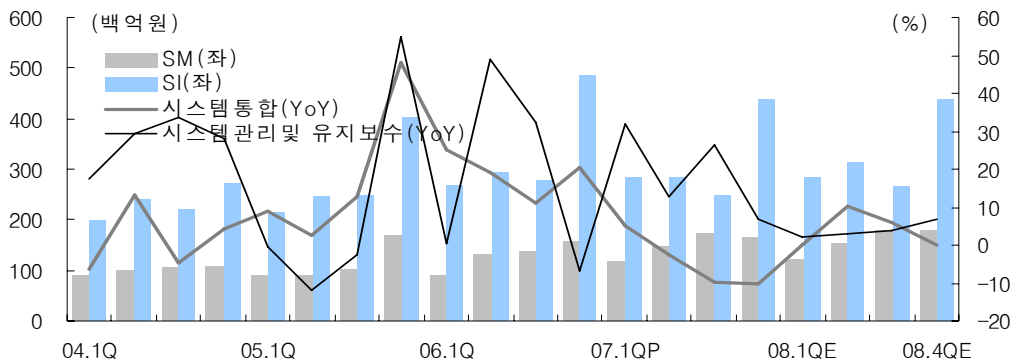
행 중

- 특히 H/W와 S/W의 결합을 통한 컨버전스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R&D를 강화하거나, 사업부를 신설하고 중견업체들과의 M&A를 통한 규모 확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 시장구조의 변화가 예상

■ 2007년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칠 듯

- 매출액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빠른 개선추세를 보였던 IT서비스 시장은 2007년 S/W노임단가 상승률 하락 및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공공부문을 위시하여 다시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성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U-City 등 신사업 분야가 건설 경기의 부진 등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면서 R&D 투자에 따른 제반 비용의 상승과 함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다만 중소 IT서비스 및 S/W업체들은 ‘S/W분리발주제도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제 강화’ 등 공공분야에서의 영업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 증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듯
- 또한 전반적인 영업환경 침체에도 계열사 SM(시스템 유지보수)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그림 123 SI(시스템통합)·SM(시스템 유지보수) 매출액 추이



자료: KAIT, 추정 및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 41 2008년 산업별 주요 실적 변동 요인

업 종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통신서비스	- IPTV 및 3G 등 신규 서비스의 확산 본격화	- 마케팅 비용 및 망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 - 이동통신의 경우 MVNO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장 내 약간의 변화가 있을 듯
CATV	- 광고시장의 회복 - 내수회복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 -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광고주들의 선호도 상승	-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게임 흥행리스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인터넷 포털	- CATV 수신료의 점진적인 상승 - 디지털 전환 가구의 꾸준한 증가 - 통신사업자의 참여로 TPS시장 확대	- KT, 하나로의 VOD와의 경쟁 심화 - IPTV 상용화 및 위성방송의 공시청 설비 이용 가능으로 시장 잠식 속도 상승할 듯
SW 및 IT서비스	- 신규 사업 분야의 정부 육성 - 중소 S/W업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 민간 부문의 IT투자 회복기조가 다시 약화 - 공공 IT투자규모 증가세 하락 예상 - 신규 사업 분야의 더딘 시장 형성

VII. 2008년 주요 산업테마

1. 제조업 설비투자, 회복될 것인가
2. 남북경협이 패러다임 전환과 국내산업의 영향
3. 2008년 국내 IT산업의 경기와 품목별 경쟁력 전망
4. 고유가시대의 뉴 비즈니스, 태양광에너지
5.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기업 경쟁 원천의 변화 전망
6. 국제 유가, 고공행진의 종착점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VII. 2008년 주요 산업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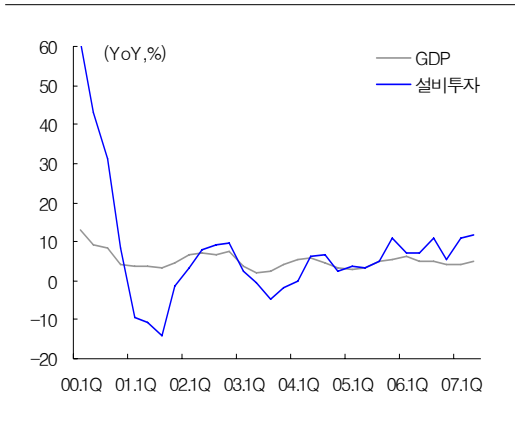
1. 제조업 설비투자, 회복될 것인가

1) 2007년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설비투자로 경기 회복 견인

- 설비투자는 2004년 2분기부터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1, 2분기 모두 각 10~11%대의 증가세 시현
 - 외환위기와 이후인 1997년~2004년 동안 설비투자는 연평균 0.8% 증가에 그쳐 GDP의 연평균 성장률 4.1%에 비해 크게 부진
 - 2007년 들어 수출호조 및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에 이어 2분기에는 11.9% 증가하여 비교적 높은 증가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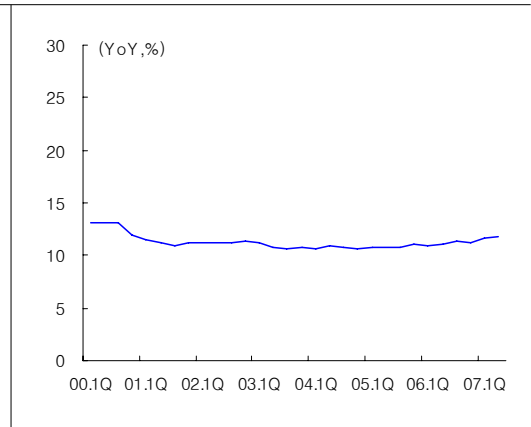
-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2004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 2007년 들어서도 상승 추세 지속
 - 2000년 3분기까지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13%대에 달하였으나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및 수익성 중심의 투자관행 등으로 인해 하락
 - 2004년 2분기부터 설비투자 증가율이 GDP성장률보다 대부분 높은 수준 유지하면서 설비투자 비중이 상승세로 반전되어 현재까지 지속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과정에서 설비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음

그림 124 실질GDP와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25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비제조업이 2004년부터 설비투자를 주도하고, 제조업은 부진 지속

-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04년 일시적으로 급증한 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최근에는 비제조업이 전체 설비투자를 주도

 -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04년 이후 조선, 석유화학이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등이 감소 내지 정체되면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
 - 반면에 비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전기 및 가스, 통신, 해운 등의 호조에 힘입어 2004년부터 제조업에 비해 크게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설비투자를 주도

- 정보통신부문의 설비투자는 2004년 4분기부터 지난 2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2007년 들어서 10% 내외 증가세 유지

 -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걸쳐있는 정보통신부문은 2002~2004년간 감소세를 보였다가 2005년부터 회복기조로 전환. 2007년 1, 2분기 모두 전년동기대비 10% 내외 증가세 유지
 - 전체 설비투자중 정보통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42~48%사이에서 머물고 있으며, 2007년 들어서는 전체 설비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낮아 이 비중이 43~44%대로 소폭 하락

그림 126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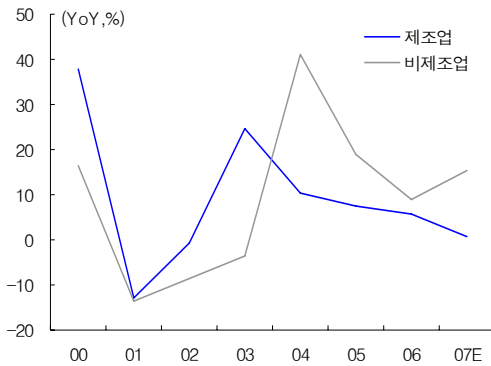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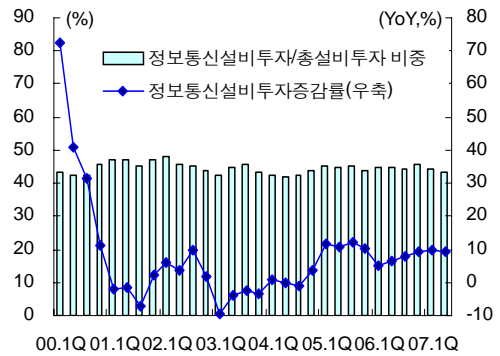


그림 127 IT업종의 설비투자 및 비중 추이



주 : 2004년부터 데이터 작성방법 변경
 자료 : 산업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제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해외직접투자 급증, 수익성 중심의 투자관행 등에 기인

- 최근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점차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제고로 대처하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 견지
 - 제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는 2006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2007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제조업 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오히려 둔화
 - 반면에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2007년 2분기부터 82~8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설비투자조정압력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은 해외직접투자의 급증, 수익성 중심의 투자관행 정착,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2000~2006년간 연평균 17.1% 증가하였고, 2007년 상반기에만 전년 연간의 71% 수준인 36.2억달러에 달함
 - 또한, 기업들이 주주중심의 경영패턴을 보이면서 수익성 위주의 투자관행이 정착되고, 산업구조도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그림 128 설비투자조정압력과 제조업기계수주 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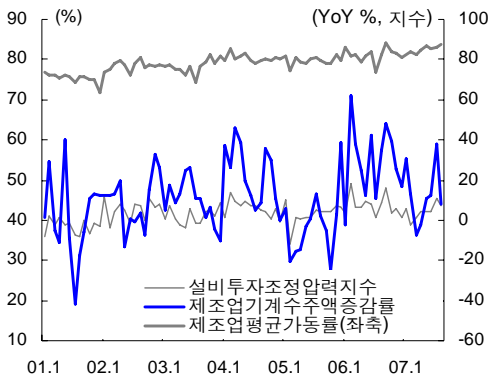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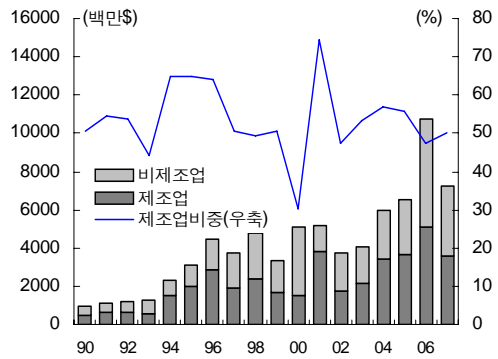


그림 129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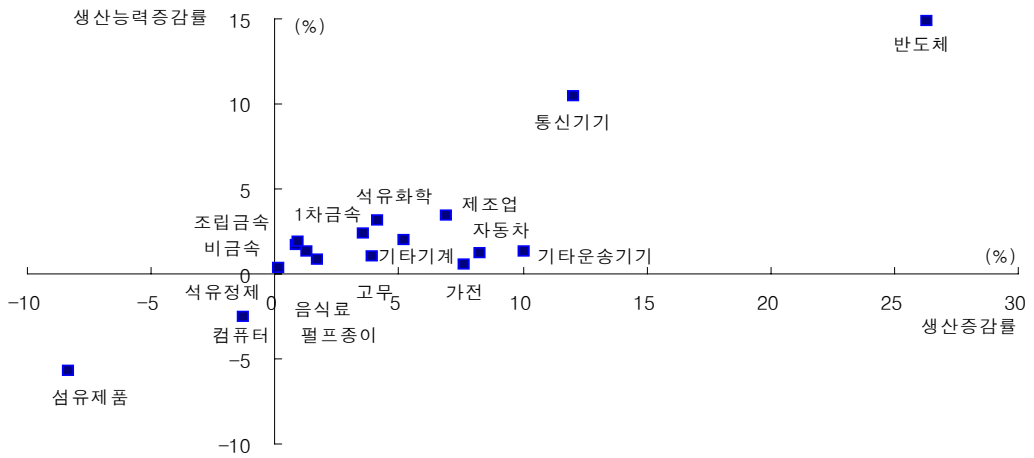


주 :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 : 통계청

4) 제조업의 신규 설비확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본격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 수출호조 등 거시지표의 호전과 그동안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제조업의 신규 설비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본격 회복은 어려울 전망
 - 제조업은 그동안 설비투자조정압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제고로 대처하여 왔으나 2008년에도 수출 및 내수의 지속적인 호전 등으로 신규 설비확대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경기의 순환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보수적인 투자 가능성,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 등으로 제조업의 본격적인 설비투자 회복은 어려울 전망
-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일부 회복되더라도 업종별로 차별화 예상
 - 대부분 업종들에 있어서 생산능력 증가율이 생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업종들은 향후 신규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그러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그리고 경공업 등은 해외투자를, 조선, 화학, 반도체 등은 국내투자를 통해 주로 대처하는 등 업종별로 차별화될 전망

그림 130 산업별 설비투자조정압력 비교(2007년8월기준)



주 : 업종별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01년1월~2007년8월까지 평균 증감률 기준임
 자료 : 수출입은행

2. 남북 경협 패러다임 전환과 국내 산업의 영향

■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간 경제 협력

- 10.4 남북 정상선언으로 한국과 북한간 또 하나의 신뢰와 화해의 물꼬가 열렸음.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경협 관련 의제들이 채택되어 과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포함하여 해주 경제특구개발, 백두산관광, 안변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북한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등 구체적인 경협 방안이 도출됨
- 특히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설치 합의와 총리급 회담의 추진으로 향후 실무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이 기대되며 진일보한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가 필요하고 한국은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치·경제적인 발판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협력 과제의 실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6.15 선언이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구두 합의에 그치면서 각종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였으나, 10.4 선언은 구체적 의제에 대한 실행방안도 출이 추가적인 실무 접촉에서 협의될 것으로 보여 외부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6.15 선언 이후 각종 대외 변수 발생으로 인해 실현된 사업은 금강산 특구, 개성특구, 철도/도로 연결 등에 국한되었고, 에너지 지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지원과 추가적인 산업 협력 등은 이행되지 못하였음
- 결국 과거 남북 경협은 남과 북이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진전되지 못하였음. 반면 금번 경협은 총리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부총리급 경협공동위원회 등 실무적인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도 경협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

■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 관계 유지 가능성이 높아짐

- 6.15선언이 포괄적인 원칙의 총론에 한정된 것에 비해 10.4선언은 구체적인 의제의 각론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구체화되었고, 6.15 공동선언이 포함하지 못한 영역까지 확대됨
- 즉 서해 공동어로 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3~4개국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등 남북 군사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등 정치적 화해 무드 조성에 초점이 맞춰짐

- 그리고 정치·군사적 사항 외에도 SOC 분야, 조선협력, 추가적인 경제특구와 관광사업 등 경제적 사항도 과거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즉 정치, 군사적 대립 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하여 우회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결국 10.4 선언으로 기존 북-미 관계에 의존하던 남북 관계가 남·북이 독자적인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즉 미국, 중국 등에 의존하던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해 남·북이 독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됨
- 과거 6.15 선언 이후 장관급 회담-차관급 경협위가 총리급 회담-부총리급 경협공동위로 격상된 것에서도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 관계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비록 남북 경협 과제들이 남북한의 정책적 의지와 주변국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투자재원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남과 북의 경협 필요성 인식과 우호적인 국제 정세 전환으로 남과 북의 자율적 협력 관계 유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소요 자금의 재원 확보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 10.4 선언에 따른 남북 경협에 소요되는 자금은 간접비용까지 고려하면 최대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한국산업은행은 2006~15년 동안 약 60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경협 예산을 정부 단독으로 확보하고 감당하는 것은 또 하나의 퍼주기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금 차입, 세금 확대, 국채 발행 등도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 단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음
- 또한 현재 정부는 협력기금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한 2008년 남북 협력 예산 규모가 약 1조 3,400억원, 용도가 정해진 9,100억원을 제외하면 실행가능한 자금은 4,300억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향후 남북 협력 예산을 민간 기업 및 해외 자본의 적극적인 자본 유치, 공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결국 향후 남북 경협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될 수 밖에 없으며, 남한의 기업들은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투자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표 42 남북 경제협력 투자 비용 추계

기관	내용	내용	소요 예산 추정
통일부	전력 지원 사업	200 KW 송전설비	5.5~9.7 조원
	철도 복구 사업	개성~평산	2,800 억원
		온정리(금강산)~원산	6,000 억원
	도로 개/보수	평양~개성 고속도로	3,077 억원
	남포항 시설현대화	1단계	75 억원
		2단계	880 억원
농업분야 지원	비료 공장 건설	3,500억원	
관광사업	평양 유경호텔 완공 지원	3,250억원(3.5억 달러)	
토지공사	남포항 개/보수	시설 현대화	2,613 억원
	전력 지원 사업	남포 지역 발전소 개/보수	2,980 억원
		각 지역 화력 발전소 설비	2조 1,600 억원
	도로 개/보수	남포 고속도로	2,500 억원
		대동강 연륙로	1,500 억원
해주항 확장		3,000 억원	
한국산업은행 2006~2015년	철도 등 SOC 사업	철도, 도로, 항문 건설	14조 114 억원
	북한 산업 정상화	중화학 공장 건설	20조 166 억원
	에너지 지원사업	송전과 경수로 지원	10조 37 억원
현대경제연구원	SOC 사업	해주항 확장	3억 달러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억 달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억 달러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건설	2억 달러
	개성공업지구	2단계 사업	25억 달러
	해주 특구 건설	500만평 규모의 특구 건설	46억 달러
	종합관광레저사업	백두산 도로, 항만 인프라 등	13억 달러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환경보호 조립	2억 달러
농업개발	비료 생산 및 생산력 증대	각각 3.5억 달러, 0.5억 달러	

자료 : 통일부, 토지공사, 한국산업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실제 2012년까지 개성공단 사업에 투입될 재원은 약 16조원이 소요되며 그 중 정부 지원분은 1조 3,414억원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가 대부분. 물론 현재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중 80%가 적자인 점을 고려하면 북한 투자 리스크가 존재할 것임
- 그러나 10.4 선언에 포함된 남북 경협 과제들이 대부분 도로, 철도, 항만 등의 SOC 투자와 에너지, 조선산업, 특구 건설 등과 관련된 투자로 대규모 자금 소요가 예상되어 제조업 중심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제한된 도로 연결 등과 같은 과거 사례에 비해서는 긍정적 요소가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즉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단기적이고 소규모의 경공업 중심에 국한된 사업 이라면, 10.4선언에 포함된 사업들은 중기적이고, 대규모의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중공업 및 SOC 중심의 사업으로 전개될 것임

- 그리고 육로 관광 이후 관광객 20만 시대를 열면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고려하면 백두산과 연계된 관광사업 역시 민간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게다가 이미 합의된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심화로 원료 구입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민간과 해외 자본의 유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확대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글로벌 펀드 조성, 공기업 중심의 투자 선행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민간 자금을 일반적인 금융지원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고, 남북협력기금에 포함시켜 일정 부분 보험 기능을 부여하면 경협 진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2006년 5월 영국의 투자사인 앵글로-시노 캐피탈이 북한의 광물에 투자한다면서 인프라펀드인 조선개발투자펀드를 만들어 1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확보한 사례를 고려하면 민간 자본의 유치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윈-윈 전략

- 10.4 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남과 북이 공동 번영을 꾀하고 있다는 점임. 과거 6.15 선언 이후 남북 경협이 국내 및 북한 경제에 미친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임
- 또한 10.4 공동선언은 과거 비료, 쌀 지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대북 경협 기업에 대한 대출 등 경제 논리가 상당부분 배제된 정치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대북 지원의 차원에서 벗어났다는 점임
- 즉 남측은 투자와 수익 추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북측 역시 확실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어 남과 북의 윈-윈 전략이 구사될 것으로 보임
- 물론 남북 경협이 실질적인 기업 이익으로 환원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자금, 노력 등이 투하되어야 하겠지만, 10.4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진일보하면서 남북경제의 공동체 시대 도래가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음

- 특히 철도, 도로, 항만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현실적 장벽으로 놓여 있던 남과 북의 물류 및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활발한 교류를 통한 양자 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이는 연간 13.5억달러에 불과한 남북 교역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고, 남북간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켜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결국 10.4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경협은 남측에는 투자 기회,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의 도약 기반을 제공하고, 북측에는 경제 활성화의 기회, 국제 사회로의 복귀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임

■ 당분간 기존 남북 경협 패턴의 틀속에서 일부 투자사업의 가속화 예상

- 현재 남북 경협은 비료와 식량과 같은 지원물량이 가장 많으며, 상대적으로 순수 무역부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섬유류와 전기전자와 같이 북한의 저임노동을 활용해 위탁생산한 다음,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위탁가공무역이 대다수를 차지해 북한의 소비시장을 겨냥한 일반무역은 일부에 국한되고 있음
- 남북관계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현재와 같은 남북경협¹⁾ 패턴의 틀(지원 및 투자사업 중심)을 유지하면서 일부 투자의 사업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 제조부문이 주도하는 무역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북한에서의 임가공 원가가 중국에 비해 크게 유리하지 않고, 북한내 생산물량에 대한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당분간 남북간 무역 활성화 기대는 낮음
- 다만 그동안 북핵문제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던 정부와 민간주도의 대북 투자 사업은 이번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사업은 현대아산의 1~2단계 금강산개발사업과 개성공단조성사업,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철도 및 항만과 같은 인프라 관련 사업들임
- 장기적으로 이들 투자사업(특히, 개성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섬유와 전기 전자중심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탁가공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

1) 현재 남북경협은 남북간 무역, 투자 및 지원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역은 민간기업주도로, 투자는 투자주체에 따라 민간, 반관반민, 정부로 나눌 수 있으며, 지원은 정부와 인도적 차원의 민간지원으로 구분됨

표 43 남북한 교류 품목 및 경험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남 → 북		439	715
무역		119	89
(섬유류)		59	57
(전기전자)		11	13
투자 및 지원	435	315	349
투 자		45	91
지 원		270	258
(화학공업제품)		84	120
(농림수산물)		114	53
북 → 남	289	258	340
무역	289	258	320
(섬유류)	97	96	119
(농림수산물)	15	102	113
투자 및 지원	0	0	20

자료 : 통일부

■ 중단기적으로 기존 對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기대

- 특히 북핵문제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기존 남북경협관련 투자사업들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그중에서도 1~2단계 금강산종합개발 계획과 개성공단조성사업, 남북철도사업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각종 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의 1차적인 수혜가 예상됨
 → 금강산종합개발사업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현정은회장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강산에 이어 개성관광 및 백두산관광 등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
 → 개성공단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도 북측이 이미 16개 사업을 지원 요청 중
 → 물류인프라부문도 남북간 교역활성화와 모래 및 각종 광산물의 반입증가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
- 비료와 식량지원의 확대도 예상되지만, 이는 일방적인 지원성격이 강해 순수 민간 차원의 지원을 제외하고 정부지원 물량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일반 제조업부문은 단기적으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듯. 이는 남북한 경제규모 격차, 산업구조의 차이와 같은 양국 내적인 요인 이외에도 개성공단 제품의 대미수출 무관세 여부, 북중경협제품과의 경쟁력 열위 등 대외적인 요인에도 기인함
- 따라서 당분간 섬유와 전기전자위주의 위탁가공무역형태의 무역구조가 지속될 가

능성이 큼

■ 장기적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위탁가공무역 활성화 기대

-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동안의 투자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양국간 무역부문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양국간 교역도 기존의 섬유와 전기전자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북한내 위탁생산과 중국내 위탁생산의 원가 차이가 크지 않아 국내 제조업의 북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지만, 개성공단조성과 물류 인프라가 완료되면 물류비와 각종 부대비용 감소로 국내기업의 대북 투자유인이 늘어날 전망. 특히 최근 중국내 임금상승으로 중국내 위탁생산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다만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은 개성공단내 생산제품의 대미 수출물량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부여될 지의 여부임

표 44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패턴의 변화 전망

구분		무역	투자	지원
중단기	경협 패턴	- 對북한 투자관련산업의 활성화 - 지원위주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		
	영향 정도	× (영향 없음) ○기존 섬유, 전기전자의 위탁가공무역중심	○ (확대, 가속화) ○관광 ; 금강산종합개발계획 ○물류인프라 ; 남북철도사업 및 모래, 광산물 등 물동량 증가 ○건설 ; 1~2차 개성공단조성사업	△ (제한적 확대) ○비료, 농수산물 등 인도적 지원 확대
장기	경협 패턴	- 투자위주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위탁가공무역의 활성화		
	영향 정도	△ (제한적 확대) - 개성공단 대미 수출물량에 대한 무관세 혜택 여부가 전제 - 노동집약적 제조업 - 위탁가공무역중심	- (유지) - 추가 인프라 건설 확충 - 항만 보수, 물류 인프라, 노후 전력시설 보수 등	- (유지) - 인도적 지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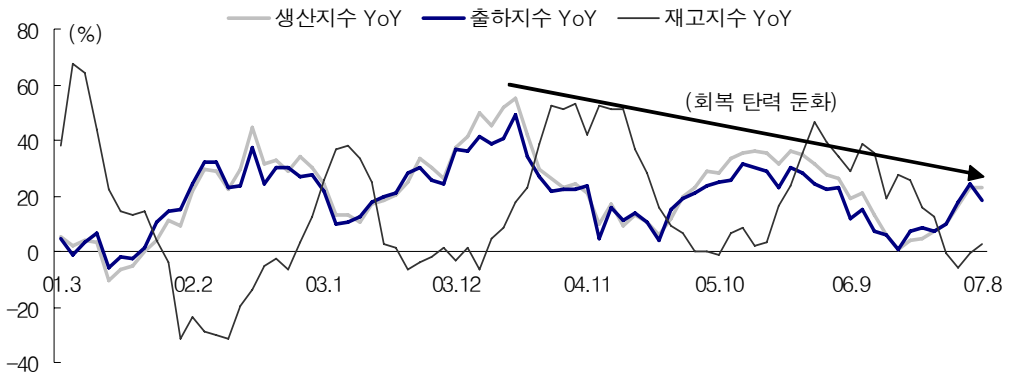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2008년 국내 IT 산업 경기와 품목별 경쟁력 전망

■ 과거에 비해 IT 경기의 회복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생산, 출하지수는 국내의 다양한 IT Hardware 제품들을 포함. 생산지수와 출하지수는 거의 같은 추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고지수는 생산, 출하지수에 6개월 정도 후행하는 패턴을 보임
- 생산, 출하지수 YoY 증감률은 IT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2년 7월, 2004년 5월 각각 최고점을 기록. 이후에는 2005년 11월에서 2006년 5월 사이에 비교적 높은 값을 기록하였으나, 과거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5년 이후 지지부진한 IT 업황을 잘 반영하고 있음
- 2007년에는 1월 최저점을 기록한 후, TFT-LCD 패널 업황이 다소 호전되며 2분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음. 계절적인 성수기인 하반기를 맞아 이와 같은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 전자부품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며 회복되는 탄력은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 편

그림 13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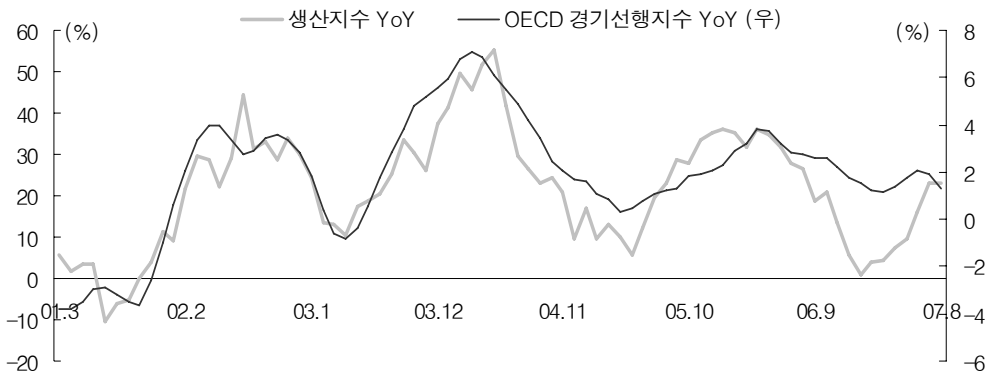
자료 : KOSIS

■ 2008년 IT 산업의 외형 성장 추세가 다소 회복될 전망

- 전통적으로 국내 IT 산업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생산지수가 OECD 경기선행지수와 동행하는 추세를 보임. 다만 후발 개도국의 경제 성장,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이와 같은 연관성이 다소 하락

- 2008년 OECD 경기 선행 지수 YoY 증감률은 200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는 올해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
- 비록 선진국 시장의 성장률이 전년 수준에 그치지만, BRICs를 중심으로 후발 개도국들의 IT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IT 산업의 외형 성장이 가능할 전망. 특히 2008년 북경 올림픽으로 디지털 TV 등 일부 제품의 수요 증가가 기대됨

그림 1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생산지수와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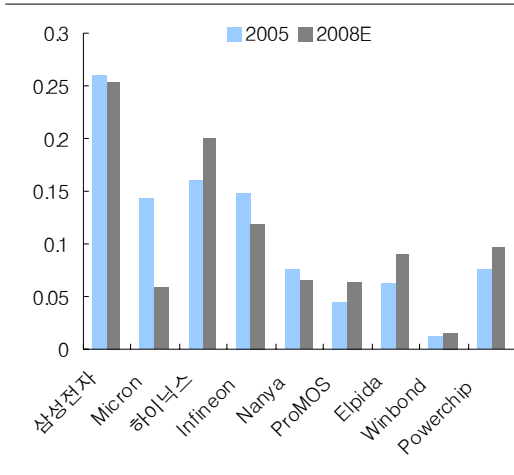


자료 : KOSIS, Datastream

- 메모리 반도체 :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거나 전반적인 경쟁력은 양호할 전망
 - 과거 2~3년 전에 비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1위 업체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며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 그러나 2008년에도 삼성전자의 1위 위치는 공고히 유지될 전망
 - 2008년 DRAM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25.3%, 하이닉스 20.0%로 각각 예상. DRAM 시장에서 특징적인 점은 상위 4개 업체 중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지위만 유지되고, 미국과 유럽의 Micron, Infineon의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점. 대신 일본과 대만 업체들이 약진하며 전반적인 경쟁강도는 높아질 전망
 - 2008년 NAND Flash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39.1%, 하이닉스 17.6%로 각각 예상.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고 Toshiba, Micron과 같은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DRAM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다소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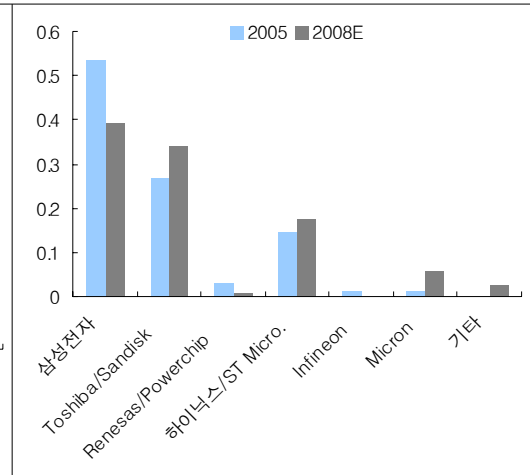
- 전반적인 시장 경쟁 강도가 높아지며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술 경쟁력 또한 경쟁업체대비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쟁력은 양호

그림 133 DRAM 시장 점유율 전망



자료 : WSTS

그림 134 NAND Flash 시장 점유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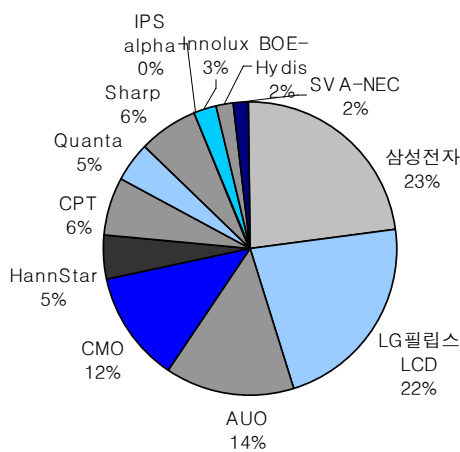
자료 : WSTS

■ TFT-LCD 패널 : 국내 업체들의 양산 기술 경쟁력 양호

- 비록 TFT-LCD 패널을 비롯하여 대부분 디스플레이 업종의 수익성이 과거 2004년에 비하면 악화된 상태이지만, 2007년 2분기부터 수익성이 회복되는 추세
- 2005년 이후 수익성이 악화되며 후발 업체들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과점도가 높아지는 추세. 상위 4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71%에서 2008년 73%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중국 정부 주도로 SVA-NEC, BOE-Hydis, IVO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들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5% 수준으로 낮지만,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후발 업체들의 M&A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국내 업체들의 2008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22%, LG필립스LCD 18%로 세계 시장에서 선발 업체의 위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LG필립스LCD, AUO, CMO 등은 2008년 말까지도 8세대 라인 양산이 어려워 8세대 라인을 이미 가동한 삼성전자의 우월한 기술 경쟁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즉, 전반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은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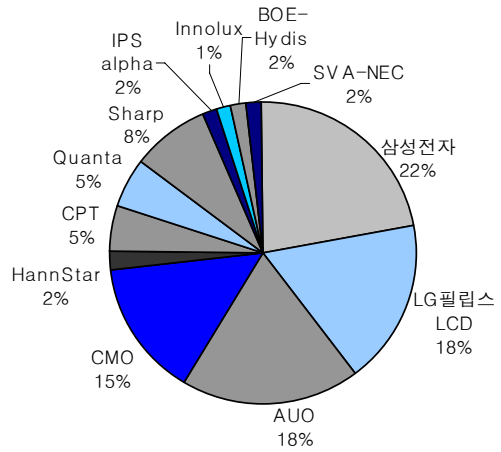
호할 것으로 전망

그림 135 2005년 LCD 패널 시장 점유율



자료 : DisplaySearch

그림 136 2008년 LCD 패널 시장 점유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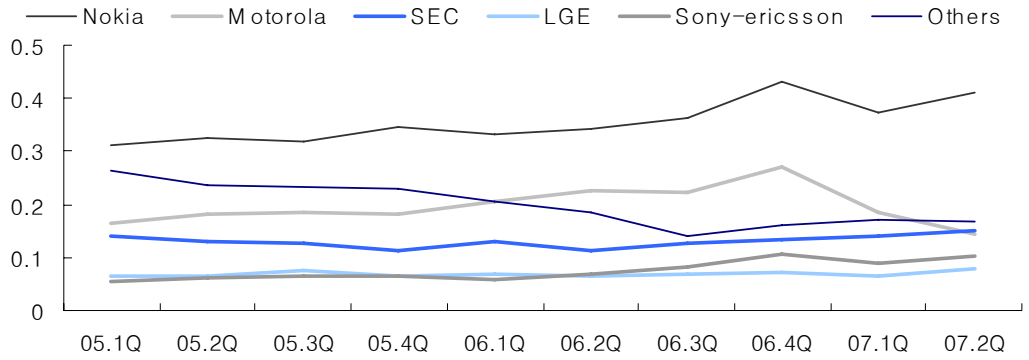
자료 : DisplaySearch

■ 휴대폰 :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휴대폰 시장에서는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모토로라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이들 업체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2분기 국내 업체들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15.2%, LG전자 7.7%를 각각 기록. 삼성전자는 세계 2위, LG전자는 5위를 기록.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는 세계 시장 2,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노키아는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고수. 2008년에도 이와 같은 경쟁 구도가 이어질 전망
- 단기적으로 특정 히트 모델의 존재 유무에 따라 휴대폰 업체들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이 변동. 장기적으로는 비용효율성, 브랜드파워, 지적재산권, 자체 제작능력, 유통채널, R&D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노키아를 제외한 2~5위권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휴대폰 시장의 경우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하여 국내 업체들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그러나 하반기부터 3G 고가폰 수요와 BRICs를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하며 외형 성장 추세가 회복되고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

그림 137 휴대폰 시장 점유율 동향



자료 : 각 사 자료

4. 고유가 시대의 뉴 비즈니스, 태양광 에너지

■ 고유가의 고착화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고조

- 2004년 배럴당 40달러에 진입한 국제 유가는 불과 2년여 만에 70달러대에 들어선 이후 주요 산유국과 소비국들의 정치·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일시적 변동은 있었으나 최근 다시 배럴당 70달러를 넘어 80달러에 이르고 있음
- 고유가 고착화는 세계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석유 수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특히 세계 석유 공급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OPEC의 영향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는 향후 재생이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있음

■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 2006년 기준 태양광 에너지의 사용 비중은 현재 전체 신재생 에너지의 0.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은 200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8% 증가율을 보이면서 타 신재생에너지(풍력 28%, 바이오매스 3.5%, 지열 3.0%)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세계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는 고성장세를 지속하여 2030년경에는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15%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미 태양광에너지 시장이 형성된 일본 및 독일 국가에서는 높은 기술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상용화 단계로 들어선 상황. 반면, 국내 시장의 경우 기술수준 및 상업화 모두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도 향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사업 참여도 활발히 진행중임

표 45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전망

(단위 : TWh)

신재생 에너지원	2001	2010E	2020E	2030E
바이오	180	390	1,010	2,180
대수력	2,590	3,095	3,590	3,965
소수력	110	220	570	1,230
풍력	55	512	3,093	6,307
태양광	2	20	276	2,570
지열	50	134	318	625
해수력	1	1	4	37
태양열	1	5	40	195
신재생에너지 합계	2,989	4,377	8,901	17,109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비중	0.1%	0.5%	3.1%	15.0%

자료 : 유럽신재생에너지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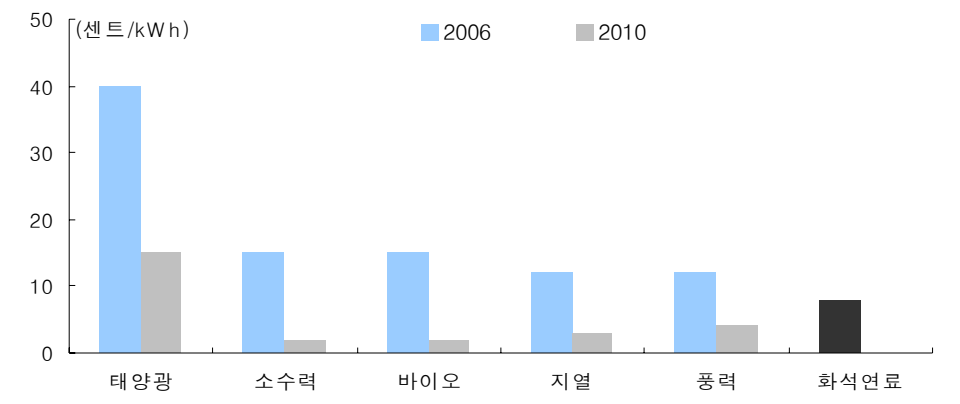
태양광 에너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향후 태양광 에너지 시장은 1) 무한정의 영구에너지 2) 친환경에너지 3) 향후 원가 절감 가능 등의 요인을 고려했을 때 향후 성장 가능성은 높은 편
- 태양광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와는 달리 영구적인 에너지로서 자원고갈의 우려가 없음. 독일의 기후변화협약의회에 따르면 현재 태양에너지의 이용 가능량은 전 세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약 2,85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이후에는 국내의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태양광 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저해 요인이 전혀 없어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요증가가 예상됨
-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초기 투자비용 및 발전 단가가 타 에너지 대비 높은 편이나, 태양전지의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형성 및 원재료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태양광발전 단가는 기술개발에 의해 10년간 1/3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향후 원가절감 및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태양광에너지는 국내에서 무한정 조달이 가능하여 석유와 같이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됨. 또한 유지비용이 타 에너지대비 낮아 기술개발로 설치비용이 절감된다면, 발전용 뿐 아니라 일반 가정용으로도 빠른 속도로 적용 가능할 전망

■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 태양광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많은 성장요인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에너지 대비 단위당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현재 태양광 발전 시 발전 단가는 kWh당 최저 25~40센트에 이르고 있어 기존 발전원의 발전 단가보다 3~10이상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진입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성이 크게 떨어져 태양광발전 사업은 진행될 수 없음
- 정부의 보조금 지원, 혹은 고가로 발전전기를 매입하는 등의 정책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만 규모의 경제에 따라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음

그림 138 신재생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비교



주 : 최고 발전단가 기준
 자료 : 대우증권

■ 국내 태양광 에너지 시장은 정부지원 및 기술개발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국내 태양광 에너지 시장이 세계 시장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미만에 불과함. 그러나 정부는 2003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정책을 활성화함
- 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 정책은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인,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설치비 보조,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등으로 이루어짐
-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년 정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태양광 에너지의 R&D 투자가 선진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로 판단됨.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에 태양광에너지 분야의 R&D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국내의 경우 2000년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R&D 투자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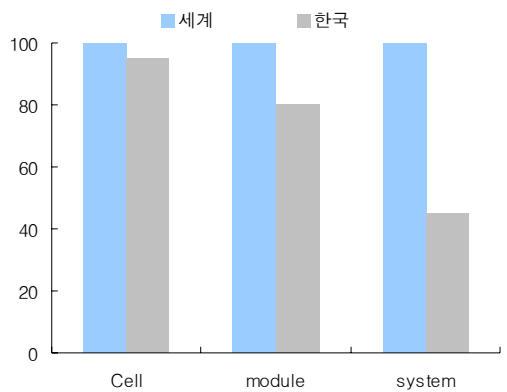
- 국내 태양광 에너지의 평균 기술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함. 이에 따라 정부의 제 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R&D 투자를 강화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시스템 단가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표 46 국내 태양광 기술 발전 로드맵

기간	주요내용	적용대상
2004~8년	-저가 고효율 전지개발 -박막형 개발 및 저가의 원재료 개발 -공정 인라인화, 표준화, 호환성 개선	단독가구, 그린빌리지 100kW 이상소규모
2009~13년	-고효율 실리콘 셀 -실리콘 슈트 기술 -양산성 향상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솔라시티, 아파트, 콘도 확산 소규모의 태양열 발전소
2014~18년	-모듈 수명 50년 이상 -박막 셀, 필름 실리콘, 신재료 등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막지역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림 139 태양전지 요소별 국내 기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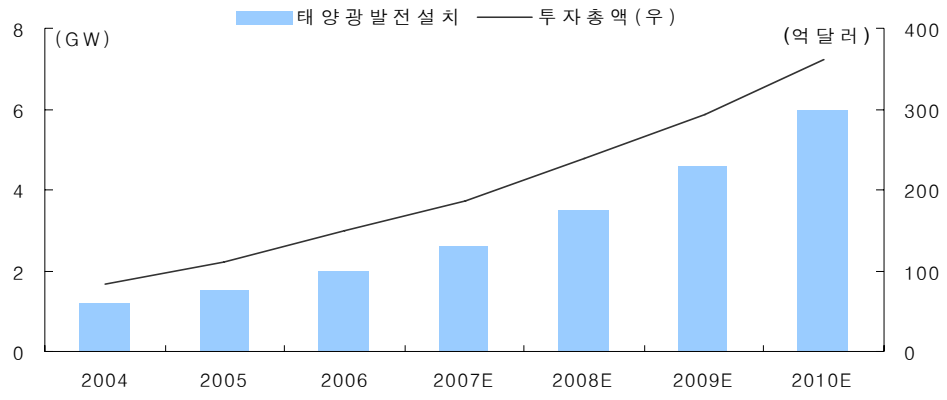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세계 태양광에너지 시장은 2010년까지 30% 이상의 고성장 지속

- 국내·외 태양광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1.5GW에 이르는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연평균 30%이상 성장하여, 2010년에는 약 6GW의 발전이 가능할 전망
- 태양광발전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 시장(셀, 모듈) 또한 2005년 37억달러의 규모에서 연평균 25% 이상 성장세가 예상됨
- 현재 기술 발전 수준을 감안했을 때 2010년 태양광에너지에 의한 발전 단가는 kWh 당 최저 10~15센트 수준으로 크게 낮춰질 전망이나, 화석연료 발전 단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
- 그러나 발전단가와 이외에 온실가스 축소 및 에너지 안보 등의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했을 경우, 독일 및 일본 등의 선진국을 시작으로 2010년 이후부터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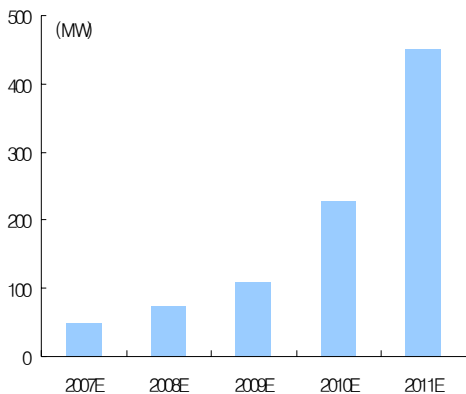
그림 140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 전망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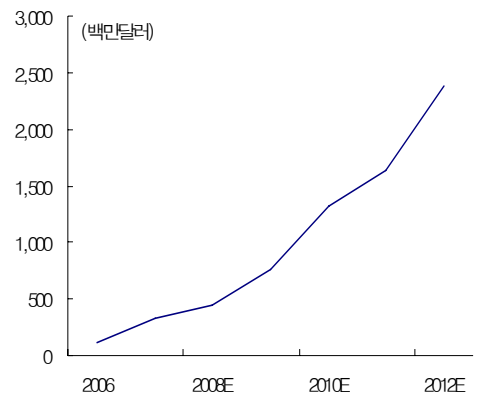
-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선진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급률 향상을 위해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정부차원의 발전소 건립 등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칠 계획에 있음
- 또한 그동안 상업용 발전 시설이 전기공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대규모 상업용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또한 태양광에너지의 핵심 기술인 태양전지 제조기술 또한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1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계획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림 142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 정부의 태양광발전 보급계획에 따르면, 2005년 기준 2~3MW수준인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량을 2012년까지 1.3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태양광발전 보급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2006년 기준 2억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규모는 2010년경 약 23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5.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기업 경쟁 원천의 변화 전망

1)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 최근의 소비 트렌드는 가격과 품질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 제품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로 전환되고 있음. 이는 소비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다면 제품의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구매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
 - 첫째,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중산층의 폭이 확대되고, 중산층은 기본적인 소비욕구이외에 자아실현적 소비를 추구
 - 둘째, 기술진보의 급진전과 제품간 격차 축소로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브랜드와 디자인 등 제품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음
 - 셋째,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정보력이 크게 늘어나 제품의 비교구매가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임. 과거처럼 생산자중심의 정보제공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제공하는 심도있는 정보를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임

표 47 가격과 품질보다는 제품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로 변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 배경	- 소득수준의 향상 (중산층의 증가) - 제품간 격차 축소 (소비자의 선택 대안 증가) - 소비자의 정보력 급증 - 기술진보의 급진전으로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 롱테일경제의 확산		
소비 트렌드의 변화	① 신기술, 고기능에서 단순하고 본원적인 기능중심으로		
		~ 현재	향후
	소비 포인트	신기술, 다기능, 스케일 대	심플, 일상성, 대중성
	주마케팅대상	Early Adopter (10대 후반 ~ 20대 초반 남성)	Slow Adopter (20대 후반 ~ 40대 초반)
	주요 사례	PSP, 스타크래프트, 대형고급차	닌텐도DS, 구글, 중소형차
	② 기능적 효용성위주에서 감성가치를 추가하는 소비		
	소비 포인트	기능 중시, 컨버전스화	디자인 중시, 브랜드 중시
	주요 사례	기존 IT제품의 대부분	아이팟(애플), 레이저폰(모토로라), 스타벅스
	③ 롱테일대상의 마켓 비중 확대		
	소비 포인트	고부가제품, 고품질 서비스	단순간단한 제품, 서비스
주마케팅대상	고소득자(VVIP)위주, 오프라인마케팅	중산층, 온라인마케팅	
주요 사례	백화점	온라인 유통채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제품가치중심의 소비 트렌드는 신기술, 다기능위주로 개발되고 소비되었던 수요를, 단순하면서도 본원적인 기능중심의 소비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
 - 기존의 제품개발은 선도적인 소비자인 Early Adopter를 주대상으로해서 기술적인 우위나 복잡한 기능, 스케일의 방대함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반해, 최근의 소비자들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면서도 본원적인 기능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복잡하고 신기술을 선호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매니아들과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을 선호하는 현재의 대중적인 소비층(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사례는 PSP보다 콘텐츠가 훨씬 간단하고 조작성이 쉬운 닌텐도 DS의 성공이나, 검색이라는 본원적인 기능에 충실한 구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음

- 또한, 기존 대부분의 IT제품이 제품간 컨버전스를 통해 다기능화를 추구했던 추세에서 벗어나 기능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하고 있고, 다기능이 아니더라도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 애플의 아이팟이나 모토로라의 레이저폰이 경쟁제품보다 기능적으로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음에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이 뛰어나고,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에 대해 로열티를 갖고 있기 때문임
 - 브랜드중시경향은 스타벅스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임.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의 문화를 기꺼이 소비하는 경향을 보임

- 중산층의 확산과 롱테일경제의 확산 추세로 기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하던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의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 마케팅채널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오프라인채널보다는 온라인 유통채널상에서 상품간의 비교구매를 통한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이는 웹2.0시대의 도래로 마이크로미디어가 중시되는 추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2)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기업의 경쟁 원천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기업의 경쟁력 원천도 바뀌고 있음

- 과거 저원가, 다기능중심의 소비에서는 기업이 기술혁신이나 원가절감운동과 같은 이윤중심의 패러다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가치중심의 소비에서는 저원가를 추구하되 제품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됨
- 기술과 가격이 생산자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제품의 가치는 수요자가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경쟁 원천의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전

■ 경쟁 원천의 주도권이 소비자에게로 이전되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윤 확보가 더 이상 경쟁요소로 작용하기 힘들게 되었고, 대신 디자인경영이나 브랜드 로열티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음
- 과거에는 Market Share를 중시하면서 저원가, 저수익을 감내하고자 했지만, 현재는 소비자의 Mind를 공유하는 대신, 그 비용만큼을 수익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규모의 경제확보를 위해 매스미디어와 같은 단방향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에 치중했지만, 이제부터는 틈새시장(또는 블루오션시장)공략을 위한 마이크로 미디어의 비중이 커짐
- 제품개발측면에서도 제품의 고기능화를 위해 기기간의 컨버전스화가 중시되었지만, 현재의 소비자는 무조건적인 고기능화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컨버전스의 중요성이 낮아짐
- 변화된 소비 트렌드하에서도 시장세분화전략(소득, 연령, 지역 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전보다는 시장과 제품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음

■ 과거에는 저가격위주의 개도국 브랜드업체들이 경쟁 우위자였지만, 선진국의 브랜드업체들도 저가격화가 가능해지면서 경쟁 우위자도 바뀌고 있음

- 스웨덴의 이케아, 덴마크의 B&O 등 특정 영역에서 브랜드 로열티를 확보하고 있

거나, 노키아와 모토로라와 같은 선진국 브랜드업체들이 Low-end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좋은 예임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미국의 빅2(GM, 포드)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대신, Next4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닛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수요자중심의 제품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음

표 48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기업 경쟁력의 원천도 변화

	현재	향후
경쟁 원천	저원가 + 다기능(고품질)	가치(브랜드, 디자인) + 저원가
경쟁 원천의 주도권	공급자중심	수요자중심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 규모의 경제 확보 - Market Share중시 - 저원가, 저수익성 감수 - 매스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 벤치마킹전략, 컨버전스전략 유효 - 전통적 시장세분화전략(소득, 연령, 지역 등)이 중요	- Value Upgrade(브랜드 로열티, 디자인 경영) - Mind Share중시 - 저원가, 고수익성 추구 - 마이크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 틈새시장확보전략, 컨버전스화전략 유효성 감소 - 시장세분 + 제품가치의 매칭이 중요
경쟁 우위자	- 개도국 브랜드업체 - 시장지배적업체	-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업체 - 선진국 브랜드업체 - 개도국 ODM, EMS업체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산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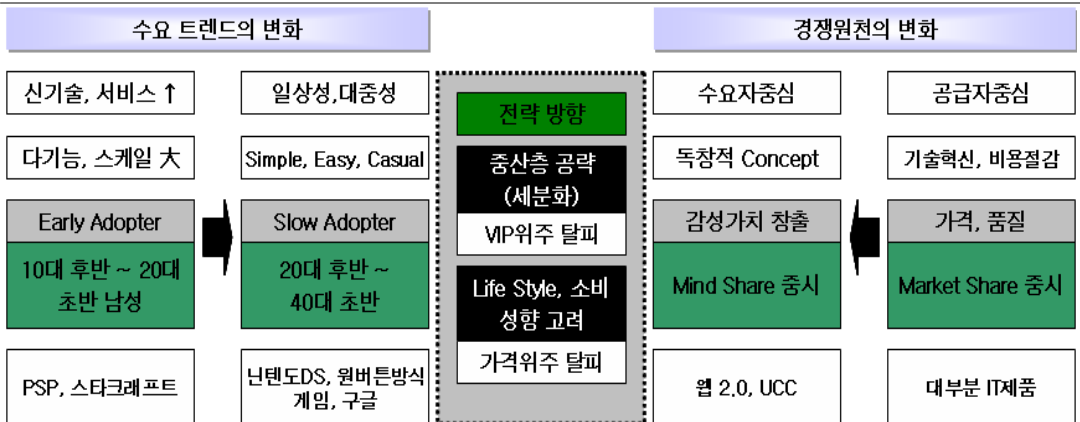
-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산업계의 대응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그 방향은 가격과 품질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수정되어야함
 - 특히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브랜드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그 방법의 하나로 디자인경영을 확산시킬 필요
 - Market Share확보를 위해 금전적 혜택을 주면서 고객 빼앗기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업체가 오히려 고객이탈이 심화되면서 마케팅비용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과거의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
 - 리콜제도도 기업의 약점이 아닌 브랜드관리전략의 하나라는 적극적인 인식도 필요

■ 마케팅측면에서의 변화도 필요함

- 롱테일경제의 확산으로 과거와 같은 VIP위주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소액 다수의 중산층을 집중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성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전략이 필요
- 광고채널도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매스미디어보다는 UCC와 같은 마이크로 미디어를 적극 활용

■ 아웃소싱의 개념도 기존의 비용절감측면을 위한 아웃소싱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과감하게 디자인과 연구개발기능까지도 포괄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함

그림 143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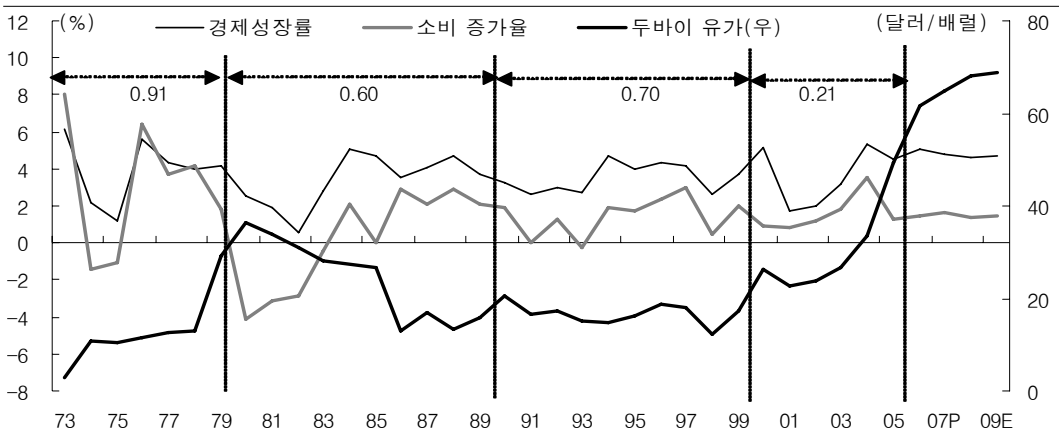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6. 국제 유가, 고공행진의 종착점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유가에 대한 수요 민감도 및 경제성장과의 연계성 감소

- 최근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76.56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과거 2차 오일 쇼크인 1980년말 최고치였던 42.25달러(11월 24일)를 이미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그러나 2005년 초에 이미 과거 최고치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는 물론이고 원유 최대소비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과거에 비해 원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크게 낮아져(1980년 47% → 2006년 37%)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진 것에 기인함
- 즉 경제 및 산업구조가 중화학산업 등 원유 다소비 산업에서 전기전자, 서비스업종 등으로 전환되면서 원유 의존도가 낮아졌고, 대체 에너지의 등장 역시 유가에 대한 민감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그리고 기업들의 연료 효율성 및 원료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점도 기업들의 체질 강화를 유도하였고 고유가를 극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144 두바이유가와 세계경제 성장률 및 원유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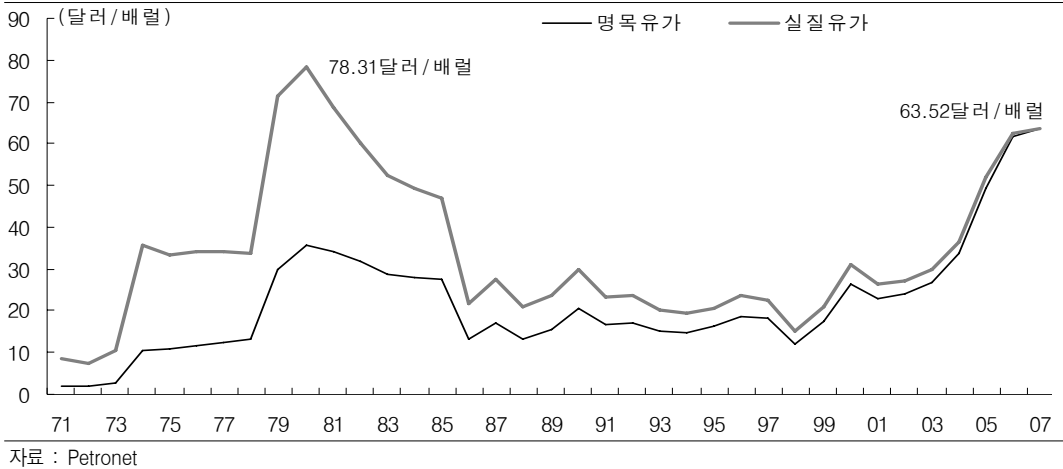


주: ()는 유가와 세계경제성장률과의 회귀식의 R²값임

자료 : Petronet,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또한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에 의한 저가 제품의 세계 시장 공급으로 인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었음
 - 즉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매우 양호하게 유지됨에 따라 견조한 소비가 유지될 수 있었음
 - 이는 원유 수요 증가 및 유가 초강세 시기에도 저금리 기조를 통해 견조한 세계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
 -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BRICs 등 이머징 국가의 부상이 유가와 무관하게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도하고 있음. 이들의 눈부신 성장은 유럽과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비 시장을 만들어 고유가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 유가와 경제 성장과의 회귀식에서 R^2 값이 70년대 0.9를 상회하고, 70~80년 동안 0.7을 상회하였으나, 80년대 0.6, 90년대 0.7, 2000년대 0.2, 90~06년 동안 0.3 수준에 불과하여 설명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산유국이 그동안의 고유가를 향유하면서 막대한 오일머니를 확보하였고, 이를 글로벌 경제에 재투자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경제의 선순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두바이유의 실질유가는 최고치인 1980년 92.65달러보다 낮은 수준
- 현재의 유가 수준이 물가 상승 등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실질유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
 - 즉 2007년 미국의 GDP디플레이터 수준을 고려하면, 1980년 최고치인 42.25달러의 실질유가는 92.65달러로 현재에 비해 약 16달러 정도 높은 수준임
 - 1980년 연평균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78.31달러로 2007년 연평균인 63.52달러에 비해서도 약 15달러 정도 높음
 - 결국 사상 최고의 유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경제 성장을 보이는 이유는 유가에 대한 경제 성장 민감도가 떨어진 것과 실질 유가 수준이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에 기인함
 - 특히 국내의 경우 유가가 초강세를 보이는 시기에 환율이 하락하여 원유 도입 가격의 인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다시 견조한 경제 성장을 유도하였음

그림 145 두바이유가의 명목 및 실질 유가 추이



■ 세계 경제의 둔화를 초래할 고유가의 임계점은 80달러 후반대로 추정

- 연평균 4% 대의 성장률을 이어오던 세계 경제가 유가 급등으로 인해 2.5%로 급락 하였던 1980년 연평균 실질유가가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 이후 고유가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여 1982년 경제 성장률은 0.6%에 불과하였음
- 과거 경험을 고려하면 연평균 유가가 과거 최고 수준인 78달러를 상회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과거에 비해 원유 의존도 및 민감도가 하락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내성을 키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 둔화를 야기할 유가 수준은 연평균 8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2008년 두바이 유가가 연평균 70달러/배럴 내외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 연평균 최고 유가 수준인 78.3달러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배럴당 8달러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급격한 경제 둔화 가능성은 낮은 편
- 또한 2007년 10월 현재 77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어 과거 실질유가 최고 수준인 1980년 92.65달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내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둔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제 둔화를 유도하는 유가 수준을 낮출 수 있음

- 그동안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던 중국 등의 역할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세계경제 둔화를 초래할 유가 수준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즉 중국 등의 인건비 상승, 제조원가 상승,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가격 인상, 달러화 약세에 따른 미국의 수입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중국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 둔화를 야기하는 유가 수준이 예상치(80달러 후반대)보다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수록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유가 수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으며, 연평균 80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하면 고유가에 대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
- 또한 연평균 배럴당 80달러 수준의 유가는 심리적 저항선으로도 판단되며, 80달러를 크게 상회할 경우에는 1980년대와 유사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및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유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실제 1980년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각 2.5%, 1.9%, 0.6%로 하락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원유 소비는 1980년 4.09%, 1981년 3.16%, 1982년 2.84% 감소함. 1983년에서야 경제성장률이 2.8% 증가하면서 원유소비 감소세가 0.48%에 그침
- 이 시기에 실질 국제유가 1980년 78.3달러에서 1983년 52.3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배럴당 20달러 이하의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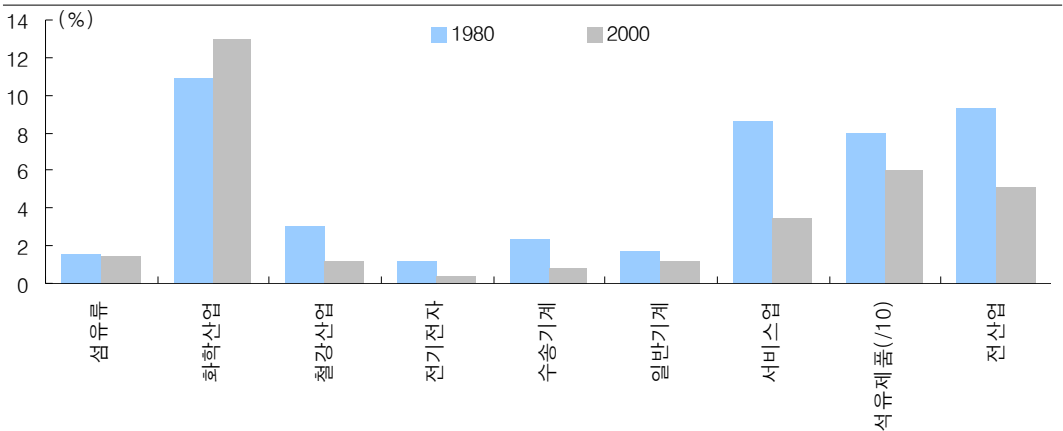
■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산업 성장은 지속 가능

-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유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음. 즉 설비 증설로 석유원료 수입이 늘어난 화학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업의 원유 의존도가 하락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고유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
-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원유 의존도가 낮은 IT, 기계, 운수장비,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 IT/기계/운수장비 비중이 1980년 7.3%에서 2003년 19.8%로 증가
- 서비스업의 원유 의존도가 과거 7~8%에서 현재 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산업

에서 차지하는 총서비스업 비중이 1980년 33.7%에서 2003년 42.7%로 증가한 것도 고유가 영향을 일부 완화시킨 요인임

- 석유원료 의존도 높은 산업,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1차적 영향권내에 속함
 - 정유, 화학, 섬유 등 석유원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철강, 시멘트, 유리, 비금속광물, 제지, 운송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IT,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건설, 기계, 금융 등에 비해 고유가의 영향이 지배적
 - 유가 10% 상승 시 전체 산업 및 제조업의 제조원가는 각각 0.76%, 0.98% 상승(원가상승분의 가격 전가가 없음을 가정). 특히 원유 투입비중이 높은 석유, 석유화학은 각각 5.74%, 3.38% 상승, 전력가스수도업, 운수산업 역시 각각 2.1%, 1.4%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비용상승 압력이 작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가 평균 80달러, 100달러에 이를 경우, 국내 전산업의 중간투입비용은 각각 15.0%, 20.7%씩 증가(원가상승분의 가격 전가가 없음을 가정). 제조업은 각각 19.4%, 26.7%씩 증가
 - 유가에 비교적 민감한 편인 정유, 석유화학, 비금속 광물, 철강 등은 경기가 상승사이클에 놓여 있어 원가 상승분의 가격 전가가 용이하고, 유가와 관련한 각종 헷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유가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음

그림 146 주요 산업의 원유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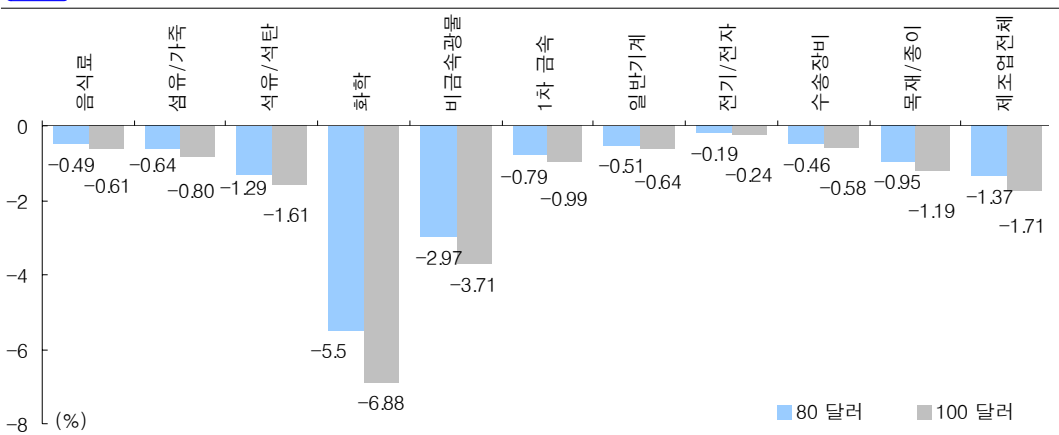


주: 원유 의존도는 해당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투입액 중 원유 및 석유제품의 투입비중임
 자료: Petronet,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유가 평균 80달러 시 제조업 부가가치 1.4% 감소, 서비스업 0.63% 감소

- 유가 상승 시 화학,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섬유/가죽, 1차 금속, 전력가스 산업 등의 부가가치 하락이 상대적으로 큰 편. 유가 80달러 시 부가가치가 화학 5.5%, 비금속광물 3.0%, 종이목재 1.4%(원가상승분의 가격 전가가 없음을 가정) 감소
- 전기전자, 수송장비, 일반기계, 음식료, 건설업 등은 유가가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편이나,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외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간접적 영향을 받음
- 경기가 상승사이클에 놓여 있어 가격 전가가 용이한 산업(정유, 석유화학, 1차 금속)들은 수익 악화 폭이 크지 않지만 플라스틱, 고무, 섬유 등은 수익성 악화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한편 평균 유가 1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고유가를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크게 상회하게 되어 원유 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 등 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유가가 평균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전산업의 부가가치는 1.2% 감소, 제조업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7 유가 평균 80달러, 100달러 시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율



주: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을 제품가격으로 전가하지 않을 경우임
 자료 : 산업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원가전가력이 낮은 플라스틱, 고무, 섬유 등의 수익성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남
 - 정유 업종의 원가 전가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예상되며, IT, 통신, 수송장비, 철강 등은 이익률이 비교적 높고 유가 영향이 낮은 편이어서 고유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화학,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비철금속, 금속, 섬유, 종이/펄프 업종은 고유가의 1차적 영향권에 속한 업종임
 - 원가 부담의 전가 능력에 따라 업종 내에서도 유가 상승 영향이 차별화됨. 정유업종은 원가 전가력이 높고 유가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아 정제 마진이 증가하고, 조선업종은 유전개발 및 유조선 수주 등 특수가 예상됨
 - 석유화학 중 기초유분은 내수 비중이 높고 수직계열화가 완성되어 있고 상승사이클에 놓여 있어 원가전가력은 높은 편임. 반면, 플라스틱, 화학섬유 등은 원가 전가가 쉽지 않아 부정적임
 - 제지, 운송업종은 에너지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원가 부담이 불가피함. 항공업은 유가에 민감한 편이나 유류할증제 도입으로 일부 고유가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음
 - 철강, 비금속광물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으로 유가 영향이 불가피하나 LNG, 석탄 등의 가격 변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가 상승시 이들 원료 가격 상승도 동반되고 있어 유가 영향이 불가피. 다만 경기가 상승사이클에 놓여 있어 일정 부분은 원가 부담 전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IT, 기계, 건설, 자동차, 전력, 가전 등은 고유가 직접적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수출 둔화에 대한 2차적 영향이 불가피

표 49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구분	내용	파급효과	
긍정적 업종	조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유전개발 특수, 유조선 수주로 긍정적	수주당시 가격에 결정되어 공사도중 유가 인상 반영 어려움
	정유	원가 전가력 높은 편이고 유가에 대한 수요 탄력성 낮은 편	정제 마진 증가하고 일부 헷징 전략 구사하나 경기 둔화시 부정적 영향 존재
	해운	유가 영향은 수송용 연료에 한정, 해상 물동량 증가 가능	경제 둔화에 따른 물동량 둔화가 문제
부정적 업종	석유화학	수직계열화 여부에 따라 가격 전가력 차별화, 현재 경기가 상승사이클 위치	기초유분, 합성수지는 원가 전가력 유지, 플라스틱은 부정적
	섬유	제조원가의 석유의존도 42%로 높고 가격 경쟁력 약함	가격 전가력 낮아 원가 부담 불가피
	제지	제조원가 중 에너지 비중이 약 20%로 고유가 부담 불가피	헷징 프로그램 미미하여 수익 약화 불가피
	항공	항공유 비용이 매출원가의 약 20% 차지하는 등 유가에 민감	유류할증제 시행으로 유가 부담 일부 해소, 헷징 프로그램 진행
	철강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고유가 영향 일부 존재	유가보다는 LNG, 석탄 가격이 지배적
	운송	연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어서 유가 상승이 수익 약화에 직결됨	정부의 유류비 보조는 제한적이어서 수익 약화 불가피
	중립적 업종	IT/반도체	고유가 부담 낮은 편
정보통신	고유가 영향 미미	국내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문제	
중립적 업종	기계	유가보다는 일반 원자재 수입 가격 변동 영향이 큰 편	열교환기, 중전기 부문의 성장 예상 원유 개발 가속화되어 반사이익 가능
	건설	유가 10달러 상승시 총공사비 1.8% 증가 등 유가 영향 미미	건설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용 상승. 플랜트는 반사이익 기대
	자동차	전력이 주 에너지원으로 수익의 유가 민감도 낮은 편	연료비 부담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불안이 문제
	전력	전력 생산의 45%를 원자력이 담당	석탄, 가스에 따른 영향이 더 지배적
	가전	유가 영향 받는 합성수지 재료 비중이 원가의 5% 미만	수송비용 부담 불가피,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VIII 2008년 산업별 주요 이슈

1. 2008년 세계개편에 따른 제 3자 물류 시장의 변화
2. 유통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차세대 기대주, 친환경전문점
3.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 철강시장
4. MVNO 제도 도입 및 요금안화에 따른 영향
5. 국내 조선산업의 투자 리스크 분석

1.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제3자 물류시장의 변화

- 2008년부터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2006년 종합물류기업인증과 논의되던 제3자 물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2008년부터 시행
 - 주요 내용은 자가 또는 제2자 물류로 처리하던 화물을 ‘제3자 물류기업’에게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임. 이 경우 ‘제3자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을 말함
 - 공제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임
 - 공제율은 (당해년도 지출 위탁물류비 - 전년도 지출한 위탁물류비)×3%이며 다만, 제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됨. 또한 최초로 적용하는 때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 세액을 공제함
 -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임

표 50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04의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① (당해년도 지출 위탁물류비 - 전년도 지출한 위탁물류비)×3% - 다만, 제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배제 ② 최초로 적용하는 때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자료 : 재정경제부

- 물류인프라 확대를 위해 물류관리정보시스템 구축시에도 세액공제
 - 제3자 물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RFID관련 물류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함. 정부에서는 이러한 물류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세

액공제를 허용할 방침임

- ‘물류관리정보시스템’설비란 창고관리, 운송관리 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루션을 통칭하며, 공제율은 투자금액은 3%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함

표 51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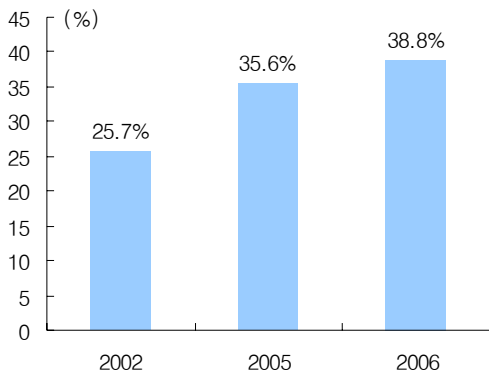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 <추 가> ○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7%)	-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설비 * 창고관리, 운송관리 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루션

자료 : 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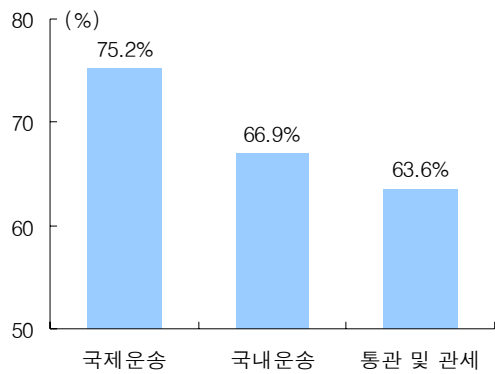
■ 최근 들어 국내 제3자 물류시장의 확대

- 국내 물류시장은 제2자 물류기업들의 비중이 높으며, 그에 따라 제3자 물류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은 편임.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국내 화주기업들이 제3자 물류기업을 이용하는 비중은 38.3%(2006년 기준)에 불과해 미국과 유럽의 70~80%, 일본 및 싱가포르의 60%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의 제3자 물류 이용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006년 기준으로 제3자 물류를 이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38.3%로 나타나, 2002년의 25.7%, 2005년의 35.6%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기업들이 제3자 물류를 이용하는 분야는 주로 국제운송, 국내운송, 통관/관세 부문

그림 1498 국내 업체들의 제3자물류 이용 비율 **그림 149** 기업들이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분야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세제지원에 따른 혜택은 종합물류인증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21기업 및 기업군에 대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 화주기업들이 제3자 물류기업을 이용할 경우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기존에 자가물류 및 제2자 물류를 통하여 처리하던 화물을 제3자물류기업에게 위탁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제3자 물류기업들은 물류관리정보시스템에 설비투자시 세액이 공제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제3자 물류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혜는 종합물류인증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제3자에게 물류를 위탁할 경우 화주기업들은 비용감소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물류의 안정성 및 사내 정보 유출 방지에 큰 관심이 있음. 정부로부터 종합물류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화주기업들은 종합물류인증기업들에게 물류를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제2자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내 물류시장이 제3자 물류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대기업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물류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52 종합물류인증 기업

구분	기업명 (제휴기업명)	제휴업체
1차	(주)동방	-
	대한통운(제휴)	대한통운(주), 대한통운국제물류(주)
	(주)선광	-
	유니온스타로직스	태영상선(주), 우련통운(주), 우련옥운(주), 한국통운(주), 태영산구국제물류(주)
	천일정기화물자동차(제휴)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모터프레이트
	한솔CSN(제휴)	한솔씨에스엔(주), 삼육트랙터(주)
	(주)한진	-
	(주)현대택배	-
	KCTC(제휴)	(주)케이씨티시, 고려종합국제운송(주)
	LOEX(제휴)	동원산업(주), (주)동영월드프라자, 조양국제종합물류(주)
2차	국제통운(주)	-
	(주)대한송유관공사	-
	동부건설(주)	-
	세방	세방(주), 세방익스프레스(주), 해외항공화물(주)
	영진공사	(주)영진공사, 동남이종합운수(주)
	유성CLAKO	(주)유성티엔에스, (주)크라코인터내셔널
	천경해운	(주)천경, 천경해운(주), (주)동진
	홍아종합물류	홍아해운(주), (주)국보
	CJ GLS	CJ GLS(주), (주)진양로지스틱스
	ICC	고려해운(주), (주)고려해운항공, 울산컨테이너터미널(주)
	KIFT	한국복합물류(주), (주)거보운수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2. 유통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차세대 기대주, 친환경전문점

- 할인점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유통시장은 ‘백화점 vs 할인점’의 양강구도를 보임
 - 할인점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통시장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두 시장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가운데, 인터넷쇼핑몰·TV홈쇼핑 등의 무점포소매업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0년간 할인점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쇼핑 행태변화에 근거함. 과거 근처 재래시장에서 수시로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던 시기를 지나 최근에는 맛별이 가정의 증가에 따른 쇼핑 시간 부족으로 주말에 일주일치 장을 보는 서구식으로 변화
 - 급격한 성장을 거친 할인점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점진적인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 업체들도 과거 무조건적인 가격할인에서 탈피, 식품이력추적 및 신선도·당도 유지, PB 강화 등 내실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임

- 웰빙 열풍과 소포장 선호 경향으로 친환경전문점의 수요가 급증
 - 수년간 지속되어 온 ‘웰빙(Well Being)’ 열풍은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단순히 저렴한 식품 대신 무농약·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이 같은 추세는 한 가구당 자녀수가 감소하고 가정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양질의 식사를 추구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국내에서는 1981년 풀무원이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면서 친환경 전문점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5년에는 한겨레플러스가 운영하는 ‘한겨레마을’이 등장
 -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은 2000년 ‘내추럴홀푸드’를 거쳐 2004년 ‘올가홀푸드’로 브랜드명을 바꾸면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였음. 현재 7개의 직영점과 1개의 가맹점, 13개의 SIS 매장을 운영
 - ‘한겨레마을’은 2002년 브랜드명을 ‘초록마을’로 변경하고 이후 ‘초록마을 오리쌀’, ‘초록마을 감자라면’ 등 PB 상품을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영업 개시,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200개의 매장을 운영 중
 - 초록마을과 올가 외에도 신사에서 운영중인 ‘허클베리팜스&힐그린’과 한국동아제

분의 ‘해가운’ 등이 영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G케미칼이 ‘오르페라’라는 친환경 전문점을 오픈하였음

■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거쳐 현재는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

- 2003~2004년에는 친환경전문점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유기농식품에 대한 불신과 할인점 대비 1.5~2배 가까이 차이나는 가격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층에서만 이용
- 이후 업체들은 재정비를 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 2006년 말 기준으로 주요 친환경전문점 4개사는 약 1,23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음. 선두주자인 초록마을과 올가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20%와 27%의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초록마을은 20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표 53 주요 친환경전문업체 현황(2006년)

브랜드	업체명	매출액(억원, 증감율)	점포수(개)
초록마을	한겨레플러스	600(20%)	196
올가	올가홀푸드	310(27%)	21
허클베리팜스&힐그린	신시	200	113
해가운	한국동아제분	125	15
오르페라	KG케미칼	-	-

자료 : 2007 유통업체연감, 각 업체 홈페이지

■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향후 틈새시장 공략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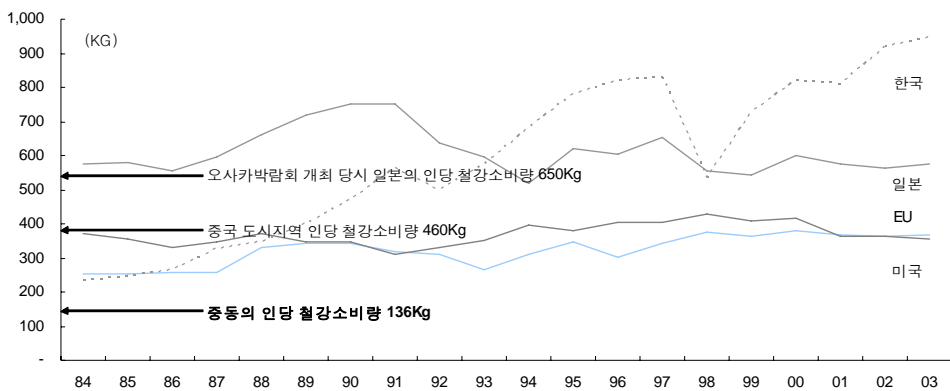
-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식품 구매에도 직결되어 과거 할인점에서 가격의 저렴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구매하던 쇼핑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식품 첨가물의 폐해, 부정확한 유통과정상의 문제점 등이 각종 매스컴에서 지적되자 소비자들의 친환경 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 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소비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어 친환경전문점과 같은 전문점은 성숙기에 접어든 유통시장에서 기존 유통채널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전문성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에는 무리한 점포 수 확장에서 탈피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및 PB상품 개발로 수요자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

3.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의 철강시장

■ 중동의 건설투자 붐으로 철강 수요 급증세

-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중동지역의 건설투자가 붐을 이룸에 따라 현재의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중동지역의 철강 수요는 판재류(Flat products)보다는 주로 토목,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철근과 H-Beam 등 봉·형강류(Long products)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현지 조사기관에 따르면 중동의 철강 수요는 2007년에 7,000만톤에서 2010년에는 9,000만톤으로 증가할 전망
- 중동의 철강 소비량은 2005년 3,470만톤에서 2006년에는 4,550만톤으로 31.1%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7,33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인당 철강소비량은 136kg으로 선진국의 400~600kg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소비증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국가별로는 UAE가 2006년에 640만톤의 철강재를 수입한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품목별 생산비중은 봉·형강류와 판재류가 각각 80%와 20%를 차지

그림 150 국가별 1인당 철강소비량 비교



자료 : 세계철강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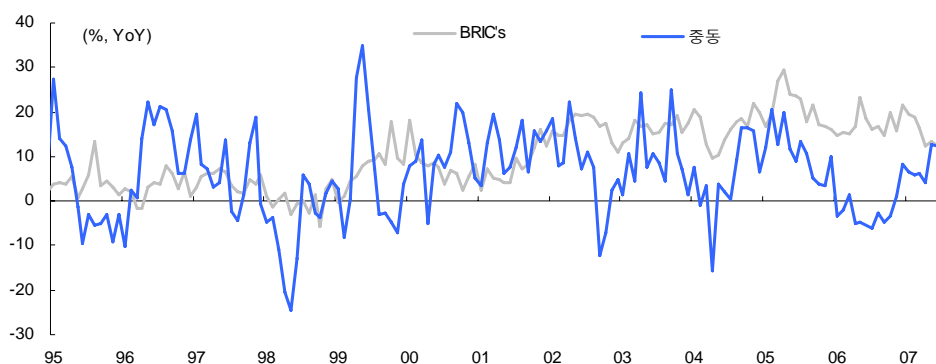
■ 최근 생산능력 증설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로 공급부족상황 지속될 전망

- 역내 철강 생산량은 1997년 1,410만톤에서 2004년에는 2,160만톤으로 증가했으

며 2010년에는 2,890만톤에 달할 전망. 업체별로는 중동 최대의 철강사인 이집트의 EZZ Steel이 460만톤을 생산했으며 Saudi Iron & Steel이 380만톤을 생산함

- 최근 중동지역의 97개 철강업체의 생산설비 신·증설이 진행되고 있어 2006년에 1,540만톤이었던 조강생산량이 2010년에는 2,6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급도 부족으로 수입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걸프만 연안 국가들은 2010년까지 견고한 건설 수요로 6,443억 달러규모의 철강재를 소비하고 석유화학 시설 건설 프로젝트 시장이 1,100억 달러,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이 1,977억 달러, 전력 부문이 716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
- 가장 큰 규모는 쿠웨이트 Subiya 지역의 도시 주택 건설로 2008년 4분기 시작되는 이 프로젝트는 200억 달러의 철강재를 소비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4분기로 예정된 ‘Aramco-Ras Tanura Integrated Refinery & Petrochemicals Complex’ 프로젝트 또한 160억달러 규모의 철강재를 소비할 전망
- 2007년 4분기 중에 착공될 예정인 아랍에미레이트의 ‘Aldar-Mina Zayed’ 港 개발 공사는 150억 달러의 철강재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
- 이라크·레바논·수단 등의 전후 건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의 인구는 매년 5백만명씩 늘고 있어 향후 주택 수요도 증가할 전망

그림 151 중동과 BRICs의 조강생산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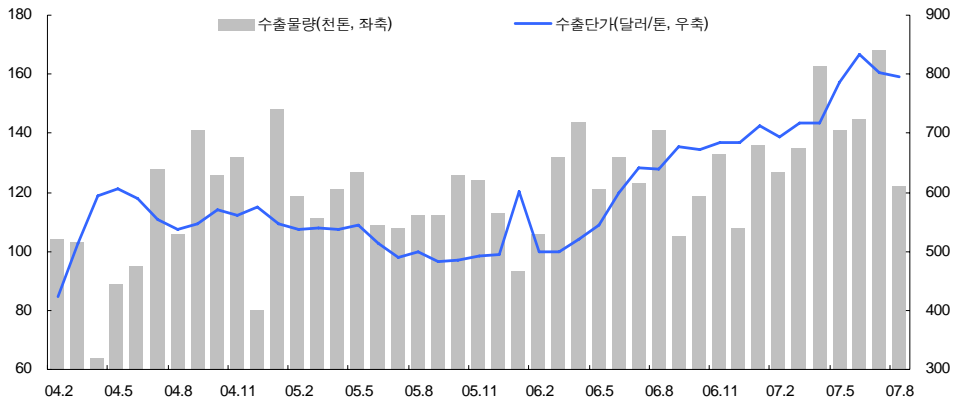


주 :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리비아 4개국의 합계임
 자료 : Datastream

■ 국내 봉·형강류 및 강관 제조업체의 수혜 예상

- 중동의 건설투자 붐에 따라 토목·건축용 강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됨
- SOC 투자에 필수적 소재인 H-Beam 및 강관에 대한 중동의 생산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의 중동향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철강업계의 철강재(Finished Steel 기준) 총수출량이 지난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7.0% 증가했으나 형강과 H-Beam은 중동향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각각 16.3%, 22.7% 증가했음
- 지난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중동지역은 전년동기비 12.0% 증가하여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음. 물량 기준으로는 95.8만톤으로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 등에 이어 5위에 그치고 있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에 6.8%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9.9%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중동의 봉·형강류 수입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 대형 형강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 등의 전기로제강사와 강관(Pipe)을 생산하는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등 강관메이커의 수혜가 예상됨

그림 152 국내 철강업계의 형강수출량 및 수출단가 추이



자료 : 한국철강협회

4. MVNO 제도 도입 및 요금인하에 따른 영향

- MVNO²⁾ 제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확대가 목적
 - 정보통신부는 2008년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 이는 기존의 이동통신사로부터 주파수와 네트워크를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독자적인 브랜드와 요금제를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판매와 구별되며 MVNO 사업자는 통화료뿐 만 아니라 기본료를 수익한 후 MNO³⁾에게 망 이용대가만을 지불함
 - 일반적으로 MVNO 제도는 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소매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신규 진입을 유도하여 시장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유럽 등의 성공적인 MVNO 케이스는 대부분 요금에 민감한 가계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단순하고 저렴한 요금제 및 유무선 통합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전반적으로 MVNO제도는 세계적으로 저렴한 요금, 신규 서비스 및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경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표 54 세계 시장 내 MVNO 진입 효과

국가	MVNO 제도 도입에 대한 규제기관 견해
덴마크	낮은 요금과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와의 결합 상품 출시
핀란드	요금 인하 폭이 MVNO 제도가 도입된 2003년 6.9%에서 2004년 9.9%로 높아짐
네덜란드	SIM 카드와의 동반 도입으로 인해 소매 요금 인하 가속화
노르웨이	2004년 기준 MVNO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 MVNO 진입 이후 소매요금의 여러차례 인하되었으며 신규 요금제 및 서비스 출시
스웨덴	통화시간이나 착신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분당 요금을 과금하는 정액제 출시 이후 기존 사업자들의 요금 역시 인하되는 효과 유발
프랑스	MVNO는 MNO의 표준 상품에 Naked SIM을 제공하거나 무약정 계약 및 소폭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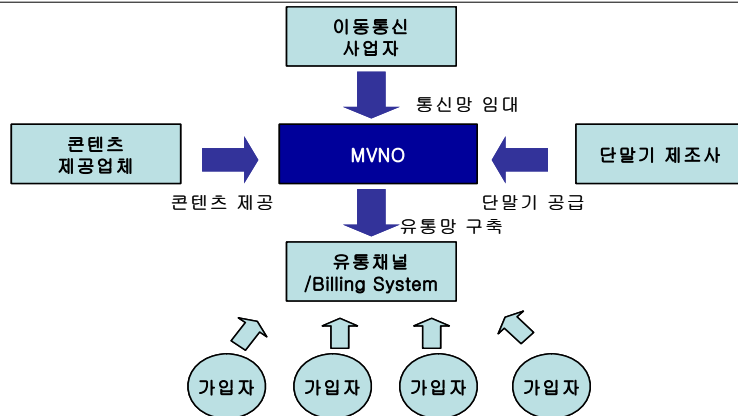
자료: ERG(20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3) MNO: Mobile Network Operator(이동통신망사업자)

- 이동전화요금 인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자율적인 요금 경쟁 활성화
 -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소모적인 경쟁을 요금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망내 할인을 골자로 함
 - 망내할인 허용으로 인해 후발업체들은 시장 지배자의 지배력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이에 정보통신부는 요청 사업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50%의 할인율을 허용하되, 사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집중도가 심각해 진다면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가 시 조건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
 - 망내할인제도는 OECD 30개국가 중 20여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망내할인제도를 통해 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20~30% 인하되었음

그림 153 MVNO 서비스 개념도



자료: 정보통신부

- 낮은 수익성 및 높은 시장 침투도로 인해 MVNO 제도 정착은 쉽지 않을 듯
 - MVNO의 경우 우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와 소규모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 사업자에게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우선 요금 인하 경쟁으로 인해 MVNO 사업자의 가입자당 매출은 기존 사업자 대비 작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 역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및 망임대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또한 MVNO는 통신망 외 고객관리, 일부 전송망 및 교환기 등의 설비 구축이 필수

적일 뿐 만 아니라 유통채널 구축 및 휴대폰 구매 부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여 향후 MVNO 정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성숙기 시장으로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유래없이 치열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향후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MVNO 제도를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는 어려울 듯

- 기본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망내할인의 경우 매출 하락을 일으키지는 못할 듯
 - SKT는 2007년 10월 망내할인제도 도입을 확정하였으나, 후발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시행은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적으로 망내할인은 같은 통신사 간 통화 시간이 긴 고객에게 유리한 제도로, SKT의 경우 망내할인 시 기본요금을 2,500원 가량 인상하였음. 따라서 10초당 20원인 표준요금제도를 채택한 경우 SKT 고객 간 통화 시간이 41분(2,500원의 추가 부담금에 상응하는 2,500초, 즉 41.6분) 이상 되어야 고객이 이득인 것으로 계산됨
 - 따라서 기본요금이 동반 인상되는 망내할인은 진정한 의미의 요금할인 경쟁이라고 보기 힘들며, SKT의 시장 집중도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매출 하락 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업체들의 타격 역시 적을 것으로 보임

표 55 SK텔레콤 요금 인하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출시시기
자사 고객 간 할인 (망내할인)	일반 이용자: 월정액 2,500원 추가 및 음성/영상 통화 50% 할인 청소년 상한 요금제 가입자는 월정액 1,000원 추가 및 음성/영상 통화 50% 할인	2007년 10월
SMS 인하	건당 10원 인하	2008년 1월
소량 요금제 출시	기본료 9,900원, 통화료 25분까지 10초당 20원 부가 및 25분 초과 시 10초당 40원 부가	2007년 10월
선불카드 다양화	5,000원권 신설 1만원권의 경우 1개월에서 2개월로 기간 연장	2007년 11월
청소년 요금제 개선	정보이용료 상한제 포함	2007년 12월

자료 : SK텔레콤

5. 국내 조선산업의 투자 리스크 분석

■ 2004년 이후 조선산업의 호황속에 다수의 신생업체가 시장에 진입

- 2004년 이후 성동조선해양, SPP해양조선, 대한조선, 고려조선 및 C&중공업과 같은 신생 조선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진세중공업, 혼우철강 등 블록생산업체가 신조시장에 진입
- 신생업체 설립과 대규모 설비투자로 기존의 중·소형 조선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정책과 일본 조선업체의 대규모 시설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선가하락 및 조선산업구조 왜곡에 대한 우려가 발생
- 2007년 조선업체들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조8천7백억원을 설비투자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중소조선업체의 경우 내부자금을 통한 투자는 63.2% 정도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 매년 증가하여 31.6%에 이르고 있음
- 신생조선업체들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를 전제조건으로 2008년 이후 납기의 선박들을 대량 수주함. 이는 인력의 대규모 충원과 운영자금의 차입이 필수적이며, 납기준수를 위해 선박건조에 필요한 조선용후판과 비철금속의 적기 조달을 필요
- 후판은 조선업체의 제조원가에서 16%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원자재로 통상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매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및 신생업체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을 통한 공급망 확보가 어려운 상황

■ 한국·중국·일본 3국의 후판 수요 증가로 후판 공급량이 부족할 전망

- 한국·중국·일본의 건조량 증가로 인하여 2006년 대비 12.7% 증가한 1,819만톤의 후판이 소요될 전망
- 조선산업의 호황과 일본내 건설수요 증가, 세계 에너지 배관용 수요의 급증으로 전세계 후판 수급은 매우 타이트한 상황임

표 56 주요 조선국 후판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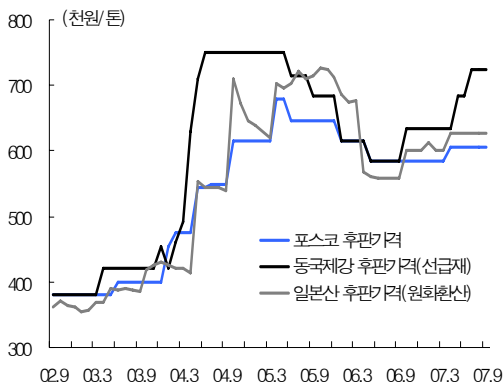
(단위 : 만톤)

구분	한국	일본	중국	합계
2006	600	440	574	1,614
2007	752	450~460	617	1,819
증가량	152	10~20	43	205

자료 : 한국조선협회, 산업자원부, 일본철강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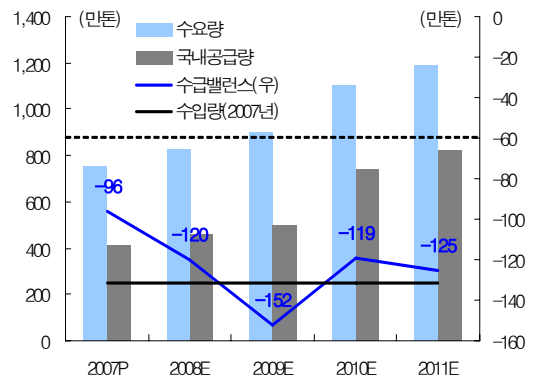
- 일본의 경우 도시 재개발용 철골 수요가 증가하고 하네다 공항의 증설 및 산업기계용 수요가 증가하여 2006년대비 2.3% 증가한 450만톤의 후판이 소요될 전망. 이는 자국내 후판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전망
- 중국은 2005년까지 연평균 30%의 후판수요량이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30% 증가하였음. 신규 증설된 설비가동이 지연되고 수출물량이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한국 조선업체의 경우 기존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과 신설 조선소 가동으로 2006년보다 152만톤 증가한 752만톤의 후판이 소요될 전망
- 대형조선업체의 경우 62만톤, 중소형 조선업체의 경우 90만톤 가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포스코, 동국제강 등 국내 공급은 408만톤에 그칠 전망이며, 수입은 248만톤으로 추정되어 96만톤 정도의 공급부족이 예상됨

그림 154 조선용 후판가격 추이



자료 : 한국조선협회

그림 155 조선용 후판 국내 수요, 공급 전망



자료 : S&S철강산업연구소, 한국조선협회

■ 후판 공급부족은 중소·신생업체의 수익성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동국제강의 150만톤 규모의 후판공장 신설과 포스코의 200만톤 공장, 현대제철의 150만톤 일관제철소 신설이 모두 2009년 이후에나 준공되어 2008년과 2009년의 국내 공급물량 증가는 어려울 전망
- 수입물량의 추가확보가 없을 경우 2009년 국내 조선업체는 152만톤의 후판 물량이 부족하여 선박의 건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후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수입물량의 증가가 시급하나, 일본과 중국

모두 내수 물량의 우선적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수입물량 확보도 어려울 전망

- 현대, 대우, 삼성의 경우 중국의 사강, 보산 및 남경과 후판 조달 MOU를 기체결하여 상대적으로 물량확보가 수월하나 구매물량이 적어 후판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 및 신생업체의 경우 2008년분부터 후판 수급이 매우 어려울 전망
- 최근 포스코, 동국제강 및 일본산 후판가격이 모두 인상되었으며 후판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후판공급물량 부족과 함께 중소기업 및 신생업체의 수익성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57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조선업체의 설비 증설 현황

업체 및 지자체	위치	규모	설비 증설 계획	비고
전라남도	전남 해남, 신안	중형조선소 3곳	해남 문내 180만평, 신안 지도 30만평 신안 압해 18만평	계획중
전라남도	전남 해남, 장흥, 여수	소형조선소 4곳	해남 황산 3만6천평, 장흥 회진 3만평 여수 돌산 2만8천평	입지타당성 검토중
군산 지자체	전북 군산	군장공단내 조선소 유치중	1단계 : 블록공장 건립 2단계 : 조선소 건립	검토중
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	동해면 내산, 양촌, 용정, 장좌 일원 127만평, 2012년까지 목표	추진중
경남 통영시	경남 통영	조선산업특구 조성	2010년까지 안정공단 주변의 안정, 덕포, 법송 지구의 117만평 규모의 조선단지 조성 SLS조선,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성진지오택, 가야중공업, 21C조선, 강림중공업	
C&중공업	전남 목포	조선소 설립중	C&그룹이 4만4천평 중형조선소 건설중	공사중
SLS조선	전북 군산	3단계로 블록공장, 조선소설립	군장공단내에 36만4천평의 조선소 설립 2008년 상반기까지 1700억원으로 블록공장 2010년까지 3500억원으로 조선소건립	MOU체결
대한조선	전남 해남	20만톤급 벌크선, PC 대형조선소 설립	대주그룹이 Dry Dock방식의 100만평 규모 대형조선소 건립중, 1Dock는 오는 8월, 2,3Dock는 2008년까지 완공 목표	공사중
SPP조선	경남 사천	7만톤급 중형조선소 설립중	진사공단내에 2500억원규모의 투자 진행중	공사중
신안중공업	전남 신안	1만~5만톤급 탱커, 컨테이너선 건조 중형조선소 설립중	2007년 하반기 1차로 740억원 투자로 3만9천평 조선소 완공, 2,3차로 1650억원 투자로 26만평 규모의 조선소 확장 목표	공사중
중앙조선	전남 목포	4만5천톤급 중형 조선소 설립	Slipway 방식의 중형조선소 설립 검토중	계획중
고려조선	전남 진도	30만톤급 중대형조선소 설립	1440억원 투자로 22만평 규모 조선소 건설, 2008년 완공 목표	공사중
삼호조선사업	경남 고성	고성군과 공동 추진	4300억원 규모의 투자로 조선단지 설립 추진중	추진중
가야중공업	경남 통영	블록공장 증설 및 장기적 신조진출	메가블록 제작을 위한 증설, 장기적으로는 신조시장에 진출 목표로 추진중	투자검토중

자료 : 한국조선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업체자료 종합

2008년 산업별 수급 전망

(YoY, %)

산 업	기준	생산				내수				수출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반도체	금액	1.4	-1.4	4.7	3.6	1.1	-1.7	2.6	1.3	1.8	0.3	6.4	5.3	
디스플레이	물량	-7.7	-5.8	-6.8	-9.9	21.2	38.6	31.2	27.4	-11.1	-12.7	-14.2	-14.8	
휴대폰	물량	-8.0	-2.2	-3.1	-8.1	3.0	5.0	4.9	5.1	-5.0	-1.0	-5.2	-6.1	
통신	유선통신	매출액	-	-	-	-	8.6	9.2	12.0	12.5	-	-	-	-
	무선통신	매출액	-	-	-	-	3.5	7.6	5.4	5.6	-	-	-	-
인터넷 포털	매출액	-	-	-	-	30.8	30.9	29.3	27.2	-	-	-	-	
SW/IT	SI	매출액	-	-	-	-	-0.1	10.0	6.0	0.1	-	-	-	-
	SM	매출액	-	-	-	-	2.0	3.0	4.0	7.0	-	-	-	-
CA	SO	매출액	-	-	-	-	6.0	8.0	1.0	1.0	-	-	-	-
TV	PP	매출액	-	-	-	-	20.0	10.5	7.0	6.0	-	-	-	-
화학	정유	물량	5.3	5.8	6.6	5.7	4.4	3.8	4.4	4.0	9.2	8.4	9.3	7.7
	합성수지	물량	-0.2	1.4	0.1	0.1	-0.9	2.0	1.3	0.1	0.2	5.0	3.0	4.0
	기초유분	물량	4.0	5.0	3.0	4.0	2.3	3.5	3.0	4.2	6.5	8.0	9.1	7.9
	화학섬유	물량	-6.0	-8.0	-6.1	-7.9	-15.0	-13.8	-15.0	-13.0	0.4	1.0	6.2	3.2
금속	철강/판재류	물량	3.7	3.9	4.1	4.4	4.8	5.3	3.9	5.3	1.2	0.5	5.0	2.2
	철강/봉형강류	물량	3.5	3.1	2.8	3.5	5.1	4.8	5.3	6.2	-1.1	0.1	-9.0	-9.5
	비철금속	물량	2.8	3.2	4.0	4.7	2.5	3.2	2.8	3.7	5.7	5.9	5.4	7.0
조선	건조량	2.0	-13.1	1.4	16.0	14.0	03.0	03.0	15.0	30.6	14.5	9.0	8.3	
자동차	물량	7.9	4.5	12.1	2.6	8.5	11.5	5.9	7.8	7.5	4.5	7.6	1.4	
기계	생산수	5.5	1.0	0.8	0.8	-	-	-	-	-	-	-	-	
제지	물량	1.3	2.4	-1.9	0.7	3.1	7.3	-1.8	3.3	0.0	-4.3	7.7	-1.3	
해운	매출액	-	-	-	-	26.9	16.9	4.3	0.0	-	-	-	-	
항공	매출액	-	-	-	-	9.5	11.0	8.4	8.4	-	-	-	-	
제약	매출액	-	-	-	-	4.9	6.3	7.4	7.0	-	-	-	-	
제분·제당	물량	-0.1	0.1	0.5	1.2	0.5	-0.4	0.8	1.7	-1.8	1.3	-3.4	-1.2	
유통	백화점	판매액지수	-	-	-	-	3.0	3.4	3.5	6.7	-	-	-	-
	할인점	판매액지수	-	-	-	-	9.0	9.3	6.6	12.1	-	-	-	-
	온라인 쇼핑물	판매액지수	-	-	-	-	12.0	11.2	14.6	11.8	-	-	-	-
건설	수주액	금액	-	-	-	-	-0.2	-6.4	6.0	3.3	-	-	-	-
	기성액	금액	-	-	-	-	1.8	3.0	6.9	5.7	-	-	-	-

자료 : Hana Forecasting Model

2008년 산업별 경기

산 업	생산		내수		수출		수익성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재료								
반도체 장비								
이동통신 단말기								
전선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조선			-	-				
철강								
비철금속 제련								
정유								

주 : : 호황, : 안정 성장, : 다소회복, : 정체상태, : 다소부진, : 불황
 기상도는 전년동기비 증가율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

산 업	생산		내수		수출		수익성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석유화학								
화학섬유								
해운	-	-	-	-	-	-		
항공	-	-	-	-	-	-		
소매유통	-	-			-	-		
의류								
제분·제당								
제약								
제지								
건설			-	-	-	-		
통신서비스	-	-			-	-		
유선방송	-	-			-	-		
인터넷 포털	-	-			-	-		
SW 및 IT서비스	-	-			-	-		

주 : : 호황, : 안정 성장, : 다소회복, : 정체상태, : 다소부진, : 불황
 기상도는 전년동기비 증가율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

2008년

하나산업전망

07-2008년 제2권(4호)

2007년 10월 13 일 인쇄

2007년 10월 15 일 발행

발행인 장하원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대한투자증권빌딩 12층

대표전화 2002-2200

인쇄 한양기업